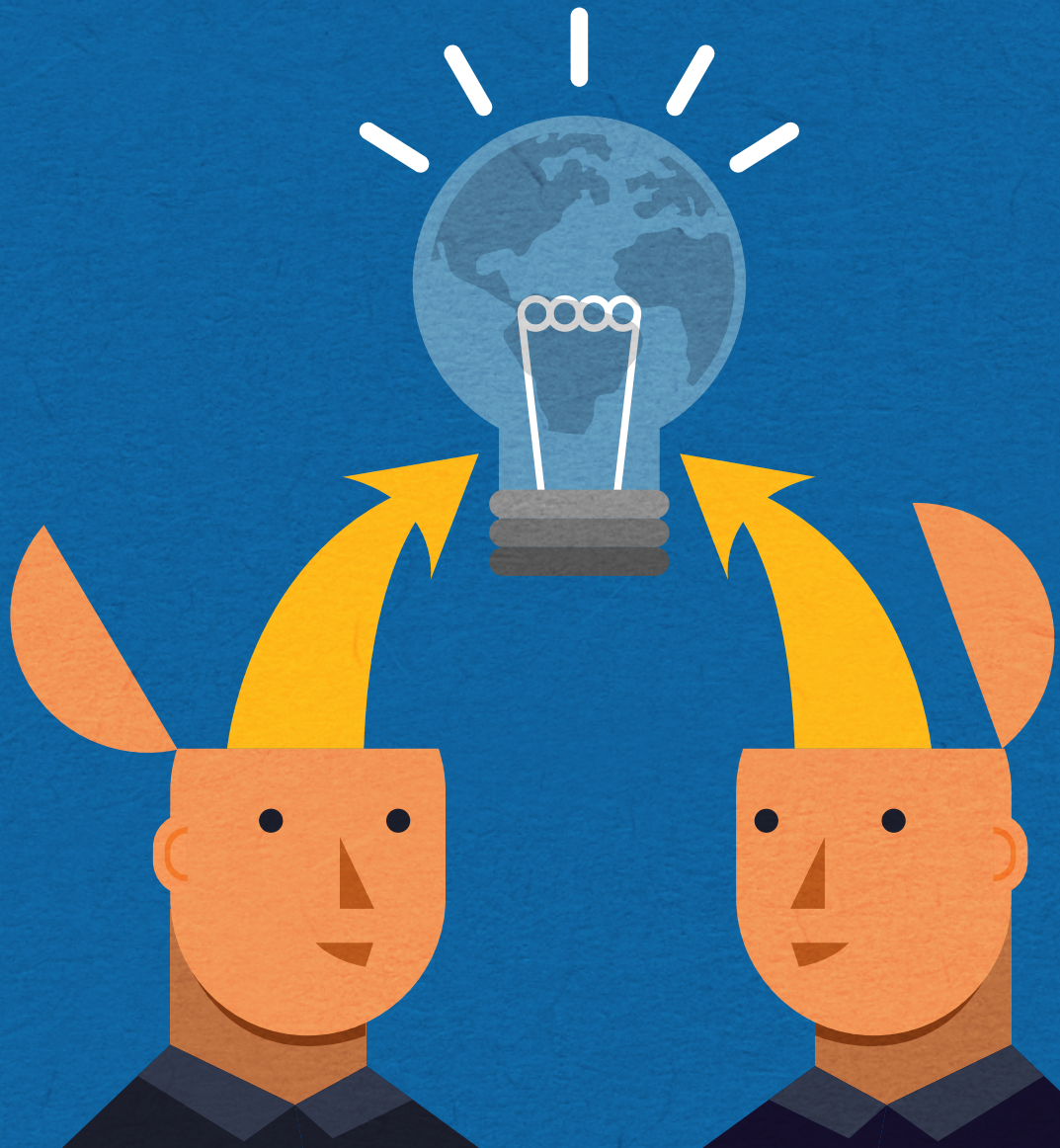


2018 대학 창업교육 백서

2018 대학 창업교육 연구조사 모음집



CONTENT

■ Chapter 1. 대학 창업 관련 이슈페이퍼(요약본)

01. 산학협력 클러스터 모델 도입 「Quintuple Helix Model 중심으로」	2
02. 대학원 중심 고급 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17
03. 미국, 유럽의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미네르바 스쿨, 몬드라곤 팀아카데미(MTA) 사례연구-	24
04. 구성주의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entrepreneurship pedagogy) 및 기업가적 대학에의 시사점	41
05.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창직·창업을 위한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 입지와 운영방식	53

■ Chapter 2. 2018년도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실태 분석

I. 서론	74
II. 분석 개요	75
III. 2018년도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지원 현황	77
IV. 결론 및 시사점	83

■ Chapter 3. 2018년도 창업강좌 만족도 조사결과

요 약	86
1. 기초 분석	86
2. 심층 분석 결과	90
제1장 조사 개요	92
1. 배경 및 필요성	92
2. 조사개요	97
3. 응답현황	100

제2장 기초분석결과	102
1. 강좌 만족도	102
2. 강좌 수강형태	137
3. 창업환경/희망진로	143
4. 창업친화적학사제도	149
제3장 심층분석결과	159
1. 신뢰도 분석	159
2. 요인별 평균비교	161
3. 창업강좌 영향력	183
부록_조사표	185

■ Chapter 4. 2018년도 창업강좌 효과성 조사결과

요 약	190
1. 응답 개요 및 현황	190
2. 세부 효과성 분석 결과(사전-사후 매칭)	192
제1장 조사 개요	197
1. 배경 및 필요성	197
2. 조사개요	202
3. 응답현황	205
제2장 강좌 수강형태	213
제3장 창업 교육 효과분석	219
1. 신뢰도 및 집단 검증 분석 결과	219
2. 창업교육 효과성 분석결과(동일집단)	222
3. 항목별 효과성 분석결과(동일집단)	307
4. 창업강좌 영향력	322
부록_조사표	323



2018 대학 창업교육 백서

대학 창업 관련 이슈페이퍼(요약본)

-
01. 산학협력 클러스터 모델 도입 「Quintuple Helix Model 중심으로」
_최용석(중앙대학교 교수)
 02. 대학원 중심 고급 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_박문수(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원 교수)
 03. 미국, 유럽의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미네르바 스쿨, 몬드라곤 팀아카데미(MTA) 사례연구-
_허영룡(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전담교수)
_한민정(Paris school of business DBA 과정 연구자)
_송인혜(프리 에이전트)
 04. 구성주의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entrepreneurship pedagogy) 및 기업가적 대학에의 시사점
_윤성혜(Let's Lab 대표)
 05.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창직·창업을 위한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 입지와 운영방식
_박경훈(창원대학교 교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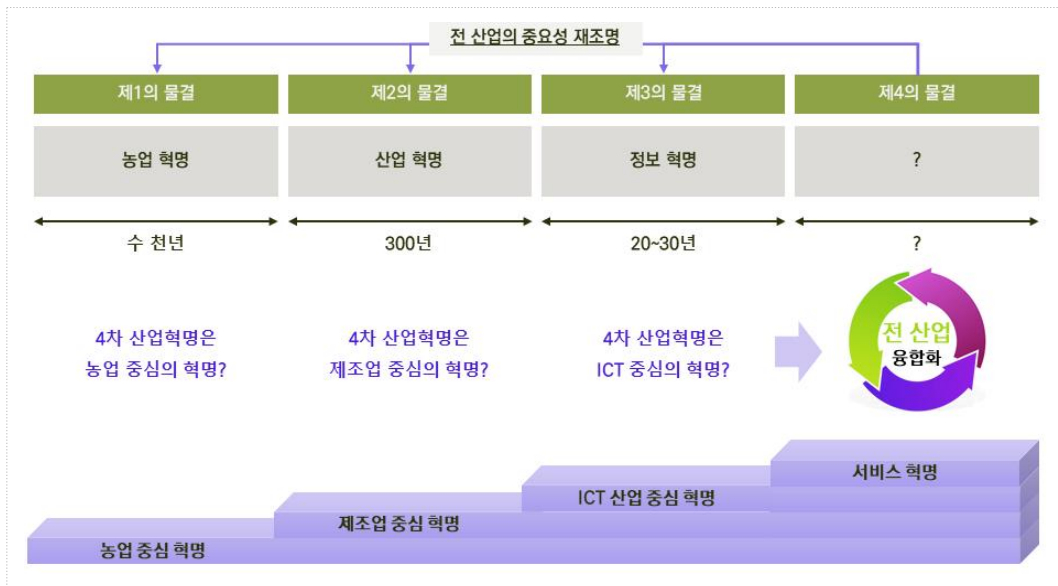
산학협력 클러스터 모델 도입 「Quintuple Helix Model 중심으로」

최용석 | 중앙대학교 교수

1 4차 산업 혁명 시대의 산학협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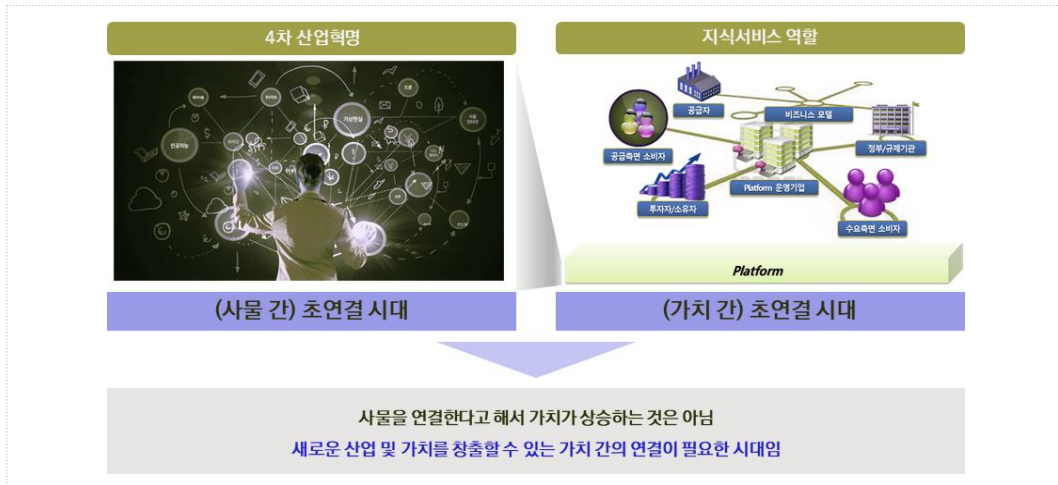
가. 4차 산업혁명의 개념

제1의 물결부터 제3의 물결까지는 특정 산업 중심의 혁명이 이루어짐 그러나 이제는 특정산업이 아닌 인간의 만족을 위한 서비스 중심의 전 산업의 융합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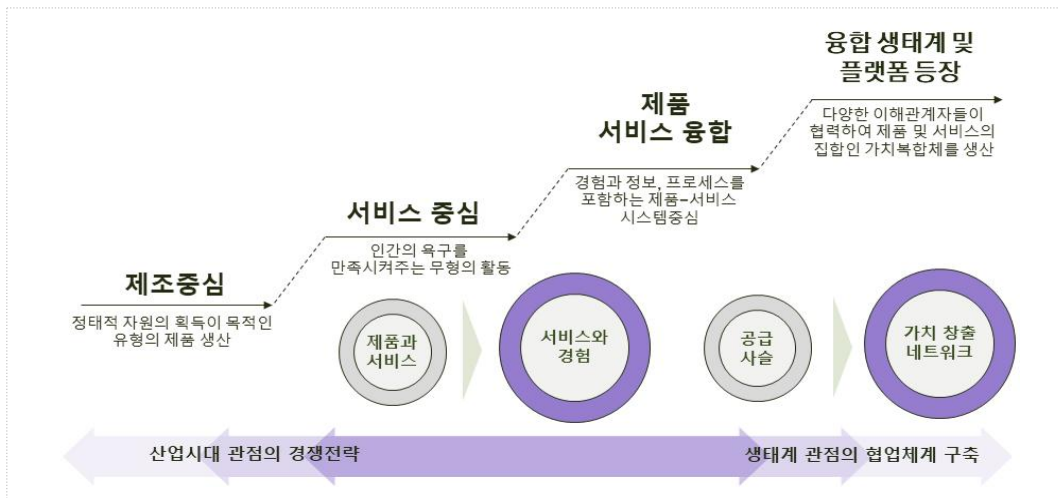
나. 혁신 기술 기반 서비스 중요성 확대

즉,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한 가치 간의 초연결을 통해 새로운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역할이 중요해 질 것으로 예상됨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혁신 기술은 이러한 지식서비스를 지원하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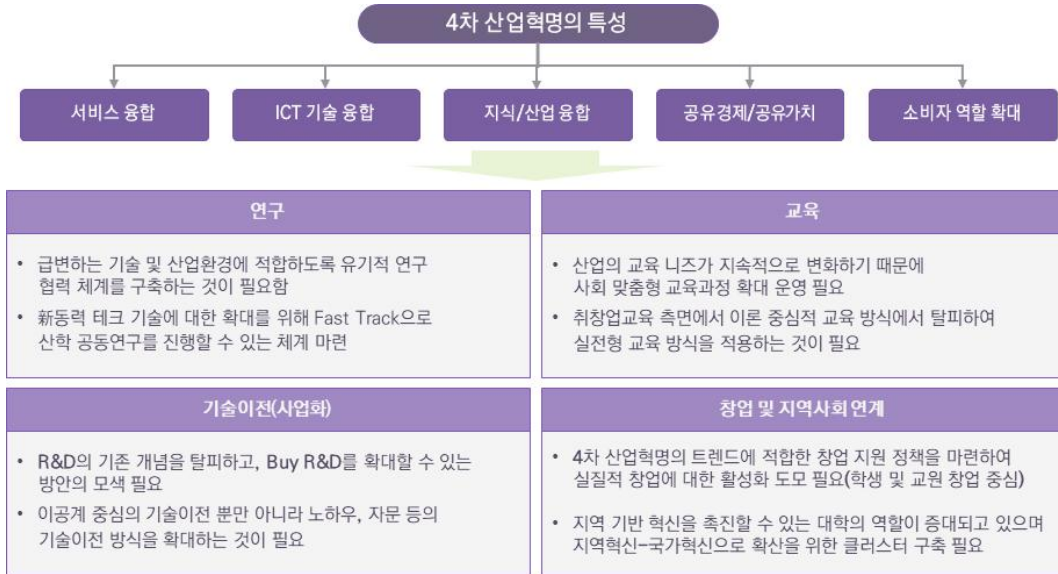
다. 산업 간 융합 생태계 조성

산업의 환경이 변화하면서 서비스의 중요성 뿐만 아니라 융합 생태계의 중요성이 증대하였음. 즉,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협력하여 가치복합체를 생산하는 가치 창출 네트워크(클러스터) 중요성이 증대됨.



라. 산학협력 주체로서의 대학의 역할

대학은 산학협력의 주체로서 다양한 역할이 요구되고 있으나 산(産)의 대상이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까지 대상이 확대되고 있음. 이러한 광범위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의 산학협력 모델이 필요함.



2 산학협력 클러스터 도입 필요성-지역혁신시스템 중심으로-

가. 산학협력 클러스터 추진 필요성

기업, 경제단체, 연구소 등을 포함하는 산업계와 학계가 상호 발전과 사회 및 국가 발전을 위해 인적, 물적 및 제반 가용 자원을 교육, 연구 등에 상호 보완적으로 교류하는 체계적인 협력관계가 필요함.

○ **고질적 문제점**. 대학과 기업 간 협력 목적의 미스매치

대학

연구비 확보
인재 양성
학문적 업적 달성

기업

외부자원 활용 연구개발
연구결과 사업화
이윤 창출

학문연구 중시 vs. 실용성 중시

○ **시대별 산학협력 모델의 변화**

연대	모델	문제점
1960~	기업을 위한 인력양성,보급	기술개발 역량 취약
1970년대	외국기술 도입 중간체널로서의 산학협력	
1980년대	정부출연연구소 중심의 산학협력	연구결과와 산업현장 간 연계 미흡
1990~2002	다양한 정부-민간협력 프로젝트 추진 대학이 산학협력의 중심으로 부상	연구자나 대학의 필요에 따라 연계개발 수행
2003~2010	산업체 등 수요자 중심의 산학협력 추진	대학 중심의 산학협력 문제점 여전
2011~2016	대학 내 산학협력 친화형 시스템 구축	기업의 실질적 참여 미흡
2017~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산학협력 모델	새로운 모델 구축 필요

나. 산학협력 클러스터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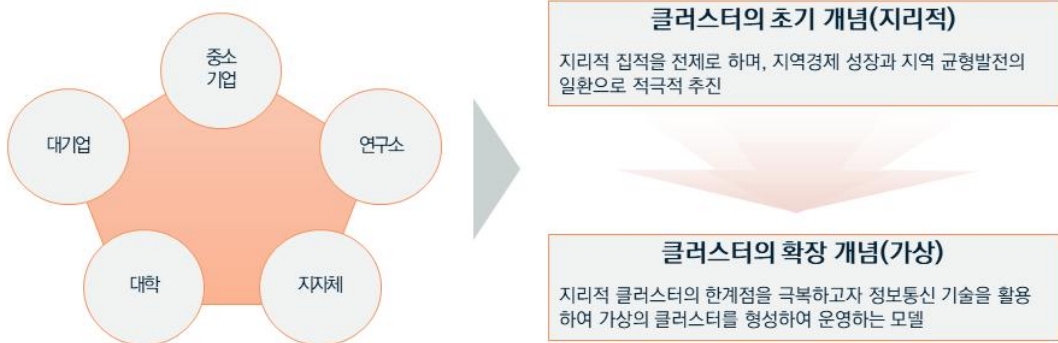
1) 정의 및 기능

클러스터의 정의

특정 산업 내의 가치사슬과 관련하여 산업 간에 연관관계 속에서 상호 유기적인 분업 및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일정 지역에 입지해 있는 상태를 의미함

- 일정 지역에 모여 네트워크 구축과 상호작용을 통해 사업 전개, 부품 조달, 인력과 정보의 교류 등 지식과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시너지 효과 창출
- 기업, 대학, 연구소, 금융기관 등 다양한 기관들이 밀집해 형성된 대규모 타운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분업하고 산업과 대학이 유기적으로 협동하기 위해 조성된 첨단 과학 단지라고 할 수 있음

2) 초기 및 확장된 개념



구분	지리적 클러스터	가상 클러스터
집적공간	지리적공간	가상공간
구성주체	산학연관등	산학연관+인터넷서비스제공자
네트워크 기반	대면(Face to Face), 사회적자본	인터넷·비사회적자본
통제 메커니즘	신뢰와문화	규정과표준
운영주체	간접지원	직접운영

다. 산학협력 클러스터 도입 전략

가상 클러스터의 개념은 플랫폼의 개념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지리적 클러스터와 가상 클러스터의 개념을 합쳐 상호보완론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안도 있음.

	지리적 클러스터	가상 클러스터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식의 파급효과 및 네트워크 효과로 인한 규모의 경제 효과 증가 기반시설의 공유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리적 경계에 무관, 지리적 클러스터의 문제점 해결 정보의 장벽이 없고, 유연하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함
단점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완결형 클러스터의 구축이 어려우며, 관련 부대비용의 증가가 문제 산업의 고착화 위험 및 외부 환경의 둔감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암묵지 교류의 한계 및 인증 및 표준화의 문제 발생 물리적 기반 시설 공유의 한계



출처 :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06), 선진 혁신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가상 클러스터 활용방안

라. 지역혁신 시스템의 개념

- 국가발전에 있어 기술혁신의 중요성은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의 정부와 기업들은 기술 경쟁력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임.
- 이러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이 널리 인식되면서 국가의 전 부문이 상호협력을 통해 기술혁신을 효과적으로 창출하는 방안으로 대두된 개념이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임.
- 국가혁신시스템은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혁신의 창출 및 확산을 둘러싼 국가의 다양한 주체들의 연계형태와 이들 간의 상호작용적인 학습과 유·무형의 상호관계’로 정의할 수 있음.
- 국가혁신시스템은 기술, 지역, 산업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구축될 수 있고, 하위 시스템으로 기술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산업혁신시스템 등으로 구분하고 있음.

기술혁신시스템	지역혁신시스템	산업혁신시스템
특정 기술유형의 혁신시스템으로 일반적으로 기술은 산업 유형속에 흡수되어 있어 산업혁신시스템으로 파악될 수 있음	국가혁신시스템을 지역적인 측면에서 파악한 하위시스템으로 한 지역의 고유한 경제적, 사회문화적, 역사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혁신주체들에 따라 지역별 경쟁력이 다를 수 있음	산업혁신시스템은 특정 산업분야를 중심으로 한 개별 산업별 혁신시스템을 의미하고, 한 산업내의 혁신구성요소들의 연계에 따라 산업별 경쟁력이 상이할 수 있어 산업경쟁력 제고에 대해 유의한 시각을 제공함
주체들간의 신뢰(trust)와 호혜성(reciprocity)을 토대로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상호 협력체제를 의미		
지역의 혁신역량을 제고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으로써 지역과 국가전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는 것이 목표		
기업 또는 혁신주체, 나아가 지역 내의 클러스터간의 상호작용 관계를 중시하는 개념이며, 클러스터는 기업 또는 혁신주체들간의 공간적 입지양상을 의미		

마. 지역혁신 시스템의 유형

- 지식기반사회는 지식, 정보, 과학기술이 국가 및 지역의 핵심으로 대두되었으며, 이에 따라 국가, 지역, 기업 등 일반조직들의 분권화가 강화되는 추세임.
- 전문가들은 경제활동이 글로벌화 됨에 따라 기업 간의 핵심 상호작용은 지역화되며, 기업경쟁력의 창출과 조직의 핵심적 경제단위로 지역단위가 부상하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지역 혁신체제의 개념은 1990년대 초반 여러 산업과 다수의 비동질적 지역들의 집합체인 국가를 단위로 하나의 혁신시스템을 구축하는 국가혁신체제론이 비현실적이라는 시각에서 출발했음.

- 개별 지역들이 지식의 창출, 확산, 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지역시스템인 지역혁신체제를 구축하고, 기술혁신에 필요한 R&D 투자의 증대, 지역혁신 주체들간의 상호작용 및 지속적인 학습활동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였음.

	자생형	네트워크형	하향형
로컬	투스카니 (Tuscany, 이탈리아): 네트워크형으로 진화	탕페레(Tampere, 핀란드) & 덴마크: 자생형&상호작용 유형으로 진화	슬로베니아(Slovenia): 토호쿠(Tohoku, 일본)
상호작용	카탈로니아 (Catalonia, 스페인): 자생형&글로벌 또는 네트워크&상호작용 유형으로 진화	바덴-뷔템버그 (Baden-Württemberg, 독일): 자생형&글로벌 유형으로 진화	경기(Gyeonggi, 한국): 네트워크&상호작용 유형으로 진화
글로벌	브라반트 (Brabant, 네덜란드): 네트워크&글로벌 유형으로 진화	북부 라인웨스트팔리아 (North-Rhine Westphalia, 독일) & 웨일스(Wales, 영국): 통제&글로벌로 진화	싱가포르(Singapore): 변화 방향 없음

자생형	행정과 무관하게 지역의 기업들이 자생적 시스템을 갖춘 유형
네트워크형	기업, 행정, 초국가의 다차원적 주체들의 관계와 협력
하향형	국가행정의 외적 개입이 규제와 재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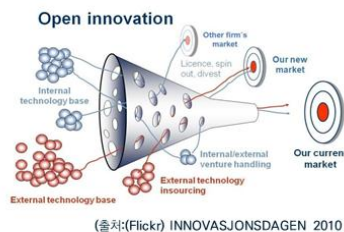
3 산학협력 클러스터 모델-Quintuple-Helix Model-

가. 산학협력 클러스터 기본 개념

1) Open Inno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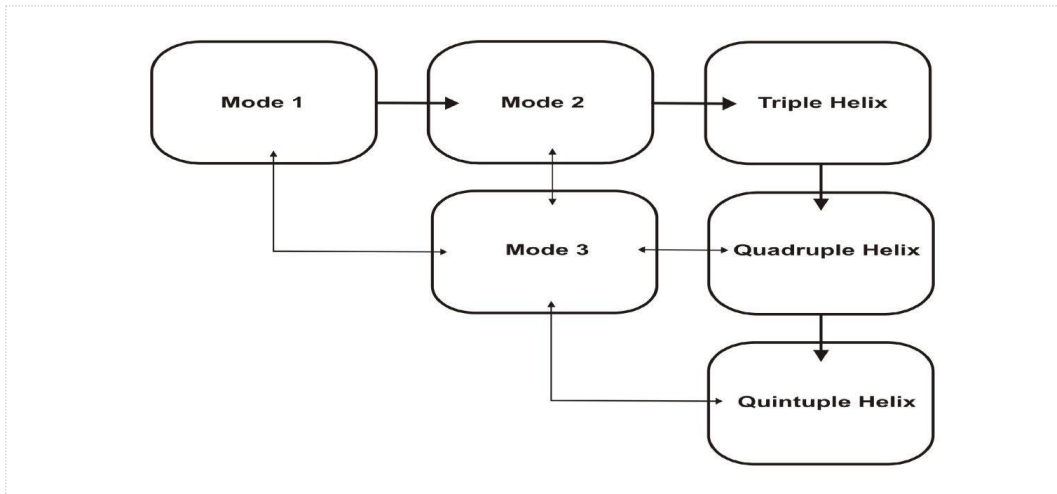
UC Berkeley Hass의 'Henry Chesbrough' 교수가 2003년에 처음 제시한 개념



A가 참신한 아이디어를 고안해내면, B는 이를 활용할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고, C의 자본과 유통망을 이용해 상품화

2) Open Innovation에 적용되는 Mode 진화

- 쿼터블 헬릭스는 모드1, 모드2, 트리플 헬릭스, 모드3, 쿼드러플 헬릭스 등 이전 모델의 논리적 확장으로 볼 수 있음.



출처: Elias G. Carayannis, 2012

- Mode 1: Mode 1은 Michael Gibbons에 의해 이론화되었고 오래된 '혁신 선형 모델' 이해에서 대학연구의 전통적인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모드 1에서의 성공은 "계층적으로 확립된 동료들에 의해 승인된 품질 또는 우수성으로 정의 된다."고 정의되었음.
- Mode 2: Mode 2는 Michael Gibbons에 의해 이론화되었으며, (1) 적용의 맥락에서 생성된 지식, (2) 학문 간 차이, (3) 이질성과 조직 다양성, (4) 사회적 책임성과 반사성, (5) 품질 관리 등 5가지 원칙으로 특징지어짐.

- 헬릭스를 이루는 각 주체들이 그에 맞는 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각 시스템들은 서로 연결, 융합되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함.
- 창출된 지식은 무한히 순환하며 혁신(Innovation)을 이루게 되고 이러한 혁신들이 모여 지속 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 단계에 도달하게 됨.
- 혁신은 쿼터블 헬릭스에 도달하는 시점에는 이미 개인적인 주체들의 이익에 얽매이지 않고 사회, 자연환경 규모의 발전과 재생을 위해 이루어짐.
- 이는 현대사회에서 왜곡되고 오남용 되는 의미가 아닌 순수하게 '지속가능한 개발'을 이루도록 도와줌.
- 지속가능한 발전은 미래세대가 그들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기반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세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발전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

-퀀터블 헬릭스에 이르러 사회경제적인 범위뿐만 아니라 환경의 범주 안에도 들어가게 때문에 '환경의 보전', '경제의 발전', '사회의 안정과 통합'이라는 포괄적인 균형 상태로써 확장하게 되며, 지속가능발전 목표와 교육의 형식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에도 순환을 이루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됨.

-뿐만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에서는 현 상태의 유지보다는 변화의 방향을 설정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퀀터블 헬릭스의 토대를 이루는 쿼드러플 헬릭스 구조에서의 시민(대중)의 참여가 보장되고, 실행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Mode 1 & Mode 2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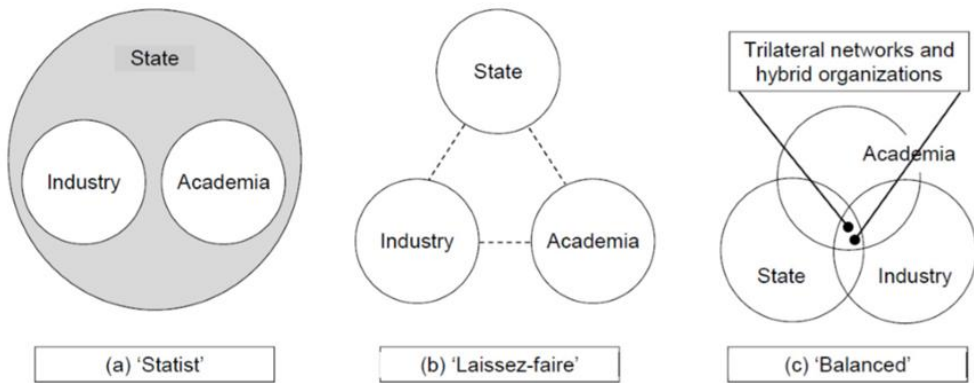
Mode1 (순수 과학기반 혁신)	vs.	Mode2 (경험 기반 혁신)
단일 분야	학문 범위	다양한 분야
특정 공동체의 이익에 의해 결정	문제 선정	실무적인 문제와 관련된 행위자들의 이익에 의해 결정
학문적 맥락에서 문제 해결	해결 방법	문제 응용에 기반하여 전후 맥락에서 설정 및 해결
연구 분야에 특화	연구 분야	단일 분야로 축소할 수 없는 새로운 이론/개념적 프레임워크
연구행위를 "과학적"규범 안에서 수행	연구 배경	사회적 책임을 수반하는 연구행위
반 연구기관 기반의 팀 계층적이고 보수적	팀 성격	짧은 수명, 정확한 문제 규명, 비 제도적인 팀 비계층적이고 일시적
규범적, 규칙 준수, 과학적 지식 생산	지식 생산 과정	계속적으로 합의, 협상하는 지식 생산
새로운 지식의 생산	혁신 목표	+새로운 문제를 기존의 지식으로 재구성
지식 생산과 응용을 분리	응용 유무	지식 생산과 응용을 통합
지식 확산을 기관의 채널 기반	지식 확산 채널	협력 파트너 및 소셜 네트워크
"Good Science"	추구하는 연구의 가치	변화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동적 연구

[Mode 3 & Mode 4 확대]

구분	Mode 1 전통적인 계약	Mode 2 이노베이션파트너십	Mode 3 오픈 이노베이션 플랫폼/경쟁	Mode 4 오픈 이노베이션 커뮤니티
커뮤니케이션 채널	제한적	강함	제한적 but 넓은	강함 and 넓은
인센티브	높음.	높음.	적당함	낮음
IP 소유권	외부 파트너의 소유	협상 가능	회사 소유	(일반적으로) 회사 소유
지적 재산, 아이디어공유	제한적	강함	제한적	강함
외부파트너와의 접근성	제한적	제한적	넓은 범위에 대한 강한 접근	넓은 범위에 대한 강한 접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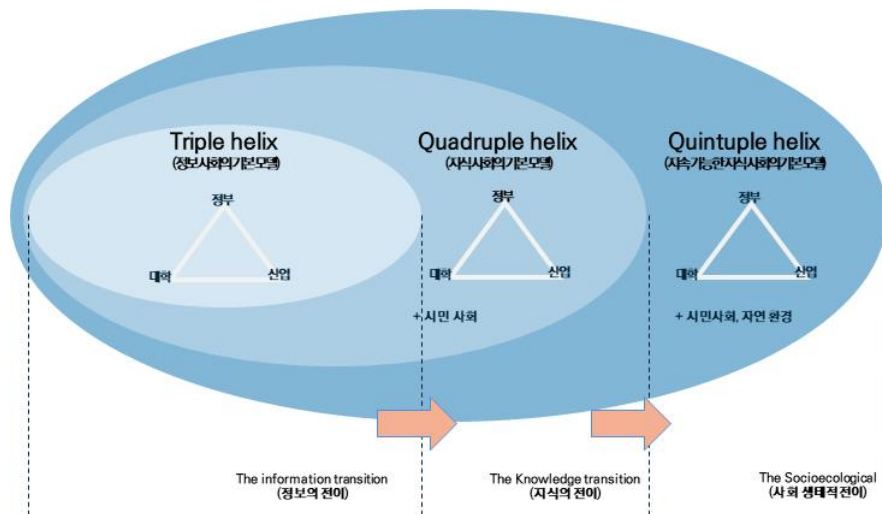
나. N-Helix 모델의 등장

지식사회에서 혁신과 경제 발전을 위한 잠재력은 지식의 생산, 이전 (transfer) 및 적용 (application)을 위한 새로운 제도적· 사회적 형태(format)를 창출하기 위한 대학의 역할, 그리고 대학, 산업 및 정부 간 상호작용에 달려 있다고 주장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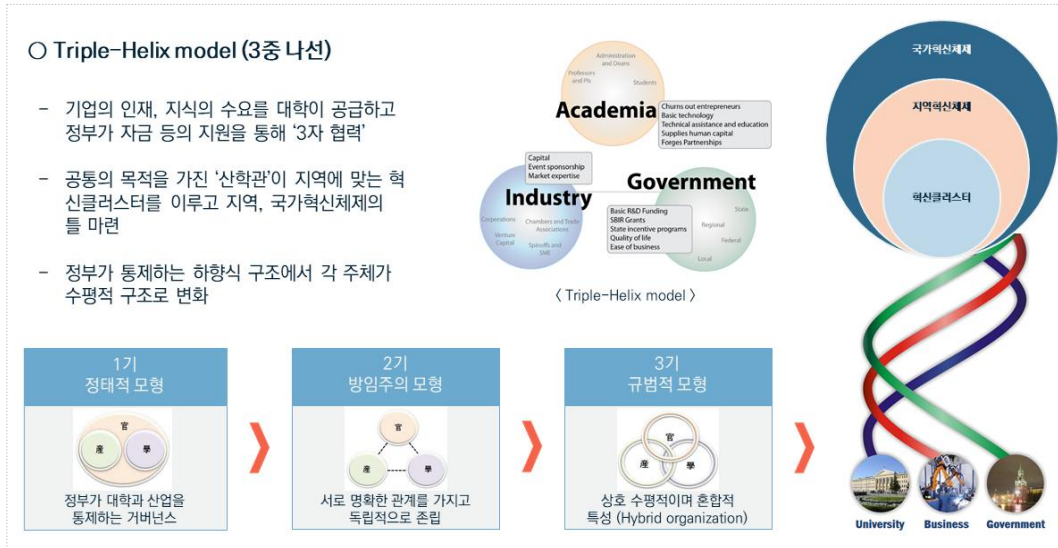


다. Open Innovation 기반 N-Helix 클러스터의 진화

트리플 헬릭스는 지식 혁신 과정에서 하위 시스템을 추가하며 진화하고 있음.(Carayannis et al., 2012) 특히 지역은 점차 사회기술적, 사회경제적, 사회정치적 갈등요소를 공유하는 조직, 기관, 이해관계자의 집합체로 여겨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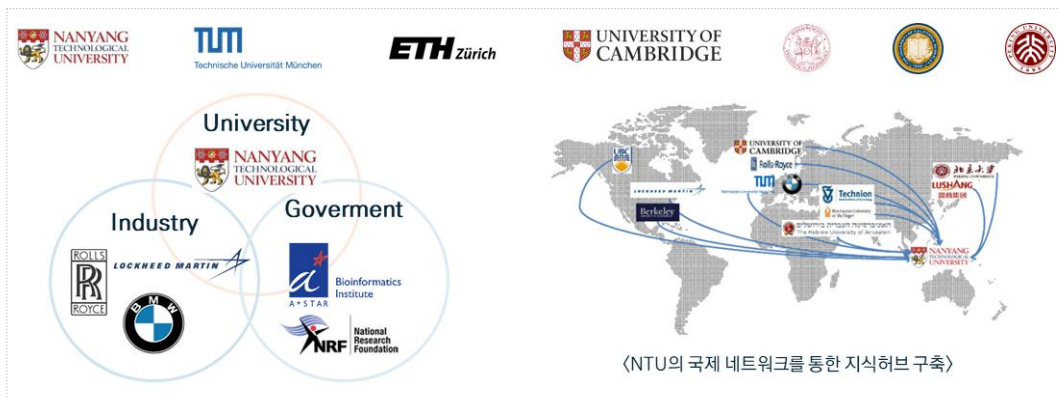


라. Triple-Helix 모델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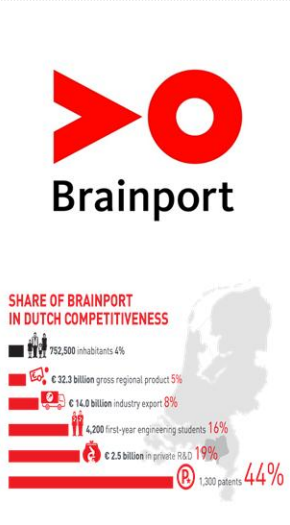


마. Triple-Helix 모델 적용 사례

- ISCN(International Sustainable Campus Network)은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파트너십을 촉진하기 위해서 Triple-Helix 모델을 사용함. 대학의 지속 가능 경영 지원을 위해 주요 컨퍼런스 및 포럼을 개최하면서, 지속 가능한 캠퍼스를 위한 아이디어 및 정보 공유를 촉진 연구 및 교육 지속 가능성의 통합을 모색
-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이하 NTU)중심의 대학연합의 “NTU Eco Campus”와 “재생가능 에너지의 시연회(REDs)” 사례



- 초기 단계 아인트호벤 시장, KvK회장, 그리고 TU/e 총장의 모임에서 출발한 이 협력은 현재 '브레인포트 이사회'라는 조직으로 발전되어 주기적으로 모여 지역 경제에 관한 현안들을 긴밀히 협의하여 결정하고 있음. 이사회에는 지역 내 주요 기업들의 CEO, 대학 총장, 지자체 대표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정부는 'Brainport Development'라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연구비 지원, R&D 인프라 건설 등의 공적인 역할을 지원하고 있음.



SHARE OF BRAINPORT IN DUTCH COMPETITIVENESS

- 752,500 inhabitants 4%
- € 32.3 billion gross regional product 5%
- € 14.8 billion industry export 8%
- € 200 first-year engineering students 16%
- € 2.5 billion in private R&D 19%
- 1,300 patents 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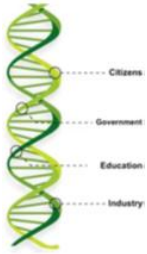
기관	주요 역할	
연구 기관	Technical University of Eindhoven (TU/E)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 내 4대 공과대학 중 하나. 에너지, 생명과학, 하이테크를 중점 분야로 하는 최첨단 연구 수행. 연구 기관으로써의 역할 뿐 아니라 InnovationLab이라는 부서를 통해 Valorisation을 수행하는 역할도 수행 기업과 협력연구 비중이 높고, 실제 스타트업 기업들을 위한 공간도 많이 마련되어 있음
	TNO	<ul style="list-style-type: none"> 네덜란드 내 응용연구를 수행하는 정부 연구소
	Fonty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응용연구 분야를 지원하는 고등교육기관
대기업	Philips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 최대 전자기업 중 하나. 본사가 아인트호벤 시내 에 있으며 16만명 이상이 60개국 이상에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 새로운 연구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High-Tech Campus등을 지어 Open-Innovation을 추구
	ASML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세계최고의 반도체 설비 생산 기업. 삼성, 도시바 등이 주요 클라이언트. 아인트호벤 인근의 벨트 호벤이라는 곳에 본사를 두고 있음
정부 기관	Brainport Development	<ul style="list-style-type: none"> 브레인포트 지역개발에 초점을 두고 있는 정부기구. 정 부 예산을 통해 지역 연구시설 건립, 스타트업 기업 지원 등의 역할 수행
	BOM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히 브레인포트 내의 스타트업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지 투자기관. 초기 단계의 기업들에 투자하 거나 외부의 투자자를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

바. Quadruple-Helix 모델의 개념

○ Quadruple-Helix (4중 나선)

- 기존 Triple-Helix 모델의 세 주체에 시민사회가 추가되어 보다 더욱 개방적이고 공동창조적인 프로세스가 적용
- 공적 가치가 있는 사회적 주도주의(Bozeman 외, 2015)의 중요성을 증가
 - 이는 지역 혁신을 위한 **Open Innovation의 가치와 일치** (Chesbrough and Garman, 2009)
 - 이에 따라 정형화된 발전 틀에서 벗어나 지역별 특성을 활용한 개성적인 발전이 가능
 - Triple-Helix의 주체 간 프로세스가 수평적 구조에서 상향식 구조로 변화





CLIQ Model 제시 (Creating Local Innovation in a Quadruple Helix Model)

시민들의 참여를 촉진

- 1) 혁신에 대한 의사소통, 2) 재정 지원에 대한 지원, 3) 인프라 및 서비스 제공, 4) 지식과 역량 개발,
- 5) 활동에 대한 조정, 6) 정책 및 규정 수립



CLIQ House of Innovation을 통해 시민의 경험 및 사례 등을 교환하고, 외부 전문가 및 평가보고서를 활용하여 벤치마킹 방법을 고안하며, 이를 통해 미래 정책 및 전략을 구축

사. Quadruple-Helix 모델의 사례

- 기존의 Triple-Helix 모델 적용을 넘어 Quadruple-Helix 모델을 적용한 Eco Campus Innovation
 - 기존의 대학, 기업, 정부의 삼자협력을 넘어서 NTU 대학생과 인근 주민들, 방문자들까지 주체에 포함시켜 '리빙랩' 형태를 이루고, 실시간으로 사용 주체의 빠른 피드백을 얻고 즉시 연구, 적용하여 중간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을 감소
 - 지속 가능한 에너지 효율 연구 및 직접 적용으로 에너지/자원 집약도 35% 감소, FY2012, 2013동안 325만\$ 절약 및 無 투자
 - 캠퍼스를 이루는 각 연구 분야, 위치 별로 IBM, PHILIPS등 굴지의 외국계 기업들과 협업

* EcoCampus

High Impact Energy Efficiency and Sustainability
Accentuating Innovation and Green Growth

Greenest Campus in the world!

RESEARCH: R&D + Demonstration + Deployment as the key focus

LIVING LAB: 250+ becomes campus; 100+ buildings; 1.1M m² built area

INDUSTRY COLLABORATION: Partnering MNCs, local companies and generating spin-offs

***35% Reduction in Energy/Resource Intensity**
 •FY2012 & FY2013: \$3.25 m saving, zero investment
 •NTU annual bill: ~ \$37 m

〈Eco Campus 조성의 성과〉

* EcoCampus

ENERGY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Wifinity, IBM, NIE, GDF SUEZ

WASTE & WATER REDUCTION, REUSE & RECYCLING: FUJIFILM, VEOLIA

DISTRIBUTED ENERGY GENERATION & SMART GRID: SUNTOMO, METB

BUSINESS MODELS & SCIENTIFIC ADOPTION, USER RESOLUTION: PHILIPS

ALTERNATIVE LOW CARBON TRANSPORT: ALFAFATECH, 3M, Holci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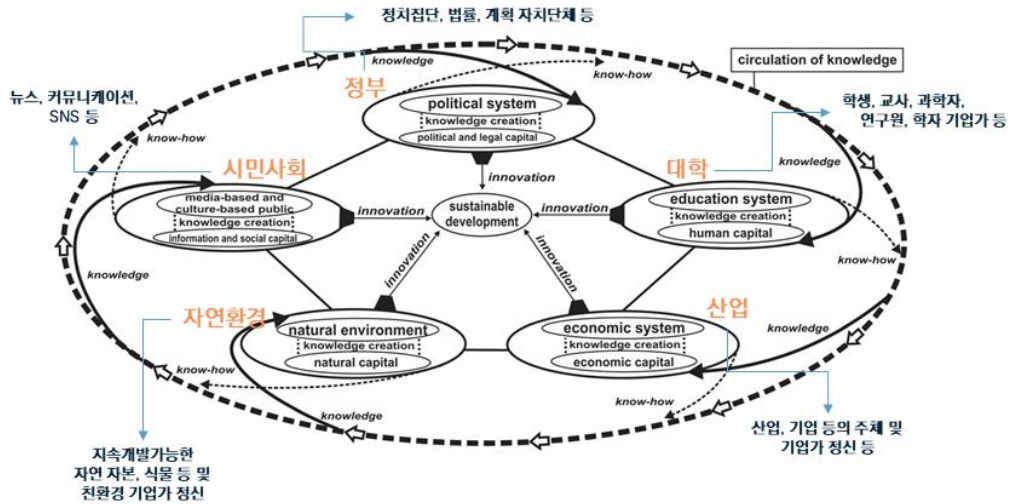
ADVANCED ACBIV SYSTEM: SOLEOROP, SIEMENS, AIRCUTY

BUILDING ENVELOPE & FACADE SYSTEMS: ALFAFATECH, 3M, Holcim

〈Eco Campus 각 분야와 협력기업〉

아. Quintuple-Helix 모델의 개념

대학-기업-정부 핵심으로 상정하던 Triple-Helix에서 새로운 행위주체가 추가되면서 n-tuple Helix로 확장됨. 또한, 새로운 혁신은 인류의 보전, 생존 및 활력, 새로운 녹색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을 제기하기 때문에 자연환경이 매우 중요함.



자. Quintuple-Helix 모델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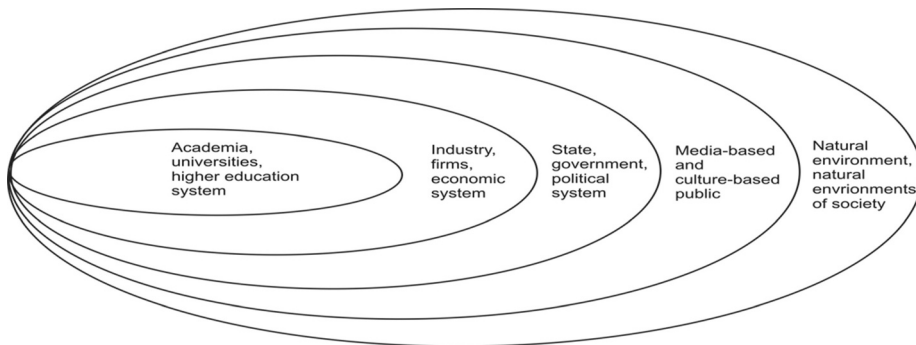
○ Quintuple Helix의 시작은 지속 가능성을 위한 교육 투자 효과에서 시작되며, 이를 기준으로 선순환 구조를 구축함. 환경 혁신과 친환경 기업이 정신이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음.

Route 1	교육에 대한 투자는 지식 창출을 위한 수단이며 해당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시스템과 밀접한 연관
Route 2	인적 자본에 기반한 경제체제 및 지식 경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지향하면서, 녹색 경제를 위한 중요한 기회로 작용
Route 3	변화하는 환경은 점점 보호 받기 위해 '커뮤니케이션'을 하며 스스로 재생성하고 천연 자원을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인류는 자연에게 지식을 한번 더 습득
Route 4	미디어에 기반한 대중은 새로운 정보 자원(환경 관련 등)을 받고 지속 가능 사회로서의 니즈, 문제 해결 방안 등의 정보를 산출물로 전달
Route 5	시민사회의 니즈를 인식한 정부는 지속가능성을 위해 교육에 대한 투자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 노력

결국 정치시스템의 지식과 노하우가 사회에 산출되는 경우 교육시스템, 경제시스템, 자연환경, 미디어 기반 시민사회 내 지식순환이 사회개생성

- 쿼터블 헬릭스(Quintuple Helix)는 (1) 교육 시스템, (2) 경제 시스템, (3) 자연 환경, (4) 미디어 기반 및 문화 기반 공공(또한 시민 사회), (5) 정치 시스템을 통해 국가(국가)에서의 지식의 집단적 상호작용과 교환을 시각화함.
- 따라서 쿼터블 헬릭스에서 지속가능성을 분석하고 발전을 위해 지속 가능한 개발 결정을 내리는 것은 5개의 하위 시스템(헬릭케이트)이 각각 사회적(사회적) 및 학술적(과학적) 관련성을 가진 특별하고 필요한 자산을 사용한다는 것을 의미함.
 - (교육 시스템) 교육 시스템은 최초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아카데미아’, ‘유니버시티’, ‘더 높은 교육 시스템’, ‘학교’와 관련하여 스스로를 규정함, 이 나선에서는 지식의 확산과 연구에 의해 주(국가)의 필요한 ‘인간자본’(예를 들어 학생, 교사, 과학자/연구자, 학술기업가 등)이 형성되고 있음.
 - (경제 시스템) 제2의 하위 시스템으로서 경제시스템은 ‘산업’, ‘기업’, ‘서비스’, 은행으로 구성됨, 이 나선은 주(국가)의 ‘경제자본’을 집중시키고 집중시킴.(예: 기업가정신, 기계, 제품, 기술, 돈 등)
 - (자연환경) 제3의 서브시스템으로서의 자연환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결정적이며, 사람들에게 ‘자연자본’을 제공함.(예: 자원, 식물, 다양한 동물 등)
 - (미디어 기반 및 문화 기반 공공) 미디어 기반 및 문화 기반 공공인 네 번째 서브시스템은 두 가지 형태의 ‘자본’을 통합하고 결합함, 한편, 이 나선은 문화 기반의 대중(예: 전통, 가치관 등)을 통해 ‘사회자본’을 가지고 있으며, 미디어 기반 공공(예를 들어 텔레비전, 인터넷, 신문 등)의 나선에는 ‘정보의 자본’(예: 뉴스, 통신, 소셜 네트워크)도 포함되어 있음.
 - (정치제도) 정치체제는 제5의 서브시스템으로서도 중요한데, 그것은 ‘의지’를 형성하고, 주(국가)가 현재와 미래에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따라서 주(국가)의 일반적인 상태를 정의하고 조직하며, 또한 관리하기 때문이며 이 나선은 ‘정치적·법적 자본’을 가지고 있음.(예: 아이디어, 법률, 계획, 정치인 등)

Quintuple Helix 모델의 하위 시스템



대학원 중심 고급 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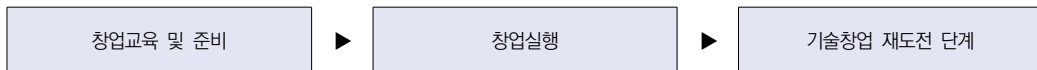
박문수 |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학원 교수

1 연구 필요성

- 고용 없는 성장의 시대, 기술 창업은 신규 고용창출 및 경제·활력 회복에 핵심역할을 수행(김선우, 2011)
- 국가 및 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기술창업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으며, 특히 정부는 기술력을 확보한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
- 대학원 중심 고급인력의 기술창업은 고급인력의 위험회피 성향 및 미성숙한 창업환경 등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
 - 고급인력은 특정 전문직 또는 대기업을 선호하는 등 안정된 삶을 지향하는 경향이 높으며, 고급인력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기업가정신 교육 기반이 부족
 - 공공연구기관 등 조직 내 지식축적 및 연구 수행조직의 창업 역량 미흡하며 열악한 창업환경·경영전략 부족 등 기술외적인 요인으로 인해 기술창업에 쉽게 나서지 않는 편임.

2 연구 방향

- 본 이슈페이퍼에서는 고급인력의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①창업교육 및 준비단계 ②창업실행 단계 ③기술창업 재도전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사례조사 등을 통해 현황을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함.
- 고급인력이 창업시장에 도전하여 성공 벤처로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단계별 제도 혁신 및 맞춤형 지원’을 추진해야 할 필요가 있음.



3 기술 창업 현황과 한계

- 대학차원의 창업교육에 비해 성공가능성이 높고 지속가능성이 있는 자수성가형 창업 준비 및 교육 지원은 미흡한 상황
- 2000년 초반 벤처 붐 등 역동적 국내 혁신창업 생태계가 IMF 극복 및 성장에 기여하였으나, 이후 민간부문 예비창업자의 창업에 대한 전반적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
- 창업을 통해 자수성가를 하겠다는 민간부문의 창업생태계의 활력은 오히려 저하
 - 창업형 자수성가형 부자 비중(%): (美) 71.1, (日) 81.5, (韓) 25.9%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 2017 & 전자신문 2017. 11.16 보도자료 재인용)
- 질적인 측면에서의 고급인력의 기술혁신형 창업기업은 미흡
 - 국내 창업은 생계형이 다수를 차지하고, 기회추구형 창업 비중은 유럽·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비해 절반 이하 수준(관계부처 합동, 2017)
 - 성공 가능성이 높은 석박사급 등 고학력 우수인력의 창업 부족하며 창업자 중 석·박사 비중 (2014년, 창업 7년 내 기업 198만개 기준)은 5.3%에 불과
- 대학·출연원 인센티브 체계의 창업친화적 제도 한계
- 교수·석박사 연구원 등 우수인력의 기술 창업 장려를 위해 창업친화적 인센티브가 필요하나 현재는 기관차원에서 제한적인 인센티브만을 제공하는 것이 현실임.



공공부문 창업친화형 제도 현황(간단 요약)

구분		현행
대학	교원 평가	일부 대학만 반영
	휴·겸직	기관자율 도입
출연원	정원 반영	창업 휴직 시 비별도 정원
	창업 준비 비용	창업 준비 비용 지원규정 미비
공공기관	창업 인사규정	창업 인사규정 미비(공공기관 3%만 시행)

4 기술 창업 교육 및 준비 단계 사례 분석

- 창업 준비를 위한 정책 프로그램으로서 창업선도대학 및 브릿지사업 등의 유관부처 지원 사업 진행 중
- 창업선도대학 사업의 경우 정규 교과과정, 비교과과정, 창업사업화(스카우팅, 액셀러레이터 등)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
- 대학 및 연구원에서 출발한 3개 기업 사례 분석(김영환 외 (2016),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발굴 및 확산 보고서 인용)
 - 휴이컴퍼니(김성태 대표), 오비츠(김종운 대표), 잡플래닛(황희승 대표)
- 대학 및 연구원에서 출발한 기술창업 준비 단계 사례 함의점
 - 세 기업의 사례는 모두 대학 재학생 및 대학 연구원 재직 때 창업의 기회 및 동기를 찾았다는 데 중요한 함의점이 있음. 이를 통해 이공계 우수한 인력이 기술창업 생태계로 진입했다는 데 의미가 있음.
 - 대학 재학을 통한 다양한 창업교육 활동(동아리, 창업 수업 등)을 통해 동업자를 찾고, 동아리를 통해 창업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며 대학 과학기술을 활용하여 창업 기회를 찾았음.

- 대학의 창업교육 및 창업 활동이 우수 인력의 기술 창업 생태계 진입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또한 이러한 창업 활동이 우수한 인력을 기술창업 생태계로 유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대학 내 창업 활동 등의 활성화가 창업교육 부문의 중요한 요소로 확인됨.

5 기술 창업 실행 단계 사례 분석

- 기술창업자들의 실행단계 사례를 분석하기 위해 TIP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투자를 받은 기술창업자 세 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진행함.
- A기업 (여행용 어플리케이션), B기업(반도체부품), C기업(바이오헬스케어), 투자자 등 창업지원 전문가 인터뷰 등
- 함의점
 - 3개 기업의 공통적인 특징은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해 투자연계형 프로그램의 확대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음. 일반적인 정부 보조금 보다는 민간 투자자들 대상의 체계적인 창업 자금 지원이 기술 창업가의 역량을 확대한다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기술 창업 관심도는 졸업 후 사회생활 및 전문성을 가진 예비자의 높은 편이며 이들이 책임성과 경험을 살려 창업하기 때문에 전문적인 기술창업의 가능성도 높아지는 특성 검토
 - 기술창업 기업과 스폰오프는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기에 기술창업 확장 가능성이 높은 분사형 창업기업의 활성화가 중요함.

6 기술 창업 회수 단계(EXIT) 사례 분석

- 대상 기업: (주)에코시안 사례
 - 에코시안 전 대표의 경우 포스코 환경에너지부에서 부장으로 재직했음. 전임 대표는 기업에서 우수 인재로 선정되어 해외 유학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을 받은 인물이기도 함. 대기업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해 보고 싶은 욕망으로 창업에 도전하였고 에코시안을 설립함.

- 전임 대표는 성장의 핵심은 시기에 적절한 영역(기후변화 컨설팅)으로 시장에 도전한 것이 포인트라고 생각한다고 밝혔으며 개인적으로 성장의 한계와 보다 나은 기업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 M&A 시도하였고 해외합자기업(한미글로벌)에게 피 인수됨.

○ 함의점

- 기술창업에서 기업 회수까지의 전 과정을 진행하는 사례는 매우 희소함. 하지만 창업과 기업 회수의 연계성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음. 창업 이후의 성장과 발전의 귀결은 기업 회수 시장을 통해 창업자의 보상 역시 중요하기 때문
- 기업 가치 매력의 상승 및 EXIT 가능성을 높이는 것은 무엇보다 최고 수준의 인력과 고유 기술의 확보 여부임을 확인

7 기술창업 단계별 정책 함의(기술창업 준비 및 교육 단계)

가. 이공계 대학 LAB단위 창업 활성화 유도

- 'Lab-to-Market'을 기반으로 석사·박사·교수 등 기술창업 핵심인재들이 창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대학단위로 대학 Lab 에 대한 적정 지원규모의 전주기 지원과 전문지원조직의 밀착 멘토링

나. 공공기술 기반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 강화

- 한국형 I-Corps 사업과 같이 연구실 밖의 현장으로 가서("Get Out of the Building") 잠재고객으로부터 자신의 연구결과물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의견을 듣는 Customer discovery하는 탐색 과정 필요성

다. 지역의 창업 클러스터와 연계한 기술 사업화 등 신규 프로그램 신설

- 지역의 창업 클러스터와의 연계된 창업교육 시스템 구축에 좀 더 집중
- 지역의 창업 및 기술사업화 수요를 기반으로 석·박사과정 학생들이 창업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이를 지역 기반 창업생태계로 기술이전 및 사업화로 확장

라. 연구개발형 창업지원을 TIPS형 창업지원으로의 전환 확대

- 과기부 주도하는 연구개발형 창업지원사업(ICT유망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이전 사업화지원사업(TMC), SW전문창업기획사업, 해외진출사업지원, 데이터 글로벌, 스타트업 다국적화 지원 등의 사업 등)의 개편 필요

마. 기술창업 성공가능성이 높은 재직자 중심 창업지원 패키지 지원 확대

- 기술창업 가능성이 높은 예비 창업자 대상 패키지형 프로그램은 매우 희소함. 특히 주간에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 많아 관심 있는 예비창업자 및 기업 재직자는 참여가 거의 불가능함. 이들의 관심과 실행에 동기 부여를 주기 위해서는 이들이 참석 가능한 시간대에 교육과 훈련 패키지사업을 운영

바. 분사형 창업기업 활성화

- 기술창업의 상당수가 혁신형 기업에서 새로운 사업부문을 개척하고 분사한 사례가 다수 있음. 이러한 분사형 창업기업 활성화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 서강대 사례도 검토해 볼만한 사례임.

사. 인력 및 기술 탈취 억제를 위한 제도적인 강화

- 문제의 핵심은 M&A를 하지 않고 기술창업 기업의 장점만을 취득하려는 사업관행의 개선이 우선임.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는 M&A보다 기술탈취를 통한 베끼기식 사업 확장이 쉽다는 인식이 바뀔 수 있도록 조사와 처벌을 강화

아. 기술창업 기업의 글로벌 확장 및 투자 확대

- 기술창업 기업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것임. 이미 많은 국내 기술창업 기업들은 국내 대기업의 기술과 인력 탈취, 경쟁력 약화로 해외 러시를 시도한 바 있음.
- 최근 바이오 기업의 중국 진출 및 중국으로부터의 투자 러시 현상 두드러짐.
- KIC 센터 및 본투글로벌 등의 글로벌 창업지원 정책 확대 강화

자. 재도전 및 재창업 시스템 구축

- 연대 보증 제도는 없어졌으나 민간 금융기관의 관행이 남아있고 이를 위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없는 신용불량자의 낙인 현상은 유지되는 상황으로서 재도전이 가능한 금융과 지원프로그램 확대 필요

[참고 문헌]

- 관계부처 합동(2017).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권보경·양승우(2013). 창업법제의 현황과 개선방향. 191:86-104.
- 김선우(2011). 고급연구인력 기술창업 활성화 방안. 중소기업연구원 보고서
- 김영환·김선우·이정우·손하늬·손준호(2016). 한국의 young innovator 사례 발굴 및 확산 보고서
- 이흥노(2017). 과학기술기반 창업중심대학 추진계획 수립
- 중소기업청(2015). 2015 대학 창업인프라 실태조사
- 중소기업청(2016). 2015년 중소기업 재도전 종합가이드북
- 중소벤처기업부(2017). 2017년 정부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종합안내
- 한국연구재단(2015). 2015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 GEM·중소기업청(2015). 글로벌 기업가정신 조사연구 보고서

미국, 유럽의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교육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미네르바 스쿨, 몬드라곤 팀아카데미(MTA) 사례연구-

허영룡 | 서울청년창업사관학교 전담교수
한민정 | Paris school of business DBA 과정 연구자
송인혜 | 프리에이전트

1 이슈 제기

가. 현황

2017년 중기청에서 발표한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콘텐츠 유형 항목에서 이론형은 79.3%, 실습형은 20.7%로 이론형 중심의 창업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현황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예비창업자의 세대교체 및 기술이 변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새로운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방법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표 1] 창업강좌 전공교양 여부 및 콘텐츠 유형

단위: 개, %

구분		전공교양과목			콘텐츠 유형		
		전공	교양	전체	이론형	실습형	전체
대학교	빈도	2,648	2,886	5,534	4,353	1,181	5,534
	비중	47.8	52.2	100	78.7	21.3	100
전문 대학	빈도	2,704	2,223	4,927	3,942	985	4,927
	비중	54.9	45.1	100	80.0	20.0	100
전체	빈도	5,352	5,109	10,461	8,295	2,166	10,461
	비중	51.2	48.8	100	79.3	20.7	100

출처: 2017년 대학 창업통계 조사 결과보고서, 중소벤처기업부

나. 이슈

“교육이란 무엇인가? 우리의 대학은 진짜 삶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나?” 우리는 이 질문의 답을 찾기 위해, 미국, 유럽에서 새롭게 시도되고 있는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교육(Experiential Entrepreneurship Education)프로그램이 출현한 현상을 포착하였다. 특정사례(Case Study)를 질적연구방법(Qualitative Research)을 기반으로 탐색형 연구를 통해 신뢰 및 타당성 있는 결론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한국의 <기업가적 대학> 생태계 구축의 토대 마련에 기여하고자 한다.

2 미국형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

가. Why

1) 미네르바 스쿨의 미션, 가치 그리고 원칙

- Mission: Nurturing Critical Wisdom for the Sake of the World
- Value: 미네르바 스쿨은 효과적인 학습에 대한 수십 년의 연구와 첨단 기술을 바탕으로 일류 대학들의 최고 전통을 고수하며, 우리의 미래를 책임질 세계적 리더가 될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각자의 특별한 잠재력을 극대화한다. 미네르바 스쿨의 가장 큰 성공과 보람은 졸업생의 업적들을 축하하는 것이다.
- Principle 원칙을 지키며 미션을 강화하다.
 - ① 관습을 좇지 않는 | Being Unconventional
 - ② 인격적인 | Being Human
 - ③ 자신감 있는 | Being Confident
 - ④ 사려 깊은 | Being Thoughtful
 - ⑤ 선택적인 | Being Selective
 - ⑥ 진실한 | Being Authentic
 - ⑦ 의욕적인 | Being Driven

2) 미네르바 스쿨의 시작

- 정의: 21세기형 고등교육 재창조(reinvent)위해 설립된 4년제 혁신 글로벌 대학
- 창립자: 벤 넬슨 (Ben Nelson)
- 창립이념: 21세기형 인재 배출

- 히스토리: 2012년, Benchmark Capital과 파트너십,
2013년 7월, Keck Graduate Institute(KGI)와 공식제휴,
2014년 가을, 미네르바 스쿨 공식 출범
- 미네르바 스쿨 창립 이유: 현 교육의 문제점이 학생들이 배운 것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 미네르바 스쿨은 '교육을 하는 가장 유용한 방법과 기술이 주는 가장 유용한 지식은 배운 것들을 실생활에 적용하도록 하는 것' 이념을 실행하기 위해 창립하였다.

3) 철학

미네르바 스쿨의 학문적 철학은 학생 중심(student-oriented)에서 출발한다. 세상에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거나, 학생들이 추구하는 모든 직업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실용적인 지식을 전달한다. 글로벌하고 다양한 실제적 경험을 통해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사고하고,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며,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수 있는 능력 개발(Acquire Practical Knowledge)에 중점을 둔다.

[Maxim I: Think it Through] 주요 내용: 학생들이 문제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각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목표와 난이도, 실습 참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관성을 이끌어내서 문제를 공유하고 해결하도록 피드백을 주고 도와준다.

[Maxim II: Make and Use Associations] 주요 내용: 교수자가 선불리 간섭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학생들이 청킹(chunking)을 통해 이전 지식과 아이디어를 그룹화하고,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 연상적 서술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지식과 기술이 자연스럽게 활동하면서 다양한 영역과 맥락에서 해결책을 탐색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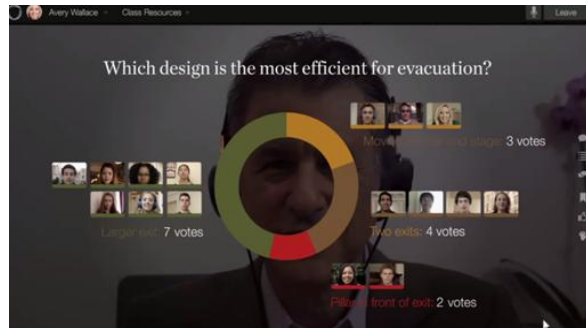
나. How

1) 교육방법

미네르바 스쿨은 모든 교과 수업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자체 온라인 플랫폼(현: Forum 전: Active Learning Forum, ALF)을 통해 전 세계 어디서나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 ALF는 능동적 학습 과학과 미네르바의 디자인 원칙을 통해 만들어졌다. 플랫폼은 최신의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참여적 수업 경험을 제공한다.

미네르바의 교육 방법론(Active Learning Methodology)은 기존의 교육학 페다고지를 뒤집은 방법(the pedagogic model is flipped)이다. 수업은 수업 시간 외에 완료한 과제를 통해 배운 주제에 대해 토론하고, 공동 작업을 하는 데 전념한다. 이 교수법은 학습과학에서 수십 년 동안의

인지적 및 행동적 연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한다.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수업 자료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주요 개념을 더 잘 이해하고 보존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개념을 실용적이고 완전히 새로운 상황에 적용 할 수 있다. 적용된 사고의 "Far Transfer"은 깊은 이해를 하는 과정의 주요 특징이다. 미네르바식



과학적 접근 방식의 또 다른 이점은 신속하고 빈번한 피드백으로, 성과와 진도에 대한 통찰력을 교수와 함께 언제든지 자주 소통하고 교류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학생들은 과제를 검토하고 수업에서의 성과를 토론하고 비판에 대응하며 강점을 키우고 지적 성장을 지속 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다.

다. What

1) 교육 대상과 프로세스

교육대상 만 16세 이상으로 인종, 민족, 종교, 신체적 장애, 학습 장애, 성 정체성 등 차별하지 않음. 현재 미네르바 스쿨은 다양성 존중의 원칙으로 78%가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온 학생들로 구성되어 있다.

선발 과정은 Part One에서 학업 성취와 성과들의 예시들을 포함한 지원자 자기소개, Part Two 사고하는 방식을 평가하기 위해 설계된 챌린지들, Part Three: 지난 학업 성취에 대한 증거 및 성적을 넘어선 자신의 우수성과 관심 분야를 나타내는 성과들을 제출해야 한다.

2) 교육 운영자

교육운영자는 교수진, 개인코치, 학생문제 전문가 그룹, Student Experience 그룹이 있다. 미네

<p>[교수진]</p> <p>5개 대학 학장, 45명 교수, 교육과정 개발 및 커리큘럼 담당이사로 구성</p>	<p>[개인 코치]</p> <p>학습 코치 진로 코치</p>
<p>[학생문제 전문가 그룹]</p> <p>On-call 학생 Residential Assistant(RA), 전문 현장 직원, 정신 건강 전문가</p>	<p>[Student Experience 그룹]</p> <p>Khan Academy, IDEO, Google, 500 Startups, TechShop, SxSWedu 외 다수의 지역지도자, 혁신가 및 조직과 파트너십 연계</p>

르바 측에서 조직적으로 운영 관리하며, 인턴십 기회도 학교 측에서 직접 주최해서 기회를 주는 시스템이다.

3) 교육 프로그램 내용

교육 프로그램 주요 내용은 여러 다른 구성요소들로 이뤄진 본질적인 교육 과정이라고 불리는 학습 목표와 필수과목을, 1학년 때부터 습관이 되도록 익히고 체화해서 4년 내내 사용한다.

HC는 평생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기초이며 미네르바 스쿨 수업을 통해 제2의 천성이 될 수 있도록 배우는 인지 능력과 근본적인 지식이다. 미네르바 스쿨의 커리큘럼은 끊임없이 진화하는 세상이 요구하는 능력들, 특히 비판적 사고, 창의적 사고, 효과적 의사소통, 효과적 상호작용 등 네 개의 핵심 기술을 중점으로 넓고 깊게 가르치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었다. 자연과학, 사회과학, 경영, 예술, 인문학 그리고 컴퓨터 사이언스 등 광범위하게 각 학문이 서로 만나는 분야에서 습관과 개념을 발견할 수 있는 영역에 다시 적용해보는 일련의 교과 과정이 있고, 학생들에게 학제 간 소재들을 접하게 하고 지속적으로 핵심적 “생각하는 습관들과 기초적 개념” (Habits of Mind and Foundational Concepts)을 보강시킴으로써 미네르바 스쿨은 어느 분야에나 적용 가능한 기술과 지식들을 가르친다. 배우의 깊이는 전공 및 집중적 강의들과 3학년부터 시작하여 학생들이 구체적인 전문 분야에 주력하는 자기주도적인 Capstone 프로젝트를 통해 이루어진다.

1학년 4가지 필수 과목. 1학년 때 배운 학습목표를 4년 내내 사용

학습목표 (HCs)	
사고의 습관 (Habits of Mind) 신속하고 반복된 연습을 통해 자동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인지능력	기초개념 (Foundation Concepts) 폭넓고 적응이 빠른 행동방식을 위한 근본적인 지식
예시) • 주장의 개연성 확인 • 청중을 파악하여 적절하게 메시지 조절하기 • 의사결정이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 파악	예시) • 비용편익분석 • 협상에 의한 합의가 불가능할 경우 협상당사자가 취하게 될 다른 대안(BATNA)

1학년 Cornerstone 수업	
Formal Analyses Focus: 비판적 사고 논리학, 합리적인 사고방식, 통계학, 컴퓨팅 사고력, 형식체계를 배우며 훈련하는 수업	Multimodal Communications Focus: 효과적 소통 효과적인 읽기/쓰기. 시각적 커뮤니케이션, 대중연설, 의사소통에 있어서 예술과 음악의 역할을 배우는 수업
Empirical Analyses Focus: 창의적 사고 과학적인 접근방식으로 문제를 구성하고, 가설을 테스트하며 정보에 근거한 추측을 하는 방법을 배우는 수업	Complex Systems Focus: 효과적 협업 다중결합적 인과관계, 다원적 상호작용, 팀프로젝트, 협상 리더십, 토론방식을 이해하고 배우는 수업

4) 기존교육과의 차별점

미네르바 스쿨 교육은 배움의 철학을 기반으로 한 엄격한 커리큘럼, 학생 지도를 중점으로 한 노련한 교수진, 4년간의 글로벌 문화적 몰입, 20명 미만의 소규모 세미나, 선진화된 상호적 배움 환경, 일생의 커리어 지원 서비스, 성과 기반과 need-blind의 입학심사 제도, 연 \$12,950의 상대적으로 저렴한 등록금이 주요 특징이다.

미네르바 스쿨 제도의 가장 큰 차별점은 학생들이 현실 세계에 살도록 하기 위해 도시에 융화 주민으로서 살게 한다는 점이다. 미국이란 한 나라의 문화에서 얻은 실용적 아이디어를 다른 문화에 확실하게 적용하도록 도와준다. 이 과정을 Far Transfer라고 명칭 한다. 미네르바의 기숙사(확장된 캠퍼스)는 전 세계의 7개의 도시에 위치해 있고, 1학년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기숙사에 머물며 기업 인턴십에 참여하고 기본 소양을 다지기 위한 수업을 듣고 2학년 때부터는 3~6개월마다 국가를 이동한다.



다. 세계적 영향력 및 한국적용

미네르바 스쿨 프로그램은 2018년 5월, 홍콩 기술대학교(HKUST)와 파트너십 맺고, 교육과정으로 운영하였다. 본 과정은 공식 학점이 인정되며 두 대학 학생들은 상호 교류 수업참여 가능하다. 한국에서도 아주대학교에서 2019년 가을 2학기부터 미네르바 스쿨과 협력강의를 시작한다.

3 유럽의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

가. Why

1) MTA의 미션, 가치 그리고 원칙

- Mission: 우리는 모두가 혁신적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데 헌신하며 2020년 5월 1일까지 20,000명의 변화된 개인들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성공적인 MTA회사들을 만든다.

- Value: ①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을 사랑하고, 서로를 매순간 돕는다.

② 우리는 다양성을 추구한다.

③ 우리는 창조와 실험을 통한 팀학습을 믿는다.

④ 우리는 훈련과 즐거움을 통해 최고를 목표로 삼는다.

⑤ 우리는 우리가 발견한 상태보다 더 나은 상태를 유지한다.

⑥ 우리는 모든 것을 존중하고 정직하며 투명하다.

2) MTA의 시작

- 정의: 몬드라곤 협동조합과 몬드라곤 대학의 창업교육 경험을 기반으로 핀란드 TA 교육 철학과 방식을 계승해서 새롭게 만든 팀창업교육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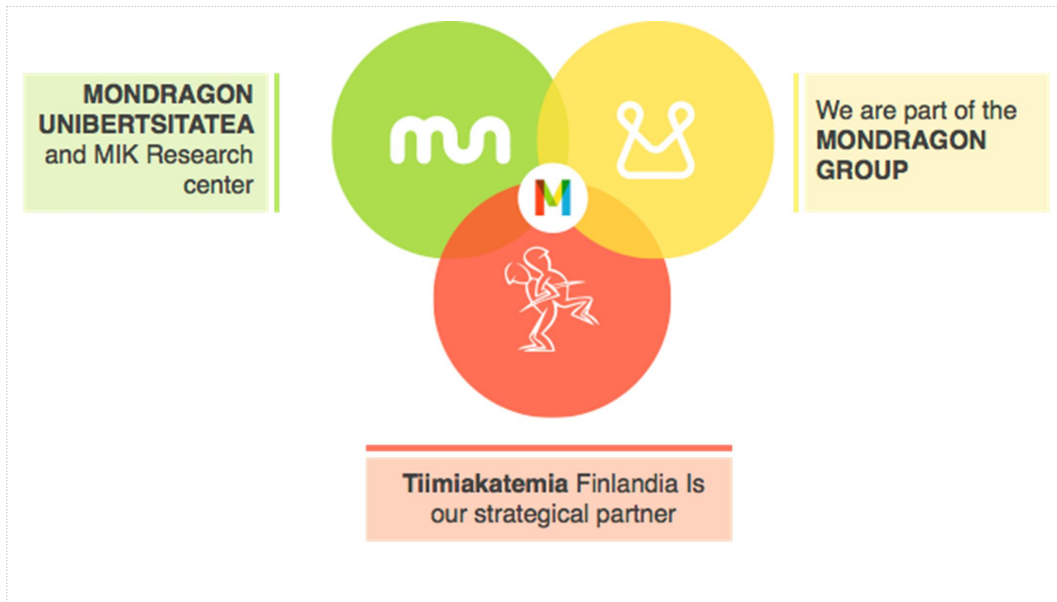
- 창립자: 호세마리 루자라가 외 2명

- 창립: 2009년 호세마리 루자라가 외 2명이 몬드라곤 대학 내 사내벤처로 시작됨.

3) 철학

‘모든 사람은 이미 충분한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이를 지식으로 만들어내지 못한다.’는 소크라테스의 구성주의 교육철학에 기반한 새로운 교육방법론(예: 거꾸로 교실 방법론이나 액션러닝과도 연결) 새로운 것에 스스로 도전할 수 있는 자기조직화(Self-organizing)학습이다. 자신들의 경험을 기반으로 팀으로 함께 지식으로 창조해내고 지속적으로 스스로 학습을 하게 된다. 모듈 중심으로 기본적인 프로세스는 존재하나 커리큘럼은 정형화되어 있지 않다. 팀프러너들은 개인적으로는 독서나 강연을 통해서 팀으로는 현장에서 실제 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학습을 하고, 다 함께 모여서 대화를 통해서 다시 학습을 하게 된다.

[그림 1] MTA의 시작



나. How

1) 교육방법

MTA는 PROCESS 중심 교육방법이다. Peter Senge가 제안한 “시스템 사고”와 Nonaka와 Takeuchi가 제안한 “지식창조”시스템에 기반을 두어 참여자와 그들의 팀이 개발한 프로젝트가 끌고 가는 능동적 학습 방법을 취한다. 학습을 돕는 최신의 ICT를 사용하는 연결된 학습 공동체를 지향하고, 혁신의 원천으로써 지속가능성을 교육 방법 개념에 포함한다.

다. What

1) 교육 대상과 프로세스

유럽공식 학사학위(LEINN)과 성인을 위한 MBA과정(MINN)이 있으며,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팀코치를 양성하는 TMINN 과정이 있다. LEINN의 선발 프로세스는 설명회가 열리고 고등학교 졸업 증명과 러닝 콤파스를 제출하면서 입학 선발 프로세스가 시작되고 에세이를 기반으로 인터뷰가 진행되며 개개인별로 다른 도전 프로젝트를 한다. 이후 예비절차를 거쳐 등록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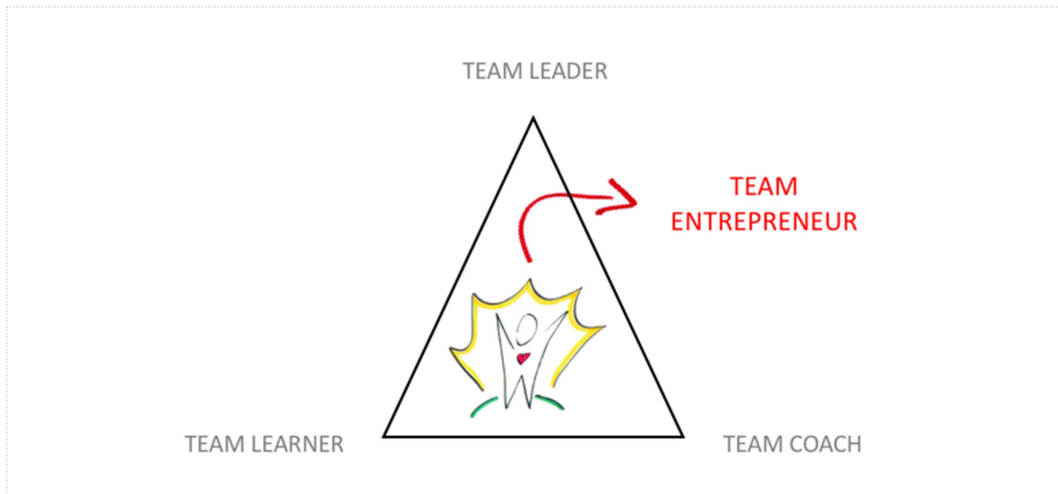
2) 교육 운영자

팀기업가정신(팀프러너십)이란 팀원 모두가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팀과 함께 나가는 방법을 익히고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역량을 의미한다.

팀기업가들은 팀컴퍼니를 통해 팀프로젝트(비즈니스)를 진행하면서 팀리더, 팀리너, 팀코치의 역할을 모두 수행하며 다재다능한 팀기업가로 변신(변혁)한다.

MTA에서는 팀기업(팀컴퍼니)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팀기업(팀컴퍼니)은 13~18명으로 구성되며 하나의 팀기업으로써 함께 학습하고 비즈니스 경험을 공유하는 공동체이다.

[그림 2] MTA 운영진 구성과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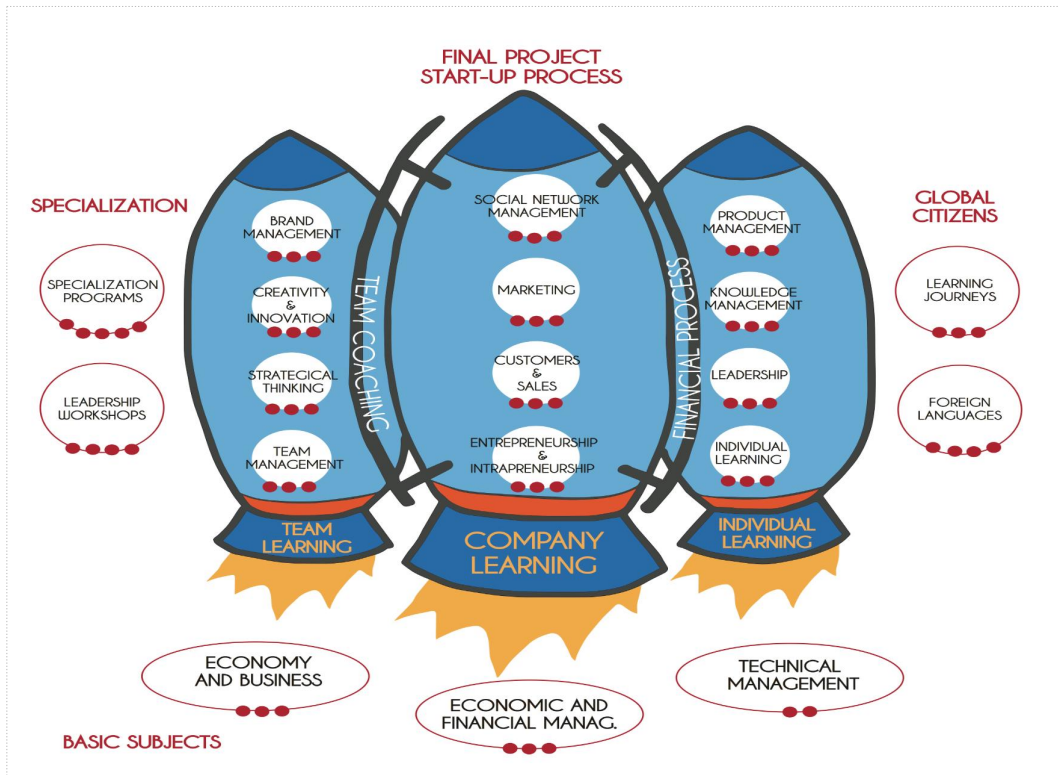


3) 교육 모델

로켓모델(Rocket Model)은 팀기업가정신(Teampreneurship)의 창조를 설명하는 모델로 개인 차원과 팀 차원, 팀기업 차원의 학습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 편에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러닝 저니(Learning Journeys)가 진행되도록 도와준다.

12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팀기업가정신의 창출에 밀접하게 연결된 도메인이며, 각각의 내용은 노나카 타케우치의 지식창조이론을 이용해 기술되어있다. 리더십, 마케팅, 등 학습 커리큘럼을 토대로 반복학습을 해 나가며, 아래의 기초적인 학습 요소부터 시작해서 리더십과 고객의 부분으로 옮겨가고 마지막에 브랜드 관리와 운영(오퍼링) 부분을 다룬다. 모든 프로세스 팀기업가를 창조하며 끝난다.

[그림 3] MTA 교육 모델



4) 기존 교육과의 차별점

큰 특징은 첫 번째로 학생이라는 개념이 없다. 앙트러프리너(Entrepreneur)에 팀(Team)을 붙여서 팀프리너(Teampreneur, 팀기업가)라고 서로를 지칭한다. 모든 참가자는 팀기업가로서 함께 기업을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두 번째로 교실이라는 개념이 없다. 세계는 넓고 그 모든 곳이 비즈니스 현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계를 누비면서 비즈니스를 한다는 개념이 강하다. 세 번째로 Teaching이라는 개념이 없다. 팀으로 함께 배운다는 것으로 원으로 둘러앉아서 대화하며 서로서로 배우는 Peer Learning의 학습 개념을 채택 하고 있다. 네 번째로 선생님이라는 개념이 필요 없게 되었다. 다만 가이드 역할을 할 수 있는 팀코치만 필요하다. 팀코치들의 역할은 이야기గా 산으로 가거나 해법을 못 찾아서 맴돌 때 개입하여 방향을 제시하거나 움직이게 하거나 갈등을 조정해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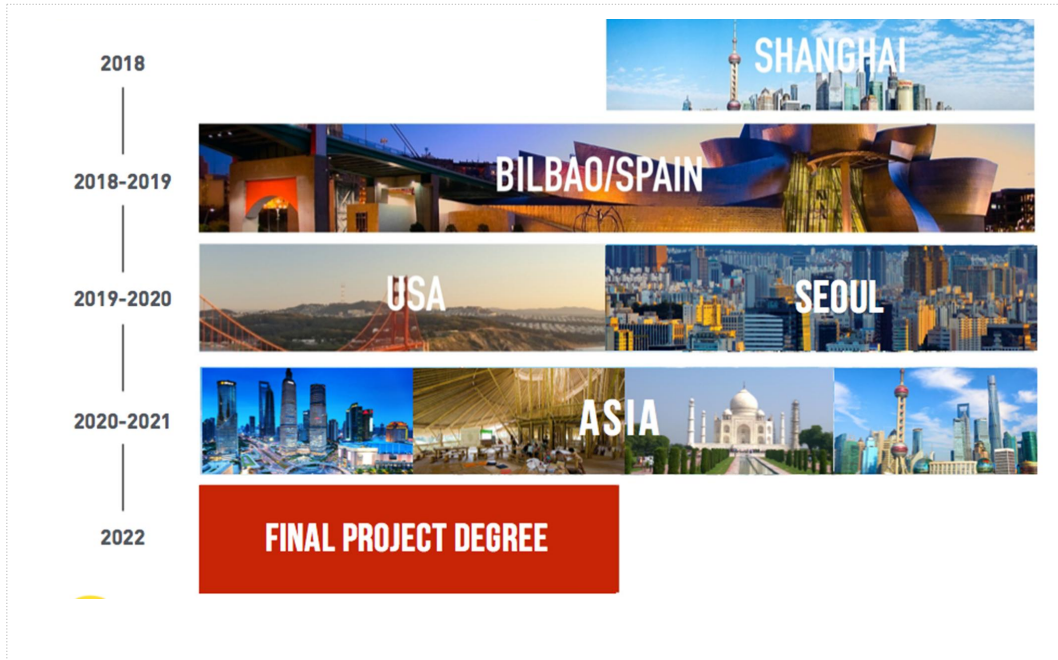
다섯 번째로 시뮬레이션이 없다. 모든 건 실제 비즈니스이다. 스페인은 법률적으로도 지원이 되어 입학하면 일단 사업자등록증부터 내고 사업을 바로 시작한다. 무조건 실전 창업 중심으로 일단 해보고 배운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다. 여섯 번째로 특별히 통제하지 않고 모든 것을 스스로

알아서 해야 한다. 이것에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통제를 하지 않고 어떻게든 자유롭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다. 세계적 영향력 및 한국적응

Learning Journey(러닝 저니) 이론적, 학교 내에서의 학습을 탈피하여,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자극과 영감을 얻을 수 있도록 사회적 혁신도시 및 해외 러닝저니를 하며 더 넓은 관점에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LEINNer는 매 학기 도시를 이동하며 팀기업 별 비즈니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14개국 9개 도시에 이노베이션랩이 있다.

[그림 4] 기존 프로그램과 MTA의 핵심적인 차별점_ Learning Journey



2016년 시작된 LEINN International(4년제 유럽 공식 학사학위)과정에서는 국적과 언어 불문하고 전 세계 다양한 국가에서 모였고 2기에 한국인 3명, 3기에 5명이 재학 중이다. 2017년 9월에 계원예대와 성균관대에 체인지메이커를 양성하기 위한 단기 과정인 Changemakerlab(체인지메이커랩)이라는 공식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또한 2018년 3월부터 팀코치 양성 과정인 TEAMINN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2020년에는 한국인 학생들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프로그램인 LEINN Korea를 정식으로 오픈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체인지메이커랩은 새로운

시각에서 대학 내에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융복합적 학습을 경험하고 MTA의 팀기업가정신인 팀프러너십(Teampreneur)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4 이해당사자 경험의 이해

이해당사자별 코드

연구참여자 코드	성별	설명	
A교수	남	미네르바 스쿨 Education Provider	A대학
B교수	남	MTA Education Provider	B대학
C교수	여		C대학
D소장	남		D연구소
E매니저	여	미네르바 스쿨 Operator Education	유라시아매니저
F디렉터	여		최고경험책임자
G코치	남	MTA Operator Education	프로그램 코치 및 운영진
H코치	남		프로그램 코치 및 운영진
I학생	여	미네르바 스쿨 Consumer Education	프로그램 참가자
J학생	여		
K학생	여		
L학생	남		
M학생	여	MTA Consumer Education	프로그램참가자(A대학과정)
N학생	남		프로그램참가자(LEINN과정)

가. 이해 당사자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연구대상)의 관점과 그들의 일상적인 실천 행동, 그리고 연구 주제와 관련된 그들의 생활세계적인 지식에 관심을 둔다. 이는 질적 연구가 삶을 재현하는 방식으로 여러 방법(기법)들을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된 것이기도 하다. 질적 연구에서는 관찰노트, 면담, 대화, 답론, 사진, 녹음, 녹화, 메모, 시각 자료를 포함한 각종 자료 등을 사용한다(Flick, 2007; 조영달 2015에서 재인용).

연구 대상은 미국과 유럽의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형태의 교육으로 국내에 소개된 미네르바 스쿨과 몬드라곤 팀 아카데미의 이해당사자들을 면담 및 조사하였다. 총 14명이나 실제 면담은 11명으로 각 평균 1시간 30분 동안 면담을 진행했다. 3명은 언론매체를 통해 인터뷰 자료를 수집하였다. 면담 연구를 통해 얻은 그들의 관점과 의견이 연구의 인과적 조건에서부터 결론에 이르는 과정에까지 모두 반영이 되었다.

나. 인터뷰 내용 요약

1) Education Provider

- 미네르바 스쿨 A교수: “개인적으로 느낀 건 이것을 한국에 도입하려고 할 때, 한국 대학의 총장님들도 관심은 많으나 도입하려고 하면 안에서 해결할 난관이 많다. 예를 들어서 한국은 일반 대학에서 온라인 수업을 20%이상 넘으면 안 된다. 거꾸로 사이버대학은 오프라인 수업이 20% 넘으면 안 된다. 미네르바는 어마어마한 오프라인 학교인데, 교과과정이 모두 온라인이니,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이나 논쟁이 많다. 실무를 알면 포기한 대학도 많고…결국 도입이 쉽지 않겠다 싶다.”
- MTA B교수: “교육방법론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새로운 방식을 트라이 하는 악착같은 사람 이라기보다는, 케이스 스터디 좀 해 보고 블렌디드도 해 보고 조금씩 시도하는데, 모든 방법론들이 대학의 체제가 바뀌지 않는 상태에서 하는 것들은 모양만 취하는 거지. 그 한계가 있어 힘들다.”
- MTA C교수: “MTA를 들여온 것은 교수자들의 협업이었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 도제식인 환경에서 나는 이 프로그램을 해 보고 싶은 것이었다. 처음에는 삐걱거리지만 교수들도 협업을 하게 되고 학생들도 바뀌고 학교도 바뀌고, 그래야 대학민국이 바뀐다. 그래서 공교육에 MTA를 들여와야 된다고 하는 것이다.”
- D소장: “MTA 도입의 첫 번째 이유는 MTA 프로그램이 한국의 교육 혁신의 맥과 충분히 함께 할 수 있겠다. 둘째 자기를 돌아보고, 다른 사람들과 협업할 줄 아는 사람들이 사회에 배출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쉽지 않겠구나 싶었다.”

2) Operator Education

- 미네르바 스쿨 E매니저: “3단계에 걸쳐 입학 과정을 거친 학생들 중 입학 허락을 받기 직전의 학생들의 가족을 찾아가서 Family Discussion 자리를 만들어서 상호 소통한다. 그만큼 학교의 방향성과 맞는 학생들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 미네르바 스쿨 F디렉터: “5가지 입학 소양이 있다. 호기심이 많아야 한다. 한 분야 이상에 열정을 쏟을 수 있어야 한다. 성실해야 한다. 팀으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또한 겸손해야 한다.”
- MTA G코치: “렛 잇 비 프로그램이다.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는데 먼저 도와주지는 않는다. 그게 철학이고 중요한 부분이다. 산으로만 계속 가고 있으면 속 터진다. 그래서 너무 착하신 분들은 하기 힘들다. 엄마의 마음으로 챙기려 하면 안 된다. 산으로 가도 그냥 봐줘야 한다.”

- MTA H코치: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게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평가도 본인들이 하고, 책임도 본인들이 진다. 대학이 하는 게 뭐야? 이렇게 비싼 등록금을 받고 너희가 해주는 게 뭐야 하는 불만이 나오기도 하는데 팀코치들이 이야기할 때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기존 대학에 대한 프레임은 깨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3) Consumer Education

- 미네르바 스쿨 I학생: “배움을 어떻게 한 두 숫자로 요약할 수 있냐는 말을 많이 한다. 우리 학생들은 숫자자체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미네르바 스쿨은 1학년 때 받은 성적은 최종 성적에 반영되지 않는데, 배운 것을 2, 3학년 때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교육 이념이 한국적 상황과 맥락에 맞을 수 있을까. 대학 자체적으로 ‘배움이란 무엇일까?’, 그 답에서 대학이 차지하는 부분은 무엇일까? 깊게 질문을 해봐야 할 것 같다.”

- 미네르바 스쿨 J학생: “미네르바스쿨은 전 세계를 돌아다닐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에 가장 큰 매력을 느꼈는데, 기대했던 대로 생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카카오그룹 미래전략팀과 함께 앞으로 우리 세대의 주류 트렌드가 무엇인지 조사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세계 최대의 숙박 공유 플랫폼인 에어비엔비나 스마트폰 앱으로 승객과 차량을 이어주는 우버와 같은 공유 경제, 소셜 데이팅앱 같은 네트워킹의 변화 등을 조사하는데, 학교라는 한정된 공간을 벗어나 만나는 모든 경험과 네트워킹이 정말 다이내믹하다.”

- 미네르바 스쿨 K학생: “합격한 뒤 한국의 새내기 배움터처럼 학교에서 재학생 선배들과 어울리고 교수진, 학교 스태프들을 만나는 ‘어센트(ascend)’ 라는 행사에도 다녀왔다. 학교 행사에서 만난 모든 재학생은 학교생활에 완전히 만족하고 있었고 이 학교가 단순히 실리콘밸리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험적 교육 시스템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목표 아래 단계적으로 발전하는 과정에 있다는 것을 굳게 확신할 수 있었다.”

- 미네르바 스쿨 L학생: “미네르바는 꼭 기업가적인 사람을 육성하는데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미네르바 교육 방식이 기업가적인 mindset을 갖는 데는 도움이 확실히 되긴 할 것 같다. 미네르바에서는 critical & creative thinking과 effective collaboration & communication을 매우 중요시 여기는데, 이 4가지 교육 “pillars”들은 비즈니스 리더들이 세상의 문제에 접근하는데 매우 큰 도움이 되는 도구들인 것 같다. 이 “생각 도구” 또는 “생각 습관”들을 학교에서 이론적으로도 배우기도 하지만 실생활에 응용하도록 계속 push하는 것 같다.”



- MTA M학생: “완벽한 정의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의미를 생각해보면, 질문을 던져서 내가 찾는다는 것, 그것이 직업 교육이나 기술 교육과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 실질적인 기술을 가르치지 않지만, 근데 그것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도록 등을 떠밀

어 준다. 예쁜 말로 하자면 ‘몸으로 내 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안전한 울타리를 만들어 주는 프로그램’이라고 부르고 싶다.”

- MTA N학생: “대한민국에서 창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MTA가 말하는 창업과는 온도 차이가 있다고 본다, 법인격을 이용해서 팀 다이내믹이라든지 팀으로서 어떻게 내 주변 사회에 영향을 줄지를 고민하는 게 전반적인 프로세스이자 키워드이다. 아이템보다 그 안에서 어떻게 갈등을 관리하고 어떻게 이제 난관을 극복해 내고, 그런 순간마다 많이 성장한다고 느낀다.”

5 요약 및 결론

가. 미네르바 스쿨 vs MTA

	 MINERVA SCHOOLS AT KGI	 MTA MONDRAGON TEAM ACADEMY
설립연도 설립자	2014년 Ben Nelson & Stephen M. Kosslyn	2009년 Jose Mari Luzarraga 외 2명 몬드라곤 대학 내 사내벤처로 시작
교육 목적	Individual (Student-oriented)	Teampreneur (Team Entrepreneur)
교육 대상	전 세계 가장 뛰어나고 의욕적인 학생 누구나(만 16세 이상)	전 세계 고등학교 졸업 증명을 가진 학생 누구나
교육 방법론	Active Learning (구조화)	Learning by Doing (비구조화)
교육 모델	Habits of Mind & Foundation Concepts	Rocket Model (Teampreneurship 창조)
학생체험도시	샌프란시스코, 서울, 하이데라바드, 런던, 베를린, 부에노스아이레스, 타이베이 (7개 도시)	이룬, 오나피, 빌바오, 바르셀로나, 푸네, 마드리드, 발렌시아, 시애틀, 샌프란시스코, 마스트리히트, 상하이, 이바스킬라, 깨레따로, 서울 (14개 도시)
교육 참여자 수	29명(2014) → 600명(2018), 한 학년 200명	1,600명(LEINN 과정) 한 학년 30명(2개 팀컴퍼니)
핵심역량	Critical thinking Decision making	Team Learning by Creating Learning by Doing
공동핵심역량	Team 팀/협업 Diversity 다양성 Passion 열정 Communication 소통 Practical experience 실제적인 경험	

미네르바 스쿨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IT기업 최고경영자였던 벤 넬슨에 의해 2014년 설립되었고, MTA는 2009년 호세 마리 루자라가를 주축으로 몬드라곤 대학 내 사내벤처에서 시작된 대학교이다. 교육 목적은 미네르바 스쿨은 개인, MTA는 팀 즉, 팀프러너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교육모델과 방법은 미네르바 스쿨은 사고의 습관과 기초개념을 통해 구조화된 Active Learning을, MTA은 Rocket Model을 뿌리로 비구조화된 Learning by Doing 방식으로 교육이 이루어진다. 핵심역량은 미네르바 스쿨은 비판적 사고를 기반으로 의사결정역량을 향상하는 것이고, MTA는 경험기반 학습방법에서 팀 학습을 통한 협업 역량을 향상하는 것으로 본다.

미네르바 스쿨과 MTA의 공통핵심역량을 5가지로 키워드를 도출할 수 있는데, 팀/협업(Team), 다양성(Diversity), 열정(Passion), 소통(Communication), 실제적인 경험(Practical Experience) 역량이다.

나. 이해당사자의 경험 의미

이해 당사자들의 인터뷰를 정리하면, Education Provider는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을 국내에 도입했을 때 겪게 되는 장벽과 논쟁에 대해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관계자들을 설득하면서까지 도입하려는 이유는 장단기 성과의 우수성으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다.

Operator Education는 미네르바의 경우 학교의 방향성과 맞는 학생들을 선별하기 위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들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MTA의 경우 기존 대학의 프레임을 깨는 역할을 하기 위해, 코치로서의 역할 조율에 힘을 쏟았다.

Consumer Education는 미네르바의 경우 학생 스스로 교육 과정을 통해 ‘교육’과 ‘배움’의 의미를 자연스럽게 터득하였고, MTA의 경우 기존 교육과의 차별점을 강하게 인지하고 교육 프로세스로 성장하였다고 말했다.

전반적으로 두 혁신적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교육 수요자들은 삶의 현장에 관심을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고 배운 개념을 그들의 삶에 적용하면서 자립과 독립성을 얻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이론적 & 실천적 시사점

교육이란 무엇인가? 대학은 왜 존재하는가? 대학은 어떤 교육을 해야 하는가? 지금의 우리 대학은 진짜 삶을 위한 교육을 하고 있는가? 청년들은 왜 기존의 대학이 아닌 새로운 교육 방식의 학교를 필요로 하는가?

지금처럼 지식을 주입하는 교육으로는 인공지능과 로봇을 능가할 수 없다. 새로운 세대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살아갈 세상은 지금과 현격히 다르다는 것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라고 본다. 지금의

교육으로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이번 이슈페이퍼의 방향성인 기업가적 대학 (Entrepreneurial University)이 되기 위해서 기존의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우리는 동의한다.

직접적인 부딪힘과 사회에서의 경험 속에서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를 스스로 알아차릴 수 있는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자신이 속한 대학과 대학이 속한 지역 공동체의 다양한 사람들과 함께 학습하고 실제적인 비즈니스 체험을 통해 다양한 시도와 도전을 하고 실패를 용인할 수 있는 실험실 성격의 학교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은 선진국의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교육 프로그램의 국내 도입방안을 모색하고 있지만,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한국 맥락에서 유효한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의 성공 사례이다. 지금 한국의 교육 패러다임에서 청사진을 그려보면, 학제가 나뉘지 않는 통합교육, 개개인성을 존중하는 전인교육, 실전 체험형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교육 경험을 통해 학생들은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하고 자기가 진짜 원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결국 자연스럽게 세계 시민(Global Citizen), 앙트러프러너십 (Entrepreneurship), 인간다움(Humanity)이 배양되고 발현될 수 있을 것이다.

기존의 창업 교육의 국내 현황은 2000년대를 기점으로 급격하게 양적으로 확산되었으나, 공공부분의 지원에 거의 전적으로 기대고 있는 실정이고 정부지원의 평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운영주체에 따라 이론/강의형, 현장실습/체험형 교육방식을 취하며 교육형태가 진화하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현재의 창업 교육 내용 및 운영 및 교수방법은 전반적으로 형식적 교육형태를 띠고 있었다.

국내의 앙트러프러너십 교육이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성장하려면, 대학의 패러다임 변화를 인식해야 한다. 즉 대학과 기업이 산학 협력하여 창업 생태계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현상의 인과적, 맥락적 요소를 이해하고, 효과적이고 새로운 교육방식을 교육 현장에 적용해서 활용해야 함으로 보인다.

구성주의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 (entrepreneurship pedagogy) 및 기업가적 대학에의 시사점

윤성해 | Let's Lab 대표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범국가적 차원에서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이 강조되고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이와 같은 흐름에 맞추어 고등교육 현장에서도 창업교육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우리나라 대학 창업교육은 2013년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이 수립된 이후 지금까지 급격한 양적 기반을 이루었다고 평가되고 있다(교육부, 2019). 그러나 지금까지의 대학 창업교육은 여전히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는 현실이다. 2017년에 개설된 창업강좌 중 이론형 강좌는 9,349개(79.0%), 실습형 강좌는 2,479개(21.0%)로, 실습형 창업교육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교육부, 2019).

뿐만 아니라 기업가정신 교육 분야의 간학문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경영학을 중심으로 선도적인 연구가 이뤄져와, 교육공학(educational technology) 관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의 방법론에 대한 관심이 미진하였다. 이에 국내에서 고등교육에서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entrepreneurship pedagogy)에 관한 연구는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은 “기업가정신을 가르치고 평가하기 위한 교육적 전략”을 의미하며, 학습자에게 매력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 과정을 제공하기 위한 혁신적·적극적 교수방법을 탐구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다(Lominé, n.d.; Philippe, 2018).

기업가정신은 새로운 것을 하거나 기존의 것을 새로운 방식으로 하는 등의 진보적이고 창조적인 역량의 총체를 의미하는 것으로서(Schumpeter, 1934, 이춘우 외, 2014에서 재인용), 지식

(knowledge), 기술(skill), 태도(attitude), 습관(habit)을 포괄하는 총체적인 역량이다(김영수, 성장기, 2015). 이러한 총체적인 역량은 강의와 같은 수동적인 교육방법만으로는 함양되기 어려우며, 학습자중심의 적극적인 교육방법의 적용이 요청된다.

특히 최근 요청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은 구성주의(constructivism) 기반의 교육과 맥이 닿아있다(Löbler, 2006).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세상에 대한 경험을 통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의미를 구성해나가며 학습한다고 보는 관점으로, 구성주의 관점에서 현실은 학습자가 어떻게 바라보고 상호작용하는지에 달려 있으며, 지식은 사실, 원칙, 이론보다는 현상과 사건에 대한 관찰과 해석이라고 본다(Resnick, 1989). 따라서 현실에 적응하고 경험을 구성하는 데 앞의 목적을 두고 있으며, 학습자는 적극적인 의미의 구성자라고 본다. 이에 따라 구성주의 관점에서 교수자는 지식을 전수하는 역할이 아니라, 학습자가 새로운 사고의 방식을 시도해볼 수 있도록 가이드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Shapriro, 1994, Löbler, 2006에서 재인용). 이는 최근에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으로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디자인기반학습(design-based learning) 등의 기저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국내외 문헌연구를 실시하여 구성주의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을 정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기업가적 대학 맥락에서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대학 창업교육의 질적 도약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효과적인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구성주의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

가.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의 패러다임

기업가정신 교육의 학습목표라고 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혁신적인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업가(entrepreneur)의 특성, 행동, 역량 등의 총체를 의미한다(고명숙 외, 2015). 기업가정신의 요소는 연구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제안되고 있으나, 공통적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감수, 혁신적 행동, 기회를 포착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강경균, 김병근, 2014). 기업가정신 교육은 이러한 다면적인 특성인 기업가정신을 함양하기 위한 교육으로서, 전통적인 교수자 중심의 교육방식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Neck, Greene, Brush(2014)는 기업가정신을 배우기(learn) 위해서는 기업가정신을 실행해야(do)한다고 주장하였다.

Löbler(2006)는 기업가정신 교육의 요구사항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첫째,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학습 과정의 주도권은 학습자가 가져야 한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교수자 주도적인 형태가 아닌 학습자 주도적인 형태로 학습이 일어났을 때이다. 학습자로 하여금 학습 활동에 온전히 관여하도록 해야 한다. 학습자가 적극적인 지식의 창조자가 되고, 교수자는 단지 학습자의 학습을 도와주거나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둘째, 전통적인 교육에서 주로 학습 목표가 지식을 습득하고 전이하는 것이었다면, 기업가정신 교육에서는 지식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기업가적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자질과 공동체 의식을 키워주어야 한다. 셋째, 학습자들은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서 배우며, 그들의 활동과 결과를 성찰하면서 자신만의 의미를 만들어나간다. 성찰의 과정에서 교수는 단지 학습자를 지지할 뿐이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동료 학습자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다.

기업가정신 담론의 모형을 이루는 층위는 철학적 뿌리, 교육적 의식, 기업가적 교육방법론(pedagogy),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표, 기업가적 학습 내용, 방법 및 환경 등으로 구성된다. 기업가적 교수-학습은 기업가적 교육방법론 및 학습에 대한 이론적·철학적 기반에 근거한 접근이 필요하다(Hägg & Peltonen, 2011). 이에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구체적인 교수-학습 방법 모형을 논의하기에 앞서 기업가정신 교육에 적합한 기저의 학습이론으로서 구성주의에 초점을 맞추고 이를 살펴보았다.

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 기저 이론으로서의 구성주의

지금까지 기업가정신 교육방법은 다양한 형태로 시도되었다. 그러나 실천적인 담론에 비하여 학습이론을 기반으로 한 기업가정신 교육의 이론적 뿌리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드물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학습이론에 기반한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시도되었던 다양한 형태의 실천적 논의의 뿌리를 구성주의 학습이론에서 찾고자 하였다.

학습이론(learning theory) 중 하나인 구성주의는 주관주의에 그 철학적 인식론을 두고 있다. 객관주의와 달리 주관주의는 지식이 사회적·문화적·역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개개인이 구성해 나가는 것이라고 본다(유승우 외, 2017). 구성주의는 학습자가 중심이 되어 자신 나름의 지식을 구축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학습이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을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Jonassen, 1999).

한편, 지식, 기술, 태도의 총체적인 역량인 기업가정신의 다면적 특성으로 인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은 몇 가지 독특한 특성을 가진다. 첫째,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학습 과정에 대한 주도권은 교수자가 아닌 학습자에게 있으며, 교수는 학습과정에서 학습자의 조력자 혹은 코치의 역할을

수행한다. 둘째, 기업가정신 교육의 목적은 지식의 전달이 아니다. 비구조화되고 불확실한 기업가적 환경에 준비되기 위해서는 학습의 목적도 학습자가 스스로 결정하여야 한다. 셋째, 기업가정신 교육은 정보보다는 활동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학습자가 적극적 행위자로서 행하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경험하고 성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Löbner, 2006). 이와 같은 기업가정신 교육이 갖추어야 할 특성은 구성주의적 접근과 일맥상통한다.

3 구성주의 기반 교육방법의 종류와 기업가정신 교육에의 적용

본 연구에서는 기업가정신 교육에 적용되기에 적절한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디자인기반학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가. 문제기반학습(Problem-based Learning)

의과대학에서 시작된 문제기반학습은 너무 쉽게 해결되거나 하나의 정답이 있는 것이 아닌 다양한 해결책을 요구하는 비구조적인(ill-structured) 문제로부터 시작한다. 이러한 문제는 학습자의 삶과 연결된 실제적인(authentic) 문제여야 하며, 문제 상황은 학습의 핵심내용과 맥락이 포함되어야 한다. 또한 문제기반학습은 학습자 중심이다. 학습자는 문제해결자로서, 문제를 해결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이해하고, 학습을 주도하며, 학습에 책임을 맡는다. 교수자의 역할은 지식 전달자가 아닌 문제 설계자, 학습의 안내자·촉진자, 평가자로서 학습자가 지식을 구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조연순, 이명자, 2006). 문제기반학습은 지식의 습득·기억·활용, 창의적·비판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력,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학습동기와 흥미 유발,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등에 효과적이다(조연순, 이명자, 2006; Hmelo & Lin, 2000). 문제기반학습의 일반적인 절차는 문제 제시, 문제해결 계획, 탐색 및 재탐색, 해결책 고안, 해결책 발표 및 평가로 이루어진다(조연순, 이명자, 2006).

싱가포르 Republic Polytechnic은 문제기반학습을 모든 교육과정에 적용하여 운영하였다. 이 대학에서 기업가정신 교육은 2학년 및 졸업학년 학생들을 위해 “Developing Enterprise”(DE)이라는 이름으로 개설되어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운영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신문, 비디오 클립, 정책 문서, 기업 재무 보고서 등으로부터 도출한 실제적 문제를 통해 학습자로 하여금 안전한 환경에서 실제 비즈니스 세상을 경험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도록 돕고자 설계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문제는 기업가나 초기 스타트업들이 간과하기 쉬운

중요한 이슈들로 설계되었다(Tan & Ng, 2006). 그밖에 수도권 4년제 대학에서 실시된 ‘기업가정신과 창업’의 사례는 문제기반학습과 플립러닝이 적용된 교육 프로그램으로 개설되었다(남정민, 2017).

나. 프로젝트기반학습(Project-based Learning)

프로젝트기반학습은 복합적이고 실제적인 질문과 주의 깊게 설계된 결과물과 과제들을 둘러싼 집중적인 탐구과정을 통하여, 학생들이 지식과 기술을 학습하게 하는 체계적인 교수 방법이다(Markhan, Larmer, & Ravitz, 2007). 학습의 원동력이 ‘산출물’에 있으며, 최종 산출물을 얻기 위한 탐구활동이 이뤄진다(조연순, 이명자, 2006). 문제기반학습과 마찬가지로 학습자 중심의 교수학습 방법이며, 교수자는 촉진자의 역할을 수행한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일반적인 절차는 프로젝트 제시, 계획, 실행, 초안 작성, 수정, 최종 산출물 발표 순으로 이루어진다.(Donnelly & Fitzmaurice, 2005)

Radianto와 Wijaya(2017)는 프로젝트기반학습이 학습자의 기업가적 특성을 계발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비즈니스 프로젝트에서의 혁신을 이끄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은 인도네시아의 Ciputra University에서 실시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프로젝트기반을 적용하여 설계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학습자의 비즈니스 수행과 혁신, 스스로의 잠재력과 기회를 구축하는 역량, 위험감수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개발되고 실행되었다.

다. 디자인기반학습(Design-Based Learning)

디자인기반학습은 최근 폭발적으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교육방법 중 하나이다. 디자인기반학습에서의 디자인이란 실제 산출물의 제작을 포함하는 사고 과정을 말한다(Miller, 2004). 즉, 창의적인 인공물이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탐구와 추론의 과정,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일련의 활동을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교육에 적극적으로 접목하고자 하는 교수-학습 방법이 바로 디자인기반학습이다(Puente, van Eijck, & Jochems, 2013). 디자인기반학습은 디자인사고를 학습에 접목하는 형태라고 볼 수 있으며, 디자인을 학습에서 활용하고자 하는 시도는 디자인기반학습에서 따라야 할 절차에 대한 논의로 이어졌다. 특히 기업가정신 교육에서의 디자인사고의 적용은 국내외에서 최근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김세영 외, 2018a; 정현진, 김창완, 2018).

Brown(2008; 2009)은 디자인사고를 “사람의 요구, 테크놀로지의 가능성, 비즈니스의 요구사항을 통합하는 디자이너의 툴킷으로부터 나오는 혁신에 대한 인간중심적 접근”이라고 정의하였다(Brown, 2008; 2009; IDEO, 2009). 지금까지 디자인사고의 과정을 보여주는 다양한 모형들이

제시되었으며, 대표적인 D.School의 모형은 공감(empathize), 정의(define), 아이디어이션(ideate), 프로토타입(prototype), 테스트(test)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D.School, n.d.).

디자인기반학습을 기업가정신 교육에 활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Stanford 대학의 D.School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곳은 디자인사고 교육기관으로 가장 대표적인 교육기관이다. D.school은 Stanford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그 외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재학생 대상 수업은 core classes, boost classes, pop-out experiences가 있다. Core classes는 디자인의 포괄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과목으로, 운영 기간은 프로그램별로 다양하다(D.School, n.d.). 독일의 Mun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 (MUAS)의 Strascheg Center for Entrepreneurship (SCE)에서 운영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인 Academic Program for Entrepreneurship (APE) 또한 디자인사고를 기반으로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Huber et al., 2016). 슬로베니아의 University of Ljubljana 경제학 전공(FELU) 학부, 대학원, MBA에서도 디자인사고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Ellermann, 2017).

라. 함께 적용될 수 있는 기타 교육방법

구성주의 기반의 대표적인 교육방법인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디자인기반학습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때 함께 고려될 수 있는 기타 교육방법으로서 협력학습(collaborative learning)과 플립러닝(flipped learning)이 있다. 협력학습은 둘 이상의 사람들이 하나의 공유된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학습하는 과정이다(강명희, 2010; 이성주, 2008). 이러한 협력학습은 다양한 학습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강명희(2010)는 문제해결력, 창의성, 공동체 의식, 신뢰, 개인 책무성 등이 협력학습의 결과로서 나타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밖에도 협력학습은 비판적 사고를 촉진시키고, 의사소통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도 효과적이다(Lee & Bonk, 2014).

플립러닝은 전통적인 수업의 순서를 뒤바꾼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인 수업의 방식이 교실 수업에서 교수자의 강의를 듣고, 집에서 복습하는 형태였다면, 플립러닝은 교실 수업 전 개별적으로 미리 지식을 습득하고, 수업 현장에서는 협력학습이나 심화된 문제해결을 하는 것이다(Yoon, Kim, & Kang, 2018).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이론적 기반에 대한 지식전달 측면에서 온라인 수업이 병행된 플립러닝을 적용한다면, 수업현장에서는 보다 학습자들에게 권한이 주어질 수 있다. Blimel(2014)은 플립러닝의 전형적인 방식과 같이 온라인 학습과 오프라인 교실 수업을 뒤집은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 교실 안과 밖을 뒤집은 Inside-out 플립러닝 모형을 제안하고 기업가정신 교육에 적용하였다. 남정민(2017)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에서 플립러닝을 적용하였다.

4 기업가적 대학에의 시사점

가. 구성주의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의 기본 원칙

이상과 같이 기업가정신 교육에 적용될 수 있는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방법론으로서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디자인기반학습을 살펴본 결과, 이들 간에는 몇 가지 공통된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디자인기반학습은 모두 구성주의 철학에 기저를 두고, 지식은 인간의 경험, 해석, 의미부여에 의해 생성되는 주관적 대상이라고 이해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또한 교수자는 지식의 전달자가 아니라 문제/과제/상황을 설계하고, 학습의 과정은 안내 및 촉진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학습자가 스스로 지식을 구성하고 생산하는 주체로서, 학습의 주도권을 가진다는 데 동의한다. 기본적으로 같은 철학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이들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다.

반면 이들 간에는 몇 가지 차이점도 존재한다.

문제기반학습과 디자인기반학습은 모두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그 문제의 수준은 다소 개념적 차이가 존재한다. 문제기반학습은 ‘실제적인(authentic)’ 문제를 제시하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을 통해 문제해결능력을 향상시키는 교육방법이다. ‘실제적’이라는 말은 학습자의 경험에 기반을 두거나 혹은 학습자의 미래의 삶이나 커리어에서 실제로 ‘일어날 법한’ 문제라는 의미이다. 반면 디자인기반학습의 프로세스 모형으로 적용되고 있는 디자인사고 모형들은 본질적으로 ‘실제 현실에서’ 당면한 복잡한 문제를 발견 및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 프로세스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며, 이를 교육현장에서 디자인기반학습의 구체적인 방법으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또한 문제기반학습보다 디자인사고에서 순환적(iterative)인 과정과 반복적인 실험정신을 보다 강조한다는 점에서도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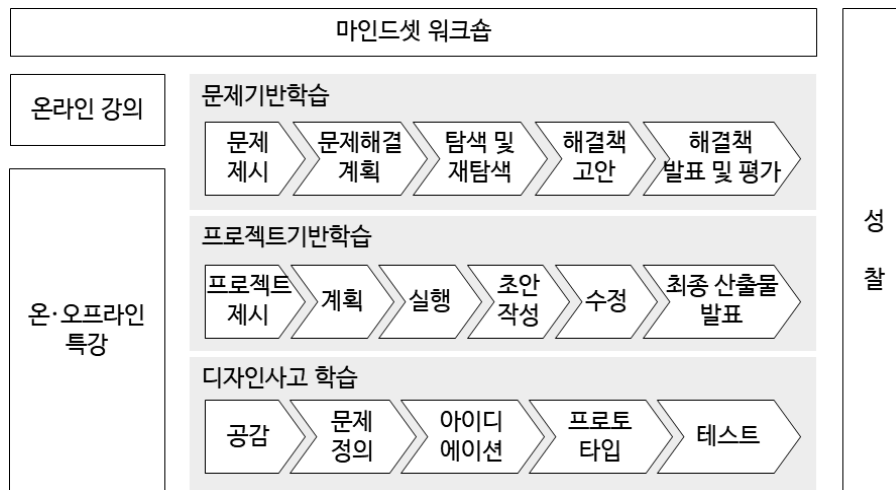
문제기반학습의 큰 틀에서 학습자들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론의 하나로 디자인사고를 보는 관점도 가능하다. 그러나 현재 디자인사고가 다양한 대상, 맥락, 주제에서 독립적인 영역을 구축해나가고 있으며, 교육방법론으로서 뿐만 아니라 창의적 문제해결을 위한 디자인에 대한 철학적 이해까지 포함하는 폭넓은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을 비교적 독립된 교육방법론으로서 이해하였다.

문제기반학습과 프로젝트기반학습의 차이점은 문제기반학습은 문제를 해결하는 데, 프로젝트기반학습은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기반학습은 문제 상황이 제시되면 학습자가 이를 분석하여 문제를 발견하고,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여야 하는 반면, 프로젝트기반 학습은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여 최종 산출물을 도출해내야 한다(조연순, 이명자, 2006).

프로젝트기반학습과 디자인기반학습 또한 다소 차이점이 있다. 먼저 프로젝트기반학습은 주로 좁은 주제 영역을 다루는 경향이 있는 반면, 디자인기반학습은 목표가 매우 방대한 경우가 많다. 프로젝트기반학습을 위해 교수자는 두세 가지의 핵심 질문을 하지만, 디자인기반학습에서는 질문을 전혀 하지 않으며, 매우 거시적인 주제만 제시한다. 또한 프로젝트기반학습에서의 아이디어와 프로토타입은 교수자에 의해 미리 결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지만, 디자인기반학습에서는 어떤 아이디어를 어떠한 형태로 보여줄 것인지는 학습자에게 달려있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프로젝트기반학습은 주로 교육자들에 의해 교육적 맥락에서 접근된 반면, 디자인기반학습의 중심이 되는 디자인사고는 산업계에서의 실천 모형으로 발전되었다. 따라서 프로젝트기반학습에서 사용되는 용어는 실제 삶에서는 사용되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디자인기반학습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실제 맥락에서 사용되는 바로 그것이다(McIntosh, 2012).

이처럼 각 교육방법들은 그 기저 철학이나 교수자와 학습자의 역할 측면에서 매우 유사하나, 몇 가지 차이점도 갖고 있으므로, 본 연구는 이들을 각각 개별적인 교육방법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은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 통합 모형을 제안하였다.

[그림 1]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 통합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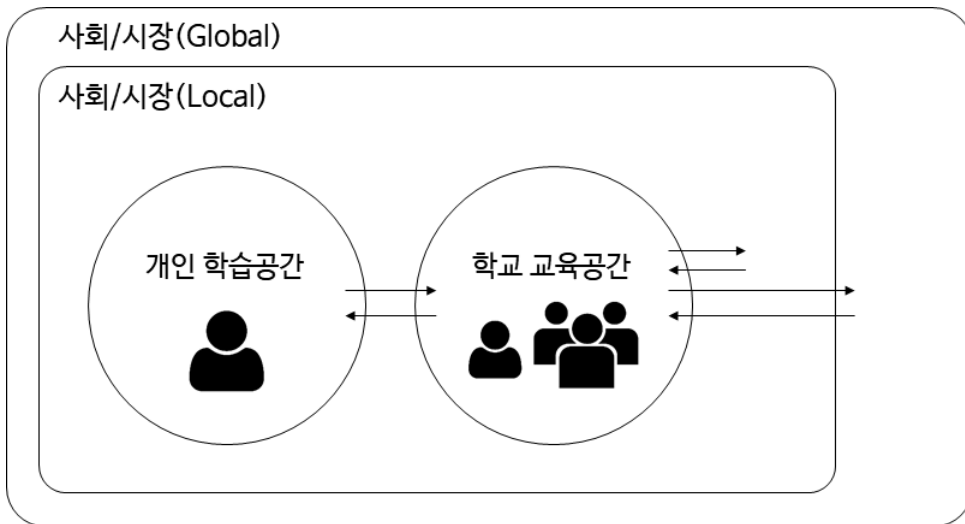


[그림 1]은 기업가정신 교육에 적합하다고 여겨지는 구성주의 기반 교육방법으로서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디자인기반학습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각의 대표적인 학습과정을 제안하였다. 또한 기업가정신 교육은 실제(적) 문제해결력의 함양뿐만 아니라 실험정신, 위험감수성, 긍정적 사고와 도전정신 등의 마인드셋의 함양도 요구된다. 이러한 요소들은 물론 실제(적) 문제해결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함양될 것으로 기대되기도 하지만, 직접적인 몇몇의 마인드셋 워크숍을 통해 aha moment를 경험할 수도 있다.

한편 온라인 강의를 통해 기본적인 이론에 대한 개별학습을 지원할 수 있다. 이는 플립러닝의 형태로 활용해볼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기업가 롤모델의 제시와 멘토-멘티 네트워킹을 촉진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특강도 병행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찰은 모든 활동에 대하여 학습자가 스스로의 학습을 돌아보고 의미를 발견하는 과정으로 필수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1]의 모형은 학습자의 상황과 학습목표에 따라 부분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이러한 전체적인 학습은 [그림 2]와 같이 학습자 개별 학습공간과 학교 교육공간뿐만 아니라 사회와의 활발한 상호작용을 통해 실현된다.

[그림 2] 기업가정신 교육의 공간적 맥락



학습자는 개인 학습공간에서 온라인 학습을 통해 실행 가능한 이론을 습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학교 교육공간에서 교수자 및 동료 학습자와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문제는 Global과 Local 단위의 사회의 문제 혹은 시장과 관련된 실제(적) 문제이다. 학습자들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실제 사회나 시장에서 실행되어야 하며, 그 결과는 다시 학교 교육공간에서 해석되고 성찰된다.

나. 기업가적 대학에의 적용

위의 제안과 더불어 기업가적 대학에의 시사점을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제 창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의 설계 및 운영이 필요하다.

[그림 3] 구성주의 기반 기업가정신 교육 설계 및 운영 원리



구성주의 기반 교육방법론에 입각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의 설계 및 운영 원리를 도출해보면 [그림 3]과 같다. 학습의 주제는 실제(real) 혹은 실제적(authentic) 테마, 문제, 과제여야 할 것이다. 또한 상호작용과 사회인지적(sociocognitive) 갈등을 요구하는 활동은 고등사고능력 함양에 도움이 될 수 있다(Löbler, 2006). 학습자는 문제해결자, 지식의 구성자로서 학습의 책임을 가져야 하며, 교수자는 학습의 안내자, 촉진자, 평가자로서 멘토링과 코칭을 제공해주어야 한다. 또한 학습 환경을 교실 환경에 국한할 것이 아니라 외부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 학습자에게 주어지는 문제나 과제 또한 실제 현장으로부터 주어진다면 훨씬 더 실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학습 경험을 제공해줄 수 있을 것이며, 학습자들이 관련된 정보를 찾고 조사하며, 해결책을 실험해보는 전 과정을 확장된 공간에서 실시할 수 있다. 또한 실제적 경험과 학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발전시켜 실제 창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것도 중요한 이슈라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업가정신 교육의 평가를 위해서는 대안적인 방식이 필요하다. 기업가정신 교육에서의 평가를 위하여 자기평가, 동료평가, 포트폴리오, 교수자 관찰평가 등의 총체적인 방법이 제안될 수 있다 (김세영 외, 2018b).

둘째, 기업가정신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한 학사제도 개편이 필요하다. 구성주의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전통적인 강의-시험 형태의 수업과는 달리,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디자인기반학습과 같은 창의적인 교육방법이 적합하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학에서 운영되고 있는 규준지향평가(상대평가) 방식의 전통적인 학습평가 방식을 적용하기에 한계가 따른다.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규준지향평가는 학습자의 학습과정과 노력의 결과가 제대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측면이 있다 (홍광표, 2017). 특히 지식의 상대성을 인정하는 구성주의적 교육 방법에 있어, 학습 결과에 대한 수치화를 통해 학습자들의 상대적인 서열을 매기는 방식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더욱이 실험주의와 협력을 강조하는 디자인사고 및 린 스타트업 등의 관점은 규준지향평가로 인한 경쟁의 자극은 적절하지 않다. 이에 구성주의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 교과목에 대해서는 규준지향평가를

엄격하게 적용하지 않는 방안을 고려해볼만하다. Pass/Fail 평가방식이나 준거지향평가를 통해 학점을 인정하는 방법을 적용해볼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뿐만 아니라 비교과 교육과정으로서의 기업가정신 교육 운영도 장려될 수 있다. 비교과 교육과정이란 학점이 부여되지 않는 교육활동으로서 인턴십, 동아리, 공모전 등의 다양한 범위를 모두 일컫는다(김정민, 2018). 학습자 주도적인 기업가적 활동을 촉진하고, 이러한 활동을 적절한 대학 내 교육경험으로 인정해주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요구된다. 또한 간학제적 협력과 실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과 간 경계를 낮추기 위한 제도적 고민도 필요하다.

셋째, 인적자원의 확보 및 교원교육이 필요할 것이다. 학습자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교원을 충원하거나, 혹은 내용전문가인 기존의 교원에게 새로운 교육방법에 대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원교육이 필요하다. 현재 많은 대학들은 교수학습센터(Center for Teaching and Learning, CTL)를 두고 교수 및 학습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적극 활성화하여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원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강의 모니터링, 수업컨설팅, 교수법 워크숍 및 특강과 같은 교원교육 프로그램의 운영뿐만 아니라, 교수들 간의 교수법에 대한 연구와 교류를 촉진하기 위한 방안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기업가정신 교육 평가 및 질 관리 노력이 요구된다. 우리나라 대학의 기업가정신 교육은 이미 양적 성장세에 들어섰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교육부, 한국연구재단, 2018) 질적 평가에 대한 이슈는 여전히 남아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의 평가는 단순한 문제는 아니지만, 양과 질 모두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필요하다. 기업가적 대학에 있어서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평가와 질 관리 방안이 요청된다.

다섯째,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환경 구축이 필요하다. 학습자중심의 기업가정신 교육 운영을 위해서는 전통적인 강의실 공간 이외의 다양한 캠퍼스 내 공간 지원이 요청된다. 구성주의 기반의 기업가정신 교육의 장면은 학습자가 일방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이 아니라, 팀원들과 함께 협력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등의 역동적인 활동을 실시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적절히 지원하고 창의적이고 혁신적 사고를 촉진하기 위한 적절한 교실 환경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5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기업가적 대학 교육과정(curriculum) 수립 및 운영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구성주의 기반의 기업가정신의 구체적인 방법론과 더불어, 기업가적 대학에의 시사점을 도출함으로써 기업가적 대학으로 발돋움

하고자 하는 기존 대학 및 신규 대학들이 교육과정을 수립하고 운영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둘째, 무엇보다 본 연구는 이론교육에 치우쳐 있던 대학 창업교육이 실습형 교육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실제 맥락에서 학습자주도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강조하는 구성주의 기반의 교육방법에 대한 학습과 적용을 통해 실습형 교육의 확장을 도모해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를 통해 간학문적 영역인 기업가정신 교육에 대한 교육공학 관점에서의 관심이 높아지고, 기업가정신 교육방법론 분야의 양적·질적 성장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반면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교육을 위한 교육방법론으로서 구성주의에 기반한 문제기반학습, 프로젝트기반학습, 디자인기반학습에 제한하여 연구하였다는 데 한계가 있다. 기업가정신 교육방법에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Volkman, Bischoff, & Grünhagen, 2017). 각 대학의 교육철학 및 상황, 교육대상의 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교육방법을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창직·창업을 위한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 입지와 운영방식

박경훈 | 창원대학교 교수

1 이슈제기

가.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의 역할과 필요성

1) 소프트웨어적 요소에 우선한 지속가능한 인재양성 교육

메이커스페이스는 단순히 이용자들이 창조하고, 만들고,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기술을 습득하는 혹은 실험과 놀이를 통해 함께 학습하는 단순한 물리적인 하드웨어적 중심의 공간(장소)의 개념보다는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일을 왜 하는 가에 대한 고민을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이다. 대학의 메이커스페이스도 메이커 양성 교육을 통한 새로운 직업의 창출, 아이디어의 제품화, 온·오프라인 마켓 지원 등 비즈니스모델화를 통한 창업 지원을 위한 플랫폼의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우선하여 지역사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을 위한 개방·공유형 플랫폼으로서의 기능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4차 산업혁명 시대,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인재양성 교육

- 4차 산업혁명의 시대는 빠른 사회 변화와 혁신에 가까운 기술발전에 의해 새로운 직업이 생겨

나고 사라질 것이다. 아이디어만 있으면 원하는 물건을 3D 프린터로 바로 만들 수 있는 시대, 운전대를 잡지 않고도 자율주행자동차로 원하는 곳을 갈 수 있는 시대,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영역을 대체하는 시대가 눈앞까지 다가왔다.

-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들이 창업에 도전하고 싶어 할 때 학교는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고, 국가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실패할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처럼 사회 구성원 모두가 청년들의 창업 도전을 응원하는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 기업가정신 교육프로그램이 평생교육의 틀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대학의 지역사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플랫폼 역할

- 인재를 경제성장의 양과 질을 결정하는 핵심요소이며, 지속가능한 혁신성장의 밑바탕이 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사람의 창의성과 융합능력이 성장동력의 핵심이자 기술혁신의 원천이 된다.
- 창의융합형 인재양성을 위한 초·중등 교육과정과 대학의 학사제도도 혁신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이 선도적인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모형을 제시하고, 지역사회 전반적으로 개방·공유·확산할 수 있는 플랫폼 역할을 담당할 필요성이 있다.

4) 대학의 지역사회 창직·창업 평생학습 플랫폼 역할

- 인구절벽과 저 출산 문제는 지속가능한 국가와 지역사회를 만들어 가는 데 있어서도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제는 대학도 단순히 교육기관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적극적인 자세로 젊은 세대들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사회 및 기업과 함께 노력하고 혁신을 통한 변화를 주도해 나가야 한다.
- 지역사회 및 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필요하다면 대학이 보유한 교육·연구·산학협력과 관련된 모든 인적·물적 자원을 공유하고, 지역사회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인재양성을 위해서는 기존 학과 중심의 틀마저도 과감히 깨고 교육과정도 혁신적으로 개선할 필요성도 있다.
-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들이 우리 사회와 지구촌이 직면하고 있는 빠른 변화의 흐름을 읽어내고,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시스템도 대학이 주도적으로 지역사회와 함께 만들어 가야 한다.

나.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의 가치 창출 방향

- 1) 지역사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 교육과 창직·창업 평생학습 플랫폼,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 가치 창출
 -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를 기반으로 한 메이커 운동(문화)의 가치를 지역사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창직·창업을 위한 평생학습의 공간이자 플랫폼으로서의 가치 창출을 중점에 두고 기본 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이 있다.
 - 지역 대학의 공간, 시설, 장비 등의 물적 자원과 다양한 전문(공) 분야 메이커 교육을 위한 교수자(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 등의 인적 자원을 활용한 캠퍼스 내 지역 개방·공유형 메이커스페이스는 지역사회 창의융합형 인재양성과 평생학습을 위한 중요한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 지역사회의 창직·창업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특정 계층, 세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생애 전주기의 평생학습 체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으며,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는 지역사회 개방·공유형 평생학습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조성·운영할 필요성이 있다.
 - 중앙정부 및 지자체 등이 프로그램을 제작·공급하는 방식에서 지역민들과 지역대학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학습을 통한 지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

2 메이커 운동의 국내외 사례 및 동향

가. 메이커 및 메이커 운동의 이해

- 국내외적으로 메이커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찾아볼 수 있는데, 공통적으로 언급되는 '만들다'라는 의미는 단순히 반복적인 만들기가 아닌, 첨단 과학기술 및 다양한 도구를 활용 및 응용하여 창조적인 산출물을 주도적으로 만들고 공유(협력)하는 활동 및 학습의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궁극적으로 메이킹은 자신 혹은 사회에 필요한 무엇인가를 주도적으로 만들고 관련지식, 정보, 도구를 다른 메이커들과 공유하며 자연스럽게 협력이 이루어지는 활동으로 정의할 수 있다.
- 메이커 운동은 21세기 오픈소스 제조업에서부터 사용되었는데, 첨단 제작도구, 오픈소스의 S/W, IT기기 등을 활용하여 제작하는 창의적인 제작 과정과 그에 따른 기술 및 결과물을 온·오프라인 상에 공유하고 사회적 차원에서 사회발전에 기여, 공유하는 것을 핵심가치로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나. 국외 메이커 운동 사례 및 동향

1) 메이커 페어(Maker Faire)

- 2006년 '메이커(MAKE)' 매거진의 소규모 오프라인 행사로 진행되었던 '메이커페어(Maker Faire)'는 현재 전 세계 메이커 이벤트의 대표적인 사례가 되고 있다. 한국을 비롯한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이탈리아 등 40여개 국가 도시에서 개최되어 왔고, 최근 몇 년간 매해 150차례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2) 중국의 산자이 문화와 메이커 운동

- 중국은 정부의 계획과 주도하에 산자이(모방)문화를 바탕으로 제조업과 메이커 운동이 결합되어 성진기술 복제 산업이 북경, 상하이, 선전을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며, 중국에서 메이커와 창커(창업자)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

- 그 중 선전은 메이커운동이 활발히 이루어지는 도시이다. 경제특구로 계획된 선전에는 800여개의 글로벌 제조기업 공장이 존재하고 하드웨어 실리콘밸리로 급부상하며 탄탄한 제조 인프라를 구축,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다.

3) 일본의 모노즈쿠리·오타쿠 문화

- 일본의 메이커 운동은 일본 특유의 모노즈쿠리와 오타쿠 문화를 토대로 구축됐다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특징적인 문화는 침체한 제조업에 다시 붐을 일으키며 활기를 되찾아 주고 있다. 메이커 운동 확산을 위한 문화적 원동력으로 창조성과 독창성을 겸비한 메이커 제품 및 서비스로 이어지고 있는 셈이다.

4) 메이커 문화(운동) 확산·공유 커뮤니티

- 인스트럭터블스(instructables)는 메이커들의 대표적인 온라인 플랫폼으로 2005년 8월 설립한 DIY 커뮤니티에는 각종 DIY 정보를 담은 사진과 동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으며, 첨단 과학 기술부터 단순히 손으로 쉽게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방법까지 다양하다. 네덜란드에 자리한 인스트럭터블스에서 만든 레스토랑에서는 요리 레시피는 물론 가게 안에서 사용하는 인테리어 소품의 제작 정보도 얻을 수 있다.

- Make:Magazine은 스스로 필요한 것을 만드는 DIY 프로젝트 및 기술을 소개하는 메이커를 위한 매거진이다. 자신이 만들고 싶은 것을 생각하고, 만들고, 만든 결과물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을 중시하는 메이커 정신의 기본을 두고 2005년 'MAKE'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데일 도허티(Dale Dougherty)가 창간하였다.

다. 국내 메이커 운동 사례 및 동향

1) 민간 주도 메이커 운동과 정부 주도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 국내 메이커 운동은 민간주도의 메이커 커뮤니티와 정부주도의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으로 추진되고 있다. 국내 메이커 커뮤니티는 주로 온라인 카페에서 정보 공유 중심으로 활동하였으며, 외국에 비해서 오프라인 모임은 활발하지 못하였다.

2) 민간 주도의 메이커 커뮤니티

- 국내의 메이커 커뮤니티는 영상매체 및 온라인에서 정보공유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정기적인 오프라인 네트워킹이나 워크숍은 미흡한 상태이며, 아두이노스토리, 오픈크리에이터, 오토카, 전자 공작소, 산딸기 마을 등의 온라인 기반 메이커 커뮤니티가 운영되고 있다.

3) 정부주도의 메이커 운동

- 4차 산업혁명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 맞춤형 생산, 오픈소스를 통한 제품 품질 향상, 제작 및 유통의 민주화 등의 새로운 제조업 패러다임 변화의 핵심으로 메이커운동이 주목받고 있으며, 활성화를 위해 2016년부터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4) 민·관 협력 메이커 운동: Hello Maker

- Hello Maker는 메이커 운동의 건전한 확산과 국내·외 메이커들의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시작된 메이커들의 네트워크 축제이다.
- 2017년 대한민국 부산에서 처음으로 개최되었으며, 한국뿐만 아니라 해외 각지에서 다양한 개성을 지닌 메이커들이 참석해 지역을 넘어 그리고 더 나아가 국경을 넘어 메이커라는 이름으로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있다.
- 2018년 Hello Maker Korea를 비롯하여, 경상남도, 창원시, 광주광역시, 제주도 등에서도 개최되었다. 민간 주도의 행사에서 벗어나 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등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하여 진행하였다는 측면과 서울, 수도권 중심의 메이커 문화에서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개최한 행사라는 점에서 더욱 큰 의미가 있다.

3 메이커 스페이스 국내외 사례 및 동향

가. 메이커 스페이스의 개념과 변화 과정

- 민간주도로 독일에서 시작된 메이커 스페이스가 전 세계의 다양한 주도와 구성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미국에서 개최된 2006년에 처음으로 메이커 페어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여러 나라와 도시에서 메이커 축제라는 형식의 페어가 개최되고 있다. 이 메이커들은 서로의 메이커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메이커 페어를 추진하고 있고, 이 메이커 문화의 확산은 단지 정기적으로 메이커 축제를 개최한다고 해서 연속적으로 지속되는 게 아니다.
- 국내에서도 꾸준히 대학을 중심으로 일반인까지 자연스럽게 커뮤니티라 불리는 모임을 갖고 서로의 공통 관심사를 공유하기 위해 오프라인에서 정기모임을 가지고 있다. 메이커들도 이들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메이커 스페이스는 아예 물리적인 공간 자체가 상설화되고, 이곳에서 만들어내고 교류하는 모든 것들이 메이커들에게 공통의 관심사가 된다.
- 메이커 페어의 모태인 해커 페어의 개념은 맨 처음 유럽에서 시작되었다. 사람들이 모여 창조하는 물리적 공간을 공유하는 프로그래머들의 모임이었던 C-베이스가 1995년 베를린에서 세계 최초로 독립된 해커 스페이스를 만들었다.
- 이후 2007년부터 유럽에서 해커 스페이스 트렌드가 시작되었고 북미 해커 그룹이 독일을 방문하여 미국에서 그와 유사한 공간을 만들기로 하였고 미국은 해커스페이스 공간을 전자회로 설계 및 제조, 제품 생산으로 확장하였고, 이후 미국에서 처음으로 상업적 메이커 스페이스라 명명할 수 있는 테크숍이 2006년 10월에 창립되었고 이후 전 세계 메이커 스페이스 시설이 구축되기 시작하였다.

나. 국외 메이커스페이스 사례 및 동향

1) 스페인-Fab Lab Barcelona ‘FabLab House’

개관일	2007년 5월
위치	Carrer de Pujades, 102, 08002 Barcelona, Spain
운영비용	유료연합 40%, 자체수입 30%, 바르셀로나 시정부 30% 비율
운영기관	카탈루냐 첨단건축연구소(AAC)
홈페이지	https://fablabbcn.org
운영시간	월~금 / 9am~6pm
운영목적	메이커 아카데미 과정 중 다양한 제작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수료생들은 전 세계에서 Fab Lab을 개설·운영하거나 다양한 교류 활동 지원

2) 미국 피츠버그 ‘Remake Learning’

개 관 일	2007년
위 치	106 Isabella Street Pittsburgh, PA 15212, United States of America
운영기관	remakelearning
홈페이지	http://remakelearning.org
운영시간	월~금 / 9am~6pm
운영목적	디지털 시대의 젊은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지식을 추구하고,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현실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시작됨.

3) Techshop

개 관 일	2006년 10월
위 치	미국 10개, 일본, 두바이, 파리 각1개
이용요금	매월 150달러 회비, 1일 30달러 회비
운영목적	미국 최초의 오픈소스 워크숍으로 일반인들을 위한 공동 작업장이자, 1인 창업자를 위한 장소
기타	2018년 2월 파산(경영상 문제) 일본, 두바이, 프랑스 현재 운영

4) 미국 TheShop.build

개 관 일	2018년 2월
위 치	미국 San Francisco, San Jose,
이용요금	매월 150달러 3개월 399달러, 1년 1,499달러
운영목적	공공-민간 파트너십이 미국 전역에 커뮤니티 수준에서 경제 성장을 지원, 추진하며 혁신과 기업가정신이라는 미국의 정신을 다시금 불어넣는 공간으로 규정
보유장비	3D printers, Laser cutters, Tormach CNC Mill, Shopbot CNC router, Waterjet 등 다양한 목공장비 및 첨단장비 보유
기타사항	-파산한 Techshop을 인수하여 만든 회사 -San Jose에는 기업가들의 협업공간 구성하고 경공업용 시설 및 중소기업 창업 사무실로 구성 -San Francisco에서는 STEAM CLASS부터 첨단장비 교육까지 도시의 재교육수요를 진행하고 있음.

5)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Makerversity’

개 관 일	2017년
위 치	Marineterrein, Gebouw 027E, Kattenburgerstraat 5, 1018 JA Amsterdam, Netherlands
이용요금	회원제 운영
운영목적	젊은 사람들이 만드는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질 기회가 부족하다고 생각한 창업가 4명이 정부의 지원을 받지 않고 스타트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
홈페이지	https://makerversity.org
공간구성	분야별 워크숍실, 제작실, 사운드 스튜디오 등의 지원실로 구성

6) 중국 ‘Chaihuo Maker Space’

개 관 일	2017년
위 치	Wenchang St, HuaQiaoCheng, Nanshan Qu, Shenzhen Shi, Guangdong Sheng, China 518055
이용요금	비고정회원 1개월 200위안, 고정회원 1개월 1,000위안
운영목적	일반 대중 상대로 메이커 육성 교육을 실시하여 치미가 아닌 창업문화 양성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메이커 취미중심에서 창업중심으로 변화)
홈페이지	http://www.chaihuo.org/
기타사항	심천 최초의 메이커스페이스로 중국 현지에 메이커무브먼트(Maker Movement)를 선도하는 민간 기관

7) 일본 ‘DMM. make AKIBA’

개 관 일	2014년 11월
위 치	Tokyo 3 FujiSoft Akihabara building, Chiyoda-kr, Japan
이용요금	월 1만 5천엔~2만엔 정도(회원등급, 기자재 이용료 별도)
운영목적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위한 세어 공간으로 저비용으로 연구·개발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컨설팅 및 대기업과의 매칭, 투자자 데모데이 운영 등의 서비스 제공
홈페이지	https://make.dmm.com/
운영시간	24시간 연중무휴

8) Harvard i-lab

개 관 일	2011년
위 치	Cambridge, Massachusetts 02138, United States of America
이용요금	별도 없음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가 후배들의 벤처창업과 신기술 개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운영비를 부담하고 있음.)
운영목적	기발한 상상력과 독특한 기술을 가진 대학생을 혁신적 기업가로 육성하는 스타트업 인큐베이터
홈페이지	https://innovationlabs.harvard.edu/harvard-i-lab/
운영시간	-i-Lab: 24시간 연중 무휴 (평일 오전 1시, 주말 오전 2시까지 출입 가능), 로비는 오전 7시~오후 7시까지 일반 공개 -Life lab: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9) MIT Porject Manus

○ 개요

- MIT Poject MANUS는 메이커 공간을 업그레이드하고 학생 메이커 커뮤니티를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되고 있다.
- 메이커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학생들을 위한 1년차 메이커 훈련 프로그램 MakerLodge,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실습교육을 최적화하는 오픈 액세스 제작 공간 The Deep, 캠퍼스에서 제작자 리소스를 찾을 수 있는 앱 Mobius, 그리고 MIT 커뮤니티를 위한 2년 마다 개최되는 축하 행사 Maker Break로 구성되어 있다.

○ MakerLodge

- MIT 전체 학과를 대상으로 하지만, 주로 공과대학으로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MIT project MANUS의 기반이다. 시작단계 코스로 학부 일학년부부터 누구나 원하면 교육받고 직접 만들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다.

훈련	MakerLodge는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및 수공구를 포함하여 입문 제조업체 기술을 1년차 학생들에게 교육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원	MakerLodge 교육을 이수하는 모든 1학년 학생들은 MakerBucks 에서 \$50를 받고 도구 상자에서 도구 만들기를 시작할 수 있도록 몇 가지 기본 도구를 제공합니다.
커뮤니티	MakerLodge 교육을 이수하면 MIT Maker 커뮤니티에 가입할 수 있고, 같은 생각을 가진 학생들, 교수진 및 직원들과 함께 일하게 된다.

○ The Deep

- 아주 높은 단계까지 제조할 수 있는 장비 이용교육 및 권한을 부여하며, 미디어랩이나 건축학과에서 심화단계까지 만들어야 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훈련	공간에 있는 기계를 사용하기 전에 공구별 교육을 받아야 하고, 훈련은 MIT의 다른 공간에서 진행할 수도 있고, 직접 훈련시킬 수 있다. 현재 다양한 형태의 교육 훈련 방식을 실험 중이므로 어떤 관심사라도 신청가능하다.
자원	CNC 밀에서 선반, 워터 제트, 3D 프린터 등에 이르기까지 The Deep의 다양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다.

○ Mobius

- MIT Mobius 시스템은 MIT 커뮤니티의 구성원이 캠퍼스에서 사용 및 측정 할 수 있는 다양한 리소스를 탐색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있다. Mobius는 시설/장비 관리자가 공간, 장비 및 사용자 교육 기록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MIT Mobius App은 iOS 및 Android에서 사용할 수 있다. Mobius 시스템은 MIT 커뮤니티가 만들고, 측정하고 조작하는 데 사용할 수있는 자원에 대한 정보를 관리하고 공유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다. Mobius는 3가지 주요 요소로 구성된다.

○ Maker Break

- Maker Break는 MIT 학생들, 교수진 및 교직원이 재미있고 창의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동료 학생들과 우호적인 경쟁을 하고, 친구와 반 친구를 응원하며, 새로운 방식으로 만들기를 탐구 할 수 있다. 모두를 위한 무언가가 있고, 재미있고 스트레스가 적도록 설계되어 있다.
- 유리 램프 작업, 종이접기, 레이저 조각 및 3D 프린팅, 단추 만들기, 보석 만들기, 종이 비행기 경연대회, 양초 만들기, 3D 포토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다. 국내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및 동향

1) 국내 주요 메이커 스페이스 사례 조사 및 분석

○ 성균관대학교 러닝팩토리 (2015. 06. 개관)

- 운영: Learning Factory 상주 매니저(학부 졸업생) 직접 채용, 3D Printer 위주의 간단한 창작 위주 운영, Smart Car Factory는 현재 구축 중
- 주소: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066 성균관대학교 산학협력센터 1층
- 기기 현황: 3D 프린터, Cubicon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등
- 예약 방법: 사이트 내에서 예약(<https://sites.google.com/site/skkulf/yeyag>)
- 특이 사항: 예약제, 24시간 개방, 무료
- 제공 프로그램: 창의적 사고 관련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아이디어 기술 사업화 관련 교육프로그램, 전문가 멘토링 프로그램

○ 서울대학교 해동 아이디어 팩토리

- 주소: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 1 서울대학교 39동 지하 2층
- 기기현황: 3D 프린터 20대 이상, CNC, 레이저 커터, 각종 작업을 위한 모든 도구 다수 보유
- 예약 방법: 관리자에게 이메일로 문의 후 예약 (ideafactory@snu.ac.kr)
- 특이사항: 24시간 개방, 강의가 자주 있음, 편안한 휴식 공간, 서울대 구성원이 주로 사용, 무료
- 내용: 서울대학교 공과대학과 해동과학문화학술재단 기부, 정부지원(산업통상자원부 아이디어팩토리 지원사업(년 3억 원)로 운영
- 비용: 초기 구축 비용 15억 원 정도, 기타 학과에서 지원
- 인력: 전담교수 1명, 행정원 3명 외 교수 및 대학원생 15명 운영

○ 서울시 성수 메이커 페이스

- 주소: 서울 성동구 성수동 2가 277-43
- 기기현황: 3D 프린터, 레이저 커터, CNC 및 각종 전자기기, 목공 도구
- 예약방법: 사이트 회원 가입 후 간단히 예약 (<http://makers.sba.kr/>)
- 운영시간: 평일 오후 1시부터 9시까지 사용 가능, 무료.
- 운영내용: 서울시에서 서울산업진흥원(SBA)에 위탁 운영 중임.

○ 서울시 디지털 대장간

- 주소: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112, 15동 지하 1층
- 개방시간: 매주 화요일~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 공휴일 및 기타 행사 시 휴무

- 운영인력: N15 전담 매니저 등 총 3명 운영
 - 설립동기: 서울시에 하드웨어 액셀러레이터(Accelerator) 기업인 N15(엔피프틴)이 기획, 제안하여 나진상가(서울테크노파크)에서 장소를 제공하고 서울시에서 장비를 지원하고 N15는 디지털 대장간 전체 운영하는 형태로 운영 중
 - 운영내용: 매일 2강좌 교육을 실시하고 웹페이지에 사전 사용등록 하여 사용, 심화교육은 비주 기적으로 실시
- 부산시 메이커 스튜디오
- 콘텐츠 전문기업 팝몬스터 Feb Monster 운영
 - 전국 최초 민관합작 시제품제작소
 - 구축비: 총 7억(시비 30%, 국비 30%, 민간 30% 기타 10%)
(부산시 3억 6,000만 원 예산 지원, 인테리어와 장비 등)
 - 운영시간: 화~금 13:00~21:00, 토요일 10:00~21:00
 - 운영인원: 팝몬스터 소속 책임매니저 포함 총 3명
 - 예약 방법: 사이트 내에서 예약(<http://maker-studio.kr>)

4 대학 도서관 속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경험 공유

가. 도서관의 변화와 메이커 스페이스

- 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기능 즉, 정보 보존과 확산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요구되는 다양한 디지털 기술, 창작 등을 협업시키는 공간으로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 선진국에서는 기존의 도서관 이미지에서 벗어나 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식을 전달하고 연구하는 도서관형 메이커 스페이스를 구축해 나가고 있고, 도서관 이용자들이 단순 지식 습득에서 프로슈머(Prosumer)로서의 전환이 빠를 것이라 예상되고 있다.
- 국내 대학의 경우 도서관 내 메이커 스페이스 조성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구축 및 운영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라 우선적으로 도서관 속 메이커 문화 조성 공간을 체험할 수 있는 사례들을 축적해 갈 필요성이 있다.

나. 창원대학교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정 및 시설·장비 구성

1) 사전 준비 단계

- 기존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및 운영 사례 벤치마킹
- 내부 구성원 의견수렴 및 메이커 붐 조성

2) 구축 공사 단계

- 공사기간: 2018년 1월 3일~2018년 1월 30일
- 전기, 설비, 건축 공사 별도 진행
- 기존 조성되었던 시설을 최대한 이용하여 공사 진행

3) 구축 완료 개소식 개최 단계

- ‘아이디어가 현실이 되는 특별한 공간’이라는 슬로건으로 오픈
- 개소일: 2018년 2월 22일(목)
- 경남 지역 최초 팹랩 등록(FAB LAB CHANGWON)

4) 메이커 아지트 공간 구성

- 전체 공간

공간명	전용면적(m ²)	위치	용도	전용공간 여부
세미나 룸	111.8m ²	도서관 1층	교육장 및 세미나	전용공간
디지털 제조 공간(DF)	204m ²	도서관 1층	창작공간	전용공간
프론트	102m ²	도서관 1층	안내데스크 및 만남공간	전용공간
네트워크 존 (2019년 구축)	430m ²	도서관 1층	네트워킹 및 프리마켓 등	신규전용공간
계	847.8m ²			

5) 메이커 아지트 공간 구획 및 주요 시설



Seminar room
교육장의 역할을 하며
교육이 없을 때는 미니스튜디오로
활용되며 자유 작업이 가능한 공간



DF zone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의
디지털 제작 장비를 활용한
창작이 가능한 공간



Front
메이커아지트의 입구이며
안내데스크와 휴게공간이
배치되어 있는 공간

6) 메이커 아지트 보유장비

- 보유장비 목록

장비명	수량	활용
FDM 3D프린터 Delta250	6	교육·체험·시제품제작
FDM 3D프린터 Delta300	3	교육·체험·시제품제작
SLA 3D프린터 Nobel 1.0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UV프린터 Freejet 500uv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레이저커터 Thor 6040	4	교육·체험·시제품제작
레이저커터 X-C 1390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커팅플로터 CE6000-120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선반공작장비 UNIMAT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듀얼히트프레스 SET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스키빙 머신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불박기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VR Station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워크스테이션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3D Pen	25	교육·체험·시제품제작
3D Printed 조립드론 Kit	25	교육·체험·시제품제작
아두이노 센서 Kit	25	교육·체험·시제품제작
실사출력기	1	교육·체험·시제품제작
메이커에듀박스(VR)	1	교육·체험
메이커에듀박스(드론)	1	교육·체험

장비명	수량	활용
메이커에듀 BOX(아두이노-센서)	2	교육·체험
메이커에듀 BOX(아두이노-스타터)	2	교육·체험
메이커에듀 BOX(3D펜)	2	교육·체험
총 18종 104개 장비 보유		

다. 창원대학교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입지조건 및 운영방식

1) 입지적 조건 및 접근성

- 누구나 메이커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열린 공간 조성
 - 폐쇄된 공간이 아닌 지역민 누구나가 쉽게 출입이 가능한 도서관 시설에 설치
 - 경남 청년/대학생 및 직장인, 인근 초·중·고등학교 재학생까지 경남지역 메이커 교육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공간으로 운영
-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인 만큼, 누구든지 찾아올 수 있는 공간
 - 자차 이용자도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차장 보유
 - 대중교통(버스)을 이용해서도 찾아오기 편한 곳에 위치
 - 창원대학교 정문에 버스 정류장이 있고, 정문에서 하차하여 도보로 5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도서관 위치
 - 창원지역민 뿐 아니라 시외 이용자도 방문하기 좋은 교통편 보유
 - KTX 정차역(창원중앙역) 부근에 위치
 - 창원중앙역에서 창원대학교 중앙도서관까지 도보로 10분이면 도착할 수 있어 우리 지역뿐 아니라 타 지역 이용자도 쉽게 방문 가능
- 다양한 연령과 직업의 이용자가 방문할 수 있는 곳에 위치
 - 창원대학교 도서관 주변에 학교가 밀집된 주거단지, 경남도청, 도립미술관, 창원중앙역이 있어 각기 다른 수요를 지닌 이용자가 방문 할 수 있는 다양한 계층에게 메이커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음.
 - 산업단지과 타 메이커 관련 기관들과의 거리가 3.5km이내로 이동 가능하여 일반인뿐만 아니라 전문형 메이커들의 접근성도 매우 용이함.
- 도서관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한 운영
 - 다양한 정보와 지식의 결합소인 도서관에 정보교류, 협업, 정보기술, 디지털기술 등이 집적화 되어 있는 메이커스페이스와의 결합으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융합형 인재를 발굴·성장시키는 데 최적의 장소

- 정규교육과정이 아닌 자율성·창작성을 부여한 새로운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창의적·융합적·재도전적으로 학습하는 기회 제공

2) 잠재적 메이커 수요 창출 여건

○ 창원·경남 대학생 및 청년

- 대학생 및 청년이 자주 방문하는 공간인 '도서관'에 설치하여 도서관에 출입하는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이용 가능. 참여 이벤트, 체험형 교육을 통해 메이커 활동에 흥미를 가진 이용자들이 자발적으로 예약을 통해 이용 할 것이라 예상

○ 창원·경남 직장인

- 직장인들의 취미 및 창작 활동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 가능. 야간·주말 운영을 통해 직장인들이 메이커 교육을 수강 후 창작할 수 있는 시간 제공하고 메이커스페이스 매니저로서의 교육도 진행

○ 지역 예술가를 위한 예술·메이커 융합 운영

- 예술대학 교수, 지역 예술가의 역량강화 및 협업을 위한 메이커 교육 운영. 3D프린터·레이저 커터·3D펜 등의 다양한 메이커 장비를 활용한 메이커 예술품 제작 지원. '아트 메이커' 활동 추진 및 지역 문화 활동 참여

○ 창원·경남 초·중·고등학생

- 학생 강의시간, 직장인 업무 시간에는 비교적 이용자가 적은 점을 고려하여 인근 학교의 하교 시간에 맞추어 메이커 교육 개설·운영
- 오후 15시(하교시간) 이후 코딩 교육 운영, 주말 메이커 교육 개설

○ 자발적 메이커 대상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 메이커스페이스 운영에 대한 메이커 매니저 양성
- 메이커 전문가 양성 메이커 인스트럭터(Maker Instructor)양성

○ 소외지역 청소년 대상 메이커 교육

- 환경여건 상 다양한 경험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산간지역 청소년들에게 메이커 체험 교육

3)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방식

○ 전담 운영 인력 구성 및 활용

- 센터 총괄 운영 책임자 및 메이커, 창업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력 구성·활용

- 대학 내외부 운영지원 전문가 pool 구성
 - 창업·취업을 강화하는 전문가 확보
 - 지식재산권 관련 전문가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체계 완성
- 운영인력 양성 (메이커 아지트 크루 CREW)
 - 메이커 장비와 작업 공간을 필요로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기본 장비 교육을 실시, 활동 기간 동안 장비 및 공간 이용 지원
 - 메이커 문화 체험 기회 제공과 동시에 메이커 아지트의 다양한 프로그램에 대한 인적 인프라로 활용하여 크루로 양성
 - 학과와 전공에 관계없이 누구나 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 확산

○ 메이커아지트 운영 방식

	운영시간	운영인력	메이커 교육 운영 횟수
현황	평 일 10~18시 토요일 10~18시 화수목 연장 운영(10시~21시)	최소 2명 이상	주 2회 운영 월 8회 운영
▼			
계획	평 일 9시 30분~18시 토요일 9시 30분~18시 화수목 연장 운영(9시 30분~21시 30분)	최소 3명 이상	일반 월 8회 인스트럭트 연 4회 운영전문가 프로그램 연 2회

○ 메이커아지트 운영 방향

개방적인 공간	메이커 인재 양성	메이커 문화 활성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개방적인 공유 창작 공간 지원	메이커 교육 운영을 통해 문제해결력 향상 및 주도적인 미래 창의 인재 양성	메이커 교육 및 행사 운영을 통해 선진지역과의 메이커 문화 격차 해소

○ 메이커아지트 운영프로그램 현황

프로그램	목표	운영내용
-장비트레이닝 -시설투어 -메이커 문화 확산	→ 자발적 메이커 양성 Maker to Maker	-시설 이용 방법 안내 -장비 이용 방법 안내 -메이커 관련 메이커 관련 브레인스토밍
-멘토링 -장비 및 시설 이용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 자발적 메이커 지원 Maker to Maker 메이커 완성 Maker to Market	-아두이노, 3D프린터 등 전문가 멘토링 -운영시간 언제나 개방 -지역 메이커 전문가 양성 교육 진행
-메이커 문화 확산·유도형 메이커 교육	→ 메이킹 즐거움 Zero to Maker	-메이커 입문과정 -창의력 향상

라. 창원대학교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프로그램

1)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메이커 아지트 첫 이용자를 위한 시설 안내, 장비 활용 안전교육 및 이용방법을 교육하는 장비 활용교육을 매일 기본적으로 운영하며, 장비 활용교육 이수자는 이용 시간 내에 장비 이용 신청을 통해 3D프린터, 레이저커터 등의 다양한 장비를 이용한 창작활동이 가능함.

- 디지털 창작, 공예 교육 등을 통해 창작품을 만들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교육 프로그램은 지역의 메이커 및 공예 전문가 등을 섭외하여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메이커 문화의 관심도 유발 및 메이커아지트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음.

○ 찾아가는 & 찾아오는 메이커 교육

- 메이커시설 방문이나 메이커 교육이 생소한 지역의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메이커 문화 및 교육 활성화

- 지역의 메이커교육 대상 관련 기관 및 센터의 낙후된 시설물과 환경을 고려하여 메이커 스페이스 (메이커아지트 팹랩창업센터) 시설을 직접 방문 하고 메이커 교육 진행

○ 메이커교육 전문가 양성 메이커 인스트럭터 과정 교육

- 단순히 메이커 활동에서 전문화를 부여고 사업화·창업의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전문 메이커 교육 추진

- 창의·융합형 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메이커 인스트럭터를 육성하여 메이커 교육의 활성화와 이를 연계한 창업, 창직 등 일자리를 창출

- 지역 내의 재취업이 필요한 숙련 기술자들에게 4차 산업혁명 관련 스마트 제조혁신 기반의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여 다양한 재취업 및 창업의 기회 제공

○ 메이커 네트워크 개최 및 참여

- 전시체험, 교육 및 이벤트, 메이커 세미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 하여 행사 참여를 유발하고 지역 내 메이커문화 확산에 기여

- 메이커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메이커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고 지역 메이커간의 네트워크 활성화, 기술공유, 화합의 장을 마련하며 메이커들의 구심점 생성

○ 지역 협업 메이커 체험 및 문화 확산

- 메이커시설 방문이나 메이커 교육이 생소한 지역의 유아 및 초·중·고등학교를 방문하여 메이커 교육 진행

- 교육을 원하는 지역의 낙후된 시설물 등의 환경을 고려하여 메이커아지트에 직접 방문 유도하여 메이커 교육 진행
- 환경여건 상 다양한 경험과 학습에 어려움이 있는 도서산간지역 청소년들에게 메이커 체험 교육
- 아이디어 제품 및 기업 시제품 제작 기술지원
 - 창업을 준비하는 지역의 일반인 및 학생을 대상으로 제작에 필요한 디지털 장비 설명과 제작 기술지원
 - 지역의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는 기업의 시제품 제작을 지원하여 제조 프로세스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5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 성공을 위한 제언

가. 도서관 속 메이커 스페이스 성공요인

1) 명확한 목표 설정

- 각 대학의 도서관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 여건에 대한 SWOT분석 필수
- 뚜렷한 목표 설정을 통한 구축계획 변경의 최소화
- 비즈니스 모델로 운영전략 구상

2) 학내 구성원들의 공감대 형성

- 도서관 주요 이용자들에게 설명 및 의견수렴 진행
 - 학교 구성원 3주체(학생, 교수, 직원)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 필요
- 도서관 운영진과의 구성 및 운영 방식 논의
 - 도서관 내의 시설물 및 문제점을 정확하게 파악
- 시설과 운영진과의 구축물에 대한 사전 논의
 - 담당 분야(전기, 시설, 공조 등)의 전문가 자문 필수
 - 공사 관련 법령 준수에 따른 자문

3) 운영계획 수립

- 규정 및 운영지침 등 마련
 - 운영에 필요한 규정 및 운영지침 마련
 - 이용자들을 위한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이용수칙 마련
- 메이커 관련 프로그램 집적화
 - 메이커스페이스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 내 메이커 관련 프로그램 운영 및 예산 집적화
- 타 대학 도서관과의 상호간 네트워킹을 통한 문제점 개선 및 벤치마킹
 - 메이커 운영에 대한 외부인들의 평가 도출
 - 우리 대학의 우수 프로그램 홍보 및 공유
- 체계적·안정적 운영관리 프로그램 마련
 - 이용자들의 상시 프로그램 제안과 피드백을 위한 창구 마련
 - 이용자들의 선호도와 연령층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 체계적 보유 메이커 관리
 - 지속적 메이커스페이스 시설 이용자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4) 시설·인력·장비·시스템 등 안정적인 인프라 확충

나. 대학 내 메이커 스페이스 성공요인

1) 전문화된 전담(운영) 인력 확보

- 전문기기의 운영체제(operating system)와 같은 역할
- 지속적인 운영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분업화 및 전문화된 인력이 필수

2) 전문화된 운영 프로그램 필요

- 전문기기의 앱(app)과 같은 역할
- 장비를 조작하고 시제품을 도출해 내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프로그램 필요

3) 메이커스페이스 공간 확보

- 목표와 잠재고객의 설정에 맞는 공간 확보
- 구축 장비를 고려한 위치 선정

4) 목표와 잠재고객을 고려한 장비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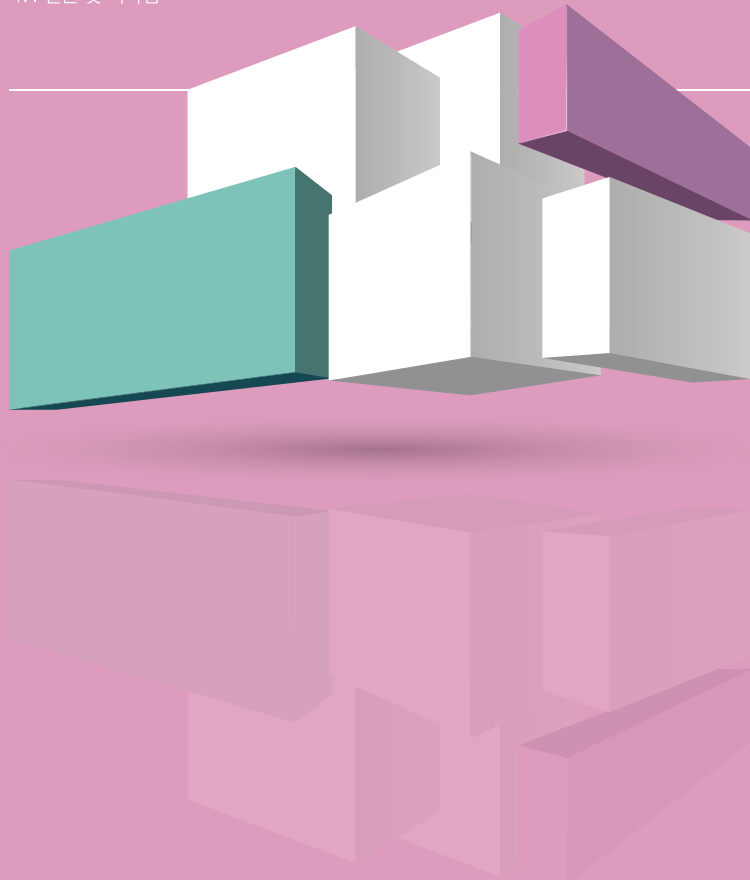
- 메이커스페이스 간의 이용자들을 위한 범용성 장비 구축이 필요
- 메이커스페이스 시설의 기본 구축장비 구비
- 교육단계별 수준에 맞는 장비 다양성 확보
- 장비에 맞는 공조 시설 필수 설치

5) 메이커스페이스 접근성

- 전문기기의 인터페이스(Interface)같은 역할
- 대학 내 단독 학과·학부를 위한 시설 구축은 지양
- 학내 구성원뿐 아니라 일반인도 접근이 용이한 위치 선정
- 도보로도 이용 가능한 위치 지향

2018년도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실태 분석

- I. 서론
 - II. 분석 개요
 - III. 2018년도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지원 현황
 - IV. 결론 및 시사점
-



2018년도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실태 분석

윤진수 | 한국기업지배구조원 사업본부 본부장(부연구위원)

I 서론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는 저성장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고용 없는 성장으로 인한 청년실업 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공공기관과 함께 다양한 창업관련 지원책을 마련하고 창업지원 프로그램들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2017년 하반기에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이라는 전략과제 하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정부 내 각 부처에서는 이러한 정부정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창업지원 자금도 확대 편성하고 있는 추세이다. 중소벤처기업부의 보도자료¹⁾에 따르면 2019년도에 14개 부처에서 총 1조 1,18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며 특히 2019년에는 창업가, 투자자 등 혁신주체가 교류 협력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개방형 혁신 기반 스타트업파크 조성, 지역 내 청년창업 촉진 및 정착을 지원하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등이 주요 사업으로 추진될 계획임을 밝혔다.

이처럼 창업 활성화를 위한 관련부처와 전문기관의 노력과 역할도 중요하지만 일자리 창출의 주체가 기업이라는 점에서 창업 지원에 대한 기업의 노력 또한 요구되는 바다. 실제 기업에 축적된 경영 노하우나 산업 관련 전문성을 바탕으로 (예비)창업가들에게 실질적인 조언과 지원을 제공해

1) 중소벤처기업부 보도자료, “2019년도 정부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 2019.1.2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은 창업의 성공여부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여 진다.

한편 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으로서 사회적 책임 또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은 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을 받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역사회도 그러한 이해관계자 중 하나이다. 기업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기업의 발전과 함께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상생의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고 청년 창업 지원은 단순히 자선 또는 기부의 한 방식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경제 발전에의 지원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고 하겠다.

이러한 측면에서 2014년 5월 한국기업지배구조원과 한국연구재단,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창업 우호적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활동을 지속적으로 평가해 오고 있다.

이에 본 고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의 2018년도 '사회책임경영' 평가²⁾결과를 토대로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지원 실태를 살펴보고 개선점 또는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분석 개요

1. 조사 대상 및 범위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2019년 ESG 평가대상 상장기업인 849개사의 지속가능보고서, 홈페이지, 기업별 보도자료, 미디어 자료 등 외부에 공개된 자료를 통해 2018 사업연도 동안 실시된 평가 대상 기업들의 창업 지원 현황을 조사하였다.

[표 1] KCGS의 ESG 평가대상기업 수

단위: 개사

	전체 평가기업	일반 상장사	금융회사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748	702	46
코스닥시장 상장사	101	98	3
합계	849	800	49

2) 상장기업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진단하기 위한 E(Environment, 환경), S(Social, 사회), G(Governance, 지배구조) 평가

또한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은 5개 권역별 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를 통해, 같은 기간 동안 상장기업의 대학 내 창업교육 및 관련 지원 현황을 조사한 결과도 반영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대학 중 9개 대학에서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2] 2018년도 상장기업의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지원 실시 대학

권역	대학
대경강원권	계명대학교, 대구카톨릭대학교, 동국대학교(경주)
동남권	경상대학교,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창원대학교
수도권	덕성여자대학교, 한양대학교
충청권	-
호남제주권	전남대학교

이 중 본 고에서는 유가증권시장 소속이 일반 상장사 702개사와 금융사 46사인 748개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평가대상인 코스닥상장기업의 경우 전체 코스닥상장기업 중 약 8%에 불과하고 분석대상기업이 매년 변경되기 때문에 분석의 일관성 측면에서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2. 창업 지원 활동의 분류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형태는 창업 관련 실무자 또는 CEO 특강, 창업동아리 활동비 지원과 같은 소극적 방식부터 (예비) 창업가 발굴에서 창업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과 같은 적극적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처럼 다양한 창업 지원 활동을 다음과 같이 세분화하여 상장기업의 창업지원 활동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 ① 창업 교육(특강 등)을 실시하고 있는가?
- ② 창업 동아리를 지원하고 있는가?
- ③ 창업 경진대회 또는 창업 캠프를 개최하고 있는가?
- ④ 창업 컨설팅/멘토링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 ⑤ 창업 공간(사무실, 점포 포함)을 제공하고 있는가?
- ⑥ 창업 자금을 (직/간접적*) 지원하고 있는가? (*: 창업 펀드 출연 등)

또한 개별 상장기업이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 뿐 아니라 창업 지원 기관 또는 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을 모두 포함하여 조사하였다.

Ⅲ 2018년도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지원 현황

1. 창업 지원 상장기업 현황

국내 유가증권상장기업 748개사 중 2018 사업 년도 동안 창업 지원 활동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71개사로 조사되었다.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을 처음 조사한 2014년 이후 예비 창업가의 창업 활동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7년도에 축소되었으나 전반적으로는 창업 지원 활동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여 진다.

【표 3】 최근 5년 간 창업 지원 상장기업 현황

단위: 개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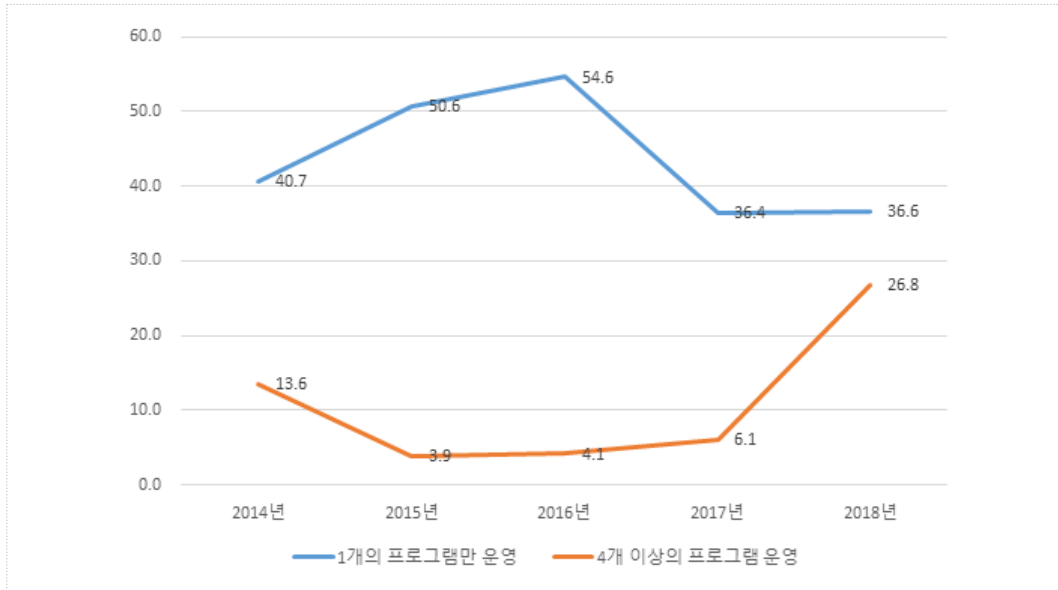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창업 지원 기업	59(8.5%)	77(11.1%)	97(13.6%)	66(9.0%)	71(9.5%)
분석 대상 기업	694	696	713	733	748

지난 5년간 양적인 변화 뿐 아니라 창업 지원 활동의 질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창업 지원 방식에 있어 초기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으로 경진대회 개최, 창업자금 간접지원 등 단순·일회성 지원이 주를 이루어 기업의 대내외 여건에 따라 지원 활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실제 2016년에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다 2017년 들어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35개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다른 기관과 연계하여 간접적으로 창업을 지원하거나 창업 경진대회 개최나 창업동아리 대상 PC 지원과 같은 단순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었다.

반면 시간이 지나면서 기업의 본 업과 연계하여 <그림 1>과 같이 다양한 측면에서 창업을 지원하는 기업들이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롯데마트의 청년 외식 창업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인 ‘칙칙쿡쿡’이나 디스플레이분야의 신기술 스타트업을 육성하는 LG디스플레이의 ‘드림플레이’가 좋은 예인데, 이러한 기업들은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는 과정부터 창업관련 교육, 멘토링, 판매 지원 등 다양한 측면에서 창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창업 지원 활동을 국내에 한정하지 않고 해외 사업장까지 확대하여 운영하는 기업들도 생겨나고 있는 추세이다. 현대자동차는 인도법인에서 드림빌리지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사회 내에서 사회적기업 창업을 지원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한금융그룹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총 14억 원을 후원하여 약 2,500명의 베트남 청년들에게 창업·취업교육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림 1] 최근 5년간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현황



주) 연도별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1개만 운영하는 회사와 4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동시에 운영하는 회사로만 구분

2. 창업 지원 유형

국내 상장기업들의 창업 지원 유형을 ‘창업 교육 등을 통한 인식개선 활동’,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창업 관련 컨설팅 및 멘토링 지원’, ‘창업 펀드 참여 등 간접지원’ 형태로 구분하여 살펴본 결과, 2018년도의 경우 분석 대상기업 중 가장 많은 26개사가 창업 공간 대여나 창업자금 지원 등 1가지 유형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다음으로 19개사가 4가지 이상의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유형별 참여 현황

단위: 개사

연도	1개	2개	3개	4개 이상	합계
2014	24(40.7%)	12(20.3%)	15(25.4%)	8(13.6%)	59(100.0%)
2015	39(50.6%)	13(16.9%)	22(28.6%)	3(3.9%)	77(100.0%)
2016	53(54.6%)	20(20.6%)	20(20.6%)	4(4.1%)	97(100.0%)
2017	24(36.4%)	30(45.5%)	8(12.1%)	4(6.1%)	66(100.0%)
2018	26(36.6%)	15(21.1%)	11(15.5%)	19(26.8%)	71(100.0%)

이는 기업들이 창업지원 활동을 고려하는 초기에는 창업 공간 대여 등 비교적 단순한 방식으로 참여하다가 점차 실질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게 되면서 창업과 관련한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

는데 기인한다고 보여진다. 실제 2014년도에는 창업 지원 활동에 참여하는 기업의 약 41%가 1가지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였는데 2018년도에는 그 비중이 약 37%로 줄어들었다. 반면 창업자금 및 공간 지원, 창업컨설팅 제공 등 4가지 이상의 방식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기업이 2014년에 13.6%에서 2018년에 26.8% 까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지원 유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창업 관련 컨설팅과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기업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들 중 가장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으로 자금조달과 창업관련 실무교육이 조사되기도 하였다.(그림2 참조)

[표 5] 2018년도 창업 지원 세부 유형별 참여 현황

단위: 개사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 교육 지원	창업 동아리 지원	기타 창업 프로그램	창업 공간 지원	창업 자금 지원	창업 자금 간접 지원	창업 컨설팅 (멘토링)
18	29	2	31	27	35	22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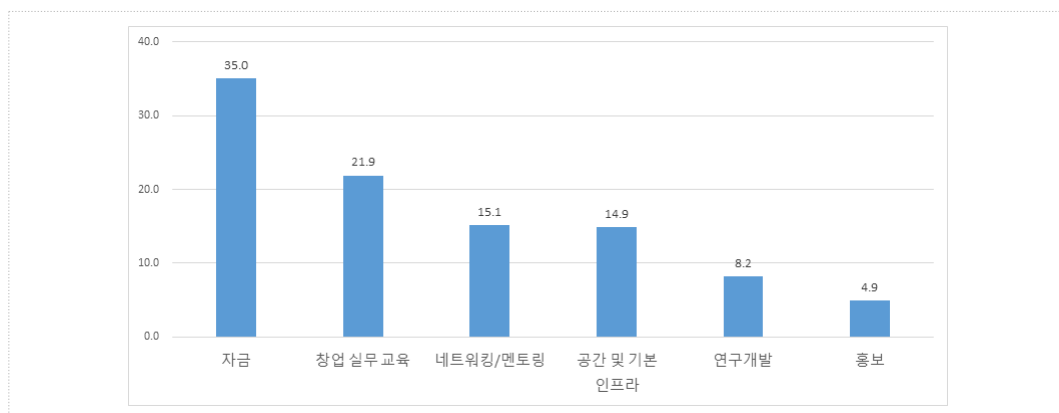
※ 각 유형별 참여 기업 수는 중복되어 기재됨

창업 자금은 초기 창업의 성공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임에도 (예비)창업가들에게 자금 조달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상장기업의 자금 지원 활동은 안정적인 창업 활동에 매우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창업가 특히 대학생의 경우에 창업에 필요한 실무적 지식 뿐 아니라 조직을 운영하는 노하우도 부족하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고, 이로 인해 창업 의지가 약해지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창업 관련 컨설팅과 멘토링은 관련 분야의 노하우와 전문지식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예비 창업가의 창업 의지를 높이고 성공적인 창업을 유인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2] 창업 시 가장 필요한 사회적 지원

단위: %



※ 출처: 김형주 외, "한국의 Young Innovators 사례 발굴 및 확산: Young Innovators 포함 경과 보고서", 과학기술정책원,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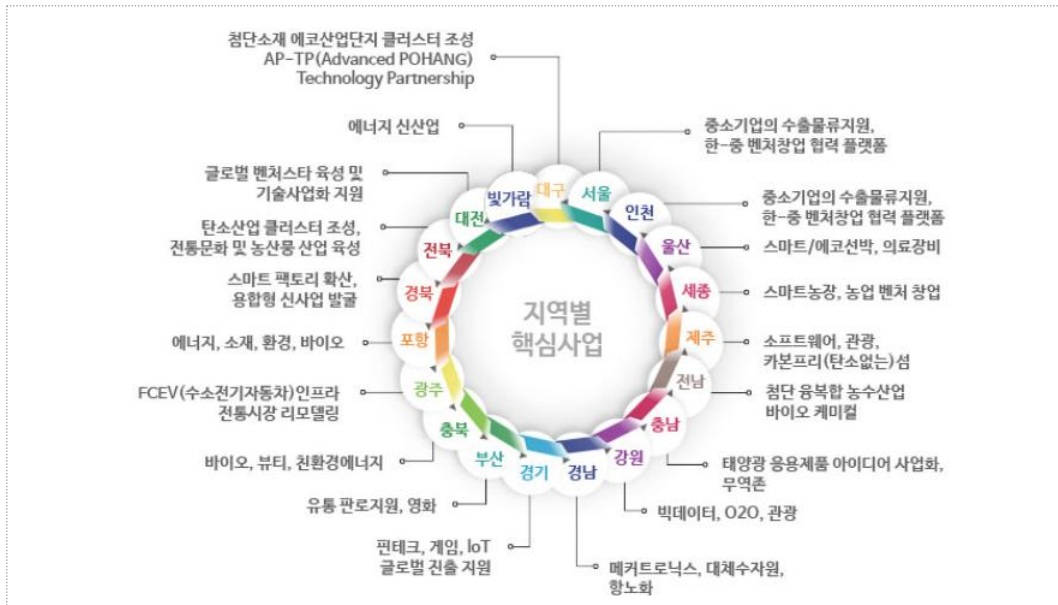
한편 창업 교육 및 창업 공간 지원도 비슷한 규모로 조사되었다. 이처럼 창업동아리 지원을 제외하고 각 유형에서 기업들의 참여가 비슷한 데에는 앞서 기술한 것처럼 국내 상장기업의 창업지원 활동이 특정 활동에 국한하지 않고 다각도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는 창업공간과 관련하여 창업지원 코워킹 스페이스에 대한 관심 또한 높아지고 있다. 코워킹 스페이스란 단순히 창업을 위한 사무실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예비) 창업가가 아이디어를 사업화(창업)하기 위해 교류 및 협업하는 공간으로, 단순한 공간 제공 뿐 아니라 창업 관련 멘토링, 투자자 연결과 같은 스타트업의 비즈니스 활동 기능을 포함하는 개념이다.³⁾

해외 창업지원 코워킹 스테이션의 대표적 사례로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는 로켓스페이스(RocketSpace)를 들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은행권청년창업재단이 2013년에 창업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설립한 D.CAMP와 2014년에 미래창조과학부와 네이버, 카카오 등 인터넷 선도기업, 투자기관 및 창업보육기관 등 50여개 조직이 민관협력네트워크 형태로 설립된 스타트업얼라이언스를 들 수 있다.

최근 코워킹 스테이션 지원이 민간기업 차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하이트진로의 경우 청년들의 취업, 사회적 활동 지원하기 위해 2018년 12월 투자회사인 더벤처스와 함께 하이트진로

[그림 2]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 및 특화산업



※ 출처: 창조경제혁신센터(<https://ccei.creativekorea.or.kr/info/info.do>)

3) 김영환, “창업지원 코워킹스페이스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정책 과제”, STEPI Insight, 164, 2015.4

서초사옥에 공유 오피스 ‘뉴블록(New Block)’ 오픈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2018년에 전국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스타트업 전문지원기관으로 전면 개편하면서 각 지역의 다양한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개방형 혁신 플랫폼으로 활용하도록 하였다.⁴⁾

3. 기업규모별 창업 지원 현황

분석대상기업을 자산규모로 분류하여 창업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기업규모에 따라 창업 지원 활동에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기업 71개사를 자산총액 1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 10조 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을 때, 자산규모가 증가할수록 기업의 창업지원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6] 자산규모별* 창업 지원 현황

단위: 개사, 개

	~1조 원 미만	1조 원 이상~10조 원 미만	10조 원 이상~
대상기업 수	7	35	29
평균 창업 지원 활동 수	1.4	2.1	3.0

* 자산규모는 2018년 말 개별재무제표 기준임.

자산규모가 ‘1조 원 미만’의 기업은 7개사로, 이 중 4개사에서 창업경진대회 개최, 창업 공간 지원 등 한 가지 방식으로 창업을 지원하고 있었으며, 3개사에서 2가지 방식의 창업 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규모가 ‘1조 원 이상 10조 원 미만’인 기업에서는 창업 지원 활동인 평균 2.1개를 운영하고 있었으며, 자산규모가 ‘10조 원 이상’인 29개사에서는 평균 3개의 창업 지원 활동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예비)창업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따라서 상장기업의 창업 지원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을 실시할 경우 대규모 기업을 중심으로 확산시켜 나가는 것이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기업집단별 창업 지원 현황

창업 지원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지정·발표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별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분석 대상 기업 71개사 중 48개사가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이며, 23개사는 비(非)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중소기업뉴스,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역 스타트업 지원허브로 탈바꿈”, 2019.02.02

[표 7] 창업 지원 기업의 기업집단 소속 여부

기업집단명	소속 계열사	기업집단명	소속 계열사
네이버	NAVER	카카오	카카오
대림	대림산업	케이티	케이티
두산	두산, 두산중공업	케이티앤지	케이티앤지
롯데	롯데하이마트, 롯데케미칼, 롯데지주, 롯데쇼핑	포스코	포스코
삼성	삼성전자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홀딩스
신세계	신세계, 이마트, 신세계I&C	한진	한진, 한국공항
씨제이	CJ대한통운, CJ제일제당	한화	한화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그룹, 아모레퍼시픽	현대백화점	현대그린푸드, 현대홈쇼핑, 현대백화점
에스케이	SK, SK텔레콤, SKC, SK하이닉스, SK네트웍스, SK이노베이션	현대자동차	현대글로벌비스,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엘에스	LS네트웍스	현대중공업	현대중공업지주, 현대중공업
엘지	LG상사, LG유플러스, LG화학, LG전자, LG디스플레이	효성	효성
지에스	GS글로벌, GS리테일	25개 기업집단	48개사

기업집단 소속 계열사의 경우 개별 기업 차원에서 창업 지원 활동을 운영하기도 하지만, 그룹(기업집단) 차원에서 운영하는 창업 지원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도 한다. 이처럼 그룹 차원에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 소속 계열사가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하여 (예비) 창업가 및 스타트업에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대표적인 예로 현대자동차 그룹의 ‘드림 무브’와 롯데그룹의 ‘롯데엑셀러레이터’, 한화그룹의 ‘드림플러스’ 등을 들 수 있다.

[표 8] 주요 기업집단의 창업지원 프로그램

기업집단	창업 지원 프로그램	주요 내용
현대자동차	드림 무브	- 청년과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창업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프로그램 운영 - 13개 계열사가 40개 프로젝트에 참여 - H-온드림 사회적기업 창업오디션, 기프트카 캠페인, OK셰프 등
롯데	롯데엑셀러레이터	- 초기단계의 스타트업에게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성장한 스타트업에게 펀드 투자를 통해 빠른 성장 지원 -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인 L-Camp를 통해 사무공간 지원, 법률·회계·세무 자문, 마케팅, 계열사 등을 통한 사업제휴 및 판로 개척지원
한화	드림플러스	- 스타트업 전문 육성프로그램 담당 - 액셀러레이터가 맞춤형 멘토링 지원, 드림플러스 오피스 입주, 법률 컨설팅 등 지원
SK	-	- 행복나눔재단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임팩트투자 지원, SK프로보노, 청년소셜 이노베이터Lookie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문제 해결을 지원
LG	LG소셜캠퍼스	- LG전자와 LG화학이 2011년부터 사회적 경제 조직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조성한 사회적 경제 통합지원 플랫폼 - 창업 공간 및 창업 자금을 지원하며,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 세미나, 해외 연수, 마케팅 및 홍보 등 다양한 컨설팅 제공

※ 출처: 각 사 홈페이지

5. 대학연계 창업 지원 현황

한국연구재단과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이 5개 권역 대학을 대상으로 국내 기업이 창업지원 현황에 관하여 설문조사한 결과 9개 대학에서 11개사(상장사 6개사, 비상장사 5개사)가 창업 육성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9개 대학 중 5개 대학은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 대학 육성사업(LINC+) 대상이었으며, 4개 대학은 'LINC+' 미해당 대학이었다.

대학과 연계한 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은 대학 특성상 창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창업 교육(특강)과 창업경진대회 후원, 창업캠프 지원이 많은 반면, 창업 자금 및 창업 공간 지원은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9] 국내 기업의 대학별 창업지원 현황

권역	대학명	LINC+ 여부	참여기업	창업경좌	창업 동아리	창업경진 대회	창업 캠프	기타*	창업 자금	창업 공간
대경강원권	대구가톨릭대	O	삼성전자	✓	✓		✓	✓	✓	
대경강원권	계명대	O	삼성전자	✓		✓	✓	✓	✓	
대경강원권	동국대 (경주)	X	삼성전자	✓	✓	✓				
동남권	경상대	O	KT&G	✓		✓		✓		
동남권	창원대	O	한국전력공사, KT&G	✓				✓		
동남권	부산과학기술대	X	샤론고트, 가온누리, 엔피프틴	✓		✓		✓		
수도권	덕성여대	X	코어씨앤씨			✓			✓	
수도권	한양대	X	코맥스, 현대NGV, KT	✓		✓		✓		✓
호남제주권	전남대	O	하이트진로			✓				

*: 기타로는 경진대회 심사, 창업마켓 진행, 발명전시회 지원 및 사업화 지원 등이 포함됨.

주) 음영처리된 기업은 비상장 기업임.

IV 결론 및 시사점

국내 상장사들의 지난 5년간 창업 지원 활동을 살펴보면 참여기업 수는 소폭 증가하였으나 대체로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전에는 다수의 기업들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창업경진대회를 개최하거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등 소극적 방식의 지원 행태를 보였는데 최근에는 해당 기업의 핵심사업과 연계하여 (예비) 창업가를 발굴하고 노하우 전수, 마케팅 교육, 판로 개척 등 창업 전반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기업들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질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여 진다.

이러한 변화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 개선도 일정 부분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 기업들은 그동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단순히 기부 또는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인식하였는데 최근에는 진정성 있는 CSR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소통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변화해 가고 있다.

한편 우리 사회에서 창업 우호적 문화를 조성하는데 아직도 많은 기업의 참여가 요구되고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창업지원 활동이 기업의 신성장 동력 발굴이라는 경제적 측면에서도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지속적으로 창업 지원에 참여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기업의 창업 지원 활동이 지속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및 제도적 지원도 같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일례로 현재 국내 기업들이 다양한 창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기업별 창업 지원정보에 대한 접근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는 K-Startup(www.k-startup.go.kr) 사이트를 활용하여 기업별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취합하여 제공한다면 창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가들에게 많은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창업 지원 우수기업(또는 기업집단)을 정기적으로 발굴하고 우수사례로 홍보함으로써 창업 지원을 고민 중인 다른 기업들에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Chapter 3

2018년도 창업강좌 만족도 조사결과

요약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기초분석결과

제3장 심층분석결과



| 요약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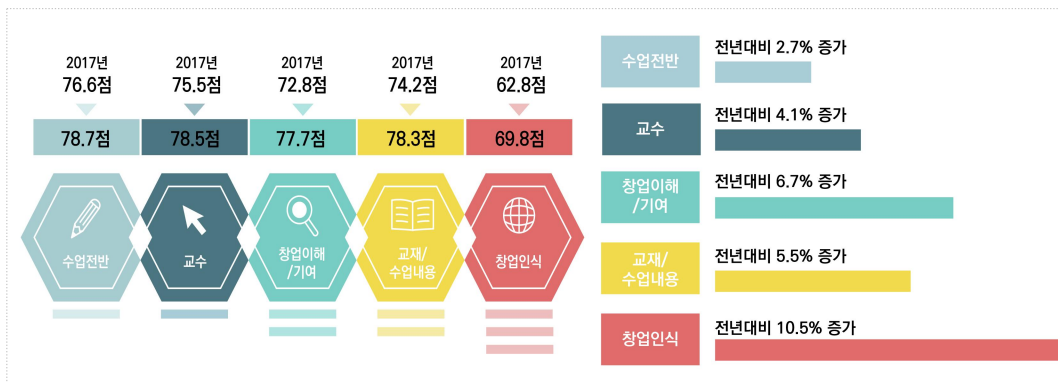
1

기초 분석

□ 요인별 만족도

○ 2018년도 창업강좌 종합만족도*는 75.40점으로 2017년 72.10점에 비해 4.5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측정항목: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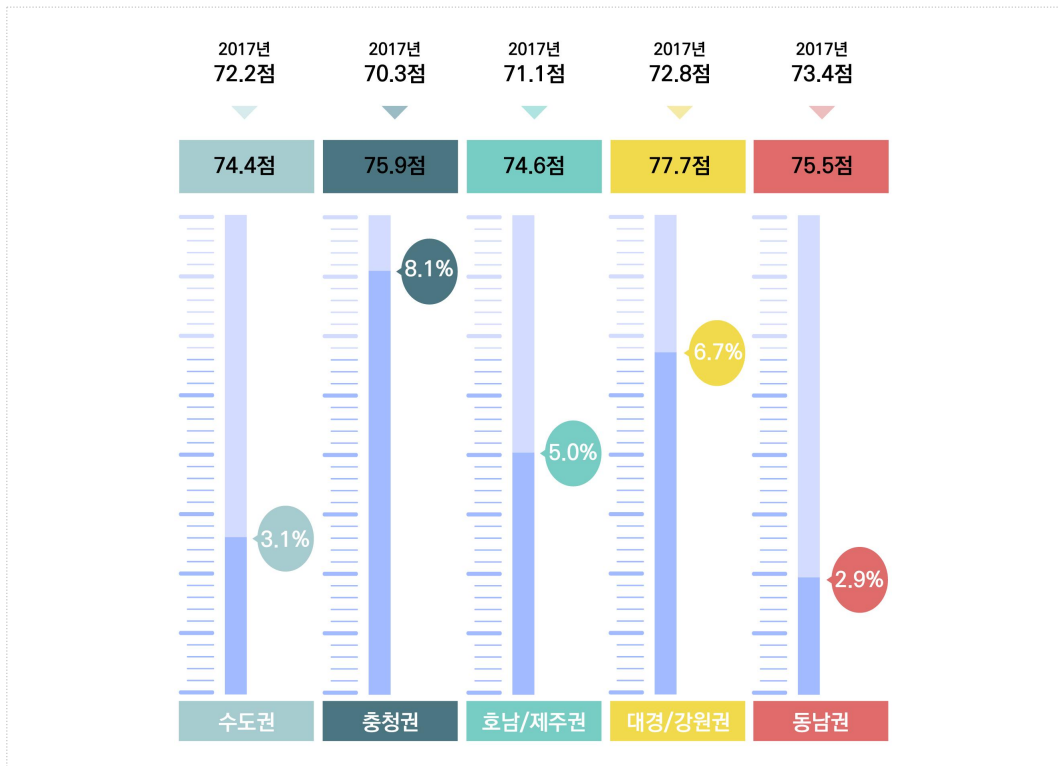
□ 권역별 만족도

○ 2018년도 창업강좌 권역별 만족도에서는 대경/강원권의 만족도가 77.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 만족도가 74.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경/강원권(77.70), 동남권(75.48), 충청권(75.91), 호남/제주권(74.61), 수도권(74.37)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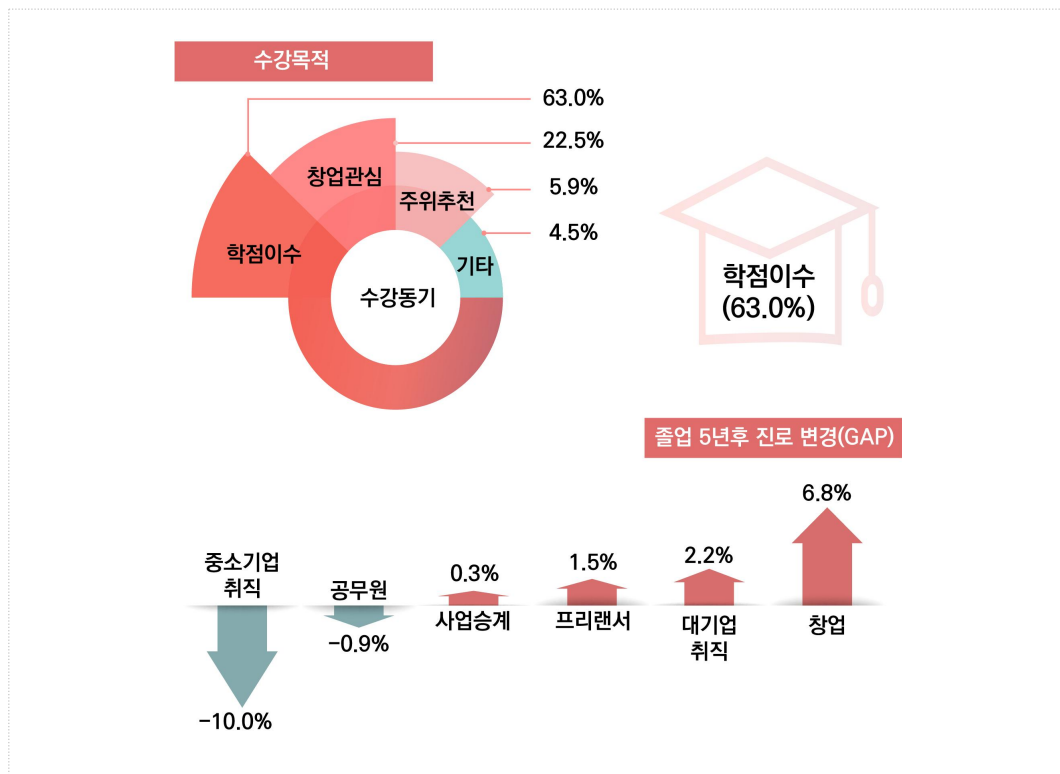
○ 전년대비 만족도 상승률은 충청권(8.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 지역에서 권역별 만족도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충청권(8.1%), 대경/강원권(6.7%), 호남/제주권(5.0%), 수도권(3.1%), 동남권(2.9%)의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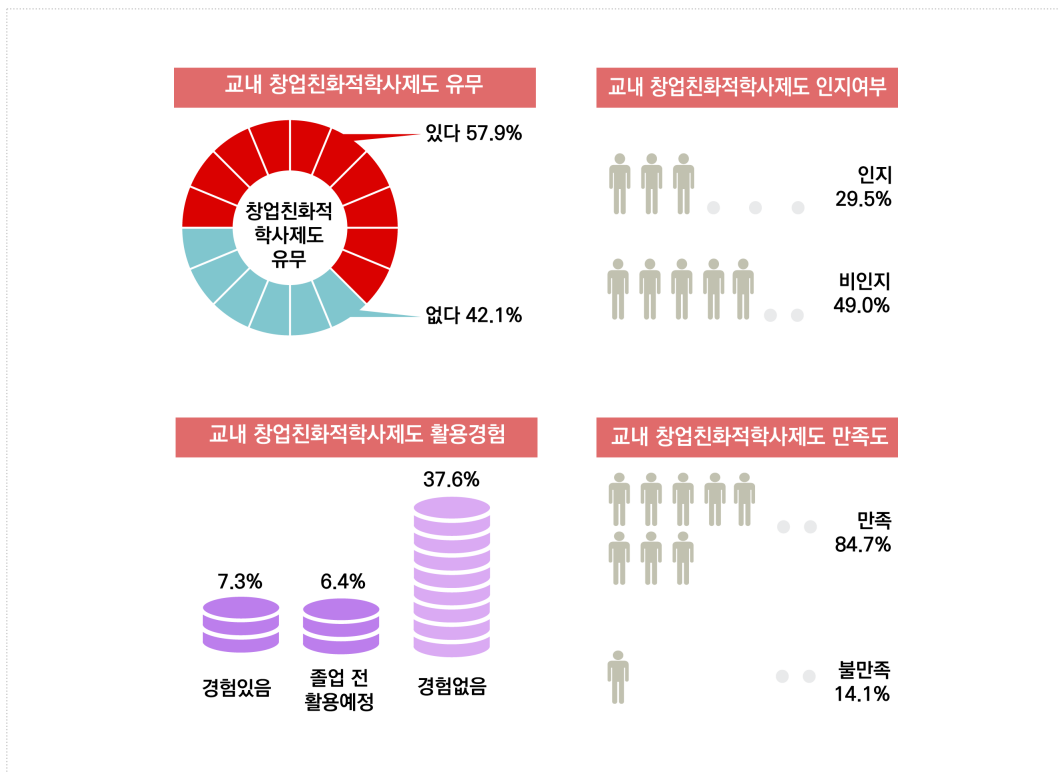
□ 강좌 수강동기 및 졸업 후 진로

- 창업강좌의 수강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학점 이수 목적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관심 22.5%, 주위 추천 5.9%, 기타 4.5%의 순으로 나타남.
 -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다는 의견은 전년(28.5%)대비 다소 떨어진 것(6%p ↓)으로 나타남.
- 졸업 5년후 희망진로 분석결과, 대기업 취직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정(16.4%), 중소기업 취직(15.0%), 창업(14.4%), 공무원(12.0%), 사업승계(1.6%)의 순으로 나타났음.
 - 졸업직후 희망진로와 졸업 5년 후 희망진로가 큰 폭으로 차이나는 항목은 중소기업 취직(-10.0%p)과 창업(6.8%p)으로 확인됨.



□ 교내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유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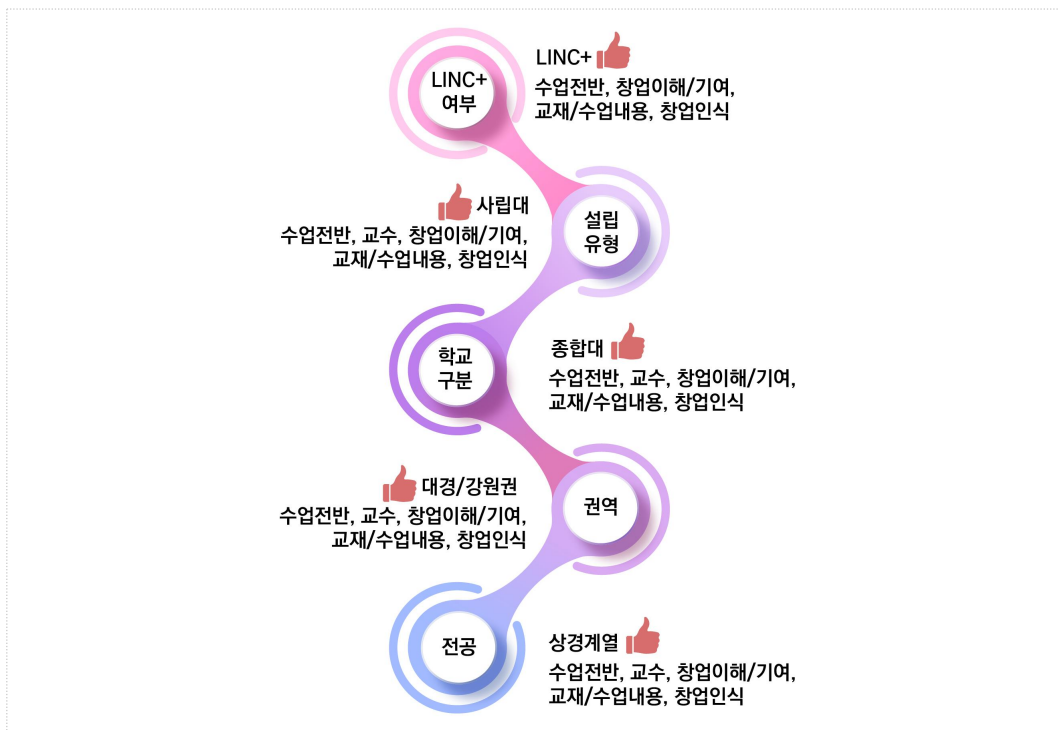
-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유무에 살펴보면 교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7.9%로 나타남.
- 창업친화적학사제도에 대한 인지여부에 대해서는 29.5%만 인지를 하고 있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하여 대다수의 학생이 모르고 있음.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만족은 84.7%가 만족한다고 응답하고 있어, 제도에 대한 홍보가 부족할 뿐, 제도를 활용하게 되면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



2 심층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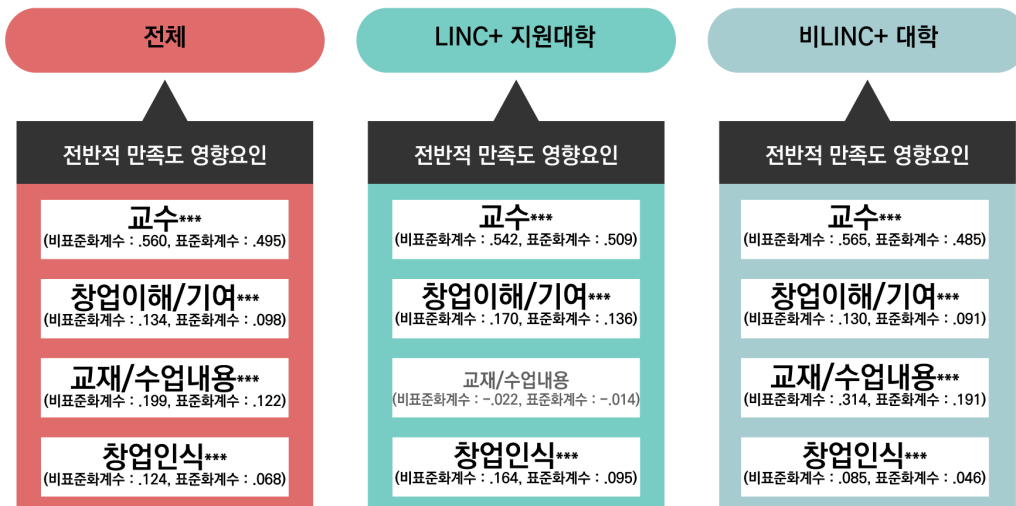
□ 요인별 평균비교

○ 대학재정지원사업, 설립유형, 학교구분, 권역, 전공에 대한 차이를 분석한 결과 LINC+ 지원대학, 사립대학, 종합대학, 대경/강원권, 상경계열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창업강좌 영향력 분석결과

- 응답자 11,884명을 대상으로 창업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창업강좌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표준화 계수 기준)에 대해 분석해보면 교수(0.495), 교재/수업내용(0.122), 창업이해/기여(0.098), 창업인식(0.068)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LINC+ 지원대학)창업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수, 창업이해/기여, 창업인식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재/수업내용의 경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비LINC+ 대학) 창업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제1장 | 조사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및 필요성

□ 창업의 중요성 증대

-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국정과제 39번)’을 적극 추진 중임.
-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17.11월)하여 현 정부의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하였고, 일자리 위원회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18.3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18.5월)’ 등을 발표함.
 - 향후 3년간 10조 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분사창업 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 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①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스타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R&D, 투자 등 일관 지원 강화, ②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③ 세금 등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마을 조성 등을 통해 자율적 교류·협업 생태계 구축
- 혁신모험 펀드 조성,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등 기 수립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특히, 오픈 바우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추경안 반영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최근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①국민의 관심 및 참여 촉진, ②성공사례 창출, ③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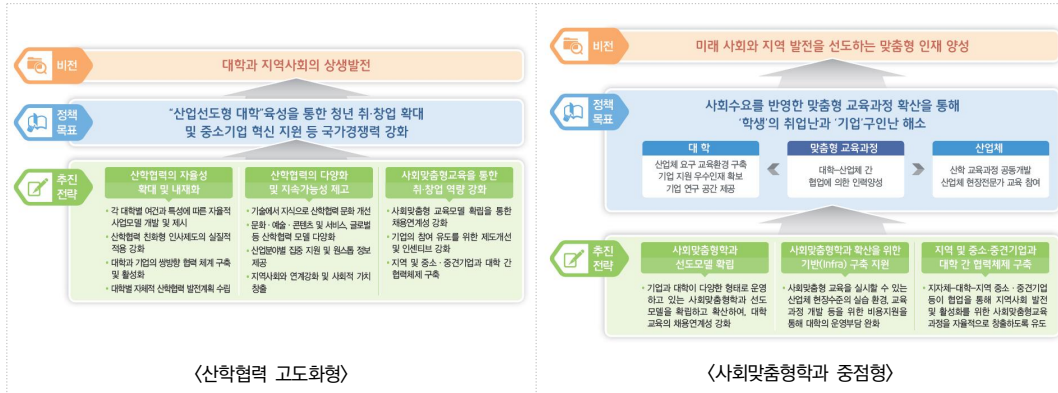
□ 창업의 교육의 필요성 확대

- 창업 지원 및 창업 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 다양한 지원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은 실질적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OECD 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 된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와 개인의 성장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고용위기 이후 높아진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잠재적 동인이기에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청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및 교육은 자신감과 역량 개발 등 인적자본에 대한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인적인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교육부는 제1차 대학창업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창업 전담 교원을 증대시켰으며, 학생의 창업 도전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함.
 - 특히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 교류제 등의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시행 대학 및 수혜학생이 대폭 증대되었음.
 - 또한 '16년도의 창업강좌 개설 대학 수 및 창업강좌 수강 인원은 2012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성과를 창출한 교육부는 최근 제2차 대학창업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표 I-1]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시행대학 및 수혜 학생 수

유형	2013년		2016년		증가율		
	시행대학	수혜인원	시행대학	수혜인원	시행대학	수혜인원	
창업 휴학제	68개교	45명	217개교	527명	219%	1,071%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	창업실습	23개교	-	85개교	2,054명	269%	-
	창업현장실습	23개교	-	93개교	620명	304%	-
창업 학점 교류제	43개교	832명	85개교	7,162명	97%	761%	
	(2015년 실적)						

-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제언을 담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 및 OECD 국가들 역시 국가별 심층 평가 프로젝트 및 실태 조사,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창업강좌가 개인 혹은 사회에 영향을 주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 제20조 또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대학에 체계적인 창업교육 제공을 추진함.



-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예 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함.
- 창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제언을 담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 및 OECD 국가들 역시 국가별 심층 평가 프로젝트 및 실태 조사,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창업강좌가 개인 혹은 사회에 영향을 주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창업강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제 창업강좌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존재함.

2)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60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서 개설한 창업강좌 운영의 만족요인을 조사 분석하여 창업강좌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 진취적 방향제시와 더불어 창업강좌운영의 만족모형 도출을 위해 2018년도에 개설된 창업관련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 등을 수강하고 이수한 학생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함.
-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와 개인의 성장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고용위기 이후 높아진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잠재적 동인이기에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청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및 교육은 자신감과 역량 개발 등 인적자본에 대한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인적인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창업강좌에 대한 만족요인을 도출함으로써 창업강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재정지원사업별 비교분석

- 본 연구에서는 창업강좌 만족도 요인에 대해 재정지원사업별(LINC+ 지원여부, 창업선도대학 지원여부)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LINC+ 사업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의 자율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 I-2] LINC+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예산	-2017년: 216,300백만 원 -2018년: 202,500백만 원
사업개요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산학협력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산학협력의 개방성 및 확산성 제고, 사회맞춤형 교육 활성화 등을 목표로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으로 지원함.

[표 I-3]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예산	- 2017년: 92,240백만 원 - 2018년: 89,540백만 원
사업개요	-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율·특화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창업지원당 및 입소공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특히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및 후속지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창업강좌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여부에 따라 창업강좌 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2

조사개요

1) 개요

- 2018년 대학 창업강좌 효과성 측정을 위해 2018년 9월 12월(종강시)에 설문조사를 실시함.
-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전체 11,884개의 유효표본을 분석함.
-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4] 조사 및 분석 내용 개요

차원	측정 지표(문항)
조사대상	-60개 대학의 창업강좌 수강생
조사방법	-자기 기입식 응답이 가능한 설문 조사 -오프라인 설문조사 실시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41문항
자료처리/분석방법	-SPSS 21.0 및 EXCEL을 활용한 분석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
유효표본	-60개 대학의 응답자 11,884명
조사기간	-종강시: 2018년 12월

2) 조사내용

- 본 조사의 설문내용은 학교/과목특성, 수강생특성, 창업강좌 만족도, 창업교육 주변환경,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향후 진로 의향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 창업강좌 만족도 요인은 수강전반, 교수(교수법),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으로 구분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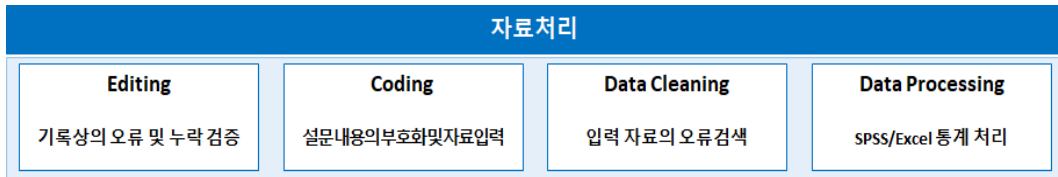
[표 I-5] 측정 내용 개요

구분	측정 내용	문항	
학교/과목특성	학교권역, 과목유형, 학교명, 과목명	A1 - A4	
수강생특성	성별, 학년, 전공, 수강동기, 수강빈도, 창업관련활동	B1 - B6	
창업 교육 만족도	수업전반	나는 이 수업에 대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C1
	교수 (교수법)	교수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C2 - C4
		교수는 수업 내용에 따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교수는 내가 학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불어 넣었다	
	창업이해/기여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C5 - C8
		이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이 높아졌다	
		이 수업은 진로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교재/ 수업내용	다른 과목에 비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C9 - C14
		이 수업의 난이도와 속도는 적절하였다	
		교재는 이 수업에 유용하였다	
		강의실 물리적 환경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수업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 수업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창업인식	시험 및 평가는 수업의 목표를 잘 반영하였다	C15 - C21
		이 수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졌다	
		우리 대학은 나에게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3년 이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창업교육 주변 환경	부모님 및 친인척/동료 및 선배/창업초기기업 근무 및 사업체 운영경험	D1 - D1.2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제도 유무, 제도 인지도, 활용경험, 만족도, 제도 비인지/비활용 이유	E1 - E1.4	
향후 진로의향	졸업 직후/졸업 5년 후 진로	F1 - F2	

3) 자료처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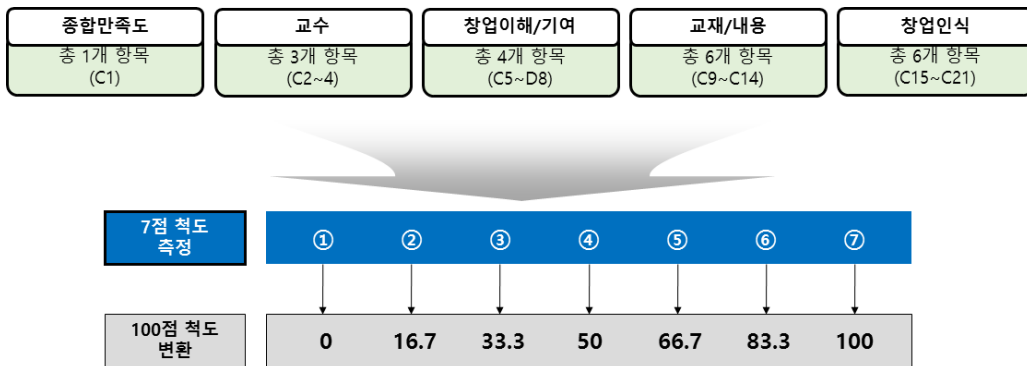
-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작업을 거쳐 분석됨.
-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평균값, 분산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함.

[그림 I-1] 자료처리 방법



-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창업교육 효과는 변환되어 연구에 활용됨.
 - 각 항목은 7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이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함.
 - 강좌 효과성 산출을 위해 4개 차원(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별 해당 항목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4개 차원 점수를 종합하여 전체 종합 점수를 산출함.

[그림 I-2] 설문 조사 및 분석 개요



3

응답현황

1) 학교별 응답현황

○ 학교별 응답현황을 살펴보면, 총 60개 대학에서 총 11,884개의 설문을 확보하여 분석에 활용함.

[표 I-6] 응답 학교 현황

연번	만족도	샘플 수(명)	연번	만족도	샘플 수(명)
1	KC대학교	104	31	성균관대학교	66
2	가천대학교	221	32	성덕대학교	106
3	강남대학교	261	33	세한대학교	109
4	강릉원주대학교	189	34	수원과학대학교	165
5	건양대학교	421	35	순천대학교	319
6	경기과학기술대학교	463	36	안동대학교	155
7	경북전문대학교	80	37	여주대학교	488
8	경상대학교	298	38	연세대학교_원주	209
9	경운대학교	242	39	영남대학교	80
10	경일대학교	271	40	영산대학교	62
11	계명대학교	65	41	오산대학교	291
12	고신대학교	75	42	우석대학교	297
13	광주보건대학교	192	43	울산대학교	108
14	광주여자대학교	110	44	위덕대학교	118
15	군산대학교	108	45	인천재능대학교	384
16	극동대학교	71	46	전주대학교	442
17	김천대학교	115	47	제주대학교	81
18	대구가톨릭대학교	154	48	중앙대학교	123
19	대구공업대학교	149	49	차의과학대학교	174
20	대구과학대학교	119	50	창원대학교	161
21	대구보건대학교	104	51	충북대학교	206
22	대동대학교	326	52	충북도립대학교	69
23	동남보건대학교	569	53	한국교통대학교	92
24	동신대학교	125	54	한국외국어대학교	415
25	동원대학교	335	55	한국해양대학교	164
26	동의대학교	154	56	한남대학교	451
27	두원공과대학교	264	57	한림성심대학교	86
28	서울예술대학교	156	58	한서대학교	223
29	서원대학교	89	59	해전대학교	260
30	서일대학교	71	60	홍익대학교	79
		총계			11,884

- 응답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권역은 수도권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학제는 종합대학, 설립유형은 사립대, 대학재정지원사업은 비LINC+, 과목유형은 교양, 성별은 남성, 학년은 1학년, 전공은 공학계열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기] 응답자 특성

구분	내용	사례 수(명)	비율(%)
	전체	11,884	100.0%
권역별	수도권	4,703	39.6%
	충청권	2,093	17.6%
	호남/제주권	1,572	13.2%
	대경/강원권	2,112	17.8%
	동남권	1,404	11.8%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60.6%
	전문대	4,677	39.4%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15.5%
	사립대	10,041	84.5%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36.7%
	비LINC+	7,528	63.3%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72.9%
	전공강좌	3,052	25.7%
	무응답	170	1.4%
성별	남성	6,318	53.2%
	여성	5,089	42.8%
	무응답	477	4.0%
학년별	1학년	4,001	33.7%
	2학년	3,724	31.3%
	3학년	1,768	14.9%
	4학년	1,735	14.6%
	무응답	656	5.5%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26.6%
	상경계열	1,042	8.8%
	공학계열	3,388	28.5%
	자연계열	1,413	11.9%
	의학계열	697	5.9%
	예체능계열	1,137	9.6%
	기타	662	5.6%
	무응답	378	3.2%

| 제2장 | 기초분석결과

1

강좌 만족도

□ 강좌 만족도 요인 요약

- 창업강좌 만족도 요인은 종합만족도,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으로 구분하였으며, 모든 항목에서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순번	요인명	관련 문항	측정결과	
			2017	2018
1	종합만족도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21개 항목 평균	72.40	75.40
2	수업전반	수업의 전반적 만족도(단일항목)	76.58	78.65
3	교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 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3개 항목 평균	75.45	78.53
4	창업이해/기여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 사고/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 4개 항목 평균	72.83	77.66
5	교재/수업내용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 6개 항목 평균	74.17	78.27
6	창업인식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3년 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등 7개 항목 평균	62.98	69.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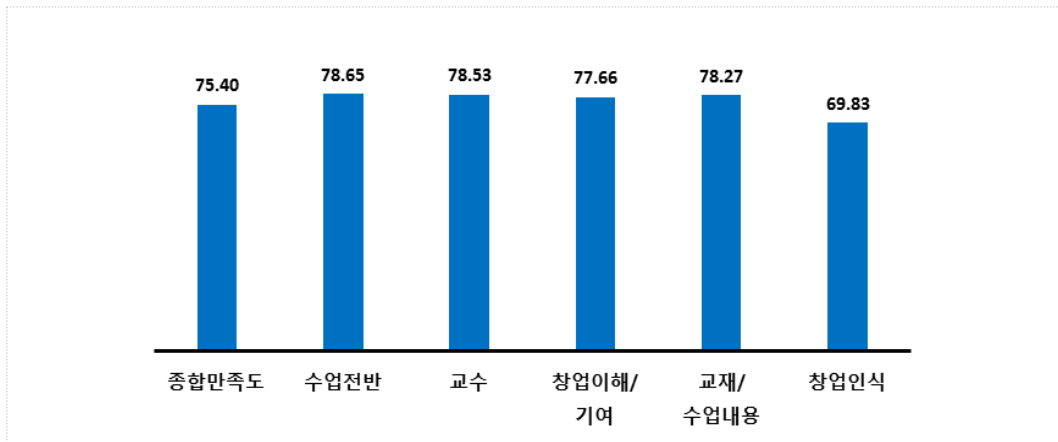
1) 2018년도 만족도

① 종합 분석

- 2018년도 창업강좌 종합만족도는 75.40이며, 창업인식을 제외한 나머지 차원의 만족도가 종합만족도에 비해 높음.
 - 수업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78.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인식이 69.83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적 만족도에서는 수업전반(78.65), 교수(78.53), 교재/수업내용(78.66), 창업이해/기여(77.66), 창업인식(69.83)의 순으로 나타났음.
 - 전반적으로 강의와 관련된 만족도는 높게 나타난 반면, 창업에 대한 이해 및 인식에 대한 만족도는 낮게 도출됨.

[그림 II - 1] 종합만족도 - 2018년도

n: 11,884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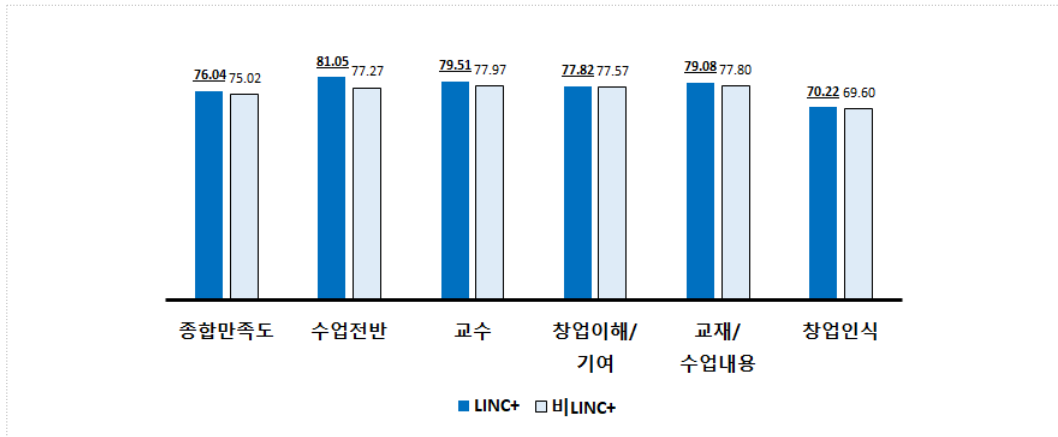


- 2018년도 창업강좌에 대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76.04이며,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은 75.02로 LINC+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 만족도가 높음.
 - 종합만족도를 포함한 모든 항목에서 LINC+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음.
- 세부적 만족도에서 LINC+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조사항목 모두에서 비LINC+ 대학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LINC+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는 세부적인 만족도에서는 수업전반(81.05), 교수(79.51), 교재/수업내용(79.08), 창업이해/기여(77.82), 창업인식(70.22)의 순으로 나타남.
- LINC+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에서는 교수(77.97), 교재(77.80), 창업이해/기여(77.57), 수업전반(77.27), 창업인식(69.6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2] 종합만족도 - 2018년도(LINC+/비LINC+ 비교)

n: 11,884명(LINC+: 4,356명, 비LINC+7,528명), 단위: 점



② 세부 항목 분석

□ 교수 차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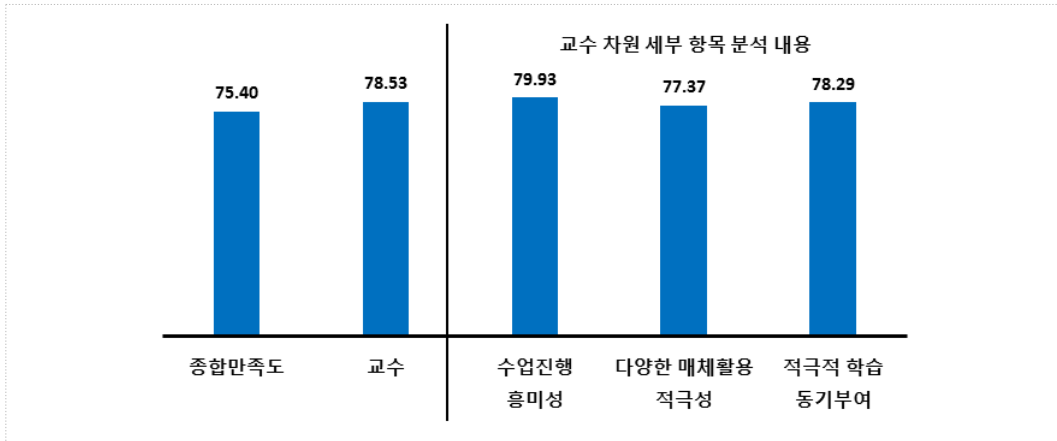
- 교수 차원의 만족도 항목은 창업강좌를 진행하였던 교수자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1. 교수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2. 교수는 수업내용에 따라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3. 교수는 내가 학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불어넣었다.

- 교수 차원의 만족도는 78.53이며, 종합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세부 항목에서는 수업진행 흥미성 만족도가 79.9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이 77.37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수업진행 흥미성(79.93),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78.29),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77.37)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3] 교수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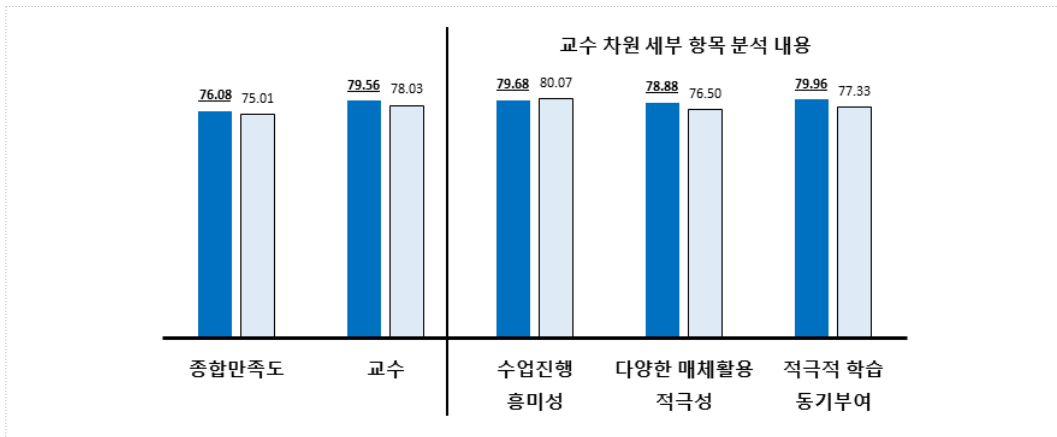
n: 11,884명, 단위: 점



- 2018년도 교수 차원에 대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79.56이며,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은 78.03로 LINC+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 만족도가 높음.
- 세부항목에서는 수업진행 흥미성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LINC+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음.
 - LINC+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는 세부적인 만족도에서는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79.96), 수업진행 흥미성(79.68),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78.88)의 순으로 나타남.
 - LINC+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에서는 수업진행 흥미성(80.07),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77.33),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76.5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교수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LINC+/비LINC+ 비교)

n: 11,884명, 단위: 점



□ 창업이해/기여 차원

○ 창업이해/기여 차원의 만족도 항목은 창업강좌를 수강하면서 창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졌는지, 진로 선택에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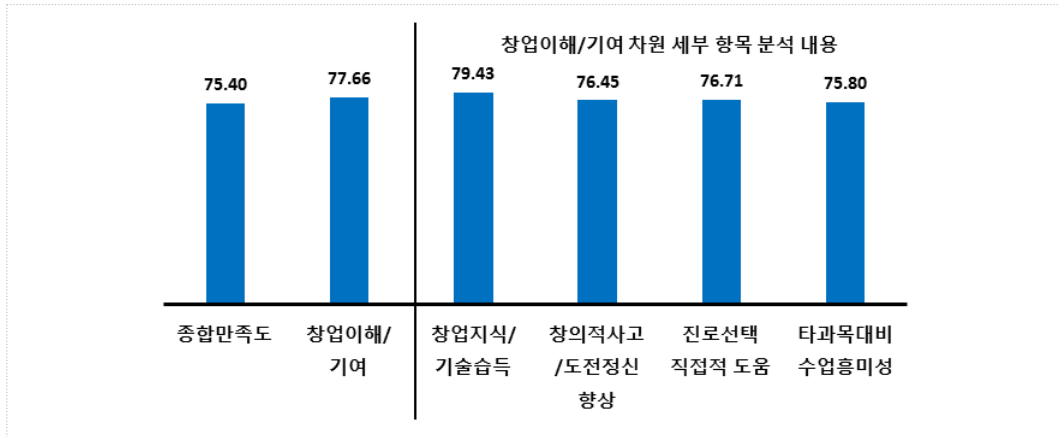
1.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2. 이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이 높아졌다.
3. 이 수업은 진로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4.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 창업이해/기여 차원의 만족도는 77.66이며, 종합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세부 항목에서는 창업지식/기술습득 만족도가 79.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이 75.80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창업지식/기술습득(79.43),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76.71),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76.45), 타과목 대비 수업흥미성(75.80)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5] 창업이해/기여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

n: 11,884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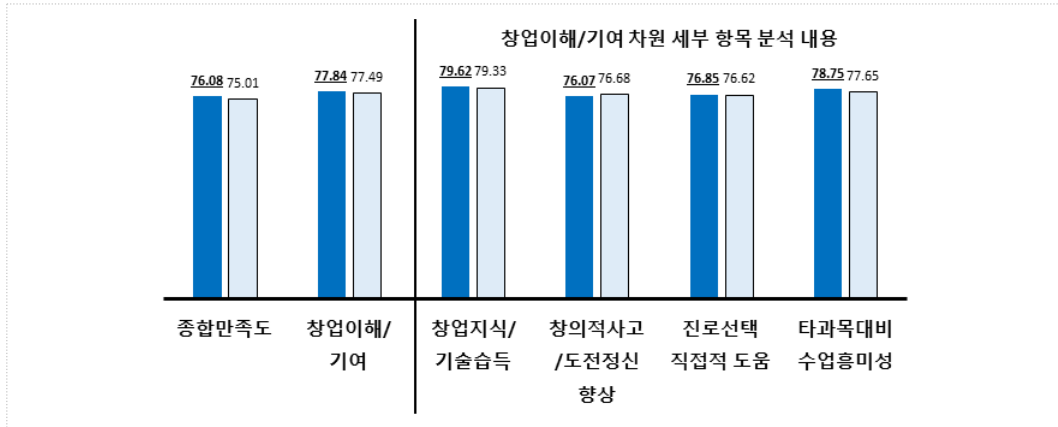
○ 2018년도 창업이해/기여 차원에 대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77.84이며,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은 77.49로 LINC+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 만족도가 높음.

○ 세부항목에서는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LINC+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음.

- LINC+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는 세부적인 만족도에서는 창업지식/기술습득(79.62),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78.75),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76.85),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76.07)의 순으로 나타남.
- LINC+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에서는 창업지식/기술습득(79.33),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77.65),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76.68),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76.6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6] 창업이해/기여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LINC+/비LINC+ 비교)

n: 11,884명, 단위: 점



□ 교재/수업내용 차원

○ 교재/수업내용 차원의 만족도 항목은 창업강좌에 대한 교재 및 환경, 수업내용 등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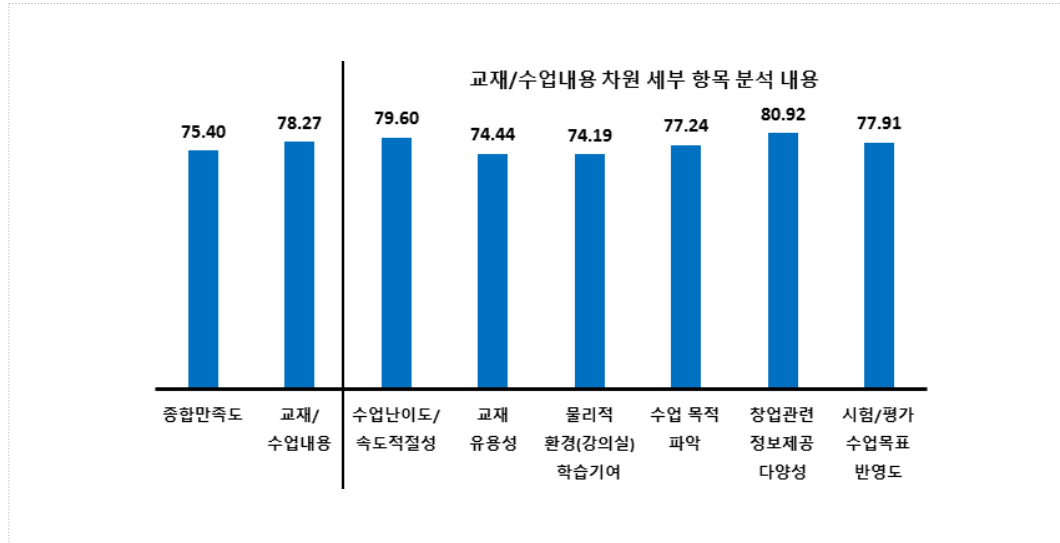
1. 이 수업의 난이도와 속도는 적절하였다.
2. 교재는 이 수업에 유용하였다.
3. 강의실 물리적 환경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4. 나는 이 수업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5. 이 수업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6. 시험 및 평가는 수업의 목표를 잘 반영하였다.

○ 교재/수업내용 차원의 만족도는 78.27이며, 종합만족도에 비해 높게 나타남.

- 세부 항목에서는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이 80.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가 74.1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80.92),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79.60),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77.91), 수업목적 파악(77.24), 교재 유용성(74.44),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74.1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7] 교재/수업내용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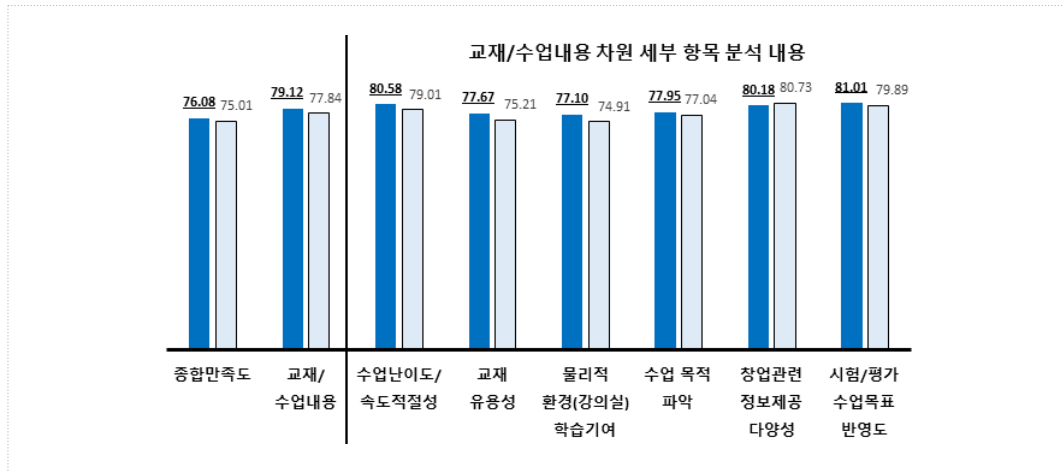
n: 11,884명, 단위: 점



- 2018년도 교수 차원에 대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79.12이며,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은 77.84로 LINC+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 만족도가 높음.
- 세부항목에서는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LINC+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음.
 - LINC+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는 세부적인 만족도에서는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81.01), 수업 난이도/속도적절성(80.58),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80.18), 수업목적 파악(77.95), 교재 유용성 (77.67),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77.10)의 순으로 나타남.
 - LINC+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에서는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80.73),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79.89),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79.01), 수업목적 파악(77.04), 교재 유용성(75.21),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74.91)의 순으로 나타남.
- 교재/수업내용 차원의 만족도는 타 만족도 항목에 비해 LINC+ 지원사업 여부에 따라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8] 교재/수업내용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LINC+/비LINC+ 비교)

n: 11,884명, 단위: 점



□ 창업인식 차원

○ 창업인식 차원의 만족도 항목은 창업강좌를 수강하면서 변화된 창업인식 정도에 대해 측정하는 요인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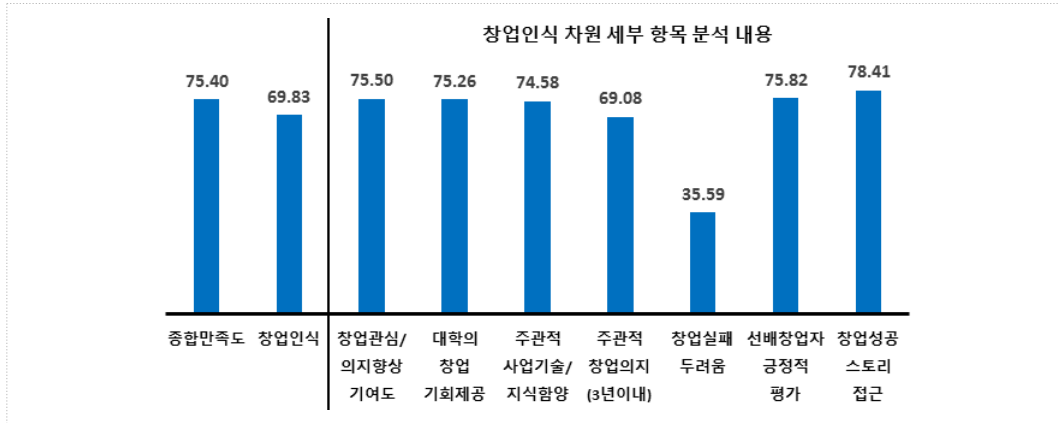
1. 이 수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졌다.
2. 대학은 나에게 창업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3.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4. 나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5.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6.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7.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 창업인식 차원의 만족도는 69.83이며, 종합만족도에 비해 낮게 나타남.

- 세부 항목에서는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이 78.4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실패 두려움이 35.59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78.41),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75.82),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75.50),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75.26),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74.58), 주관적 창업의지(69.08), 창업실패 두려움(35.59)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9] 창업인식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

n: 11,884명, 단위: 점



○ 2018년도 교수 차원에 대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 대학은 70.27이며,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은 69.56로 LINC+의 지원을 받는 대학이 만족도가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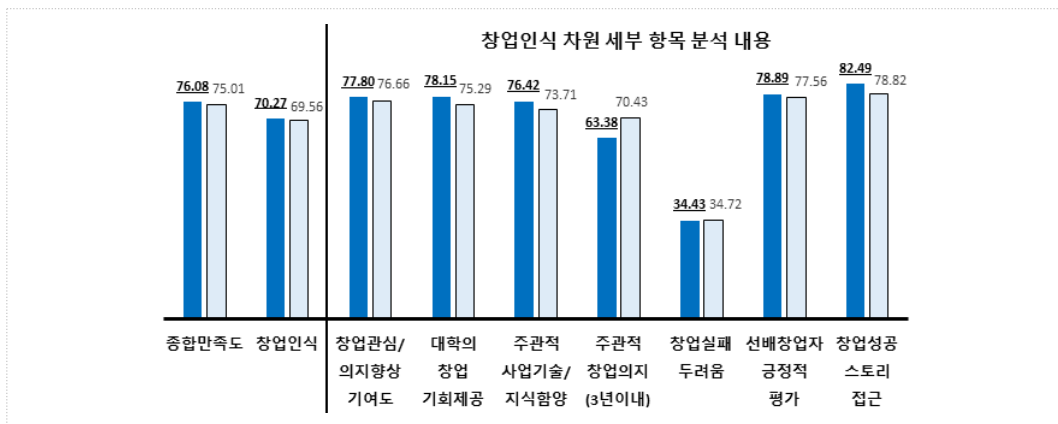
○ 세부항목에서는 주관적 창업의지와 창업실패 두려움이 LINC+ 사업의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LINC+ 사업의 지원을 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음.

- LINC+ 사업 지원을 받는 대학에서는 세부적인 만족도에서는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82.49),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78.89), 대학의 창업기회 제공(78.15),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77.80),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76.42), 주관적 창업의지(63.38), 창업실패 두려움(34.43)의 순으로 나타남.

- LINC+ 사업 지원을 받지 않는 대학에서는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78.82),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77.56),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76.66), 대학의 창업기회 제공(75.29),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73.71), 주관적 창업의지(70.43), 창업실패 두려움(34.7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0] 창업인식 차원 세부 항목 - 2018년도(LINC+/비LINC+ 비교)

n: 11,884명, 단위: 점



2) 전년대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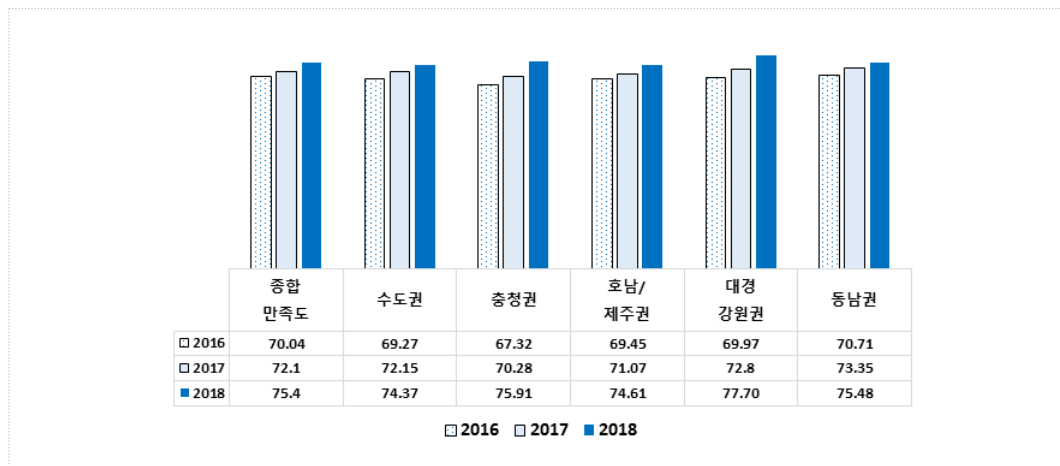
1) 만족도 종합

□ 권역별 만족도

- 2018년도 창업강좌 종합만족도는 75.40점으로 2017년 72.10점에 비해 4.5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도 창업강좌 권역별 만족도에서는 대경/강원권의 만족도가 77.70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만족도가 74.3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대경/강원권(77.70), 동남권(75.48), 충청권(75.91), 호남/제주권(74.61), 수도권(74.37)의 순으로 나타남.
- 2017년에는 동남권의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에는 대경/강원권의 만족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가장 높게 나타남.
 - 증가율 측면에서는 수도권 3.08% 증가, 충청권 8.01% 증가, 호남/제주권 4.98% 증가, 대경/강원권 6.73% 증가, 동남권 2.9%가 증가함.

[그림 II-11] 권역별 종합 만족도 비교 - 연차별

n: 11,884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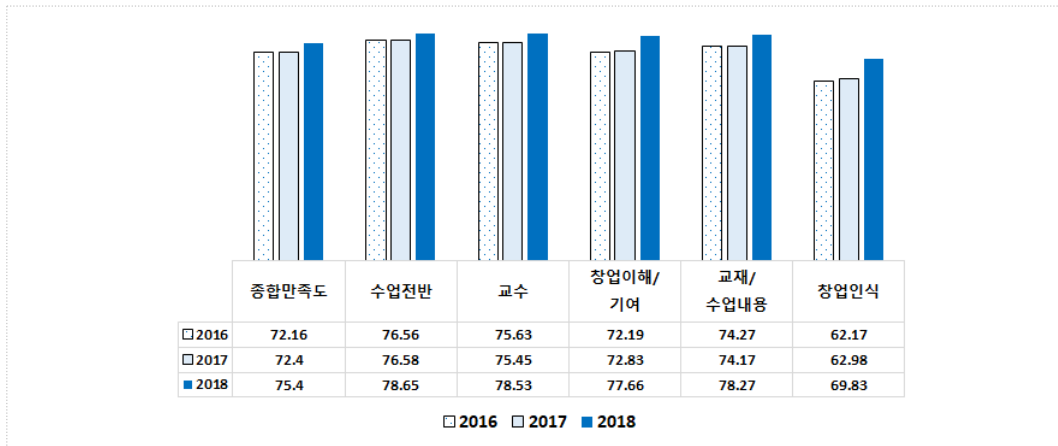


□ 요인별 만족도

- 2018년도 창업강좌 종합만족도는 75.40점으로 2017년 72.10점에 비해 4.58% 증가하였으며,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기록하고 있음.
- 2018년도 창업강좌 요인별 만족도에서는 수업전반의 만족도가 78.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인식의 만족도가 69.83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세부적 만족도에서는 수업전반(78.65), 교수(78.53), 교재/수업내용(78.66), 창업이해/기여(77.66), 창업인식(69.83)의 순으로 나타났음.
- 2017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요인별 만족도가 증가하였으며, 창업이해/기여, 창업인식이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임.
 - 증가율 측면에서는 수업전반 2.70%p 증가, 교수 4.08%p 증가, 창업이해/기여 6.63%p 증가, 교재/수업내용 5.53%p 증가, 창업인식이 10.88%p가 증가함.

[그림 II-12] 요인별 만족도 비교 - 연차별

n: 11,884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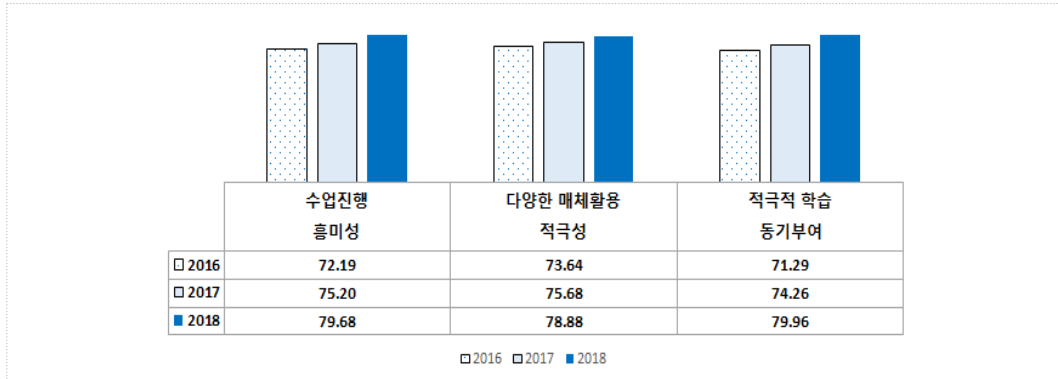
② 세부 요인별 만족도

□ 교수 차원

- 2017년에 비해 교수차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증가율 측면에서는 수업진행 흥미성이 5.96%p 증가,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4.23%p 증가, 적극적인 학습 동기부여가 6.25%p 증가함.

[그림 II-13] 요인별 만족도 비교 - 연차별

n: 11,884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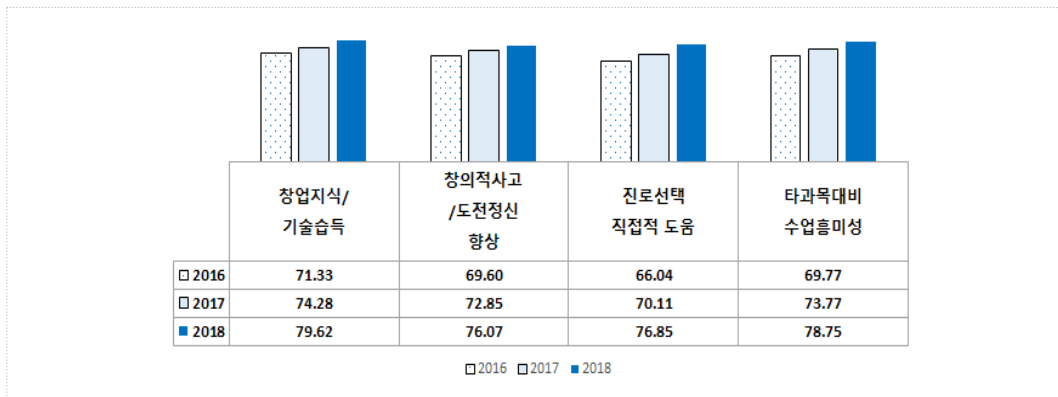


□ 창업이해/기여 차원

- 2017년에 비해 창업이해/기여 차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증가율 측면에서는 창업지식/기술습득 7.18%p 증가,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함양 4.42%p 증가,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9.61%p 증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6.75%p가 증가함.

[그림 II-14] 창업이해/기여 차원 만족도 비교 - 연차별

n: 11,884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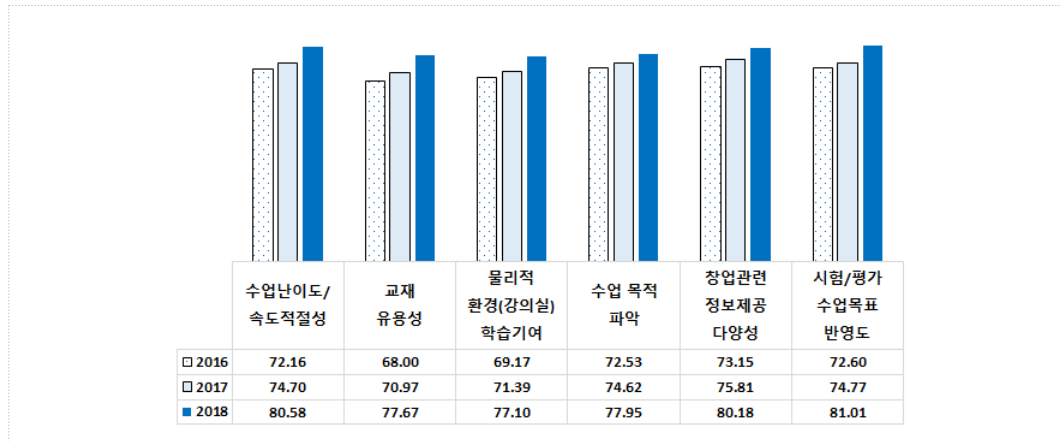


□ 교재/수업내용 차원

- 2017년에 비해 교재/수업내용 차원의 만족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였음.
- 증가율 측면에서는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7.88%p 증가, 교재 유용성 9.44%p 증가,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8.00%p 증가, 수업 목적 파악 4.47%p 증가,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5.77%p 증가,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8.37%p가 증가함.

[그림 II-15] 교재/수업내용 차원 만족도 비교 - 연차별

n: 11,884명,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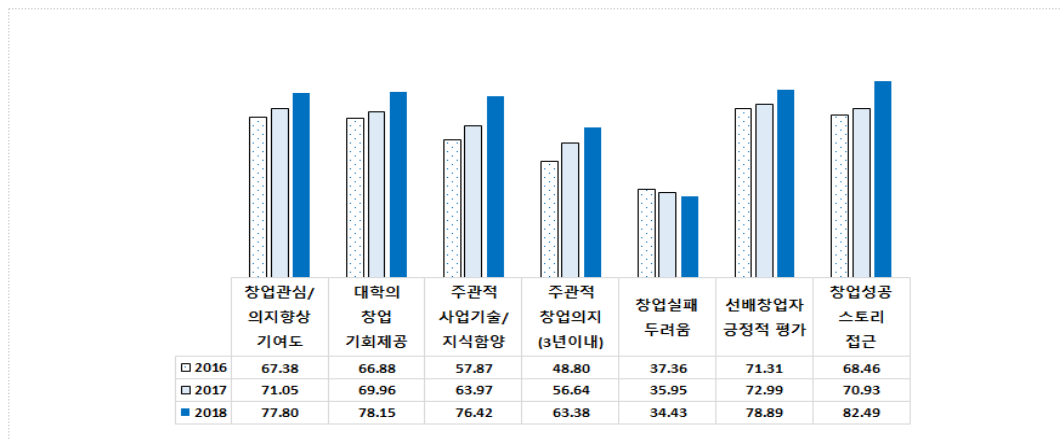


□ 창업인식 차원

- 2017년에 비해 교재/수업내용 차원의 만족도가 전반적이나, 창업실패 두려움은 감소함.
 - 증가율 측면에서는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9.50%p 증가,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11.71%p 증가,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19.46%p 증가, 주관적 창업의지 11.91%p 증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8.08%p 증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16.30%p가 증가함.
 - 창업실패 두려움은 전년대비 4.2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6] 창업인식 차원 만족도 비교 - 연차별

n: 11,884명, 단위: 점



3) 문항별 만족도

□ 문항 및 문항별 내용

○ 문항별 만족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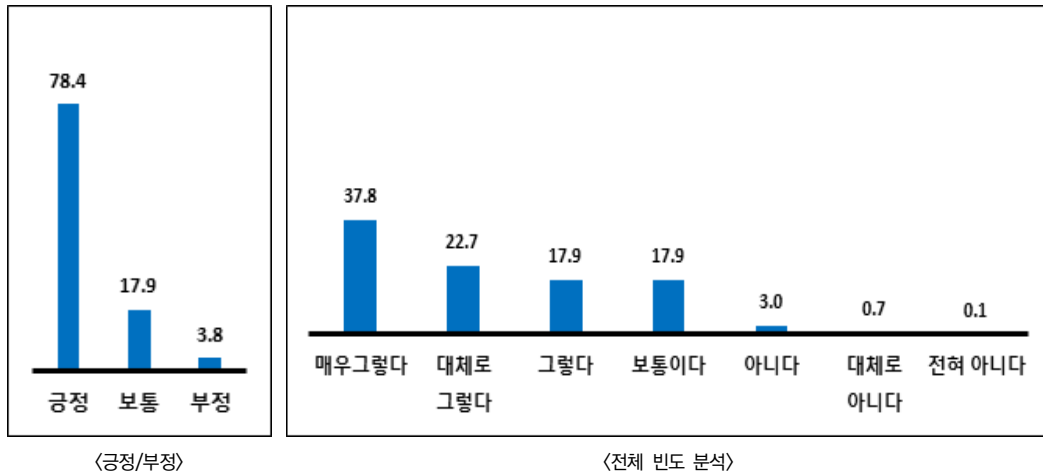
순번	문항명	문항내용	측정결과
1	수업전반	나는 이 수업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78.7
2	수업진행 흥미성	교수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79.9
3	다양한 매체활용 적절성	교수는 수업내용에 따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77.4
4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교수는 내가 학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불어 넣었다	78.3
5	창업 지식/기술 습득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79.4
6	창의적 사고/도전정신 향상	이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이 높아졌다	76.5
7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이 수업은 진로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76.7
8	(타 과목대비) 수업 흥미성	다른 과목에 비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78.1
9	수업 난이도/속도 적절성	이 수업의 난이도와 속도는 적절하였다	79.6
10	교재 유용성	교재는 이 수업에 유용하였다	76.1
11	물리적 환경의 학습기여	강의실 물리적 환경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75.7
12	수업 목적 파악	나는 이 수업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77.4
13	창업 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이 수업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80.3
14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시험 및 평가는 수업의 목표를 잘 반영하였다	80.3
15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이 수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졌다	77.1
16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우리 대학은 나에게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76.3
17	주관적 사업기술/지식 함양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74.7
18	주관적 창업 의지(3년 이내)	나는 3년 이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67.8
19	창업 실패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34.6
20	선배 창업가의 긍정적 평가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78.0
21	공공매체로 창업성공스토리 자발적 접근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80.2

□ 수업전반

- 수업 전반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8.7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7.8%, 대체로 그렇다 22.7%, 그렇다 17.9%로 긍정적 의견이 78.4%로 나타남.
- 아니다 3.0%, 대체로 아니다 0.7%, 전혀 아니다 0.1%로 부정적 의견이 3.8%로 나타남.

[그림 II-17] 수업전반

n: 11,884명, 단위: %



[표 II - 1] 응답자 특성별 수업전반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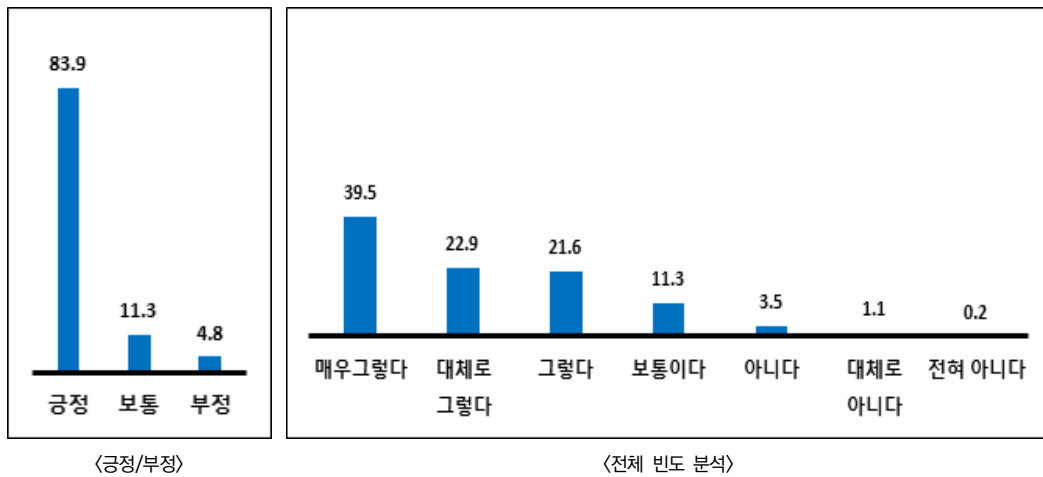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8.7	78.4	17.9	3.8	37.8	22.7	17.9	17.9	3.0	0.7	0.1
권역별	수도권	4,703	75.0	72.7	22.6	4.7	30.4	22.4	19.9	22.6	4.0	0.6	0.1
	충청권	2,093	80.5	83.0	12.9	4.2	38.7	28.3	16.0	12.9	2.6	1.4	0.1
	호남/제주권	1,572	80.4	80.9	16.0	3.1	41.3	22.8	16.8	16.0	2.2	0.7	0.2
	대경/강원권	2,112	83.2	84.7	13.7	1.6	47.6	21.3	15.7	13.7	1.2	0.4	0.0
	동남권	1,404	79.3	78.1	17.9	4.1	42.6	17.0	18.4	17.9	3.8	0.2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80.8	82.8	13.7	3.4	41.3	23.5	18.0	13.7	2.6	0.7	0.1
	전문대	4,677	75.4	71.5	24.2	4.3	32.4	21.3	17.7	24.2	3.6	0.6	0.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81.1	82.6	14.6	2.8	41.7	24.1	16.7	14.6	1.9	0.8	0.1
	비LINC+	7,528	77.3	75.9	19.7	4.3	35.5	21.8	18.5	19.7	3.6	0.6	0.1

□ 수업 진행 흥미성

- 수업 진행 흥미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9.9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9.5%, 대체로 그렇다 22.9%, 그렇다 21.6%로 긍정적 의견이 83.9%로 나타남.
- 아니다 3.5%, 대체로 아니다 1.1%,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4.8%로 나타남.

[그림 II-18] 수업 진행 흥미성

n: 11,884명, 단위: %



[표 II-2] 응답자 특성별 수업 진행 흥미성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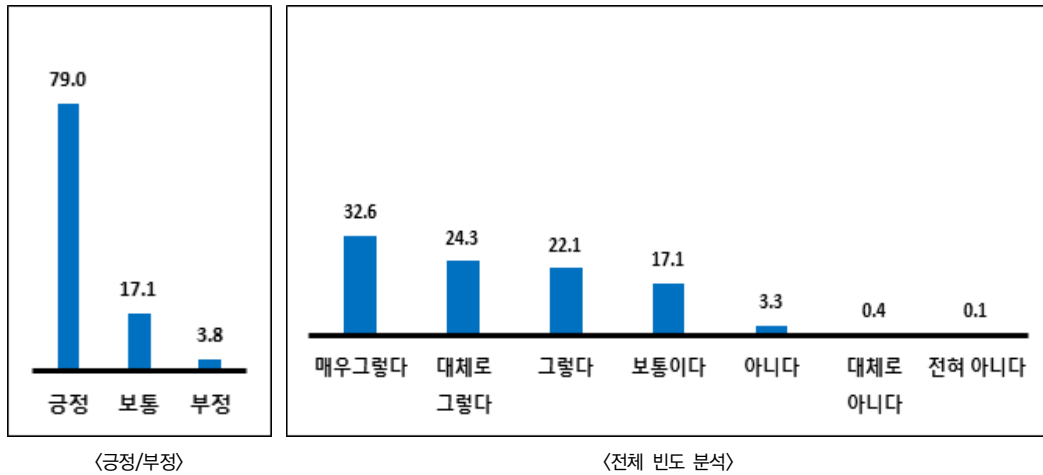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9.9	83.9	11.3	4.8	39.5	22.9	21.6	11.3	3.5	1.1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9.1	84.0	11.3	4.7	37.1	22.8	24.1	11.3	3.4	1.1	0.2
	충청권	2,093	79.0	81.1	12.6	6.4	36.5	27.7	16.9	12.6	5.0	1.3	0.0
	호남/제주권	1,572	78.6	79.1	16.4	4.5	38.2	21.9	19.0	16.4	3.1	1.1	0.3
	대경/강원권	2,112	83.2	88.7	7.6	3.7	47.4	20.8	20.5	7.6	2.7	0.9	0.1
	동남권	1,404	80.5	86.2	9.1	4.7	41.2	20.5	24.5	9.1	3.7	0.9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9.9	83.2	11.7	5.0	39.4	23.8	20.1	11.7	3.8	1.1	0.1
	전문대	4,677	80.0	85.0	10.5	4.4	39.6	21.6	23.9	10.5	3.1	1.1	0.2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9.7	82.0	13.2	4.9	39.1	23.9	19.0	13.2	3.9	0.8	0.1
	비LINC+	7,528	80.1	85.1	10.2	4.8	39.7	22.3	23.1	10.2	3.3	1.3	0.2

□ 다양한 매체활용 적절성

- 다양한 매체활용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7.4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2.6%, 대체로 그렇다 24.3%, 그렇다 22.1%로 긍정적 의견이 79.0%로 나타남.
- 아니다 3.3%, 대체로 아니다 0.4%, 전혀 아니다 0.1%로 부정적 의견이 3.8%로 나타남.

[그림 II-19] 다양한 매체활용 적절성

n: 11,884명, 단위: %



[표 II-3] 응답자 특성별 다양한 매체활용 적절성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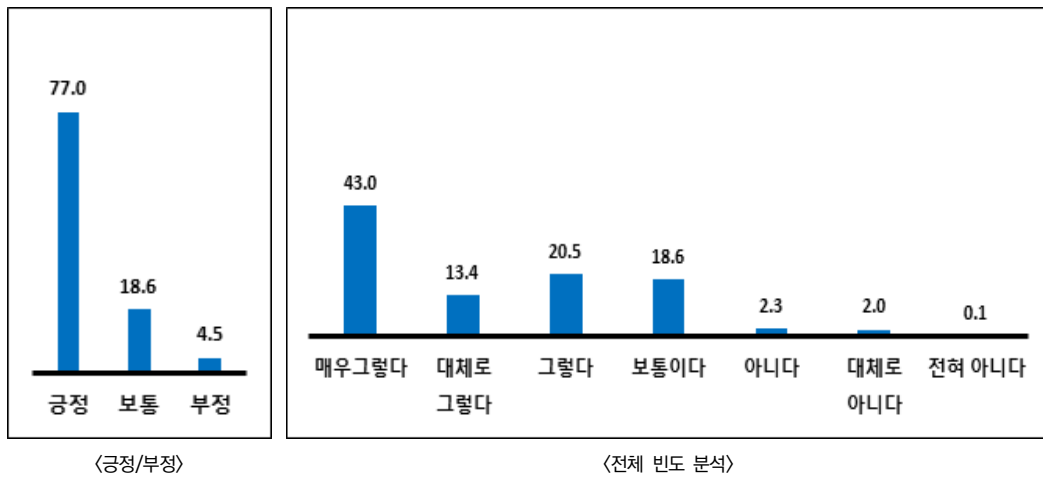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7.4	79.0	17.1	3.8	32.6	24.3	22.1	17.1	3.3	0.4	0.1
권역별	수도권	4,703	75.7	76.6	19.4	4.0	28.8	24.6	23.2	19.4	3.4	0.4	0.1
	충청권	2,093	78.3	79.7	15.5	4.8	34.8	26.3	18.6	15.5	4.0	0.7	0.1
	호남/제주권	1,572	76.1	78.3	17.7	4.0	27.7	27.2	23.3	17.7	3.8	0.1	0.1
	대경/강원권	2,112	80.7	82.5	14.6	2.9	42.1	20.5	19.9	14.6	2.7	0.1	0.1
	동남권	1,404	78.1	81.8	15.2	3.0	33.4	23.3	25.1	15.2	2.5	0.4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9.0	82.0	13.8	4.2	35.8	25.0	21.2	13.8	3.6	0.5	0.1
	전문대	4,677	74.9	74.4	22.3	3.3	27.8	23.3	23.4	22.3	2.9	0.2	0.1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8.9	80.6	15.4	4.0	36.9	23.7	20.0	15.4	3.4	0.4	0.1
	비LINC+	7,528	76.5	78.2	18.1	3.7	30.2	24.7	23.3	18.1	3.2	0.4	0.1

□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8.3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43.0%, 대체로 그렇다 13.4%, 그렇다 20.5%로 긍정적 의견이 77.0%로 나타남.
- 아니다 2.3%, 대체로 아니다 2.0%, 전혀 아니다 0.1%로 부정적 의견이 4.5%로 나타남.

[그림 II- 20]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n: 11,884명, 단위: %



[표 II- 4] 응답자 특성별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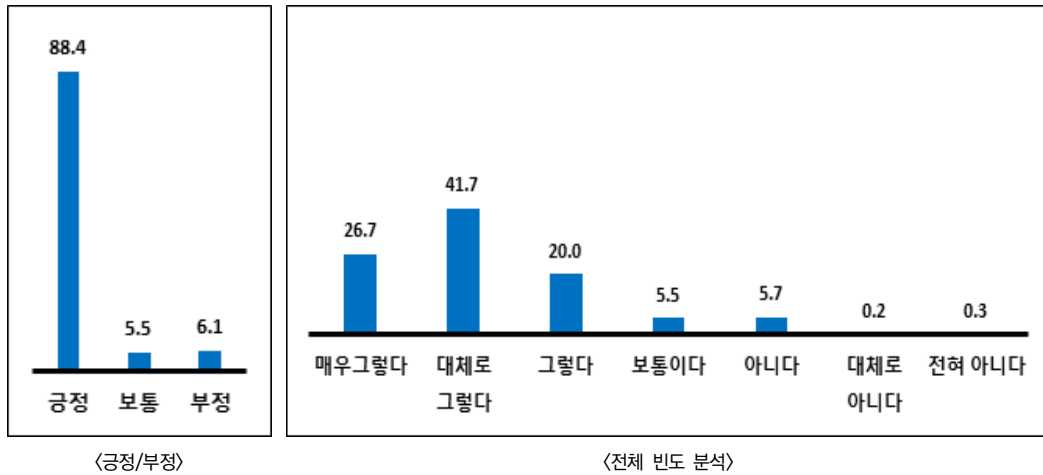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8.3	77.0	18.6	4.5	43.0	13.4	20.5	18.6	2.3	2.0	0.1
권역별	수도권	4,703	76.8	74.9	20.7	4.4	39.6	13.1	22.2	20.7	2.4	1.9	0.1
	충청권	2,093	79.8	79.2	16.1	4.7	44.8	16.4	17.9	16.1	2.8	1.9	0.0
	호남/제주권	1,572	78.0	76.4	19.5	4.1	42.0	13.7	20.7	19.5	2.5	1.5	0.1
	대경/강원권	2,112	81.0	80.1	15.9	4.0	50.7	10.7	18.6	15.9	1.9	1.9	0.2
	동남권	1,404	77.4	76.6	18.2	5.3	41.1	14.0	21.4	18.2	2.0	3.1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9.9	80.0	15.4	4.6	46.4	13.4	20.1	15.4	2.4	2.1	0.1
	전문대	4,677	75.8	72.3	23.5	4.2	37.7	13.4	21.1	23.5	2.2	1.8	0.1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80.0	79.1	16.4	4.5	47.0	13.4	18.7	16.4	2.3	2.0	0.1
	비LINC+	7,528	77.3	75.7	19.8	4.4	40.7	13.5	21.6	19.8	2.4	2.0	0.1

□ 창업 지식/기술 습득

- 창업 지식/기술 습득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9.4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26.7%, 대체로 그렇다 41.7%, 그렇다 20.0%로 긍정적 의견이 88.4%로 나타남.
- 아니다 5.7%, 대체로 아니다 0.2%, 전혀 아니다 0.3%로 부정적 의견이 6.1%로 나타남.

[그림 II-21] 창업 지식/기술 습득

n: 11,884명, 단위: %



[표 II-5] 응답자 특성별 창업 지식/기술 습득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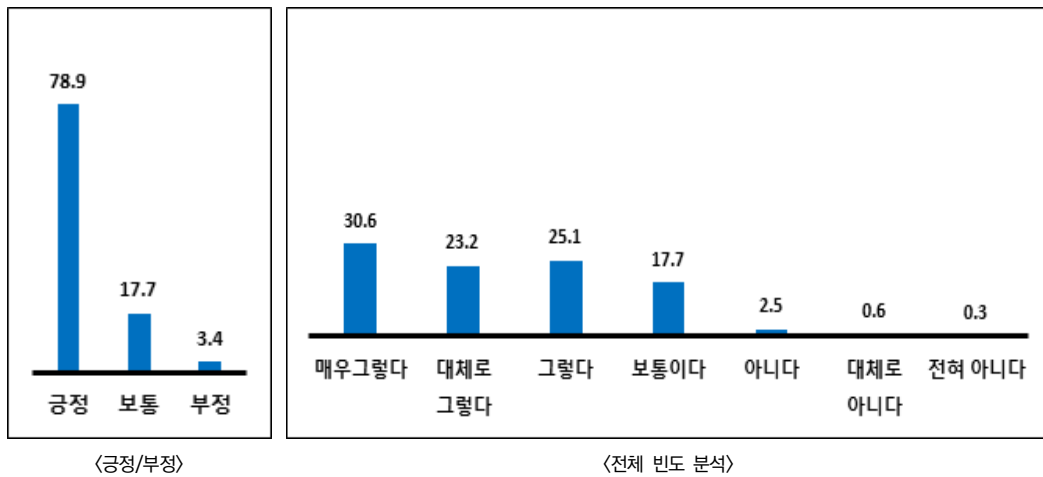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9.4	88.4	5.5	6.1	26.7	41.7	20.0	5.5	5.7	0.2	0.3
권역별	수도권	4,703	78.8	88.3	5.4	6.3	24.2	43.6	20.5	5.4	5.7	0.2	0.4
	충청권	2,093	77.0	82.9	8.4	8.7	24.6	39.8	18.4	8.4	7.9	0.2	0.6
	호남/제주권	1,572	78.9	87.5	6.7	5.8	25.8	40.3	21.4	6.7	5.6	0.1	0.1
	대경/강원권	2,112	82.9	93.1	3.0	3.9	33.3	41.9	17.9	3.0	3.8	0.0	0.0
	동남권	1,404	80.5	91.0	3.6	5.4	29.1	39.5	22.5	3.6	5.3	0.1	0.0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9.5	87.6	5.6	6.8	27.9	41.3	18.4	5.6	6.3	0.2	0.3
	전문대	4,677	79.3	89.7	5.3	5.0	24.7	42.4	22.6	5.3	4.7	0.1	0.1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9.6	86.9	6.6	6.5	28.5	41.0	17.4	6.6	6.2	0.1	0.2
	비LINC+	7,528	79.3	89.3	4.8	5.9	25.6	42.1	21.5	4.8	5.4	0.2	0.3

□ 창의적 사고/도전정신 향상

- 창의적 사고/도전정신 향상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6.5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0.6%, 대체로 그렇다 23.2%, 그렇다 25.1%로 긍정적 의견이 78.9%로 나타남.
- 아니다 2.5%, 대체로 아니다 0.6%, 전혀 아니다 0.3%로 부정적 의견이 3.4%로 나타남.

[그림 II-22] 창의적 사고/도전정신 향상

n: 11,884명, 단위: %



[표 II-6] 응답자 특성별 창의적 사고/도전정신 향상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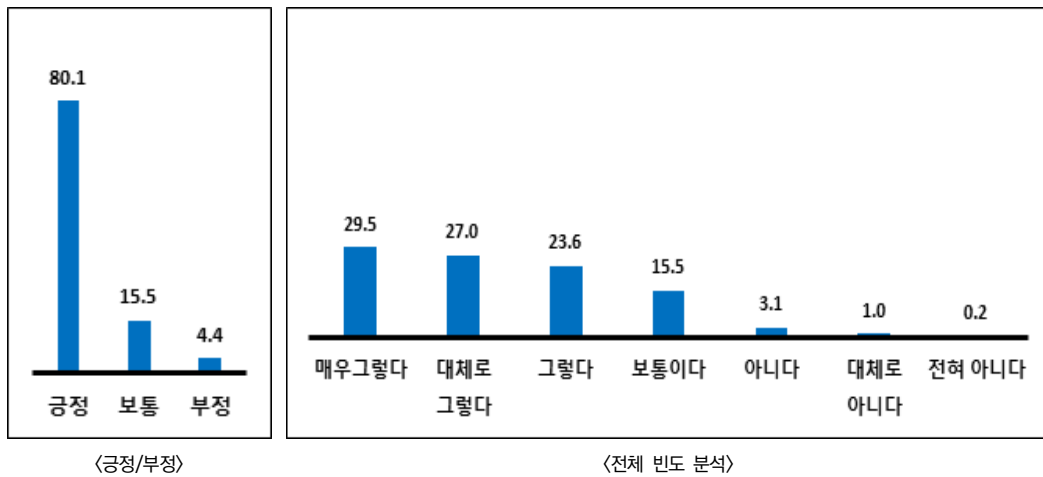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6.5	78.9	17.7	3.4	30.6	23.2	25.1	17.7	2.5	0.6	0.3
권역별	수도권	4,703	75.4	76.8	19.6	3.5	28.3	24.2	24.4	19.6	2.3	0.9	0.3
	충청권	2,093	75.5	77.7	18.2	4.1	30.6	19.5	27.6	18.2	2.8	0.9	0.4
	호남/제주권	1,572	73.5	71.3	24.0	4.7	27.4	20.8	23.1	24.0	3.8	0.6	0.3
	대경/강원권	2,112	79.8	83.5	13.8	2.7	38.5	21.5	23.4	13.8	2.4	0.3	0.0
	동남권	1,404	79.7	89.4	9.1	1.5	29.8	31.0	28.6	9.1	1.2	0.1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6.5	79.0	17.3	3.7	31.7	21.3	26.1	17.3	2.7	0.7	0.3
	전문대	4,677	76.4	78.7	18.3	3.0	28.9	26.2	23.7	18.3	2.1	0.6	0.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76.1	77.0	19.1	3.9	32.1	20.1	24.8	19.1	3.2	0.5	0.2
	비LINC+	7,528	76.7	80.0	16.9	3.1	29.7	25.0	25.3	16.9	2.1	0.7	0.3

□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6.7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29.5%, 대체로 그렇다 27.0%, 그렇다 23.6%로 긍정적 의견이 80.1%로 나타남.
- 아니다 3.1%, 대체로 아니다 1.0%,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4.4%로 나타남.

[그림 II-23]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n: 11,884명, 단위: %



[표 II-7] 응답자 특성별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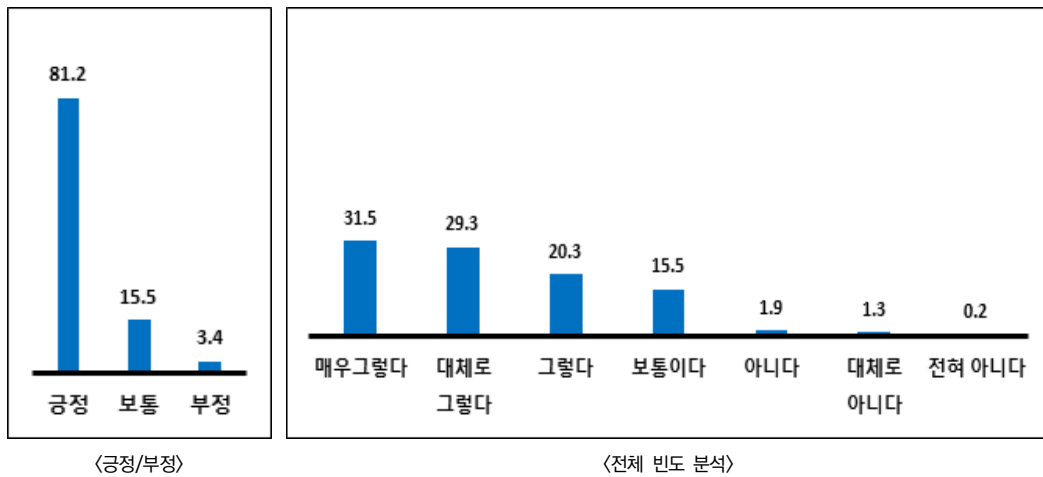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6.7	80.1	15.5	4.4	29.5	27.0	23.6	15.5	3.1	1.0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6.3	80.0	15.9	4.1	27.9	27.5	24.6	15.9	3.0	0.9	0.3
	충청권	2,093	76.2	79.5	15.7	4.8	28.8	27.3	23.4	15.7	3.0	1.5	0.3
	호남/제주권	1,572	75.8	78.1	17.1	4.8	28.1	26.8	23.1	17.1	3.2	1.5	0.1
	대경/강원권	2,112	78.8	82.2	13.6	4.2	34.8	26.2	21.3	13.6	3.2	0.8	0.2
	동남권	1,404	76.7	80.5	14.9	4.6	29.4	26.6	24.4	14.9	3.7	0.8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7.6	81.4	14.0	4.6	31.6	27.3	22.5	14.0	3.2	1.2	0.2
	전문대	4,677	75.3	78.2	17.7	4.1	26.2	26.7	25.3	17.7	3.0	0.8	0.2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6.8	79.5	15.6	4.9	30.4	27.5	21.7	15.6	3.3	1.4	0.2
	비LINC+	7,528	76.6	80.4	15.4	4.1	29.0	26.8	24.7	15.4	3.0	0.9	0.2

□ (타 과목대비) 수업 흥미성

- (타 과목대비) 수업 흥미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8.1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1.5%, 대체로 그렇다 29.3%, 그렇다 20.3%로 긍정적 의견이 81.2%로 나타남.
- 아니다 1.9%, 대체로 아니다 1.3%,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3.4%로 나타남.

[그림 II-24] (타 과목대비) 수업 흥미성

n: 11,884명, 단위: %



[표 II-8] 응답자 특성별 (타 과목대비) 수업 흥미성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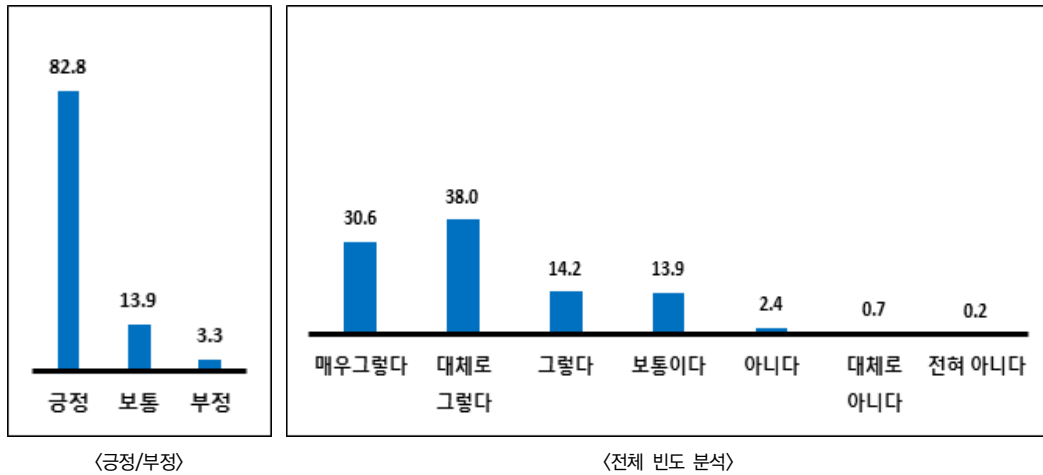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8.1	81.2	15.5	3.4	31.5	29.3	20.3	15.5	1.9	1.3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7.3	79.9	16.9	3.2	29.5	29.6	20.8	16.9	2.0	1.1	0.2
	충청권	2,093	78.5	82.7	12.9	4.3	31.1	33.0	18.7	12.9	2.0	2.2	0.1
	호남/제주권	1,572	76.8	79.1	16.9	3.9	28.9	29.2	21.1	16.9	2.6	1.1	0.3
	대경/강원권	2,112	80.6	84.0	12.9	3.1	38.8	26.8	18.4	12.9	1.7	1.0	0.4
	동남권	1,404	77.6	81.1	16.7	2.2	30.6	27.1	23.4	16.7	0.9	1.1	0.2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9.2	83.7	12.7	3.6	33.5	30.1	20.1	12.7	1.8	1.5	0.3
	전문대	4,677	76.3	77.3	19.8	3.0	28.4	28.1	20.7	19.8	1.9	0.9	0.2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78.7	82.6	13.5	3.9	33.2	29.7	19.7	13.5	2.0	1.6	0.3
	비LINC+	7,528	77.7	80.3	16.6	3.1	30.5	29.1	20.7	16.6	1.8	1.1	0.2

□ 수업 난이도/속도 적절성

- 수업 난이도/속도 적절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9.6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0.6%, 대체로 그렇다 38.0%, 그렇다 14.2%로 긍정적 의견이 82.8%로 나타남.
- 아니다 2.4%, 대체로 아니다 0.7%,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3.3%로 나타남.

[그림 II-25] 수업 난이도/속도 적절성

n: 11,884명, 단위: %



[표 II-9] 응답자 특성별 수업 난이도/속도 적절성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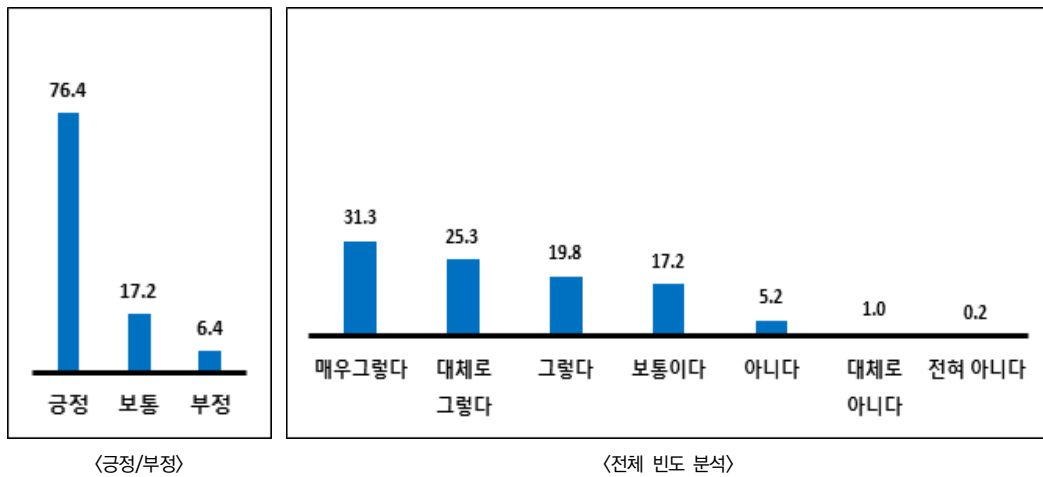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9.6	82.8	13.9	3.3	30.6	38.0	14.2	13.9	2.4	0.7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9.6	85.0	11.8	3.3	30.4	36.3	18.2	11.8	2.4	0.6	0.3
	충청권	2,093	81.6	85.2	11.3	3.5	35.5	38.6	11.0	11.3	2.2	1.1	0.2
	호남/제주권	1,572	79.9	81.2	16.1	2.7	32.9	35.9	12.4	16.1	2.0	0.6	0.1
	대경/강원권	2,112	80.1	82.7	14.4	2.9	29.7	43.0	9.9	14.4	1.9	0.7	0.3
	동남권	1,404	75.2	74.1	21.5	4.4	22.6	37.3	14.2	21.5	3.7	0.7	0.0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80.6	83.6	13.5	2.9	32.7	38.7	12.2	13.5	2.0	0.7	0.2
	전문대	4,677	78.0	81.7	14.4	3.9	27.4	36.9	17.3	14.4	2.9	0.8	0.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80.6	82.5	14.7	2.8	33.8	37.1	11.6	14.7	2.0	0.6	0.2
	비LINC+	7,528	79.0	83.0	13.4	3.6	28.8	38.5	15.8	13.4	2.6	0.8	0.2

□ 교재 유용성

- 교재 유용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6.1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1.3%, 대체로 그렇다 25.3%, 그렇다 19.8%로 긍정적 의견이 76.4%로 나타남.
- 아니다 5.2%, 대체로 아니다 1.0%,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6.4%로 나타남.

[그림 II-26] 교재 유용성

n: 11,884명, 단위: %



[표 II-10] 응답자 특성별 교재 유용성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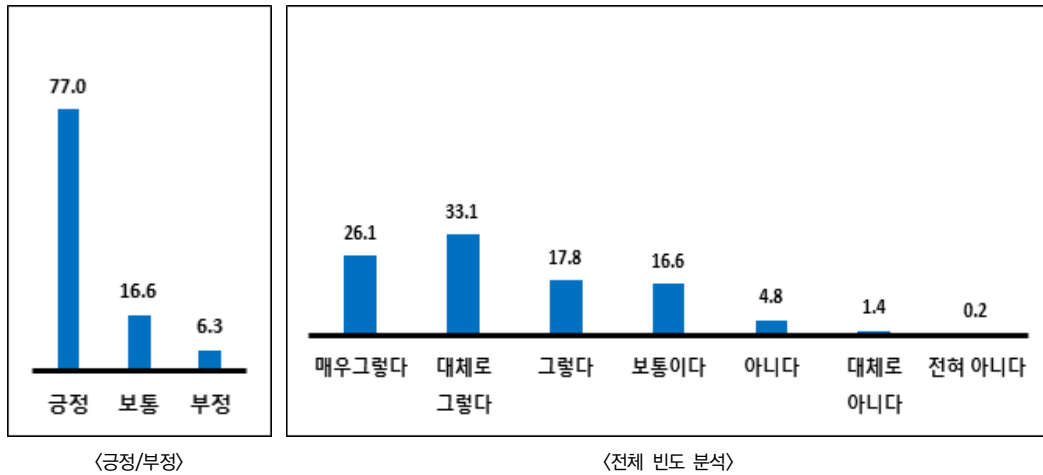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6.1	76.4	17.2	6.4	31.3	25.3	19.8	17.2	5.2	1.0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4.6	74.1	19.5	6.5	28.2	24.9	20.9	19.5	5.2	1.1	0.1
	충청권	2,093	77.3	78.5	17.2	4.3	31.8	26.7	20.0	17.2	3.8	0.4	0.1
	호남/제주권	1,572	75.7	76.1	19.0	4.8	28.8	26.1	21.2	19.0	4.3	0.5	0.1
	대경/강원권	2,112	79.4	80.7	13.5	5.7	38.9	25.1	16.7	13.5	4.6	0.8	0.3
	동남권	1,404	75.0	75.4	12.9	11.8	32.6	24.1	18.7	12.9	8.9	2.6	0.3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7.7	79.3	15.7	4.9	33.3	26.3	19.8	15.7	4.0	0.7	0.2
	전문대	4,677	73.7	72.0	19.4	8.6	28.4	23.8	19.8	19.4	7.0	1.5	0.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77.7	78.4	16.8	4.9	34.2	25.3	18.9	16.8	4.0	0.6	0.2
	비LINC+	7,528	75.2	75.3	17.4	7.2	29.7	25.4	20.3	17.4	5.8	1.3	0.1

□ 물리적 환경의 학습기여

- 물리적 환경의 학습기여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5.7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26.1%, 대체로 그렇다 33.1%, 그렇다 17.8%로 긍정적 의견이 77.0%로 나타남.
 - 아니다 4.8%, 대체로 아니다 1.4%,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6.3%로 나타남.

[그림 II-27] 물리적 환경의 학습기여

n: 11,884명, 단위: %



[표 II-11] 응답자 특성별 물리적 환경의 학습기여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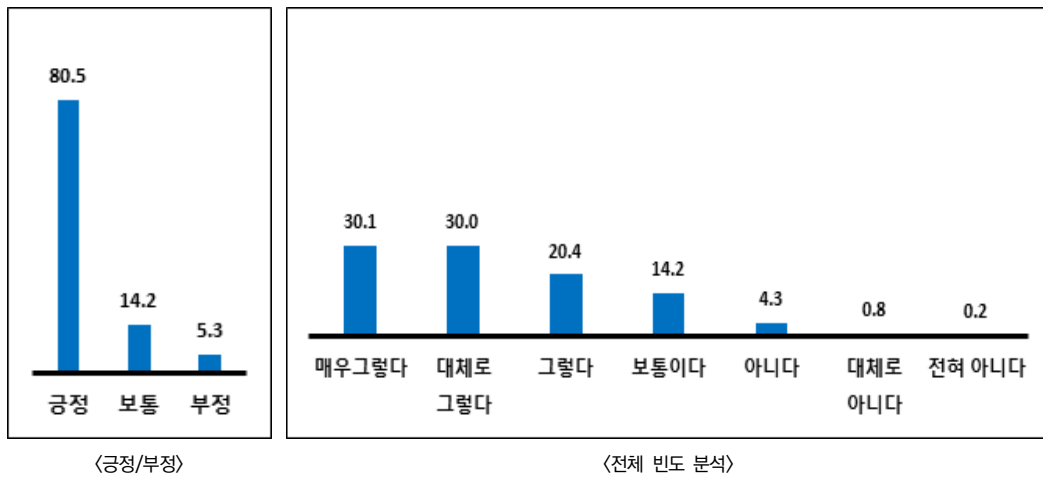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5.7	77.0	16.6	6.3	26.1	33.1	17.8	16.6	4.8	1.4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4.1	74.9	18.1	7.1	22.5	33.9	18.5	18.1	5.5	1.3	0.3
	충청권	2,093	77.6	81.6	13.1	5.3	28.4	34.5	18.7	13.1	3.6	1.6	0.0
	호남/제주권	1,572	75.0	75.0	19.1	5.9	25.1	31.7	18.1	19.1	4.6	1.1	0.1
	대경/강원권	2,112	77.9	78.7	14.5	6.8	33.8	29.5	15.4	14.5	5.1	1.6	0.0
	동남권	1,404	75.8	77.4	17.3	5.3	24.6	35.3	17.5	17.3	3.7	1.1	0.4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6.8	79.5	14.0	6.5	27.7	34.3	17.4	14.0	4.8	1.6	0.1
	전문대	4,677	74.0	73.3	20.6	6.1	23.7	31.2	18.5	20.6	4.7	1.0	0.3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7.1	78.8	15.0	6.2	29.8	32.1	16.9	15.0	4.5	1.6	0.0
	비LINC+	7,528	74.9	76.0	17.6	6.4	24.0	33.7	18.3	17.6	4.9	1.2	0.3

□ 수업 목적 파악

- 수업목적 파악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7.4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0.1%, 대체로 그렇다 30.0%, 그렇다 20.4%로 긍정적 의견이 80.5%로 나타남.
 - 아니다 4.3%, 대체로 아니다 0.8%,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5.3%로 나타남.

[그림 II-28] 수업 목적 파악

n: 11,884명, 단위: %



[표 II-12] 응답자 특성별 수업 목적 파악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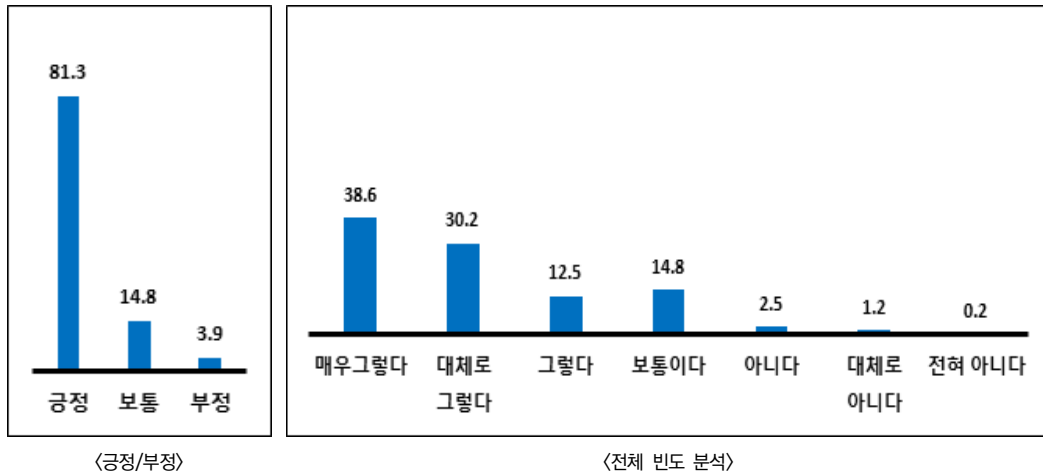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7.4	80.5	14.2	5.3	30.1	30.0	20.4	14.2	4.3	0.8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4.6	75.8	17.7	6.5	24.7	30.5	20.6	17.7	5.3	0.9	0.3
	충청권	2,093	79.0	81.6	14.8	3.7	34.8	27.3	19.4	14.8	3.1	0.6	0.0
	호남/제주권	1,572	79.0	84.5	11.6	3.8	31.9	30.3	22.3	11.6	3.2	0.6	0.1
	대경/강원권	2,112	79.7	84.6	10.7	4.8	35.8	28.3	20.5	10.7	3.7	0.9	0.2
	동남권	1,404	79.0	84.5	9.6	5.9	30.5	35.0	18.9	9.6	5.1	0.8	0.0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8.4	82.8	12.7	4.6	31.3	30.5	21.0	12.7	3.8	0.7	0.1
	전문대	4,677	75.8	77.1	16.5	6.4	28.2	29.4	19.5	16.5	5.2	1.0	0.3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8.0	81.3	13.0	5.7	32.6	28.1	20.6	13.0	4.6	0.9	0.1
	비LINC+	7,528	77.0	80.1	14.8	5.1	28.6	31.2	20.3	14.8	4.1	0.7	0.2

□ 창업 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 창업 관련 정보제공 다양성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80.3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8.6%, 대체로 그렇다 30.2%, 그렇다 12.5%로 긍정적 의견이 81.3%로 나타남.
- 아니다 2.5%, 대체로 아니다 1.2%,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3.9%로 나타남.

[그림 II-29] 창업 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n: 11,884명, 단위: %



[표 II-13] 응답자 특성별 창업 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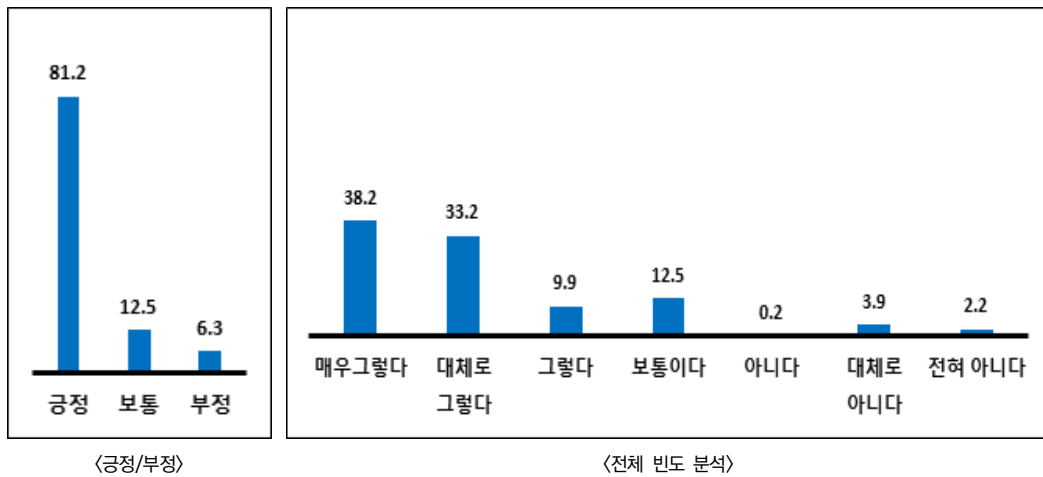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80.3	81.3	14.8	3.9	38.6	30.2	12.5	14.8	2.5	1.2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9.2	79.7	15.6	4.7	37.3	30.2	12.2	15.6	2.8	1.6	0.3
	충청권	2,093	81.1	82.0	14.3	3.7	36.5	33.4	12.1	14.3	2.3	1.1	0.2
	호남/제주권	1,572	80.4	78.0	17.9	4.1	35.8	29.3	12.8	17.9	3.2	0.8	0.1
	대경/강원권	2,112	81.4	83.5	14.3	2.2	44.9	27.5	11.1	14.3	1.1	1.1	0.0
	동남권	1,404	81.0	86.0	10.0	4.0	39.6	30.8	15.7	10.0	3.3	0.6	0.0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80.8	81.2	14.6	4.3	38.4	29.4	13.4	14.6	2.7	1.4	0.2
	전문대	4,677	79.5	81.5	15.1	3.3	38.9	31.5	11.1	15.1	2.2	1.0	0.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81.0	80.2	15.9	3.9	38.7	28.9	12.6	15.9	2.5	1.2	0.2
	비LINC+	7,528	79.9	81.9	14.2	3.9	38.5	31.0	12.4	14.2	2.5	1.2	0.2

□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80.9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8.2%, 대체로 그렇다 33.2%, 그렇다 9.9%로 긍정적 의견이 81.2%로 나타남.
- 아니다 0.2%, 대체로 아니다 3.9%, 전혀 아니다 2.2%로 부정적 의견이 6.3%로 나타남.

[그림 II-30]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n: 11,884명, 단위: %



[표 II-14] 응답자 특성별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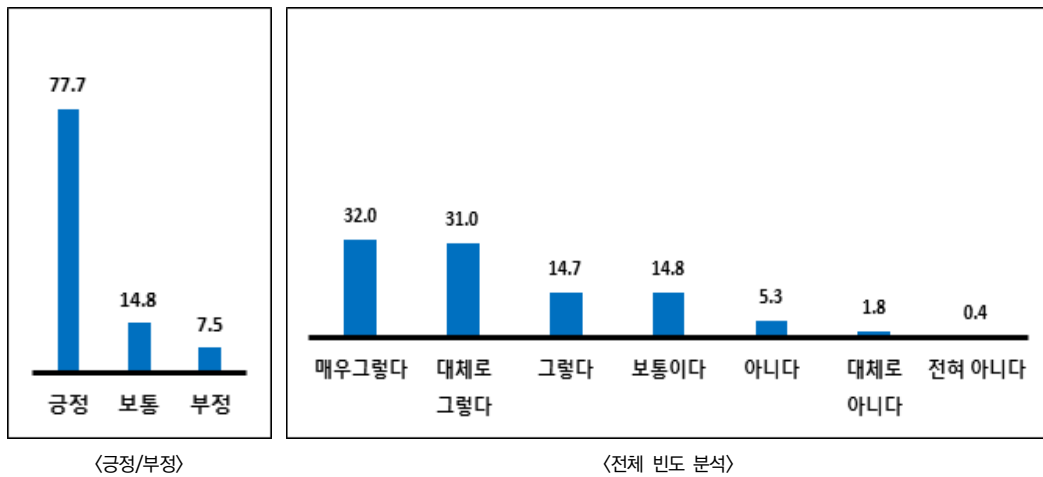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80.3	81.2	12.5	6.3	38.2	33.2	9.9	12.5	0.2	3.9	2.2
권역별	수도권	4,703	79.2	79.8	13.5	6.7	35.3	33.7	10.8	13.5	0.1	4.6	2.0
	충청권	2,093	81.1	80.0	13.7	6.3	41.3	33.0	5.7	13.7	0.1	3.6	2.6
	호남/제주권	1,572	80.4	84.0	11.8	4.3	33.5	37.3	13.1	11.8	0.2	2.7	1.4
	대경/강원권	2,112	81.4	82.4	10.6	7.0	43.6	29.7	9.1	10.6	0.4	3.7	2.9
	동남권	1,404	81.0	82.8	11.0	6.2	40.3	32.0	10.5	11.0	0.4	3.6	2.3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80.8	82.1	10.8	7.1	39.4	34.3	8.5	10.8	4.4	2.4	0.3
	전문대	4,677	79.5	79.9	15.1	5.1	36.3	31.5	12.1	15.1	3.1	1.8	0.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81.0	82.1	11.4	6.5	39.9	33.6	8.6	11.4	3.8	2.4	0.3
	비LINC+	7,528	79.9	80.7	13.1	6.2	37.2	32.9	10.6	13.1	3.9	2.1	0.2

□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7.1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2.0%, 대체로 그렇다 31.0%, 그렇다 14.7%로 긍정적 의견이 77.7%로 나타남.
- 아니다 5.3%, 대체로 아니다 1.8%, 전혀 아니다 0.4%로 부정적 의견이 7.5%로 나타남.

[그림 II-31]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n: 11,884명, 단위: %



[표 II-15] 응답자 특성별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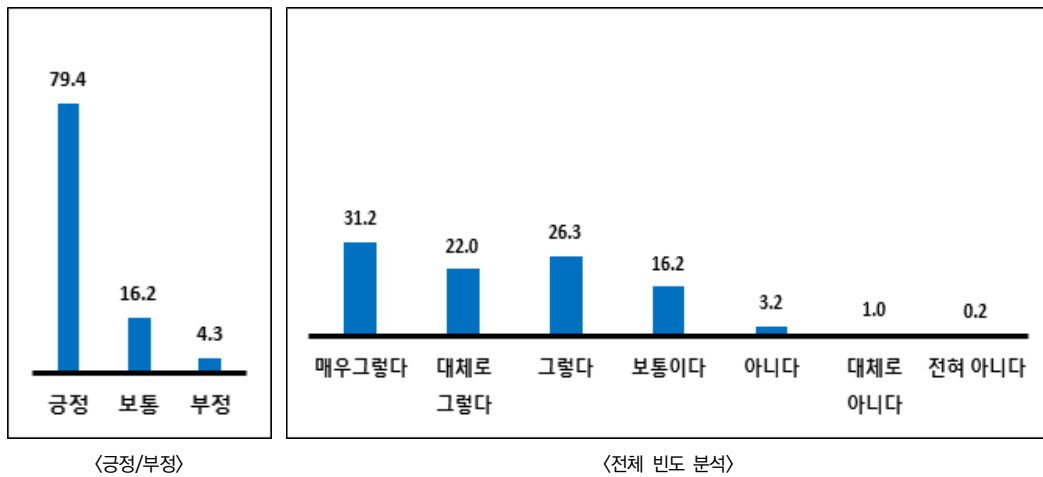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7.1	77.7	14.8	7.5	32.0	31.0	14.7	14.8	5.3	1.8	0.4
권역별	수도권	4,703	76.4	76.2	16.3	7.5	30.0	31.6	14.7	16.3	5.7	1.4	0.4
	충청권	2,093	78.2	78.5	13.3	8.2	37.2	27.8	13.5	13.3	5.6	2.2	0.4
	호남/제주권	1,572	74.9	74.6	17.6	7.9	26.1	32.6	15.8	17.6	5.7	2.1	0.1
	대경/강원권	2,112	79.8	83.7	10.2	6.2	34.9	34.0	14.8	10.2	4.2	1.7	0.3
	동남권	1,404	76.1	75.7	16.2	8.1	33.0	27.3	15.5	16.2	4.9	2.5	0.7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8.2	80.1	12.9	7.0	34.0	31.0	15.1	12.9	4.7	2.0	0.3
	전문대	4,677	75.3	74.0	17.9	8.2	28.8	30.9	14.2	17.9	6.2	1.5	0.4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77.8	79.3	13.2	7.5	33.7	30.6	15.0	13.2	5.0	2.1	0.4
	비LINC+	7,528	76.7	76.7	15.8	7.5	31.0	31.2	14.5	15.8	5.5	1.6	0.4

□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9.4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1.2%, 대체로 그렇다 22.0%, 그렇다 26.3%로 긍정적 의견이 79.4%로 나타남.
- 아니다 3.2%, 대체로 아니다 1.0%,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4.3%로 나타남.

[그림 II-32]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n: 11,884명, 단위: %



[표 II-16] 응답자 특성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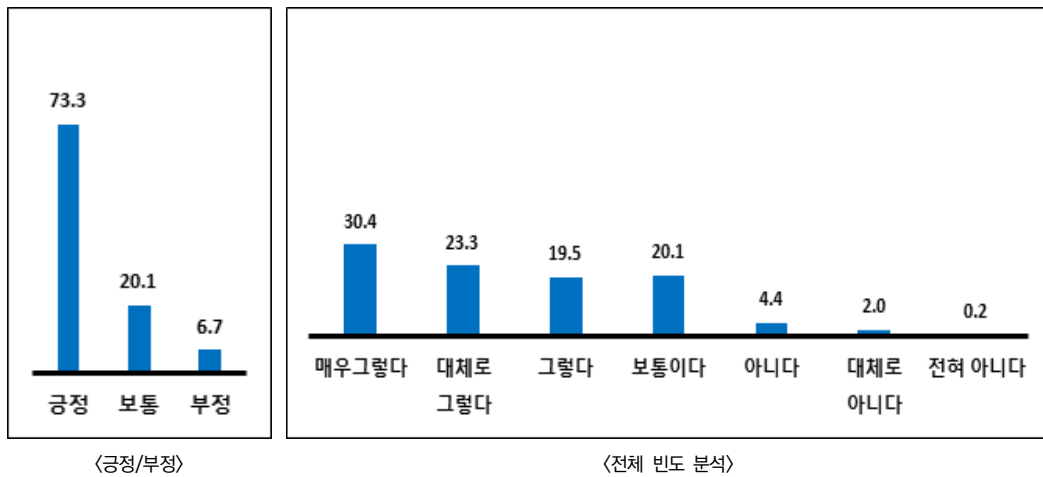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6.3	79.4	16.2	4.3	31.2	22.0	26.3	16.2	3.2	1.0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4.9	76.9	18.3	4.7	28.7	21.3	26.9	18.3	3.4	1.1	0.2
	충청권	2,093	78.1	83.8	12.1	4.1	33.6	23.2	27.0	12.1	2.9	0.9	0.3
	호남/제주권	1,572	76.4	80.2	15.1	4.7	29.3	25.9	25.0	15.1	3.2	1.3	0.2
	대경/강원권	2,112	78.2	80.8	16.1	3.1	36.4	18.9	25.5	16.1	2.6	0.4	0.1
	동남권	1,404	75.8	78.1	17.0	4.9	30.0	22.6	25.6	17.0	3.8	1.1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8.0	82.8	13.4	3.8	33.8	22.3	26.7	13.4	2.8	0.8	0.2
	전문대	4,677	73.8	74.2	20.6	5.2	27.0	21.5	25.6	20.6	3.8	1.2	0.2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7,528	78.2	82.5	14.0	3.5	34.1	22.8	25.6	14.0	2.6	0.7	0.2
	비LINC+	4,356	75.3	77.6	17.5	4.8	29.5	21.5	26.7	17.5	3.5	1.1	0.2

□ 주관적 사업기술/지식 함양

- 주관적 사업기술/지식 함양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4.7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0.4%, 대체로 그렇다 23.3%, 그렇다 19.5%로 긍정적 의견이 73.3%로 나타남.
 - 아니다 4.4%, 대체로 아니다 2.0%,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6.7%로 나타남.

[그림 II-33] 주관적 사업기술/지식 함양

n: 11,884명, 단위: %



[표 II-17] 응답자 특성별 주관적 사업기술/지식 함양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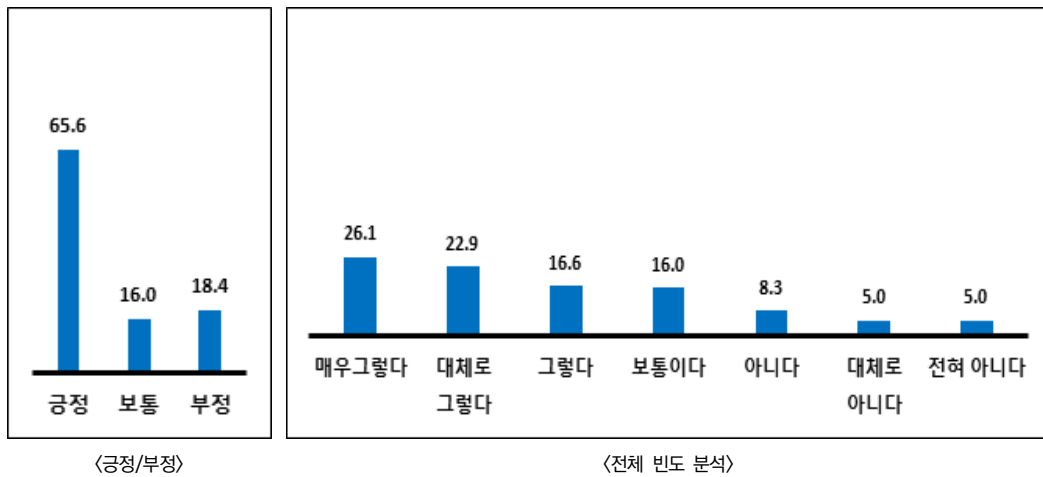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4.7	73.3	20.1	6.7	30.4	23.3	19.5	20.1	4.4	2.0	0.2
권역별	수도권	4,703	73.7	70.7	22.8	6.6	29.7	21.2	19.8	22.8	4.6	1.6	0.3
	충청권	2,093	75.3	72.5	20.2	7.4	33.6	22.6	16.3	20.2	4.4	2.8	0.1
	호남/제주권	1,572	73.3	69.8	21.7	8.5	30.1	21.4	18.4	21.7	5.5	2.9	0.1
	대경/강원권	2,112	78.8	84.0	11.5	4.5	31.3	32.5	20.2	11.5	3.1	1.3	0.1
	동남권	1,404	72.4	70.9	21.9	7.3	27.3	19.8	23.8	21.9	4.3	2.4	0.5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5.9	75.8	17.6	6.6	31.6	25.3	18.9	17.6	4.2	2.2	0.2
	전문대	4,677	72.9	69.3	23.9	6.8	28.6	20.2	20.5	23.9	4.7	1.7	0.3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6.4	76.1	17.3	6.6	32.4	26.7	17.0	17.3	4.2	2.3	0.1
	비LINC+	7,528	73.7	71.6	21.7	6.7	29.3	21.3	21.0	21.7	4.5	1.9	0.3

□ 주관적 창업 의지(3년 이내)

- 주관적 창업 의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4.7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26.1%, 대체로 그렇다 22.9%, 그렇다 16.6%로 긍정적 의견이 65.6%로 나타남.
- 아니다 8.3%, 대체로 아니다 5.0%, 전혀 아니다 5.0%로 부정적 의견이 18.4%로 나타남.

[그림 II-34] 주관적 창업 의지(3년 이내)

n: 11,884명, 단위: %



[표 II-18] 응답자 특성별 주관적 창업 의지(3년 이내)

단위: 명, 점, %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67.8	65.6	16.0	18.4	26.1	22.9	16.6	16.0	8.3	5.0	5.0
권역별	수도권	4,703	69.8	68.6	15.9	15.5	27.6	23.2	17.7	15.9	7.1	4.0	4.4
	충청권	2,093	61.9	56.4	18.1	25.5	21.4	18.9	16.1	18.1	11.1	7.5	6.9
	호남/제주권	1,572	65.3	62.7	16.1	21.2	21.1	24.2	17.4	16.1	10.4	5.5	5.3
	대경/강원권	2,112	68.2	65.3	15.7	18.9	28.2	22.3	14.9	15.7	8.5	5.2	5.3
	동남권	1,404	72.6	72.9	13.3	13.7	30.2	27.6	15.1	13.3	6.0	3.9	3.8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64.1	59.9	17.3	22.8	23.1	20.6	16.2	17.3	10.1	6.4	6.3
	전문대	4,677	73.6	74.3	14.0	11.7	30.7	26.5	17.1	14.0	5.6	3.0	3.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63.4	58.4	18.0	23.6	22.3	20.3	15.7	18.0	10.7	6.5	6.4
	비LINC+	7,528	70.4	69.8	14.8	15.4	28.3	24.4	17.1	14.8	7.0	4.2	4.3

□ 창업 실패 두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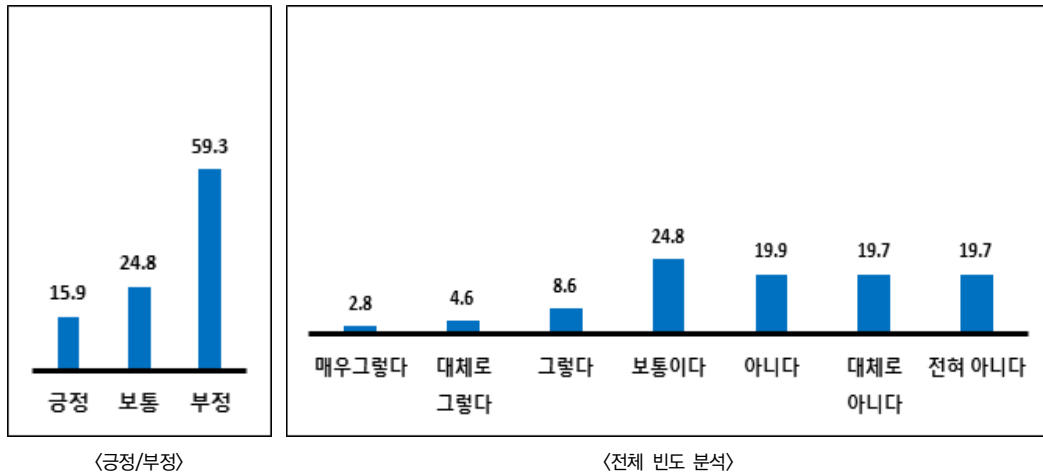
○ 창업 실패 두려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34.6점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적 의견이 긍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2.8%, 대체로 그렇다 4.6%, 그렇다 8.6%로 긍정적 의견이 15.9%로 나타남.

- 아니다 19.9%, 대체로 아니다 19.7%, 전혀 아니다 19.7%로 부정적 의견이 59.3%로 나타남.

[그림 II-35] 창업 실패 두려움

n: 11,884명, 단위: %



[표 II-19] 응답자 특성별 창업 실패 두려움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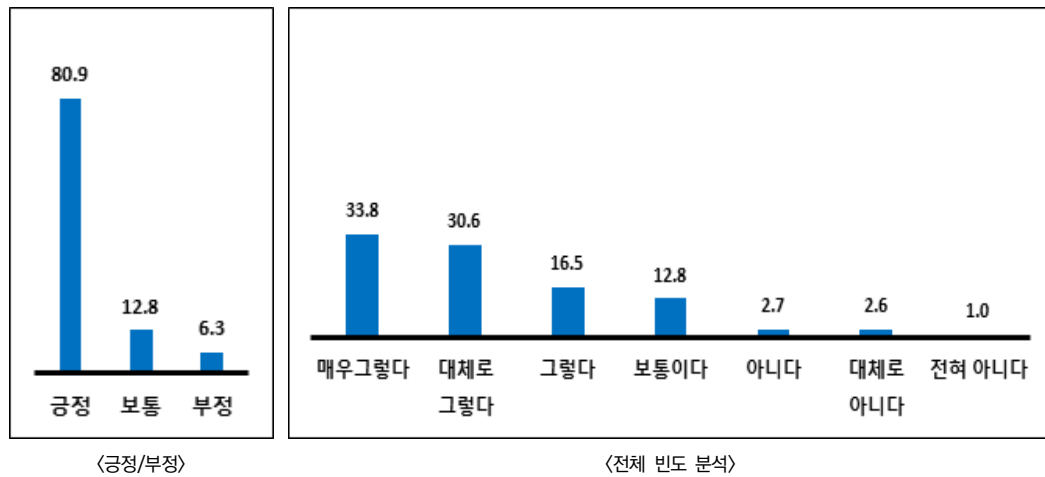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34.6	15.9	24.8	59.3	2.8	4.6	8.6	24.8	19.9	19.7	19.7
권역별	수도권	4,703	34.7	15.6	25.6	58.8	2.9	4.4	8.3	25.6	19.5	19.9	19.4
	충청권	2,093	33.7	15.2	24.0	60.7	1.9	4.5	8.8	24.0	20.8	19.3	20.6
	호남/제주권	1,572	36.2	17.0	24.9	58.1	4.0	4.3	8.7	24.9	19.1	23.9	15.1
	대경/강원권	2,112	33.5	15.8	24.5	59.7	2.7	4.3	8.8	24.5	18.6	17.1	24.0
	동남권	1,404	35.5	16.7	23.9	59.4	2.3	5.8	8.7	23.9	22.7	18.8	17.9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34.2	16.3	23.1	60.5	3.0	4.7	8.6	23.1	20.0	19.9	20.5
	전문대	4,677	35.2	15.2	27.5	57.3	2.4	4.3	8.5	27.5	19.6	19.3	18.4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34.4	16.3	24.2	59.6	2.9	4.7	8.6	24.2	19.2	20.0	20.3
	비LINC+	7,528	34.7	15.7	25.2	59.1	2.7	4.5	8.5	25.2	20.3	19.5	19.3

□ 선배 창업가의 긍정적 평가

- 선배 창업가의 긍정적 평가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78.0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3.8%, 대체로 그렇다 30.6%, 그렇다 16.5%로 긍정적 의견이 80.9%로 나타남.
- 아니다 2.7%, 대체로 아니다 2.6%, 전혀 아니다 1.0%로 부정적 의견이 6.3%로 나타남.

[그림 II-36] 선배 창업가의 긍정적 평가

n: 11,884명, 단위: %



[표 II-20] 응답자 특성별 선배 창업가의 긍정적 평가

단위: 명,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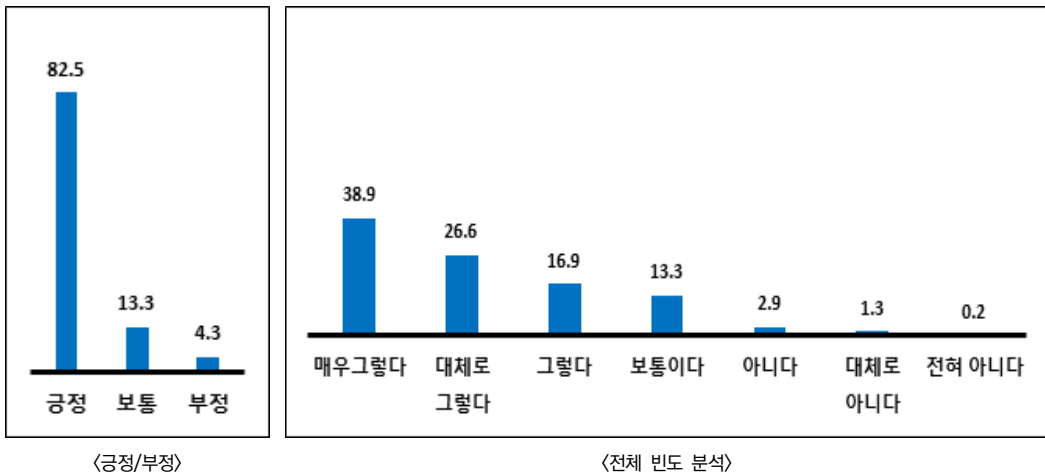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78.0	80.9	12.8	6.3	33.8	30.6	16.5	12.8	2.7	2.6	1.0
권역별	수도권	4,703	77.8	80.5	13.0	6.5	33.9	29.9	16.7	13.0	2.9	2.5	1.1
	충청권	2,093	80.0	84.6	10.8	4.6	34.7	34.0	16.0	10.8	1.7	2.5	0.4
	호남/제주권	1,572	75.5	78.4	15.2	6.4	26.8	31.0	20.7	15.2	3.2	2.5	0.6
	대경/강원권	2,112	79.7	82.2	12.0	5.8	39.1	28.7	14.4	12.0	2.1	2.5	1.2
	동남권	1,404	76.2	77.4	13.6	9.0	32.5	30.2	14.7	13.6	3.9	3.6	1.4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9.5	83.4	10.6	6.0	37.0	30.6	15.8	10.6	2.3	2.6	1.1
	전문대	4,677	75.7	77.0	16.1	6.8	28.9	30.6	17.5	16.1	3.4	2.7	0.7
대학재정 자원사업별	LINC+	4,356	78.9	82.3	12.2	5.4	34.7	30.9	16.7	12.2	2.3	2.5	0.7
	비LINC+	7,528	77.6	80.1	13.1	6.8	33.3	30.4	16.3	13.1	3.0	2.7	1.1

□ 공공매체로 창업성공스토리 자발적 접근

- 공공매체로 창업 성공스토리 자발적 접근에 대한 만족도 평균은 82.5점으로 나타났으며, 긍정적 의견이 부정적 의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매우 그렇다 38.9%, 대체로 그렇다 26.6%, 그렇다 16.9%로 긍정적 의견이 82.5%로 나타남.
- 아니다 2.9%, 대체로 아니다 1.3%, 전혀 아니다 0.2%로 부정적 의견이 4.3%로 나타남.

[그림 II-37] 공공매체로 창업성공스토리 자발적 접근

n: 11,884명, 단위: %



[표 II-21] 응답자 특성별 공공매체로 창업성공스토리 자발적 접근

단위: 명, 점, %

구분	내용	사례 수	평균	긍정/부정			매우 그렇다	대체로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대체로 아니다	전혀 아니다
				긍정	보통	부정							
전체		11,884	80.2	82.5	13.3	4.3	38.9	26.6	16.9	13.3	2.9	1.3	0.2
지역별	수도권	4,703	78.3	79.2	15.9	4.9	35.8	25.9	17.6	15.9	3.1	1.5	0.3
	충청권	2,093	85.0	90.9	6.8	2.2	46.1	30.1	14.7	6.8	1.3	1.0	0.0
	호남/제주권	1,572	78.4	80.5	15.3	4.2	34.4	26.5	19.7	15.3	3.3	0.8	0.1
	대경/강원권	2,112	81.8	84.2	11.7	4.1	44.0	23.8	16.3	11.7	3.0	1.1	0.0
	동남권	1,404	78.8	80.3	14.2	5.6	35.8	28.6	15.9	14.2	3.8	1.6	0.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82.4	86.4	10.1	3.5	42.8	26.7	16.9	10.1	2.5	1.0	0.0
	전문대	4,677	76.8	76.3	18.1	5.5	32.9	26.6	16.9	18.1	3.5	1.6	0.4
대학재정 지원 사업별	LINC+	4,356	82.5	86.7	9.7	3.6	42.8	27.3	16.6	9.7	2.5	1.1	0.0
	비LINC+	7,528	78.8	80.0	15.3	4.7	36.6	26.2	17.1	15.3	3.1	1.4	0.2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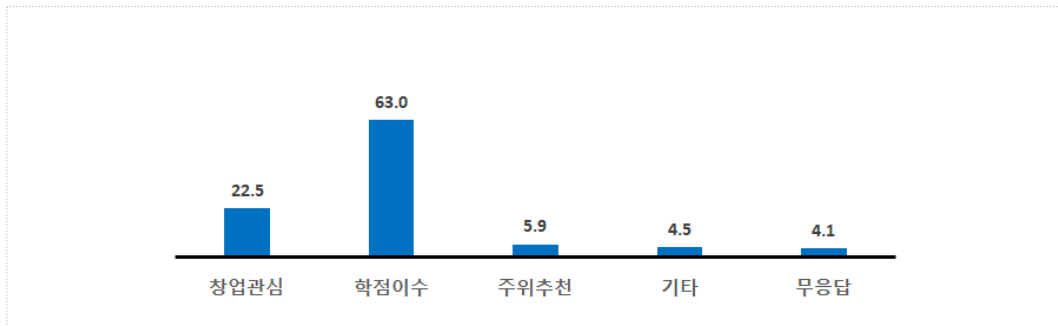
강좌 수강형태

1) 수강동기

- 창업강좌의 수강동기에 대해 살펴보면 학점 이수 목적이 63.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관심 22.5%, 주위 추천 5.9%, 기타 4.5%의 순으로 나타남.
-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듣는다는 의견은 전년(28.5%)대비 다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38] 강좌 수강동기

(n: 11,884명, 단위: %)



- 권역, 학제구분, 설립유형, 대학재정지원사업, 과목유형, 성별, 학년, 전공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학점 이수 목적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권역은 대경/강원권 (25.1%)으로 나타남.
- (학제구분)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제구분은 종합대 (25.8%)로 나타남.
- (설립유형)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설립유형은 국립대 (23.3%)로 나타남.
- (대학재정지원사업)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은 LINC+ 지원대학(23.7%)으로 나타남.
- (성별)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성별은 남성(27.9%)으로 나타남.

- (학년)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년은 3학년(29.1%)으로 나타남.
- (전공) 창업에 관심이 있어서 수강을 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은 상경계열(28.3%)로 나타남.

[표 II-22] 응답자 특성별 강좌 수강동기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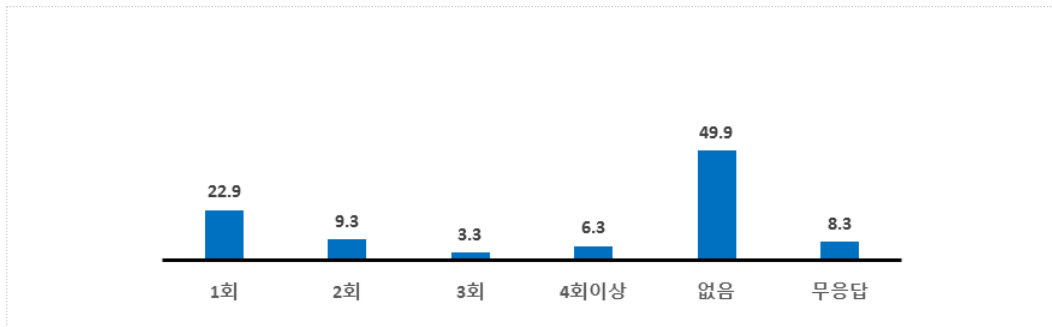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학점이수	주위추천	기타	무응답
	전체	11,884	22.5	63.0	5.9	4.5	4.1
권역별	수도권	4,703	20.6	63.3	5.3	5.8	5.1
	충청권	2,093	22.5	65.2	5.1	3.8	3.3
	호남/제주권	1,572	22.8	65.3	4.3	3.3	4.3
	대경/강원권	2,112	25.1	59.4	9.1	3.7	2.7
	동남권	1,404	24.8	61.4	6.0	4.0	3.8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25.8	61.2	6.8	3.1	3.1
	전문대	4,677	17.5	65.7	4.4	6.7	5.6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23.3	62.8	7.6	3.0	3.3
	사립대	10,041	22.4	63.0	5.6	4.8	4.2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23.7	63.8	6.6	3.6	2.3
	비LINC+	7,528	21.9	62.5	5.5	5.1	5.1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22.9	62.9	6.5	4.0	3.8
	전공강좌	3,052	21.7	65.0	4.5	4.2	4.7
	무응답	170	20.6	28.2	2.9	38.8	9.4
성별	남성	6,318	27.9	58.8	6.8	4.1	2.5
	여성	5,089	16.4	69.6	5.1	5.2	3.7
	무응답	477	16.4	47.0	3.1	3.8	29.8
학년별	1학년	4,001	20.1	64.3	6.3	5.4	3.9
	2학년	3,724	20.4	66.9	4.8	5.0	2.8
	3학년	1,768	29.1	57.2	8.2	3.9	1.6
	4학년	1,735	27.0	62.5	5.9	2.7	1.8
	무응답	656	19.7	49.1	3.5	2.7	25.0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22.4	63.0	6.2	5.6	2.8
	상경계열	1,042	28.3	60.5	6.2	3.6	1.3
	공학계열	3,388	22.2	64.6	6.9	4.3	1.9
	자연계열	1,413	27.6	60.5	5.9	3.2	2.8
	의학계열	697	11.0	78.8	2.3	5.2	2.7
	예체능계열	1,137	27.3	61.0	6.5	3.0	2.2
	기타	662	15.3	68.3	3.3	7.7	5.4
무응답	378	10.8	31.5	2.9	3.2	51.6	

2) 수강경험

- 창업강좌 수강경험 빈도를 살펴보면 수강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49.9%로 가장 많고, 수강경험이 있다는 응답이 41.8%로 나타남.
-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 중 1회 수강경험이 있는 응답자가 22.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2회(9.3%), 4회(6.6%), 3회(3.3%)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39] 전체 수강경험

n: 11,884명, 단위: %



- 권역, 학제구분, 설립유형, 대학재정지원사업, 과목유형, 성별, 학년, 전공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수강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으로 1회 경험이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권역은 호남/제주권(49.7%)으로 나타남.
 - (학제구분)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제구분은 종합대(42.2%)로 나타남.
 - (설립유형)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설립유형은 사립대(42.7%)로 나타남.
 - (대학재정지원사업)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은 LINC+ 지원대학(42.8%)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성별)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성별은 남성(43.3%)으로 나타남.
 - (학년)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학년은 4학년(50.2%)으로 나타남.
 - (전공) 수강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공은 예체능계열(50.5%)로 나타남.

[표 II-23] 응답자 특성별 수강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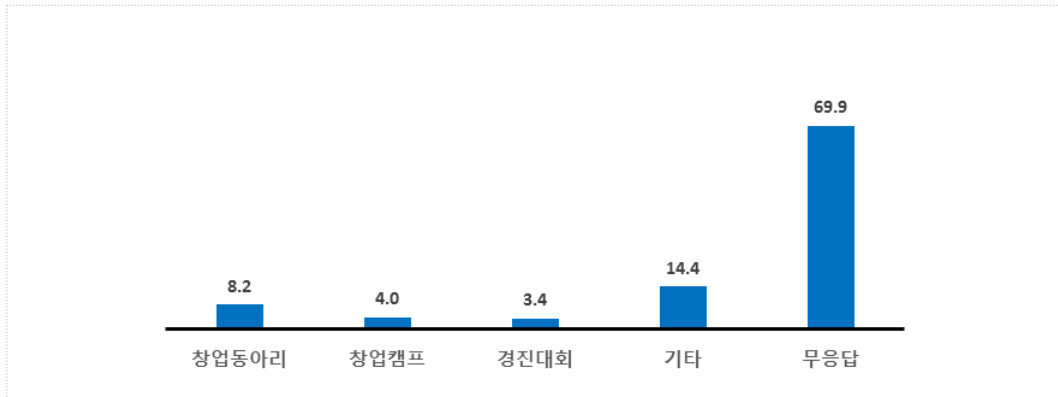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1회	2회	3회	4회 이상	없음	무응답
	전체	11,884	22.9	9.3	3.3	6.3	49.9	8.3
권역별	수도권	4,703	24.3	7.9	2.7	6.4	49.0	9.7
	충청권	2,093	20.4	9.9	3.4	6.4	52.6	7.3
	호남/제주권	1,572	24.7	11.4	5.3	8.3	42.6	7.8
	대경/강원권	2,112	21.6	10.6	4.1	4.9	52.6	6.3
	동남권	1,404	21.6	8.8	2.0	5.6	53.1	8.9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22.8	10.1	3.8	5.5	51.6	6.3
	전문대	4,677	23.0	8.1	2.7	7.5	47.4	11.3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21.5	9.0	2.8	3.5	55.6	7.5
	사립대	10,041	23.1	9.4	3.4	6.8	48.9	8.4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22.2	10.5	4.1	6.0	51.7	5.6
	비LINC+	7,528	23.3	8.6	2.9	6.4	48.9	9.9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23.2	8.9	3.0	5.4	52.0	7.6
	전공강좌	3,052	20.6	10.6	4.4	8.9	45.4	10.1
	무응답	170	48.8	6.5	1.8	4.7	24.7	13.5
성별	남성	6,318	24.2	9.6	3.4	6.1	50.4	6.3
	여성	5,089	21.7	9.0	3.2	6.9	50.9	8.4
	무응답	477	18.0	9.4	4.2	2.5	32.9	32.9
학년별	1학년	4,001	21.9	5.8	1.5	5.5	56.2	9.1
	2학년	3,724	24.1	9.1	2.9	7.6	49.2	7.1
	3학년	1,768	26.8	14.0	4.9	3.6	46.8	4.1
	4학년	1,735	20.7	14.2	7.2	8.1	45.4	4.4
	무응답	656	17.7	6.1	2.6	6.1	36.0	31.6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23.9	8.2	3.1	7.2	49.1	8.6
	상경계열	1,042	22.0	12.5	4.3	6.0	47.1	8.1
	공학계열	3,388	24.3	8.3	3.7	5.3	53.5	5.0
	자연계열	1,413	23.3	10.5	2.3	5.9	52.7	5.2
	의학계열	697	18.9	7.3	0.6	7.6	56.7	8.9
	예체능계열	1,137	25.5	12.7	5.5	6.8	45.6	4.0
	기타	662	20.2	10.3	3.5	6.9	49.7	9.4
	무응답	378	6.9	6.1	1.9	4.5	23.0	57.7

3) 창업 관련 활동

- 창업관련 활동에 대해 살펴보면 관련 활동을 수행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30.1%로 나타남.
 - 창업 관련 활동은 창업동아리(8.2%), 창업캠프(4.0%), 경진대회(3.4%)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0] 창업관련 활동

n: 11,884명, 단위: %



- 권역, 학제구분, 설립유형, 대학재정지원사업, 과목유형, 성별, 학년, 전공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활동 중 창업동아리 활동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동아리 활동이 가장 높은 권역은 대경/강원권(10.7%), 학제 구분은 전문대(8.7%), 설립유형은 국립대(8.5%), LINC+ 지원대학(8.6%), 성별은 남성(8.7%), 학년은 1학년(9.0%), 전공은 공학계열(9.8%)로 높게 나타남.
 - 창업캠프 활동이 가장 높은 권역은 대경/강원권(5.5%), 학제 구분은 종합대(4.5%), 설립유형은 사립대(4.0%), LINC+ 지원대학(4.5%), 학년은 4학년(6.1%), 전공은 자연계열(6.5%)로 높게 나타남.
 - 경진대회 활동이 가장 높은 권역은 대경/강원권(4.0%), 학제 구분은 종합대(3.7%), 설립유형은 사립대(3.7%), 성별은 여성(3.5%), 학년은 4학년(5.7%), 전공은 상경계열(5.9%)로 나타남.

[표 II-24] 응답자 특성별 수강경험

단위: 명, %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경진대회	기타	무응답
	전체	11,884	8.2	4.0	3.4	14.4	69.8
권역별	수도권	4,703	7.4	3.2	3.3	15.3	70.7
	충청권	2,093	8.0	5.1	3.6	13.7	69.5
	호남/제주권	1,572	9.0	3.2	2.9	15.2	69.5
	대경/강원권	2,112	10.7	5.5	4.0	13.0	66.4
	동남권	1,404	6.9	3.4	3.1	14.1	72.4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9	4.5	3.7	13.5	70.3
	전문대	4,677	8.7	3.2	2.9	16.0	68.9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8.5	3.7	2.1	12.9	72.9
	사립대	10,041	8.2	4.0	3.7	14.7	69.2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8.6	4.5	3.4	13.5	69.9
	비LINC+	7,528	8.0	3.6	3.4	15.0	69.7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8.0	4.0	3.1	14.5	70.3
	전공강좌	3,052	9.2	3.8	4.0	13.0	69.8
	무응답	170	6.5	2.4	7.6	39.4	44.1
성별	남성	6,318	8.7	4.0	3.4	11.7	72.0
	여성	5,089	7.8	4.0	3.5	18.4	66.2
	무응답	477	7.1	3.6	2.5	7.8	78.6
학년별	1학년	4,001	9.0	3.8	1.9	14.9	70.3
	2학년	3,724	8.7	3.4	3.9	15.9	68.0
	3학년	1,768	8.3	3.5	3.9	13.2	70.9
	4학년	1,735	7.3	6.1	5.7	13.9	66.9
	무응답	656	3.4	3.5	2.7	8.5	81.7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8.4	3.5	4.1	17.2	66.7
	상경계열	1,042	6.8	4.5	5.9	14.2	68.2
	공학계열	3,388	9.8	3.7	2.3	11.9	72.3
	자연계열	1,413	9.1	6.5	3.5	15.3	65.3
	의학계열	697	4.4	2.3	3.2	14.8	75.2
	예체능계열	1,137	9.5	3.3	3.4	12.9	70.9
	기타	662	4.5	5.7	3.8	20.5	65.0
무응답	378	3.7	1.3	0.5	4.8	8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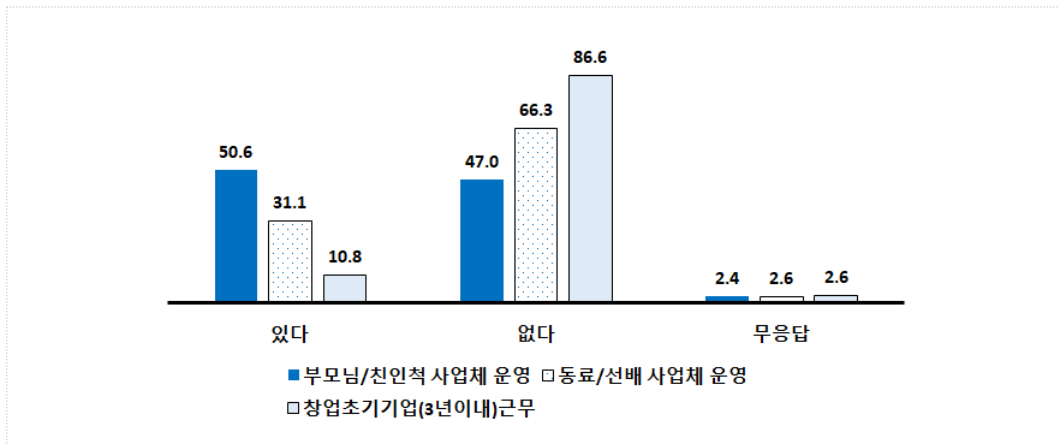
3 창업환경/희망진로

1) 창업환경

- 응답자의 창업환경을 살펴보면 응답자의 50.6%가 부모님/친인척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그 외 동료/선배 사업체 운영(31.1%), 창업초기기업 근무(10.8%)의 순으로 나타났음.

[그림 II-41] 창업환경

n: 11,884명, 단위: %



[표 II-25] 응답자 특성별 주변 창업환경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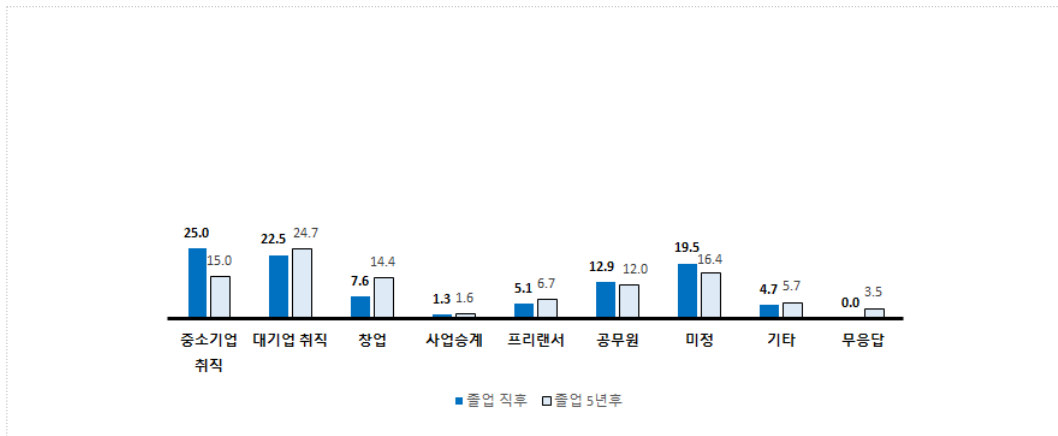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부모님/친인척 사업체 운영			동료/선배 사업체 운영			창업초기기업 (3년 이내) 근무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있다	없다	무응답
전체		11,884	50.6	47.0	2.4	31.1	66.3	2.6	10.8	86.6	2.6
지역별	수도권	4,703	48.1	49.5	2.4	28.0	69.5	2.5	9.6	87.9	2.5
	충청권	2,093	52.1	45.5	2.4	30.3	67.1	2.6	12.3	85.1	2.6
	호남/제주권	1,572	53.7	43.3	3.0	34.0	63.0	3.1	11.1	85.6	3.2
	대경/강원권	2,112	52.8	44.4	2.8	37.5	59.4	3.1	12.2	84.7	3.1
	동남권	1,404	50.1	48.6	1.2	29.6	69.0	1.4	9.8	88.7	1.5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53.6	43.9	2.5	34.5	62.9	2.7	10.1	87.2	2.7
	전문대	4,677	46.1	51.7	2.2	25.9	71.7	2.4	11.8	85.8	2.5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51.5	46.0	2.6	31.7	65.7	2.6	9.3	88.0	2.8
	사립대	10,041	50.5	47.1	2.4	31.0	66.5	2.6	11.1	86.4	2.6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53.2	44.4	2.4	34.5	62.9	2.6	9.6	87.7	2.6
	비LINC+	7,528	49.1	48.4	2.5	29.1	68.3	2.6	11.4	86.0	2.6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51.3	46.4	2.3	30.5	67.1	2.4	10.0	87.5	2.5
	전공강좌	3,052	49.1	48.5	2.4	32.8	64.6	2.6	13.1	84.3	2.6
	무응답	170	44.1	46.5	9.4	31.8	58.8	9.4	7.6	82.9	9.4
성별	남성	6,318	50.9	46.9	2.2	35.4	62.1	2.5	11.5	86.0	2.5
	여성	5,089	51.5	46.9	1.6	26.2	72.2	1.6	10.0	88.4	1.6
	무응답	477	37.3	48.4	14.3	25.4	60.4	14.3	9.9	75.3	14.9
학년별	1학년	4,001	48.1	50.6	1.3	22.0	76.4	1.6	8.4	89.9	1.6
	2학년	3,724	49.9	47.5	2.6	29.5	67.7	2.7	10.8	86.5	2.7
	3학년	1,768	56.8	41.2	2.0	42.6	55.4	2.0	12.7	85.5	1.9
	4학년	1,735	54.0	44.5	1.5	45.2	53.0	1.7	14.4	83.7	1.8
	무응답	656	44.4	43.6	12.0	26.7	61.6	11.7	10.2	78.0	11.7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50.1	47.8	2.1	31.8	66.0	2.2	11.4	86.4	2.2
	상경계열	1,042	52.0	46.4	1.5	33.9	65.0	1.2	12.3	86.6	1.2
	공학계열	3,388	48.9	48.8	2.2	28.8	68.6	2.6	7.7	89.7	2.6
	자연계열	1,413	49.8	48.3	1.9	29.7	68.3	2.0	14.0	83.8	2.2
	의학계열	697	50.9	47.8	1.3	21.7	77.0	1.3	6.9	91.7	1.4
	예체능계열	1,137	59.7	38.7	1.6	44.7	53.7	1.6	15.8	82.4	1.8
	기타	662	52.3	46.7	1.1	27.6	70.8	1.5	10.7	87.9	1.4
	무응답	378	38.9	42.6	18.5	25.4	55.6	19.0	9.3	72.0	18.8

2) 희망진로

- 졸업직후 희망진로에 대해 살펴보면 중소기업 취직이 2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대기업 취직(22.5%), 미정(19.5%), 공무원(12.9%), 창업(7.6%), 프리랜서(5.1%), 사업승계(1.3%)의 순으로 나타났다.
- 졸업 5년 후 희망진로에 대해 살펴보면 대기업 취직이 24.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정(16.4%), 중소기업 취직(15.0%), 창업(14.4%), 공무원(12.0%), 사업승계(1.6%)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II-42] 희망진로

n: 11,884명, 단위: %



- 권역, 학제구분, 설립유형, 대학재정지원사업, 과목유형, 성별, 학년, 전공 등 모든 응답자 특성에서 중소기업 및 대기업 취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졸업 5년 후에도 대기업을 취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졸업 직후 진로와 졸업 5년 후 진로의 GAP을 분석해보면 중소기업 취직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창업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음.
 - 졸업 5년 후 창업의 증가 폭이 가장 큰 권역은 호남/제주권(9.9%p), 학제 구분은 종합대 (7.6%p), 설립유형은 국립대(8.5%p), 비LINC+ 대학(6.9%p), 성별은 남성(9.4%p), 학년은 3학년(12.7%p), 전공은 자연계열(12.2%p)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표 II-26] 응답자 특성별 졸업 직후 희망진로

단위: 명, %

구분	내용	사례 수	중소기업 취직	대기업 취직	창업	사업 승계	프리 랜서	공무원	미정	기타	무응답
전체		11,884	25.0	22.5	7.6	1.3	5.1	12.9	19.5	4.7	1.3
권역별	수도권	4,703	27.0	22.5	8.1	1.3	5.3	11.9	18.0	4.1	1.7
	충청권	2,093	23.7	20.5	7.5	1.6	5.5	17.3	18.8	3.9	1.1
	호남/제주권	1,572	25.4	26.5	6.7	1.1	4.3	8.3	22.8	4.3	0.6
	대경/강원권	2,112	24.0	21.4	7.4	1.3	5.3	13.8	19.8	6.2	0.9
	동남권	1,404	21.2	22.2	7.8	1.3	4.7	13.4	21.6	6.1	1.8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24.1	22.3	8.3	1.3	5.2	12.9	20.3	4.1	1.5
	전문대	4,677	26.4	22.7	6.7	1.3	5.1	12.8	18.3	5.6	1.0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24.1	20.9	4.9	0.8	4.8	12.9	24.2	6.2	1.0
	사립대	10,041	25.2	22.7	8.1	1.4	5.2	12.9	18.7	4.4	1.4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23.6	22.7	8.0	1.5	5.4	13.8	20.0	4.0	1.1
	비LINC+	7,528	25.9	22.3	7.5	1.2	5.0	12.4	19.3	5.1	1.4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25.1	22.3	7.5	1.3	5.4	12.7	19.8	4.5	1.5
	전공강좌	3,052	24.1	23.1	8.0	1.2	4.6	13.8	18.8	5.6	0.9
	무응답	170	36.5	19.4	8.2	5.3	3.5	7.6	17.6	1.2	0.6
성별	남성	6,318	25.8	21.9	7.8	1.2	5.3	13.0	19.1	4.7	1.1
	여성	5,089	23.9	23.0	7.3	1.4	5.1	13.1	20.1	4.7	1.5
	무응답	477	26.6	23.9	9.2	1.0	4.4	9.2	19.5	4.6	1.5
학년별	1학년	4,001	25.1	21.9	7.1	1.4	5.4	13.3	20.3	4.7	0.7
	2학년	3,724	24.2	22.7	7.9	1.3	5.5	12.6	18.9	5.1	1.8
	3학년	1,768	24.6	22.3	7.7	1.2	5.5	13.2	20.1	4.5	0.9
	4학년	1,735	26.2	24.0	8.5	1.0	3.7	12.3	18.0	4.1	2.1
	무응답	656	27.0	20.4	6.6	1.7	4.9	12.5	21.0	4.6	1.4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3,167	26.1	21.8	7.6	1.3	5.7	12.4	19.0	4.4	1.8
	상경계열	1,042	23.9	22.4	8.0	0.9	6.0	12.2	19.8	4.6	2.4
	공학계열	3,388	25.7	22.0	8.0	1.3	4.7	12.2	20.6	4.5	0.9
	자연계열	1,413	24.1	23.0	7.4	1.0	5.3	13.0	20.4	4.2	1.6
	의학계열	697	23.5	25.3	5.9	2.2	2.9	14.6	19.2	6.2	0.3
	예체능계열	1,137	24.1	21.3	8.4	1.2	5.4	14.8	18.8	5.0	1.1
	기타	662	20.7	26.0	7.1	1.7	5.6	15.1	17.5	6.2	0.2
	무응답	378	29.6	22.8	6.9	1.3	4.5	12.2	17.2	4.8	0.8

[표 II-27] 응답자 특성별 졸업 5년 후 희망진로

단위: 명, %

구분	내용	사례 수	중소기업 취직	대기업 취직	창업	사업 승계	프리 랜서	공무원	미정	기타	무응답
전체		11,884	15.0	24.7	14.4	1.6	6.7	12.0	16.4	5.7	3.5
권역별	수도권	4,703	16.7	26.5	13.0	1.7	6.9	9.5	16.1	6.0	3.7
	충청권	2,093	13.0	25.8	15.9	1.9	6.2	13.5	15.9	4.6	3.4
	호남/제주권	1,572	13.9	19.5	16.7	1.7	7.6	15.7	14.6	6.3	4.1
	대경/강원권	2,112	14.5	22.9	14.7	1.6	6.1	14.2	17.4	5.1	3.6
	동남권	1,404	14.6	25.6	14.2	1.0	6.4	10.8	18.9	6.3	2.1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13.4	24.2	15.9	1.6	7.1	13.8	16.0	4.7	3.4
	전문대	4,677	17.5	25.5	12.2	1.6	6.0	9.3	17.1	7.2	3.5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12.9	24.0	13.5	1.3	7.1	18.6	14.5	5.0	3.2
	사립대	10,041	15.4	24.8	14.6	1.7	6.6	10.8	16.8	5.8	3.5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13.5	24.4	14.4	1.6	7.0	14.3	16.3	5.2	3.3
	비LINC+	7,528	15.9	24.9	14.4	1.6	6.4	10.7	16.5	6.0	3.6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14.8	24.3	14.0	1.6	6.4	12.8	16.6	6.3	3.2
	전공강좌	3,052	15.9	26.0	15.8	1.6	7.5	8.9	16.4	3.9	3.9
	무응답	170	12.4	24.1	10.0	0.6	3.5	29.4	6.5	2.9	10.6
성별	남성	6,318	15.1	25.8	17.2	2.4	5.7	11.0	15.4	4.0	3.4
	여성	5,089	15.3	23.3	11.2	0.6	7.9	13.7	17.7	8.0	2.4
	무응답	477	11.5	23.9	12.2	1.9	6.3	7.8	17.2	3.4	15.9
학년별	1학년	4,001	15.0	27.3	12.2	1.6	5.7	11.1	17.3	7.0	2.6
	2학년	3,724	16.8	22.1	12.1	1.4	7.1	13.3	18.4	5.0	3.8
	3학년	1,768	13.9	23.6	20.4	1.8	7.7	11.4	13.7	4.8	2.5
	4학년	1,735	13.4	24.3	19.1	2.3	7.1	12.3	14.3	5.0	2.1
	무응답	656	12.0	27.0	12.3	0.9	5.9	11.0	12.7	5.5	12.7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3,167	13.6	20.5	12.4	1.7	7.0	17.2	17.2	7.1	3.2
	상경계열	1,042	12.7	28.5	16.9	2.4	8.1	12.1	11.6	3.2	4.6
	공학계열	3,388	20.1	30.7	13.0	1.7	4.8	8.1	16.0	2.9	2.8
	자연계열	1,413	11.1	24.4	19.7	0.9	4.7	14.2	17.1	5.3	2.7
	의학계열	697	11.3	22.5	10.0	1.4	3.3	15.2	21.2	12.3	2.6
	예체능계열	1,137	16.4	17.6	20.0	1.9	16.2	5.7	16.4	3.8	2.0
	기타	662	12.2	24.6	10.3	1.4	5.4	12.8	18.3	13.1	1.8
	무응답	378	10.3	21.7	15.6	1.1	3.7	7.4	12.7	6.6	20.9

[표 II-28] 응답자 특성별 (졸업 5년 후 - 졸업 직후) 희망진로 GAP

단위: 명, %p

구분	내용	사례 수	중소기업 취직	대기업 취직	창업	사업 승계	프리 랜서	공무원	미정	기타	무응답
전체		11,884	-10.0	2.2	6.8	0.3	1.5	-0.9	-3.1	1.0	2.2
권역별	수도권	4,703	-10.3	3.9	4.9	0.4	1.5	-2.3	-1.9	1.8	2.0
	충청권	2,093	-10.8	5.2	8.4	0.3	0.7	-3.9	-3.0	0.7	2.3
	호남/제주권	1,572	-11.5	-7.0	9.9	0.6	3.3	7.4	-8.3	2.0	3.5
	대경/강원권	2,112	-9.5	1.6	7.2	0.3	0.9	0.3	-2.4	-1.1	2.7
	동남권	1,404	-6.6	3.5	6.4	-0.3	1.7	-2.6	-2.7	0.2	0.4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10.7	1.9	7.6	0.3	1.9	0.8	-4.4	0.6	2.0
	전문대	4,677	-8.9	2.8	5.5	0.3	0.9	-3.5	-1.2	1.6	2.5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11.2	3.1	8.5	0.5	2.2	5.6	-9.7	-1.2	2.2
	사립대	10,041	-9.8	2.1	6.4	0.3	1.4	-2.1	-1.9	1.4	2.2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10.1	1.7	6.5	0.1	1.6	0.4	-3.7	1.2	2.2
	비LINC+	7,528	-9.9	2.5	6.9	0.4	1.4	-1.6	-2.8	0.8	2.2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10.3	2.0	6.5	0.4	1.0	0.1	-3.2	1.9	1.7
	전공강좌	3,052	-8.2	2.9	7.8	0.4	2.9	-4.8	-2.4	-1.7	3.0
	무응답	170	-24.1	4.7	1.8	-4.7	0.0	21.8	-11.2	1.8	10.0
성별	남성	6,318	-10.7	3.9	9.4	1.2	0.4	-2.0	-3.7	-0.8	2.3
	여성	5,089	-8.6	0.4	3.9	-0.9	2.8	0.6	-2.5	3.3	0.9
	무응답	477	-15.1	0.0	2.9	0.8	1.9	-1.5	-2.3	-1.3	14.5
학년별	1학년	4,001	-10.0	5.4	5.1	0.2	0.3	-2.2	-3.0	2.3	1.9
	2학년	3,724	-7.4	-0.6	4.1	0.1	1.6	0.7	-0.5	-0.1	2.1
	3학년	1,768	-10.7	1.4	12.7	0.6	2.3	-1.8	-6.3	0.3	1.6
	4학년	1,735	-12.8	0.3	10.6	1.3	3.5	0.0	-3.7	0.8	0.1
	무응답	656	-14.9	6.6	5.8	-0.8	1.1	-1.5	-8.4	0.9	11.3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3,167	-12.5	-1.2	4.8	0.3	1.3	4.9	-1.8	2.7	1.4
	상경계열	1,042	-11.2	6.1	8.9	1.5	2.1	-0.1	-8.2	-1.4	2.2
	공학계열	3,388	-5.6	8.7	5.0	0.3	0.1	-4.2	-4.6	-1.6	1.8
	자연계열	1,413	-13.0	1.4	12.2	-0.1	-0.6	1.2	-3.3	1.1	1.1
	의학계열	697	-12.2	-2.7	4.2	-0.7	0.4	0.6	2.0	6.2	2.3
	예체능계열	1,137	-7.7	-3.7	11.6	0.7	10.8	-9.1	-2.5	-1.2	1.0
	기타	662	-8.5	-1.4	3.2	-0.3	-0.2	-2.3	0.8	6.9	1.7
	무응답	378	-19.3	-1.1	8.7	-0.3	-0.8	-4.8	-4.5	1.9	20.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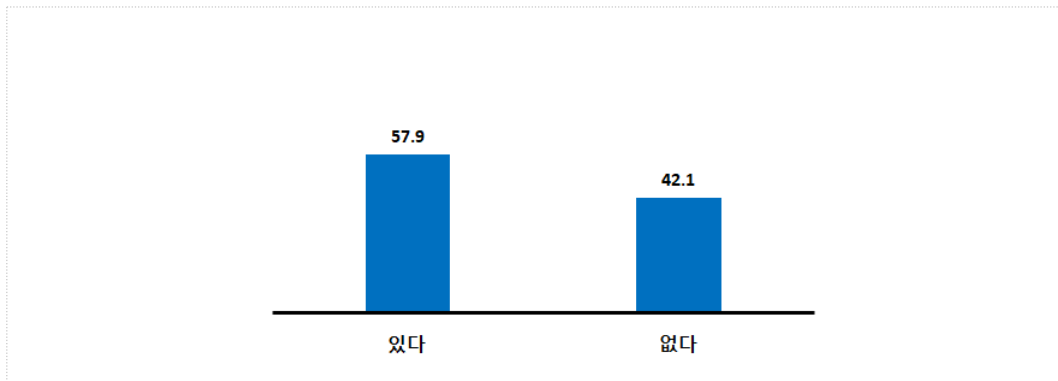
창업친화적학사제도

1)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유무

-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유무에 살펴보면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가 구축되어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57.9%로 높게 나타남.

[그림 II-4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유무

n: 11,884명, 단위: %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높은 권역은 충청권(69.9%)이며, 학제구분은 종합대(70.2%), 설립유형은 국립대(59.3%), LINC+ 지원대학(68.9%)으로 나타났음.

[표 II-29] 응답자 특성별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유무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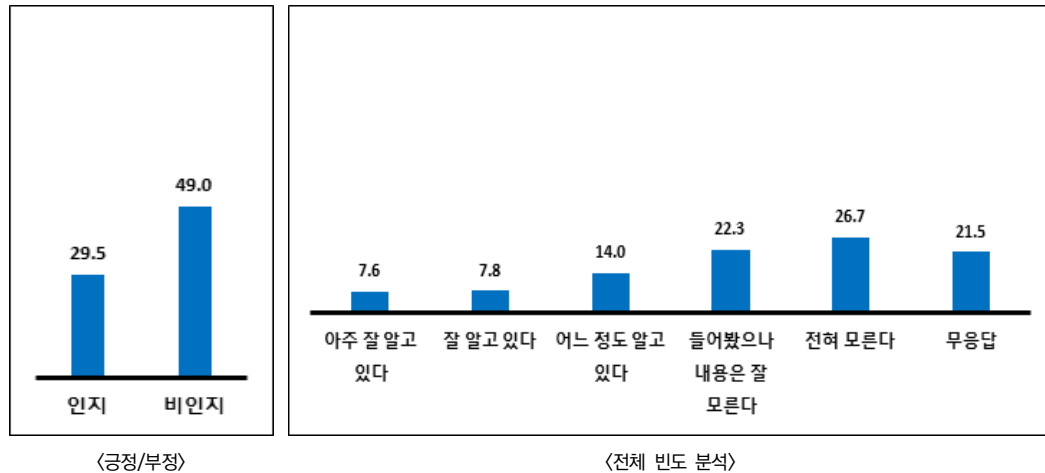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있다	없다
전체		11,884	57.9	42.1
권역별	수도권	4,703	50.6	49.4
	충청권	2,093	69.9	30.1
	호남/제주권	1,572	61.5	38.5
	대경/강원권	2,112	50.9	49.1
	동남권	1,404	71.1	28.9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70.2	29.8
	전문대	4,677	39.0	61.0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59.3	40.7
	사립대	10,041	57.7	42.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68.9	31.1
	비LINC+	7,528	51.6	48.4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61.1	38.9
	전공강좌	3,052	49.6	50.4
	무응답	170	47.1	52.9
성별	남성	6,318	59.7	40.3
	여성	5,089	55.8	44.2
	무응답	477	56.8	43.2
학년별	1학년	4,001	53.3	46.7
	2학년	3,724	58.2	41.8
	3학년	1,768	64.4	35.6
	4학년	1,735	61.7	38.3
	무응답	656	57.0	43.0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62.7	37.3
	상경계열	1,042	69.1	30.9
	공학계열	3,388	62.4	37.6
	자연계열	1,413	54.8	45.2
	의학계열	697	30.6	69.4
	예체능계열	1,137	53.3	46.7
	기타	662	42.1	57.9
	무응답	378	50.5	49.5

2)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인지도

- 창업친화적학사제도에 대한 인지도는 29.5%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49.0%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음.
 -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인지도는 31.5점으로 아직까지는 인지도가 낮은 수준으로 나타남.
- 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 전혀 모른다고 응답한 비중이 26.7%로 가장 높았으며,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22.3%), 어느 정도 알고 있다(14.0%), 잘 알고 있다(7.8%), 아주 잘 알고 있다(7.6%)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4]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인지도

n: 11,884명, 단위: %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인지도가 높은 권역은 호남/제주권(31.7%), 학제구분은 종합대(30.3%), 설립유형은 사립대(30.3%), LINC+ 지원대학(29.7%), 성별은 남성(32.1%), 학년은 4학년(34.6%), 전공은 예체능 계열(49.6%)로 나타남.

[표 II-30] 응답자 특성별 창업친화적학사제도 인지도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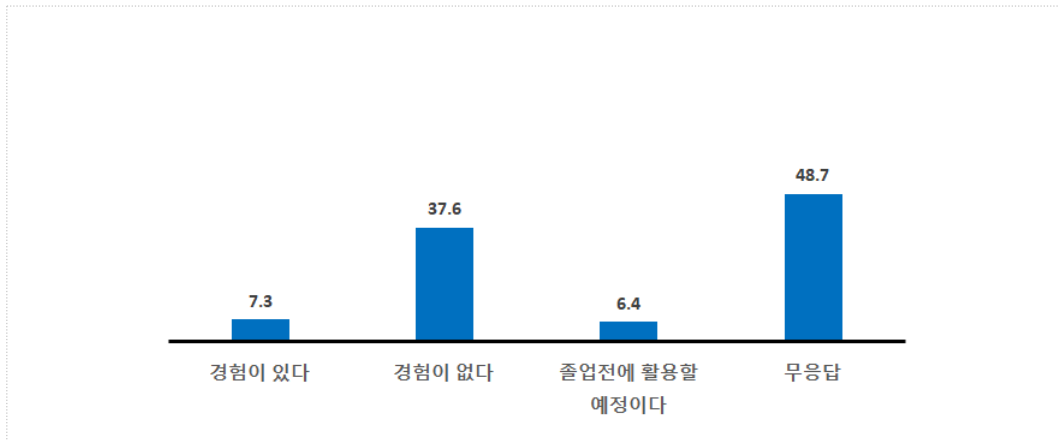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인지도 (점)	인지	비인지	인지			비인지		무응답
						아주 잘 안다	잘 안다	어느 정도 안다	전혀 모른다	들어 봤으나 내용 잘 모른다	
전체		11,884	31.5	29.5	49.0	7.6	7.8	14.0	22.3	26.7	21.5
지역별	수도권	4,703	31.9	30.1	49.3	7.6	9.5	13.1	21.1	28.2	20.6
	충청권	2,093	30.7	27.4	49.5	7.2	7.3	12.9	24.5	25.0	23.1
	호남/제주권	1,572	33.0	31.7	48.2	8.4	6.5	16.9	25.7	22.5	20.1
	대경/강원권	2,112	32.4	30.8	46.2	8.3	7.0	15.5	20.7	25.5	23.0
	동남권	1,404	28.3	25.8	52.5	6.6	6.0	13.2	22.0	30.5	21.7
학제 구분별	종합대	7,207	31.5	30.3	49.4	6.9	7.3	16.1	24.3	25.1	20.4
	전문대	4,677	31.5	28.2	48.5	8.8	8.7	10.7	19.3	29.2	23.3
설립유형별	국립대	1,843	29.4	25.0	50.5	6.4	5.2	13.4	24.8	25.7	24.5
	사립대	10,041	31.9	30.3	48.8	7.9	8.3	14.1	21.9	26.9	21.0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31.4	29.7	49.2	7.1	6.9	15.8	24.6	24.7	21.1
	비LINC+	7,528	31.6	29.3	48.9	8.0	8.4	12.9	21.1	27.9	21.8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662	31.1	28.9	49.6	7.5	7.5	13.9	22.4	27.2	21.5
	전공강좌	3,052	32.7	31.2	47.2	7.8	9.0	14.4	22.3	24.9	21.5
	무응답	170	31.2	25.3	50.0	11.8	5.3	8.2	19.4	30.6	24.7
성별	남성	6,318	33.5	32.1	48.8	8.4	8.2	15.4	22.6	26.2	19.1
	여성	5,089	28.1	25.9	50.6	6.4	6.8	12.7	22.6	27.9	23.6
	무응답	477	40.5	33.5	35.4	10.7	13.2	9.6	16.4	19.1	31.0
학년별	1학년	4,001	29.8	25.5	51.6	7.4	7.5	10.6	22.2	29.3	23.0
	2학년	3,724	31.9	29.9	48.5	8.1	8.0	13.9	23.1	25.4	21.6
	3학년	1,768	31.7	32.5	47.9	6.7	8.7	17.2	22.3	25.5	19.6
	4학년	1,735	33.2	34.6	47.3	7.3	8.5	18.8	21.8	25.5	18.1
	무응답	656	34.3	29.3	44.2	10.4	5.3	13.6	20.0	24.2	26.5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33.7	30.0	50.6	7.0	7.6	15.3	27.1	23.5	19.4
	상경계열	1,042	31.7	30.3	48.0	4.6	6.8	18.9	22.7	25.2	21.7
	공학계열	3,388	33.5	30.3	47.5	7.8	8.3	14.2	19.8	27.7	22.2
	자연계열	1,413	26.9	20.5	54.3	5.0	4.6	10.8	24.9	29.4	25.3
	의학계열	697	24.1	17.8	51.2	5.6	5.6	6.6	14.1	37.2	31.0
	예체능계열	1,137	31.0	49.6	42.3	17.3	16.2	16.1	21.7	20.6	8.1
	기타	662	25.2	21.1	54.1	4.8	5.4	10.9	18.3	35.8	24.8
무응답	378	35.0	24.1	39.9	9.5	3.4	11.1	19.0	20.9	36.0	

3) 창업친화적학사제도 활용경험

- 창업친화적학사제도 활용경험에 대해 살펴보면 37.6%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7.3%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음.
-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활용경험에 대해 48.7%의 학생들이 응답을 하지 않았으며, 활용도도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남.
- 졸업 전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응답한 학생이 6.4% 수준에 그치고 있어 창업친화적학사제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II-45] 창업친화적학사제도 활용경험

n: 6,093명, 단위: %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권역은 수도권(7.6%), 학제구분은 전문대(8.8%), 설립유형은 사립대(7.5%), 비LINC+ 대학(7.9%), 성별은 남성(8.6%), 학년은 4학년(8.2%), 전공은 공학계열(8.7%) 등으로 나타났음.
- 창업친화적학사제도를 졸업 전에 활용하겠다고 응답한 비중이 가장 높은 권역은 대경/강원권(7.2%), 학제구분은 종합대(6.5%), 설립유형은 사립대(6.5%), LINC+ 대학(6.6%), 성별은 남성(7.9%), 학년은 3학년(7.4%), 전공은 인문/사회/교육계열 및 공학계열(6.8%) 등으로 나타남.

[표 II-31] 응답자 특성별 창업친화적학사제도 활용경험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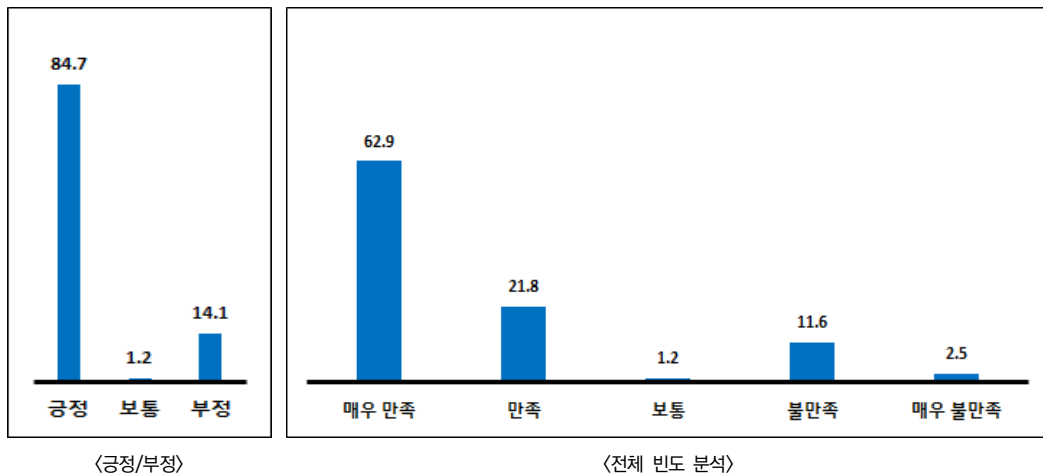
구분	내용	사례 수	경험 있다	경험 없다	졸업 전 활용 예정	무응답
	전체	6,093	7.3	37.6	6.4	48.7
권역별	수도권	2,427	7.6	37.7	6.3	48.4
	충청권	1,069	6.8	38.4	5.9	48.9
	호남/제주권	826	6.3	39.2	7.0	47.5
	대경/강원권	1,088	8.0	36.3	7.2	48.5
	동남권	683	6.8	36.4	5.5	51.4
학제 구분별	종합대	3,743	6.3	39.1	6.5	48.1
	전문대	2,350	8.8	35.3	6.2	49.8
설립유형별	국립대	916	6.0	38.0	5.6	50.3
	사립대	5,177	7.5	37.5	6.5	48.4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2,271	6.1	39.4	6.6	47.9
	비LINC+	3,822	7.9	36.6	6.2	49.2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4,402	6.8	37.7	6.3	49.2
	전공강좌	1,613	8.4	37.9	6.6	47.1
	무응답	78	9.4	30.6	5.9	54.1
성별	남성	3,526	8.6	39.4	7.9	44.2
	여성	2,331	5.1	35.9	4.8	54.2
	무응답	236	12.4	33.1	4.0	50.5
학년별	1학년	1,974	7.4	35.3	6.7	50.7
	2학년	1,915	7.2	37.4	6.8	48.6
	3학년	915	5.9	38.5	7.4	48.2
	4학년	942	8.2	41.9	4.1	45.7
	무응답	347	8.2	39.3	5.3	47.1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1,825	7.7	43.1	6.8	42.4
	상경계열	553	6.7	39.1	7.3	46.9
	공학계열	1,780	8.7	37.0	6.8	47.5
	자연계열	655	5.9	34.9	5.5	53.6
	의학계열	254	5.5	27.4	3.6	63.6
	예체능계열	582	6.9	38.3	6.1	48.8
	기타	281	3.8	31.0	7.7	57.6
	무응답	163	7.7	32.3	3.2	56.9

4) 창업친화적학사제도 만족도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긍정적으로 답변한 비율이 84.7%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학생의 비중이 62.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만족(21.8%), 불만족(11.6%), 매우불만족(2.5%), 보통(1.2%)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6]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만족도

단위: %



-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만족도는 82.8점으로 나타났으며, 비록 인지도가 낮긴 하지만 활용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음.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권역은 동남권(89.3), 학제구분은 전문대(84.5), 설립유형은 사립대(83.7), 성별은 남성(83.9), 학년은 2학년(84.5%), 전공은 상경계열(84.3%) 등으로 나타남.

[표 II-32] 응답자 특성별 창업친화적학사제도 만족도

단위: 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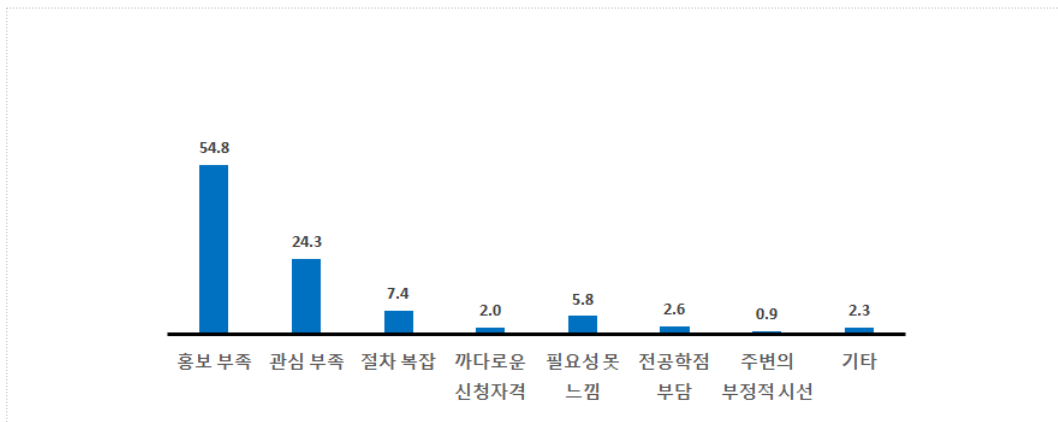
구분	내용	만족도 (점)	긍정	보통	부정	긍정		보통	부정	
						매우 만족	만족		불만족	매우 불만족
전체		82.8	84.7	1.2	14.1	62.9	21.8	1.2	11.6	2.5
권역별	수도권	88.7	92.7	0.5	6.8	71.2	21.6	0.5	4.3	2.4
	충청권	87.9	91.9	0.7	7.4	69.2	22.7	0.7	5.4	2.0
	호남/제주권	37.9	24.0	6.4	69.6	0.0	24.0	6.4	66.8	2.8
	대경/강원권	87.2	90.8	1.0	8.2	68.8	22.0	1.0	5.6	2.6
	동남권	89.3	93.0	0.2	6.8	74.1	18.9	0.2	3.9	2.9
학제 구분별	종합대	81.5	83.0	1.5	15.5	60.3	22.7	1.5	13.6	1.9
	전문대	84.5	87.0	0.9	12.1	66.6	20.4	0.9	8.8	3.3
설립유형별	국립대	77.6	76.6	3.0	20.3	55.8	20.8	3.0	18.4	1.9
	사립대	83.7	86.1	0.9	13.0	64.2	21.9	0.9	10.4	2.6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80.2	80.9	1.1	18.1	59.6	21.2	1.1	16.3	1.7
	비LINC+	84.0	86.5	1.3	12.2	64.5	22.0	1.3	9.3	2.9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82.5	84.2	1.2	14.6	63.1	21.1	1.2	12.2	2.5
	전공강좌	83.3	86.1	1.4	12.5	62.2	23.9	1.4	9.9	2.6
	무응답	88.5	92.3	3.8	3.8	65.4	26.9	3.8	3.8	0.0
성별	남성	83.9	86.9	1.0	12.1	63.6	23.3	1.0	9.3	2.8
	여성	81.7	82.1	1.5	16.4	63.0	19.1	1.5	14.4	1.9
	무응답	78.4	82.0	1.2	16.8	52.8	29.2	1.2	12.4	4.3
학년별	1학년	83.8	85.7	0.9	13.5	65.5	20.2	0.9	10.8	2.6
	2학년	84.5	87.4	0.8	11.8	64.6	22.8	0.8	9.5	2.2
	3학년	81.2	82.4	2.1	15.5	60.3	22.1	2.1	13.3	2.2
	4학년	78.2	78.9	2.2	18.9	55.8	23.1	2.2	15.9	3.0
	무응답	82.5	84.5	0.9	14.6	63.0	21.5	0.9	11.9	2.7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83.3	85.3	1.0	13.7	63.5	21.8	1.0	11.9	1.8
	상경계열	84.3	88.1	1.5	10.3	62.9	25.3	1.5	7.0	3.4
	공학계열	83.3	85.7	0.8	13.4	63.3	22.4	0.8	11.0	2.5
	자연계열	82.0	84.2	1.4	14.4	61.0	23.2	1.4	11.7	2.7
	의학계열	76.4	74.3	2.6	23.1	58.0	16.3	2.6	19.5	3.6
	예체능계열	82.9	84.3	1.6	14.2	62.7	21.5	1.6	12.9	1.3
	기타	85.2	86.5	0.8	12.8	69.5	16.9	0.8	10.5	2.3
	무응답	80.5	83.9	1.7	14.4	60.2	23.7	1.7	6.8	7.6

5) 창업친화적학사제도 비인지/비활용 이유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알지 못하거나 활용하지 않는 이유는 홍보부족이 54.8%로 가장 많았으며, 관심 부족(24.3%), 절차복잡(7.4%), 필요성 못느낌(5.8%), 전공학점 부담(2.6%), 까다로운 신청자격(2.0%), 주변의 부정적 시선(0.9%)등의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7] 창업친화적학사제도 비인지/비활용 이유

n: 703명, 단위: %



- 홍보 부족이 주요 원인이라고 가장 많이 응답한 권역은 동남권(58.2%), 학제구분은 전문대(57.8%), 설립유형은 사립대(55.6%), LINC+ 지원대학(55.4%), 성별은 남성(56.8%), 학년은 2학년(62.6%), 전공은 자연계열(64.5%)로 나타남.
- 창업친화적학사제도의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홍보활동에 대한 강화가 필요한 상황이며,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아 인지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33] 응답자 특성별 비인지/비활용 이유

단위: 명, %

구분	내용	사례 수	홍보부족	관심부족	절차복잡	까다로운 신청자격	필요성 못 느낌	전공학점 부담	주변의 부정적 사선	기타
전체		703	54.8	24.3	7.4	2.0	5.8	2.6	0.9	2.3
권역별	수도권	311	55.0	23.8	9.0	2.3	4.5	2.3	1.0	2.3
	충청권	120	55.0	21.7	5.8	1.7	9.2	2.5	0.8	3.3
	호남/제주권	78	53.8	24.4	10.3	1.3	5.1	2.6	1.3	1.3
	대경/강원권	115	52.2	29.6	2.6	3.5	7.8	0.9	0.0	3.5
	동남권	79	58.2	22.8	7.6	0.0	3.8	6.3	1.3	0.0
학제 구분별	종합대	338	51.5	28.1	6.8	2.1	5.9	2.7	1.2	1.8
	전문대	365	57.8	20.8	7.9	1.9	5.8	2.5	0.5	2.7
설립유형별	국립대	86	48.8	18.6	12.8	1.2	10.5	3.5	1.2	3.5
	사립대	617	55.6	25.1	6.6	2.1	5.2	2.4	0.8	2.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186	55.4	26.3	4.3	2.2	6.5	2.7	1.1	1.6
	비LINC+	517	54.5	23.6	8.5	1.9	5.6	2.5	0.8	2.5
과목유형별	교양강좌	474	54.2	24.3	7.0	2.3	6.5	3.0	0.6	2.1
	전공강좌	214	54.7	24.8	8.9	1.4	4.2	1.9	1.4	2.8
	무응답	15	73.3	20.0	0.0	0.0	6.7	0.0	0.0	0.0
성별	남성	435	56.8	22.5	8.0	1.8	5.7	1.8	1.4	1.8
	여성	213	52.1	27.7	4.7	2.8	5.2	4.7	0.0	2.8
	무응답	55	49.1	25.5	12.7	0.0	9.1	0.0	0.0	3.6
학년별	1학년	269	51.3	22.7	8.9	2.2	8.6	2.2	0.7	3.3
	2학년	227	62.6	21.6	6.6	2.6	2.2	2.6	0.9	0.9
	3학년	75	56.0	24.0	4.0	1.3	8.0	4.0	0.0	2.7
	4학년	84	40.5	39.3	9.5	1.2	4.8	2.4	0.0	2.4
	무응답	48	60.4	20.8	4.2	0.0	6.3	2.1	4.2	2.1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211	51.7	25.6	6.2	1.4	9.0	2.4	0.9	2.8
	상경계열	45	64.4	22.2	13.3	0.0	0.0	0.0	0.0	0.0
	공학계열	227	56.4	22.9	8.4	1.3	4.8	1.8	1.8	2.6
	자연계열	76	64.5	19.7	5.3	6.6	2.6	1.3	0.0	0.0
	의학계열	32	21.9	56.3	12.5	3.1	3.1	3.1	0.0	0.0
	예체능계열	63	52.4	22.2	0.0	3.2	7.9	9.5	0.0	4.8
	기타	21	66.7	28.6	0.0	0.0	4.8	0.0	0.0	0.0
무응답	28	57.1	7.1	21.4	0.0	7.1	3.6	0.0	3.6	

| 제3장 | 심층분석결과

1

신뢰도 분석

- 본 조사에서 활용된 항목들의 신뢰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모두 기준값이 0.6 이상을 상회하여 각 차원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대한 측정항목은 창업인식 차원의 측정항목들과 차이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여 분석을 수행함

[표 Ⅲ-1] 신뢰성 분석 결과

차원	측정항목	Cronbach's α
전반적 만족도	나는 이 수업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
교수 차원	교수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0.847
	교수는 수업내용에 따라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교수는 내가 학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불어넣었다.	
창업이해/기여 차원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0.786
	이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이 높아졌다.	
	이 수업은 진로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교재/수업내용 차원	다른 과목에 비해서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0.682
	이 수업의 난이도와 속도는 적절하였다.	
	교재는 이 수업에 유용하였다.	
	강의실 물리적 환경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수업에서 배워야할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 수업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시험 및 평가는 수업의 목표를 잘 반영하였다.		
창업인식 차원	이 수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아졌다.	0.725
	대학은 나에게 창업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3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사업)을 망설이게 한다(제외).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2

요인별 평균비교

1)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에 대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이해/기여에 대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LINC+ 지원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2]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81.05	79.51	77.82	79.08	70.22
	비LINC+	7,528	77.27	77.97	77.57	77.80	69.60
평균비교(t-test) 결과			9.607 ***	4.310 ***	0.839	5.230 ***	2.835 ***

*** p<0.01, ** p<0.05, * p<0.1

○ 재정지원+창업선도여부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업전반, 교수, 창업인식 요인의 만족도는 LINC+ 지원사업만 지원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등은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지원받는 대학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 재정지원+창업선도여부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재정지원+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747	82.75	81.45	79.56	79.25	71.24
	창업선도대	793	81.50	80.75	79.58	80.12	68.92
	LINC+ & 창업선도대	1,609	78.14	76.18	74.85	78.80	68.49
	일반대	6,735	76.77	77.64	77.33	77.52	69.68
평균비교(ANOVA) 결과			58.579 ***	40.310 ***	36.781 ***	19.178 ***	22.861 ***

*** p<0.01, ** p<0.05, * p<0.1

○ 설립유형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에 대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인식에 대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4] 설립유형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설립유형별	국공립	1,843	82.64	82.17	79.76	79.80	70.05
	사립	10,041	77.92	77.86	77.28	77.99	69.79
평균비교(t-test) 결과			9.643 ***	9.768 ***	6.327 ***	5.922 ***	0.871

*** p<0.01, ** p<0.05, * p<0.1

○ 학교구분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5] 학교구분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학교구분별	종합대	7,207	80.77	79.59	78.19	79.09	70.34
	전문대	4,677	75.40	76.90	76.85	77.01	69.05
평균비교(t-test) 결과			13.488 ***	7.709 ***	4.659 ***	8.465 ***	5.926 ***

*** p<0.01, ** p<0.05, * p<0.1

○ 권역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경/강원권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6] 권역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권역별	수도권	4,703	75.04	77.21	76.96	76.95	69.37
	충청권	2,093	80.48	79.01	76.79	79.52	70.32
	호남/제주권	1,572	80.35	77.56	76.23	78.16	68.56
	대경/강원권	2,112	83.19	81.63	80.52	80.25	71.43
	동남권	1,404	79.31	78.65	78.63	77.97	69.64
평균비교(ANOVA) 결과			67.219 ***	22.128 ***	26.981 ***	30.113 ***	17.792 ***

*** p<0.01, ** p<0.05, * p<0.1

○ 성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남성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7] 성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성별	남성	6,318	80.30	80.00	79.11	79.32	70.78
	여성	5,089	76.80	76.74	75.94	77.03	68.62
	무응답	477	76.62	78.20	76.87	77.57	70.16
평균비교(ANOVA) 결과			41.260 ***	43.712 ***	60.075 ***	45.113 ***	49.405 ***

*** p<0.01, ** p<0.05, * p<0.1

○ 학년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교수, 창업이해/기여, 창업인식의 항목에서는 3학년의 만족도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업전반, 교재/수업내용의 항목에서는 4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8] 학년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학년별	1학년	4,001	77.34	77.66	77.33	77.40	69.28
	2학년	3,724	77.79	77.77	76.88	77.96	69.53
	3학년	1,768	80.72	80.36	78.88	79.46	70.66
	4학년	1,735	81.34	79.67	78.35	79.48	70.55
	무응답	656	78.93	80.21	79.04	78.94	70.76
평균비교(ANOVA) 결과			16.890 ***	10.989 ***	7.729 ***	13.134 ***	7.899 ***

*** p<0.01, ** p<0.05, * p<0.1

- 학년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경계열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9] 전공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77.57	77.85	77.08	77.99	69.69
	상경계열	1,042	81.38	80.92	79.85	79.89	70.97
	공학계열	3,388	79.67	79.22	78.32	79.39	70.17
	자연계열	1,413	79.89	78.86	78.29	78.70	70.03
	의학계열	697	74.87	75.56	75.46	75.05	68.11
	예체능계열	1,137	79.58	78.54	77.02	78.18	70.01
	기타	662	74.92	77.41	76.29	75.19	68.25
	무응답	378	77.16	77.64	76.69	76.04	69.44
평균비교(ANOVA) 결과			12.346 ***	6.831 ***	8.063 ***	19.796 ***	6.004 ***

*** p<0.01, ** p<0.05, * p<0.1

- 수강빈도별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창업인식 등의 항목에서 2회를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재/수업내용에서는 3회를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10] 수강빈도별 종합/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전반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전체		11,884	78.65	78.53	77.66	78.27	69.83
수강 빈도별	1회	2,720	78.12	78.55	77.78	78.07	69.96
	2회	1,105	81.57	81.21	79.18	79.92	71.53
	3회	396	80.05	79.75	79.04	80.01	70.97
	4회 이상	746	77.77	78.05	77.97	78.68	69.91
	없음	5,931	78.44	78.02	77.07	77.88	69.28
	무응답	986	78.23	78.39	78.37	78.26	70.34
평균비교(ANOVA) 결과			5.379 ***	5.942 ***	4.973 ***	6.390 ***	8.695 ***

*** p<0.01, ** p<0.05, * p<0.1

2) 교수차원 항목별 평균비교

- 재정지원사업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의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진행 흥미성에 대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LINC+ 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11] 대학재정지원사업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대학재정지원 사업별	LINC+	4,356	79.68	78.88	79.96
	비LINC+	7,528	80.07	76.50	77.33
평균비교(t-test) 결과			1.00	6.148 ***	6.134 ***

*** p<0.01, ** p<0.05, * p<0.1

- 재정지원사업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모든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의 항목은 LINC+ 지원사업만 지원받는 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업진행 흥미성은 창업선도대학만 지원받는 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2] 재정지원 + 창업선도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재정지원+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747	82.37	80.64	81.34
	창업선도대	793	83.25	79.21	79.80
	LINC+ & 창업선도대	1,609	75.08	75.87	77.61
	일반대	6,735	79.70	76.18	77.03
평균비교(ANOVA) 결과			49.455 ***	36.634 ***	25.418 ***

*** p<0.01, ** p<0.05, * p<0.1

- 설립유형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모든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13] 설립유형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설립유형별	국공립	1,843	82.91	82.01	81.58
	사립	10,041	79.38	76.52	77.69
평균비교(t-test) 결과			7.030 ***	11.570 ***	7.153 ***

*** p<0.01, ** p<0.05, * p<0.1

○ 학교구분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의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진행 흥미성에 대한 평균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14] 학교구분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학교구분별	종합대	7,207	79.91	78.97	79.89
	전문대	4,677	79.96	74.90	75.83
평균비교(t-test) 결과			0.129	10.680 ***	9.558 ***

*** p<0.01, ** p<0.05, * p<0.1

○ 권역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모든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경/강원권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15] 권역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권역별	수도권	4,703	79.13	75.69	76.81
	충청권	2,093	78.99	78.30	79.75
	호남/제주권	1,572	78.56	76.10	78.02
	대경/강원권	2,112	83.25	80.67	80.98
	동남권	1,404	80.54	78.05	77.35
평균비교(ANOVA) 결과			18.413 ***	25.044 ***	15.379 ***

*** p<0.01, ** p<0.05, * p<0.1

- 성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모든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16] 성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성별	남성	6,318	80.94	78.97	80.10
	여성	5,089	78.65	75.51	76.05
	무응답	477	80.15	76.10	78.34
평균비교(ANOVA) 결과			17.155 ***	41.865 ***	45.501 ***

*** p<0.01, ** p<0.05, * p<0.1

- 학년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모든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학년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무응답 제외)

[표 III-17] 학년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학년별	1학년	4,001	79.56	76.36	77.05
	2학년	3,724	79.57	76.15	77.60
	3학년	1,768	81.14	79.80	80.15
	4학년	1,735	79.70	79.38	79.91
	무응답	656	81.53	78.60	80.49
평균비교(ANOVA) 결과			3.132 **	17.002 ***	10.656 ***

*** p<0.01, ** p<0.05, * p<0.1

- 전공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모든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상경계열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18] 전공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78.71	76.67	78.16
	상경계열	1,042	81.48	79.84	81.45
	공학계열	3,388	80.28	78.14	79.26
	자연계열	1,413	79.90	78.26	78.42
	의학계열	697	79.53	73.84	73.29
	예체능계열	1,137	81.28	76.90	77.43
	기타	662	79.89	76.33	76.01
	무응답	378	79.59	75.96	77.38
평균비교(ANOVA) 결과			3.257 ***	7.410 ***	9.993 ***

*** p<0.01, ** p<0.05, * p<0.1

- 수강빈도별 교수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등 모든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2회를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게 나타남.

[표 III-19] 수강 빈도별 교수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진행 흥미성	다양한 매체활용 적극성	적극적 학습 동기부여
전체		11,884	79.93	77.37	78.29
수강 빈도별	1회	2,720	80.55	77.08	78.02
	2회	1,105	82.61	79.89	81.15
	3회	396	79.38	79.12	80.77
	4회 이상	746	78.66	76.92	78.55
	없음	5,931	79.27	77.08	77.71
	무응답	986	80.32	76.70	78.13
평균비교(ANOVA) 결과			6.040 ***	4.611 ***	5.355 ***

*** p<0.01, ** p<0.05, * p<0.1

3) 창업이해/기여 차원 항목별 평균비교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타과목대비 수업흥미 성에서만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LINC+ 지원대학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0]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대학재정지원사업별	LINC+	4,356	79.62	76.07	76.85	78.75
	비LINC+	7,528	79.33	76.68	76.62	77.65
평균비교(t-test) 결과			0.806	1.543	0.576	2.858 ***

*** p<0.01, ** p<0.05, * p<0.1

○ 재정지원+창업선도여부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의 항목은 LINC+ 지원사업만 지원받는 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항목은 창업선도대학 사업만 지원받는 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1] 재정지원+창업선도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재정지원+창업선도여부별	LINC+	2,747	82.23	77.33	78.03	80.67
	창업선도대	793	81.02	76.59	81.65	79.08
	LINC+ & 창업선도대	1,609	75.16	73.93	74.84	75.48
	일반대	6,735	79.13	76.69	76.03	77.48
평균비교(ANOVA) 결과			52.589 ***	10.300 ***	26.529 ***	26.706 ***

*** p<0.01, ** p<0.05, * p<0.1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지식/기술습득,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흥미성 등의 항목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2] 설립유형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설립유형별	국공립	1,843	81.45	76.92	79.53	81.13
	사립	10,041	79.06	76.37	76.19	77.49
평균비교(t-test) 결과			5.274 ***	1.061	6.692 ***	7.467 ***

*** p<0.01, ** p<0.05, * p<0.1

- 학교구분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 대비 수업흥미성 등의 항목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식/기술 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3] 학교구분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학교구분별	종합대	7,207	79.50	76.47	77.61	79.17
	전문대	4,677	79.34	76.43	75.31	76.33
평균비교(t-test) 결과			0.465	0.124	6.021 ***	7.521 ***

*** p<0.01, ** p<0.05, * p<0.1

- 권역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대경/강원권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4] 권역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권역별	수도권	4,703	78.82	75.41	76.30	77.30
	충청권	2,093	76.98	75.46	76.24	78.48
	호남/제주권	1,572	78.87	73.50	75.77	76.76
	대경/강원권	2,112	82.93	79.82	78.76	80.57
	동남권	1,404	80.51	79.66	76.71	77.62
평균비교(ANOVA) 결과			31.173 ***	36.309 ***	6.940 ***	11.889 ***

*** p<0.01, ** p<0.05, * p<0.1

○ 성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5] 성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성별	남성	6,318	80.61	77.55	78.34	79.93
	여성	5,089	78.06	75.09	74.78	75.83
	무응답	477	78.47	76.48	75.57	76.94
평균비교(ANOVA) 결과			27.534 ***	20.843 ***	44.085 ***	59.209 ***

*** p<0.01, ** p<0.05, * p<0.1

○ 학년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학년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6] 학년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학년별	1학년	4,001	79.38	76.78	75.80	77.36
	2학년	3,724	78.55	75.67	76.51	76.79
	3학년	1,768	80.68	76.70	78.12	80.02
	4학년	1,735	79.77	76.60	77.39	79.63
	무응답	656	80.53	77.89	77.71	80.03
평균비교(ANOVA) 결과			4.874 ***	2.564 **	5.077 ***	13.306 ***

*** p<0.01, ** p<0.05, * p<0.1

○ 전공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 모든 항목에서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상경계열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7] 전공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78.69	75.04	77.03	77.57
	상경계열	1,042	80.56	78.41	79.57	80.87
	공학계열	3,388	80.21	76.42	77.42	79.22
	자연계열	1,413	79.29	78.41	76.83	78.62
	의학계열	697	78.57	78.00	72.36	72.93
	예체능계열	1,137	79.32	75.49	75.75	77.51
	기타	662	78.69	76.68	73.99	75.78
	무응답	378	79.40	75.57	74.91	76.89
평균비교(ANOVA) 결과			2.522 **	6.516 ***	10.698 ***	12.917 ***

*** p<0.01, ** p<0.05, * p<0.1

○ 수강 빈도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지식/기술습득,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의적사고/도전정신 향상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지식/기술습득 항목은 2회를 수강한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진로선택 직접적 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항목은 3회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8] 수강 빈도별 창업이해/기여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지식/기술습득	창의적사고 /도전정신 향상	진로선택 직접적도움	타과목대비 수업흥미성
전체		11,884	79.43	76.45	76.71	78.05
수강 빈도별	1회	2,720	79.99	76.37	76.96	77.82
	2회	1,105	81.68	77.42	78.19	79.45
	3회	396	80.17	77.31	78.28	80.38
	4회 이상	746	79.26	76.38	78.13	78.12
	없음	5,931	78.57	76.11	75.88	77.74
	무응답	986	80.43	77.38	77.64	78.04
평균비교(ANOVA) 결과			7.050 ***	1.401	4.827 ***	2.479 **

*** p<0.01, ** p<0.05, * p<0.1

4) 교재/수업내용 차원 항목별 평균비교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 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LINC+ 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29] 대학재정지원사업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 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대학재정지원 사업별	LINC+	4,356	80.58	77.67	77.10	77.95	80.18	81.01
	비LINC+	7,528	79.01	75.21	74.91	77.04	80.73	79.89
평균비교(t-test) 결과			4.295 ***	6.033 ***	5.492 ***	2.352 **	1.374	2.701 ***

*** p<0.01, ** p<0.05, * p<0.1

○ 재정지원+창업선도여부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 모든 항목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교재 유용성 항목은 LINC+ 지원사업만 지원받는 대학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물리적환

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등의 항목에서는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만 지원받는 대학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수업난이도/속도 적절성 항목은 LINC+와 창업선도대학을 동시에 지원받는 대학에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0] 재정지원+창업선도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재정지원+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747	79.88	79.39	77.45	76.85	80.64	81.30
	창업선도대	793	79.41	77.22	79.33	80.30	83.03	81.45
	LINC+ & 창업선도대	1,609	81.79	74.73	76.50	79.85	79.40	80.50
	일반대	6,735	78.97	74.98	74.39	76.65	80.45	79.70
평균비교(ANOVA) 결과			9.642 ***	30.336 ***	23.957 ***	16.723 ***	5.534 ***	4.437 ***

*** p<0.01, ** p<0.05, * p<0.1

○ 설립유형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목적 파악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국공립 대학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1] 설립유형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설립유형별	국공립	1,843	81.18	79.70	78.34	77.80	81.34	80.45
	사립	10,041	79.30	75.46	75.23	77.30	80.38	80.27
평균비교(t-test) 결과			3.977 ***	8.103 ***	5.858 ***	0.965	1.835 *	0.324

*** p<0.01, ** p<0.05, * p<0.1

○ 학교구분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 모든 항목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항목은 전문대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종합대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2] 학교구분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 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학교구분별	종합대	7,207	80.61	77.69	76.80	78.38	80.20	80.84
	전문대	4,677	78.02	73.69	74.03	75.83	81.03	79.46
평균비교(t-test) 결과			7.416 ***	9.739 ***	7.012 ***	6.549 ***	2.160 **	3.414 ***

*** p<0.01, ** p<0.05, * p<0.1

○ 권역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 모든 항목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항목은 충청권에서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대경/강원권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3] 권역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 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권역별	수도권	4,703	79.62	74.59	74.12	74.56	79.59	79.19
	충청권	2,093	81.64	77.27	77.63	79.01	80.51	81.09
	호남/제주권	1,572	79.92	75.72	74.96	79.01	78.98	80.38
	대경/강원권	2,112	80.14	79.43	77.87	79.73	82.88	81.44
	동남권	1,404	75.22	74.96	75.79	78.96	81.89	81.02
평균비교(ANOVA) 결과			24.781 ***	21.045 ***	17.231 ***	37.695 ***	13.032 ***	5.598 ***

*** p<0.01, ** p<0.05, * p<0.1

○ 성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목적 파악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남성의 만족도가 모든 항목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4] 성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 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성별	남성	6,318	80.41	78.21	76.87	77.41	81.76	81.23
	여성	5,089	78.66	73.53	74.32	77.44	79.13	79.12
	무응답	477	78.61	75.85	75.22	76.13	79.06	80.53
평균비교(ANOVA) 결과			12.440 ***	66.706 ***	21.013 ***	0.922	24.297 ***	13.361 ***

*** p<0.01, ** p<0.05, * p<0.1

- 권역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 모든 항목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항목은 2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는 3학년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등의 항목은 4학년의 만족도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5] 학년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 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학년별	1학년	4,001	79.26	74.71	74.57	75.99	80.44	79.42
	2학년	3,724	79.03	75.70	75.40	76.53	81.08	80.01
	3학년	1,768	80.09	77.94	76.90	79.29	80.75	81.77
	4학년	1,735	80.93	78.07	77.12	80.63	79.16	80.98
	무응답	656	79.87	76.95	77.53	76.82	80.96	81.52
평균비교(ANOVA) 결과			3.529 ***	11.565 ***	7.757 ***	21.323 ***	2.710 **	4.787 ***

*** p<0.01, ** p<0.05, * p<0.1

- 전공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 모든 항목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교재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항목에서는 상경계열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항목에서는 공학계열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항목은 자연계열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36] 전공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 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3,167	79.04	75.63	75.11	78.07	79.48	80.60
	상경계열	1,042	82.15	79.06	77.36	79.70	80.30	80.75
	공학계열	3,388	80.88	78.28	76.97	76.32	83.00	80.92
	자연계열	1,413	79.50	76.16	76.99	77.34	80.99	81.24
	의학계열	697	75.26	69.75	71.20	78.67	78.19	77.23
	예체능계열	1,137	79.50	75.12	75.49	77.75	80.70	80.51
	기타	662	77.81	72.02	73.63	75.55	75.35	76.78
	무응답	378	77.24	74.33	72.79	74.38	78.88	78.65
평균비교(ANOVA) 결과			11.893 ***	20.815 ***	10.379 ***	6.112 ***	15.924 ***	5.736 ***

*** p<0.01, ** p<0.05, * p<0.1

○ 수강 빈도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교재유용성, 물리적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등의 항목에서는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수업난이도/속도적절성 항목에서는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항목은 2회를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은 3회를 수강한 학생들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7] 수강 빈도별 교재/수업내용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수업난이도/ 속도적절성	교재 유용성	물리적 환경(강의실) 학습기여	수업 목적 파악	창업관련 정보제공 다양성	시험/평가 수업목표 반영도
전체		11,884	79.59	76.11	75.71	77.37	80.53	80.30
수강 빈도별	1회	2,720	79.35	75.58	75.21	77.24	80.71	80.33
	2회	1,105	80.17	78.06	78.50	78.77	82.18	81.85
	3회	396	81.55	78.19	78.07	78.91	80.97	82.36
	4회 이상	746	80.44	76.43	75.06	77.86	81.16	81.14
	없음	5,931	79.42	75.78	75.26	76.99	80.19	79.67
	무응답	986	79.18	76.32	76.25	77.48	79.52	80.82
평균비교(ANOVA) 결과			4.587	3.187 ***	6.026 ***	2.005 *	2.408 **	3.181 ***

*** p<0.01, ** p<0.05, * p<0.1

5) 창업인식 차원 항목별 평균비교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의 항목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지만, 창업실패 두려움은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창업의지는 비LINC+ 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항목에서는 LINC+ 지원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8]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6	77.80	78.15	76.42	63.38	34.43	78.89	82.49
	비LINC+	7,528	76.66	75.29	73.71	70.43	34.72	77.56	78.82
평균비교(t-test) 결과			2.686 ***	7.368 ***	6.368 ***	12.606 ***	0.581	3.160 ***	9.540 ***

*** p<0.01, ** p<0.05, * p<0.1

○ 재정지원+창업선도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등의 항목은 LINC+ 지원사업만 지원 받는 대학의 평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실패 두려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등의 항목은 LINC+와 창업선도대학 사업을 모두 지원 받는 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창업의지의 경우 지원을 받지 않는 일반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39] 재정지원+창업선도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재정지원+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747	79.16	79.05	78.91	65.13	33.66	80.31	82.46
	창업선도대	793	78.20	77.66	74.00	59.37	35.16	78.54	79.48
	LINC+ & 창업선도대	1,609	75.49	76.62	72.16	60.41	35.74	76.46	82.55
	일반대	6,735	76.48	75.01	73.67	71.73	34.66	77.44	78.74
평균비교(ANOVA) 결과			13.066 ***	26.376 ***	44.469 ***	109.389 ***	2.365 *	13.774 ***	29.296 ***

*** p<0.01, ** p<0.05, * p<0.1

○ 설립유형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의 항목은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났지만, 창업실패 두려움은 평균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창업의지 항목의 경우 사립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외 모든 항목은 국공립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0] 설립유형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설립유형별	국공립	1,843	78.97	77.67	76.22	60.22	35.51	80.46	81.31
	사립	10,041	76.74	76.10	74.42	69.25	34.44	77.60	79.96
평균비교(t-test) 결과			4.125 ***	3.172 ***	3.165 ***	11.775 ***	1.576	5.367 ***	2.789 ***

*** p<0.01, ** p<0.05, * p<0.1

○ 학교구분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항목은 전문대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외 모든 항목에서는 종합대학이 높은 것을 나타남.

[표 III-41] 학교구분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학교구분별	종합대	7,207	78.23	77.96	75.85	64.14	34.25	79.55	82.37
	전문대	4,677	75.31	73.85	72.93	73.57	35.17	75.73	76.77
평균비교(t-test) 결과			6.961 ***	10.554 ***	6.931 ***	18.108 ***	1.909 *	9.057 ***	14.141 ***

*** p<0.01, ** p<0.05, * p<0.1

- 권역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은 충청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실패 두려움은 호남/제주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은 대경/강원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창업의지는 동남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2] 권역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권역별	수도권	4,703	76.36	74.90	73.72	69.79	34.73	77.84	78.25
	충청권	2,093	78.23	78.11	75.31	61.88	33.71	80.00	84.99
	호남/제주권	1,572	74.87	76.40	73.32	65.26	36.17	75.47	78.44
	대경/강원권	2,112	79.83	78.15	78.81	68.22	33.48	79.73	81.82
	동남권	1,404	76.15	75.76	72.42	72.60	35.52	76.18	78.84
평균비교(ANOVA) 결과			15.292 ***	13.989 ***	25.619 ***	40.664 ***	3.514 ***	14.646 ***	46.521 ***

*** p<0.01, ** p<0.05, * p<0.1

- 성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창업실패 두려움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3] 성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성별	남성	6,318	78.55	77.66	76.65	69.03	33.33	79.28	80.93
	여성	5,089	75.21	74.76	72.08	66.23	36.30	76.48	79.27
	무응답	477	77.56	75.75	76.76	69.49	33.55	78.37	79.66
평균비교(ANOVA) 결과			32.153 ***	28.112 ***	61.043 ***	13.995 ***	18.970 ***	21.913 ***	9.257 ***

*** p<0.01, ** p<0.05, * p<0.1

○ 학년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주관적 창업의지는 1학년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창업실패 두려움은 3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등은 4학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4] 학년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학년별	1학년	4,001	75.63	75.39	74.34	69.62	34.80	76.86	78.29
	2학년	3,724	76.87	75.82	73.61	67.99	35.16	76.95	80.30
	3학년	1,768	78.70	77.78	75.80	65.73	35.25	79.95	81.41
	4학년	1,735	78.41	77.95	75.49	65.30	33.20	80.69	82.79
	무응답	656	79.29	76.96	78.07	68.67	32.37	79.39	80.56
평균비교(ANOVA) 결과			9.834 ***	7.659 ***	7.769 ***	9.654 ***	3.238 **	14.833 ***	16.901 ***

*** p<0.01, ** p<0.05, * p<0.1

○ 전공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대학의 창업기회 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등은 상경계열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는 공학계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주관적 창업의지는 의학계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실패 두려움은 예체능 계열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표 III-45] 전공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167	76.82	76.46	73.22	65.29	35.63	79.11	81.29
	상경계열	1,042	79.23	78.69	77.04	65.06	32.46	81.17	83.14
	공학계열	3,388	78.01	77.07	76.92	66.47	33.29	78.94	80.47
	자연계열	1,413	77.77	76.59	74.10	67.17	35.07	77.47	82.07
	의학계열	697	74.24	72.31	71.45	75.80	36.06	72.69	74.27
	예체능계열	1,137	76.34	76.05	74.18	72.09	36.22	75.96	79.26
	기타	662	73.78	73.69	71.57	75.53	35.80	74.34	73.01
	무응답	378	75.70	74.34	76.15	71.07	32.54	77.33	78.92
평균비교(ANOVA) 결과			6.612 ***	8.514 ***	12.768 ***	24.754 ***	4.546 ***	14.587 ***	26.389 ***

*** p<0.01, ** p<0.05, * p<0.1

○ 전공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에 대한 평균비교 분석을 수행한 결과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 등 모든 항목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차이가 나타남.

- 창업실패 두려움은 1회 수강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관심/의지향상 기여도,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은 2회 수강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선배창업자 긍정적 평가, 창업 성공 스토리 접근은 3회 수강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관적 창업의지는 4회 이상 수강한 학생들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III-46] 수강빈도별 창업인식 차원 요인별 평균비교

단위: 명, 점

구분	내용	사례 수	창업관심/ 의지향상 기여도	대학의 창업 기회제공	주관적 사업기술/ 지식함양	주관적 창업의지 (3년이내)	창업실패 두려움	선배창업자 긍정적평가	창업성공 스토리 접근
전체		11,884	77.08	76.34	74.70	67.85	34.61	78.05	80.17
수강 빈도별	1회	2,720	77.17	76.14	75.13	68.58	36.02	77.61	79.08
	2회	1,105	79.16	78.55	77.40	71.29	31.67	80.25	82.38
	3회	396	77.90	79.08	74.58	69.82	32.45	80.38	82.61
	4회 이상	746	77.70	75.94	74.64	71.53	33.18	76.65	79.73
	없음	5,931	76.38	75.76	74.12	65.35	35.30	77.90	80.14
	무응답	986	77.92	77.16	74.07	73.46	31.80	77.77	80.20
평균비교(ANOVA) 결과			3.617 ***	5.315 ***	4.342 ***	22.704 ***	8.627 ***	3.850 ***	5.175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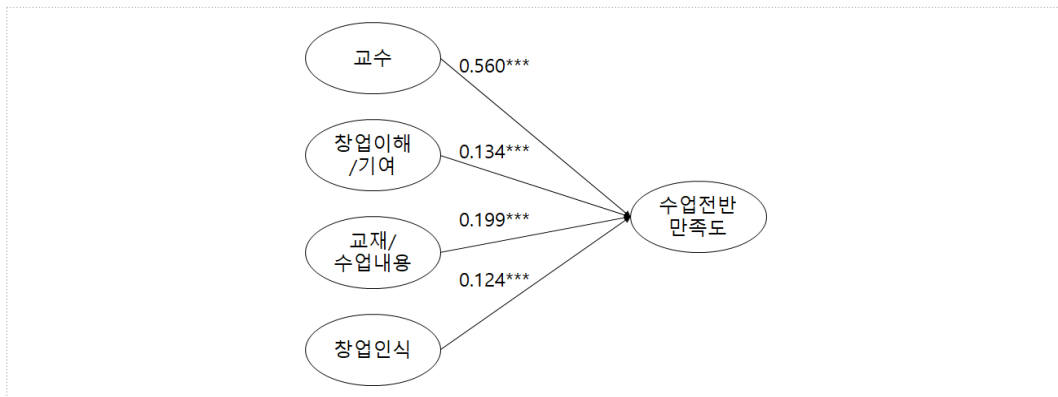
*** p<0.01, ** p<0.05, * p<0.1

3

창업강좌 영향력

- 창업강좌 영향력은 만족도 조사 설문문항으로 분석하였으며,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항목을 기반으로 분석을 실시함.
- 응답자 11,884명을 대상으로 창업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이 중 창업강좌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표준화 계수 기준)에 대해 분석해보면 교수(0.495), 교재/수업내용(0.122), 창업이해/기여(0.098), 창업인식(0.068)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I-1] 창업강좌 영향력 분석결과 - 통합



[표 III-47] 창업강좌 영향력 분석결과 - 통합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상수)	.053	.942	.	0.057	0.955
교수	.560	.012	.495	45.682	0.000
창업이해/기여	.134	.015	.098	8.747	0.000
교재/수업내용	.199	.016	.122	12.803	0.000
창업인식	.124	.016	.068	7.805	0.000

- (LINC+ 지원대학)창업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수, 창업이해/기여, 창업인식 등의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재/수업내용의 경우 유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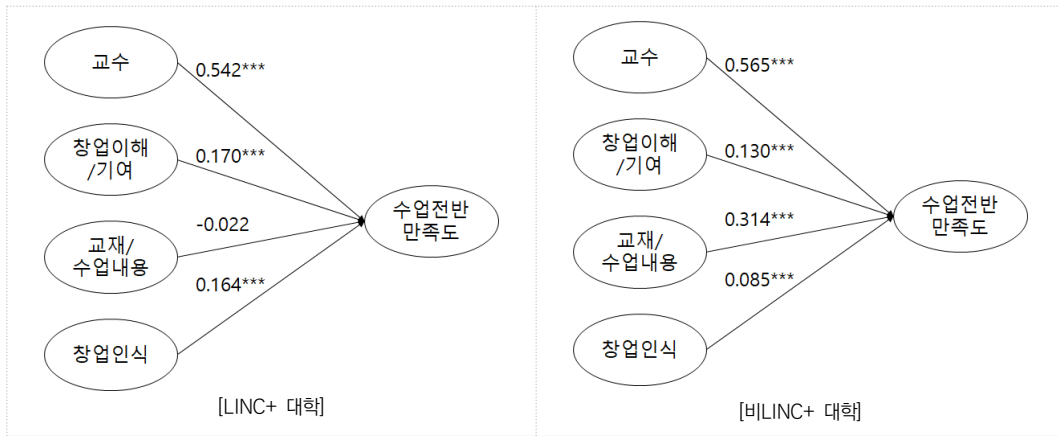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창업강좌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표준화 계수 기준)에 대해 분석해보면 교수(0.509), 창업이해/기여(0.136), 창업인식(0.095)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 (비LINC+ 대학) 창업강좌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교수, 창업이해/기여, 교재/수업내용, 창업인식 등 모든 요인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이 중 창업강좌의 전반적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도(표준화 계수 기준)에 대해 분석해보면 교수(0.485), 교재/수업내용(0.191), 창업이해/기여(0.091), 창업인식(0.046) 등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음.

[그림 III-2] 창업강좌 영향력 분석결과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표 III-48] 창업강좌 영향력 분석결과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LINC+	(상수)	14.909	1.606		9.282	0.000
	교수	.542	.020	.509	26.480	0.000
	창업이해/기여	.170	.025	.136	6.882	0.000
	교재/수업내용	-.022	.026	-.014	-.857	0.392
	창업인식	.164	.025	.095	6.469	0.000
비 LINC+	(상수)	-7.249	1.146		-6.325	0.000
	교수	.565	.015	.485	37.534	0.000
	창업이해/기여	.130	.019	.091	6.750	0.000
	교재/수업내용	.314	.019	.191	16.226	0.000
	창업인식	.085	.020	.046	4.268	0.000

부록_조사표

	ID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학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교육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해당 설문은 무기명으로 처리되며, 응답한 내용은 다른 용도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8. 12

문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기업가정신교육팀 (02-2156-2296 / education@koef.or.kr)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에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1. 학교 명		A2. 학교 권역	수도권 대경·강원권	충청권 동남권	호남·제주권
A3. 과 목 명		A4. 과 목 유형	④ 교양강좌	전공강좌	
B1. 성 별	남성	여성	B2. 학년	학년	학년
B3. 전 공 (1개만 선택)	인문 사회 교육계열 기타	상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B4. 수강 동기 (복수 선택 가능)	창업 관심 주위 추천	학점 이수 기타	B5. 창업강좌 수강경험	회	회 이상
B6. 창업관련 활동 경험 여부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경진대회	기타	없음

C. 수강하신 강좌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는 문항입니다. 해당하는 질문에 답변을 표시하여 주시면 됩니다.

구분	매우 그렇다	↔	보통 이다	↔	전혀 그렇지 않다
나는 이 수업에 전체적으로 만족한다					
교수는 흥미로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하였다					
교수는 수업내용에 따라 영상 등 다양한 매체를 적절히 활용하였다					
교수는 내가 학습에 최선을 다하도록 동기를 불러 넣었다					
창업에 대한 다양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창의적인 사고와 도전정신이 높아졌다					
이 수업은 진로선택에 직접적인 도움이 되었다					
다른 과목에 비하여 수업에 참여하는 것이 흥미로웠다					
이 수업의 난이도와 속도는 적절하였다					
교재는 이 수업에 유용하였다					
강의실 물리적 환경은 학습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나는 이 수업에서 배워야 할 것이 무언인지 파악하고 있다					
이 수업은 창업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시험 및 평가는 수업의 목표를 잘 반영하였다					
이 수업을 통해 창업에 대한 관심과 의지가 높아졌다					
우리 대학은 나에게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를 제공한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나는 년 이내 사업을 시작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창업 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D. 창업교육 주변 환경

부모님 및 친인척이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없다
동료 및 선배 중에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했던 경험이	있다	없다
창업초기기업 창업한지 약 년 이내기업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다	없다

E.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인식 여부

우리 대학에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가 있다	있다 없다 문항으로 이동하여 응답
우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인증제 창업학점교류제 등 내용을 알고 있다	이주 잘 알고 있다 잘 알고 있다 어느 정도 알고 있다 들어봤으나 내용은 잘 모른다 전혀 모른다
알고 있다 인 경우 이 제도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지	경험이 있다 문항 응답 경험이 없다 아직 없지만 졸업 전에 활용할 예정이다 문항으로 이동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만족도	매우 만족 만족 보통 불만족 매우 불만족
모르고 있거나 알고 있지만 활용 계획이 없는 경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는지	홍보 부족 관심 부족 절차 복잡 신청 자격의 까다로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전공 학점에 대한 부담 주변의 부정적 시선 기타

F. 진로 의향에 대하여 해당되는 사항에 표시해 주십시오.

나는 졸업 직후 다음과 같은 진로를 희망한다	중소기업 취직 대기업 취직 창업 사업 승계 프리랜서 공무원 미정 기타
나는 졸업 년 후 다음과 같은 진로를 희망한다	중소기업 취직 대기업 취직 창업 사업 승계 프리랜서 공무원 미정 기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2018 대학 창업교육 백서

Chapter 4

2018년도 창업강좌 효과성 조사결과

요약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강좌 수강행태

제3장 창업 교육 효과분석



| 요약 |

1

응답 개요 및 현황

□ 조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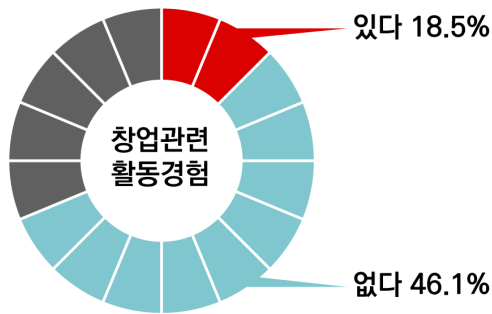
- 창업강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제 창업강좌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는 창업강좌를 듣기 이전과 이후의 창업과 관련된 다양한 측면들의 변화를 측정해 효과성을 확인하고자 함.

차원	측정 지표(문항)	
조사대상	45개 대학의 창업강좌 수강생	
조사방법	- 오프라인 설문 조사	- 자기 기입식 응답이 가능한 설문 조사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9문항	
자료처리/분석방법	- SPSS 21.0 및 EXCEL을 활용한 분석	-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
유효표본	- 사전 7,826개	- 사후 5,598개
조사기간	2018년 9~12월	
조사항목	- 기업가적 역량 6개 항목 - 기업가적 의도 5개 항목	- 기업가적 태도 10개 항목 - 창업환경/기업가 인식 8개 항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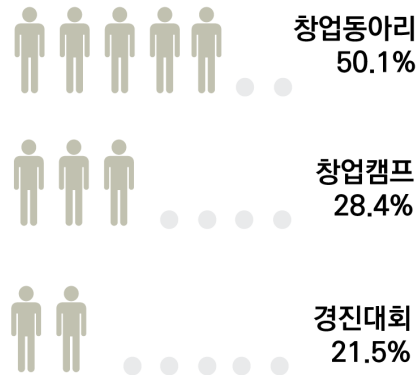
□ 창업관련 활동 경험

- 기존에 창업 관련 활동을 경험해본 응답자는 약 18.5%로 나타났으며, 창업동아리에 대한 경험(50.1%) 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의향이 있다는 응답자는 23.2%로 나타났으며, 창업 동기는 수입증대(26.9%)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동기는 수입증대, 자아실현, 직장 내 자유 등이 주요한 이유로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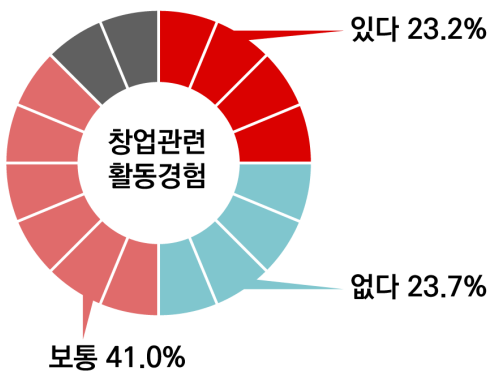
창업관련 활동 경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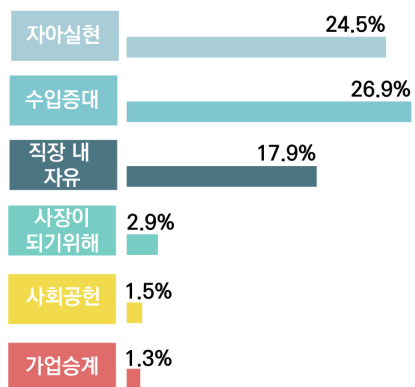
창업관련 활동 경험 유형



창업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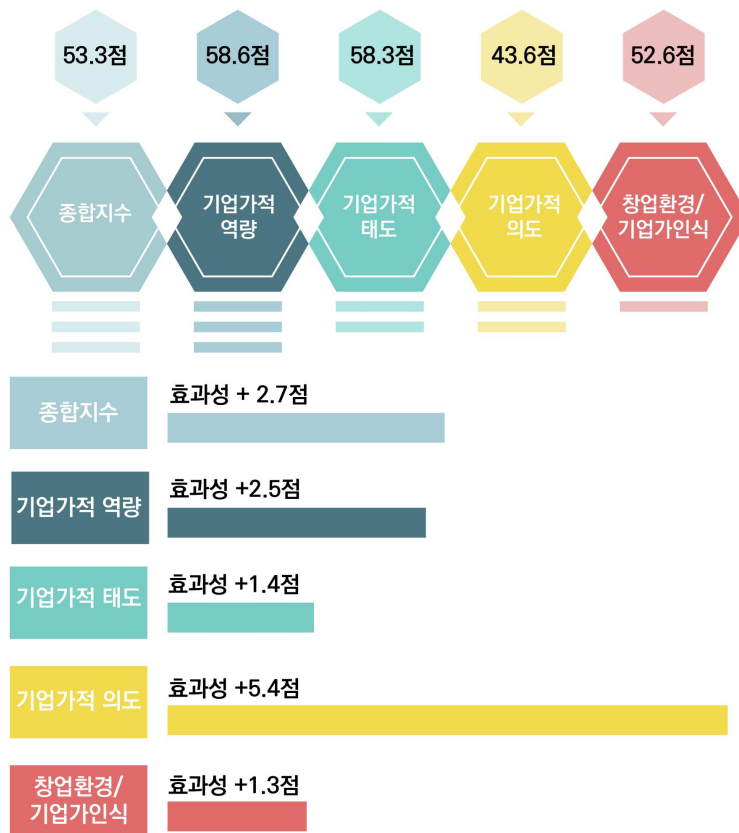
창업동기



2 세부 효과성 분석 결과(사전-사후 매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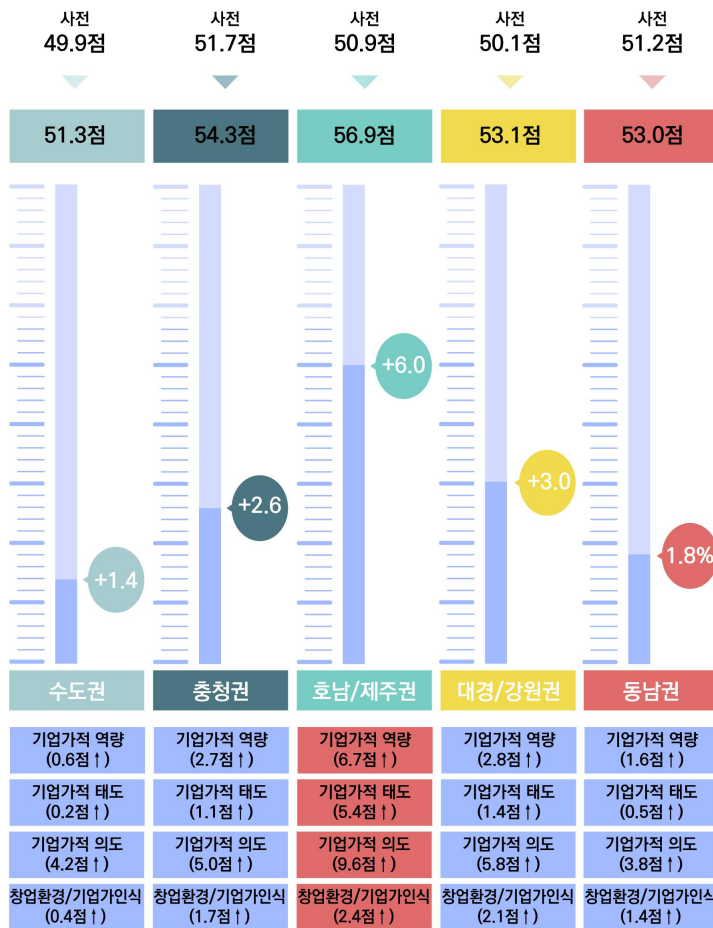
※ 본 보고서에서는 창업교육 수강 이전과 이후를 편의상 각각 사전, 사후로 명시함

- 사전-사후 매칭 집단의 종합지수는 약 2.7점 상승하였으며, 집단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기업가적 의도에 대한 변화율이 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환경/기업가 인식이 1.3점으로 변화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사전/사후 비교분석

- 2018년도 창업강좌 권역별 효과성 분석에서는 호남/제주권의 효과성이 사전 대비 사후가 6.0점 상승해 전 지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역량(6.7점), 기업가적 태도(5.4점), 기업가적 의도(9.6점), 창업환경/기업가인식(2.4점)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호남/제주권의 창업강좌에 대한 효과성이 높게 나타남.
- 뒤를 이어 대경/강원권이 3.0점, 충청권이 2.6점, 동남권이 1.8점, 수도권이 1.4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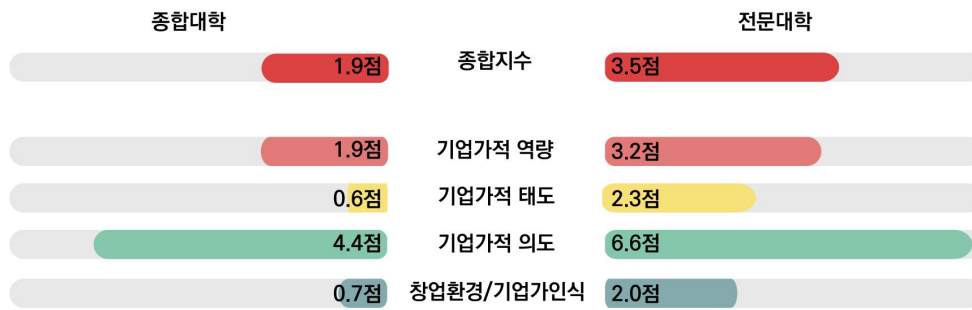
□ LINC+지원여부별/학제구분별 사전/사후 비교분석

- 특히 사전-사후 집단의 대학재정지원사업별 효과성 분석 결과 사후의 평균값은 대체적으로 LINC+ 지원 대학이 높게 나타났으나 비LINC+ 대학 집단의 사전 대비 사후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LINC+ 지원 대학의 경우 사전보다 다소 높은 사전 평균값을 보이고 있어,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미미한 것으로 보임.
- 사전-사후 집단의 학제구분별 효과성 분석 결과 전문대학의 효과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 특히 전문대학의 기업가적 의도의 경우 사전-사후 효과성이 약 6.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LINC+ 지원여부별 GAP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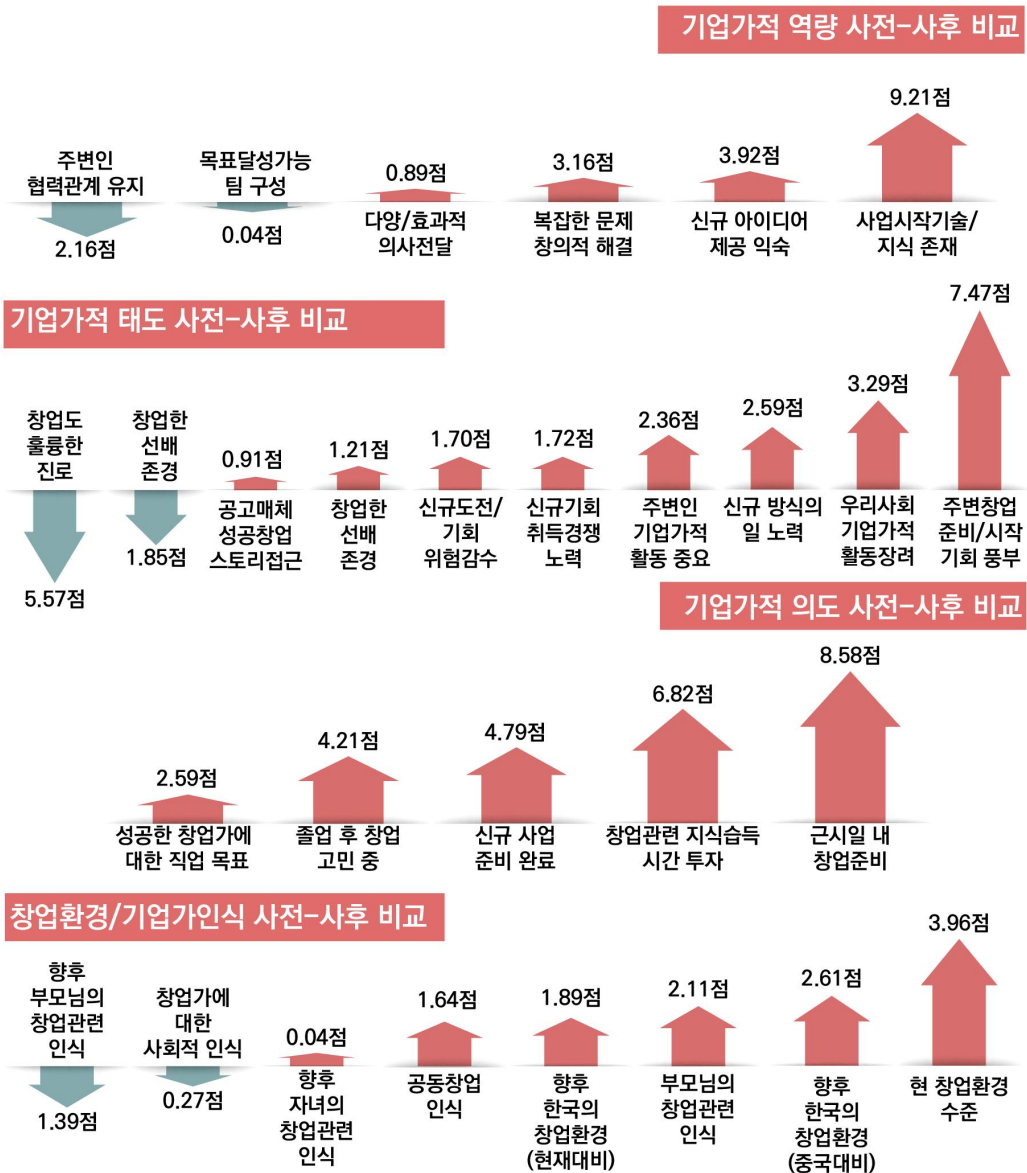


학제구분별 GAP 분석



□ 사전-사후 효과성 분석

○ 사전-사후가 매칭된 표본 집단의 항목별 효과성을 분석한 결과, 사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창업환경/기업가 인식 차원에서 각 2개 항목씩만 감소한 수치를 나타내고, 그 외 항목은 모두 효과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창업의향에 영향을 주는 유의미한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창업강좌 수강 이전과 이후의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기업가인식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함.

- 사전의 경우 기업가적 역량, 태도, 의도 및 창업환경/기업가인식이 높아질수록 창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적 역량의 경우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됨.
- 사후의 경우 기업가적 태도 및 기업가적 의도요인이 창업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 제1장 | 조사 개요

1

배경 및 필요성

1) 배경 및 필요성

□ 창업의 중요성 증대

- (국정과제) 문재인 정부는 ‘더불어 잘사는 경제’를 위해 ‘혁신을 응원하는 창업국가 조성(국정과제 39번)’을 적극 추진 중임.
- (정책)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마련(‘17.11월)하여 현 정부의 창업정책 방향을 수립하였고, 일자리 위원회에서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18.3월)’,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18.5월)’ 등을 발표함.
 -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 조성, 벤처확인제도를 혁신·성장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 성공 가능성이 높은 사내·분사창업 활성화,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10년 만에 부활,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우리사주 소득공제 한도 확대 등 세제지원 제도 도입 등의 지원을 제공하고 있음.
 - ① 창업경진대회 등을 통해 스타창업자를 발굴하고, 유망기업의 성장 촉진을 위해 R&D, 투자 등 일관 지원 강화, ② 참신한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창업을 촉진하고, 소셜벤처 창업 활성화, ③ 세금 등 창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창업마을 조성 등을 통해 자율적 교류·협업 생태계 구축

- 혁신모험 펀드 조성, 사내벤처 지원 프로그램 등 기 수립한 각종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 특히, 오픈 바우처, 청년창업사관학교 등 추경안 반영 사업은 국회 통과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 최근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①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촉진, ② 성공사례 창출, ③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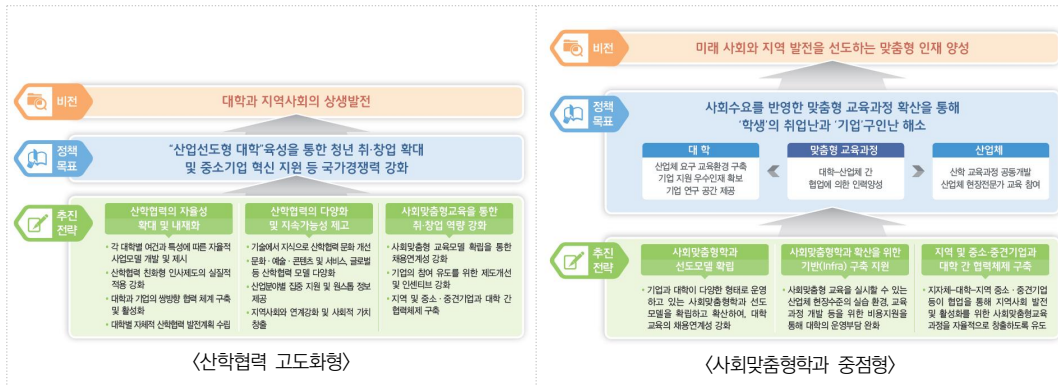
□ 창업의 교육의 필요성 확대

- 창업 지원 및 창업 교육에 대한 니즈가 높아져 다양한 지원 및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된 교육은 실질적 창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음.
 - 이에 OECD 뿐만 아니라 국내 역시 고등교육기관을 중심으로 기업가정신 및 창업과 관련 된 교육이 활발해지고 있는 상황임.
-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와 개인의 성장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고용위기 이후 높아진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잠재적 동인이기에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청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및 교육은 자신감과 역량 개발 등 인적자본에 대한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인적인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교육부는 제1차 대학창업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창업 교육을 확대하고, 창업 전담 교원을 증대시켰으며, 학생의 창업 도전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노력을 전개함.
 - 특히 창업 휴학제,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 학점 교류제 등의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시행 대학 및 수혜학생이 대폭 증대되었음.
 - 또한 2016년도의 창업강좌 개설 대학 수 및 창업강좌 수강 인원은 2012년 대비 약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와 같은 성과를 창출한 교육부는 최근 제2차 대학창업교육 활성화 추진 계획을 통해 보다 높은 성과를 창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표 I-1]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시행대학 및 수혜 학생 수

유형	2013		2016		증가율		
	시행대학	수혜인원	시행대학	수혜인원	시행대학	수혜인원	
창업 휴학제	68개교	45명	217개교	527명	219%	1,071%	
창업 대체 학점 인정제	창업실습	23개교	-	85개교	2,054명	269%	-
	창업현장실습	23개교	-	93개교	620명	304%	-
창업 학점 교류제	43개교	832명	85개교	7,162명	97%	761%	
	(2015년 실적)						

-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제언을 담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 및 OECD 국가들 역시 국가별 심층 평가 프로젝트 및 실태 조사,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창업강좌가 개인 혹은 사회에 영향을 주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2013년 이후 교육부는 「산학협력선도대학 육성사업(LINC+) 운영규정」 제20조 또는 「산학협력 선도전문대학 육성사업 운영규정」 제24조에 따라 대학에 체계적인 창업교육 제공을 추진함.



-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함.
- 창업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해당 교육과 관련된 실태를 분석하고, 관련 정책들에 대한 제언을 담은 효과성 분석이 필요한 실정임.
 - 유럽 및 OECD 국가들 역시 국가별 심층 평가 프로젝트 및 실태 조사, 효과성 분석 등을 통해 실제 창업강좌가 개인 혹은 사회에 영향을 주는 효과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고 있음.
 - 따라서 창업강좌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실제 창업강좌가 창업을 하고자 하는 의지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필요가 존재함.

2) 연구 목적

□ 연구목적

- 전국 45개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에서 개설한 창업강좌를 수강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강좌 수강 이전과 이후의 학생들의 기업가적 마인드 변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2018년도에 개설된 창업관련 교양과목, 전공과목, 실습과목 등을 수강하고 이수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효과성 조사를 실시함.
- 기업가정신의 발현을 위한 창업 교육은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와 개인의 성장 효과를 모두 거둘 수 있는 중요한 수단임.
 - 고용위기 이후 높아진 청년층 고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업가정신과 창업에 대한 지원이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유인할 수 있는 잠재적 동인이기에 경제 및 사회 전체 차원에서의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청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 및 교육은 자신감과 역량 개발 등 인적자본에 대한 성향을 심화시킬 수 있어 개인적인 성장 효과를 거둘 수 있음.
- 이에 본 연구는 창업강좌 수강 이전과 이후의 기업가적 마인드 함양의 향상을 확인하여 창업강좌의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함.

□ 재정지원사업별 비교분석

- 본 연구에서는 창업강좌 효과성 요인에 대해 재정지원사업별(LINC+ 지원여부, 창업선도대학 지원여부)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함.
- LINC+ 사업은 산업선도형 대학 육성을 위해 산학협력의 자율성, 다양성 및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사회 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을 통해 대학의 취업역량을 강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표 I-2] LINC+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서	교육부(한국연구재단)
예산	- 2017년: 216,300백만 원 - 2018년: 202,500백만 원
사업개요	- 산학협력 고도화형과 사회맞춤형학과 중점형으로 구분하여 운영 - 산학협력의 자율성 확대 및 다양화, 산학협력의 지속가능성 제고, 산학협력의 개방성 및 확산성 제고, 사회맞춤형 교육 활성화 등을 목표로 재정지원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을 통해 우수한 창업지원 인프라를 갖춘 대학을 창업선도대학으로 지정하여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부터 창업아이템 발굴 및 사업화, 후속지원까지 패키지식으로 지원함.

[표 I-3] 창업선도대학 지원사업 개요

구분	내용
주무부서	중소벤처기업부(창업진흥원)
예산	- 2017년: 92,240백만 원 - 2018년: 89,540백만 원
사업개요	- 창업아이템 사업화, 자율·특화 프로그램, 대학생 창업강좌, 일반인 창업강좌, 창업지원당 및 입소공간 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함. - 특히 창업교육부터 사업화 및 후속지원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함으로써 창업 지원에 대한 효과성을 극대화하고 있음.

- 창업강좌 관련 재정지원사업의 지원여부에 따라 창업강좌 효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함.

2 조사개요

1) 개요

- 2018년 대학 창업강좌 효과성 측정을 위해 2018년 9월부터 12월까지 사전/사후 2번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함.
- 회수된 설문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를 제외한 전체 13,424개의 유효 표본을 분석하였고, 이 중 사전과 사후 모두 응답한 3,282개(각 1,641개)의 유효 표본을 대상으로 사전-사후 비교 분석을 실시함.
- 설문조사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표 I-4] 조사 및 분석 내용 개요

차원	측정 지표(문항)
조사대상	- 45개 대학의 창업강좌 수강생
조사방법	- 오프라인 설문 조사 - 자기 기입식 응답이 가능한 설문 조사
자료수집도구	-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29문항
자료처리/분석방법	- SPSS 21.0 및 EXCEL을 활용한 분석 - 빈도분석, 요인분석, 신뢰도분석, 회귀분석을 실시
유효표본	- 사전 7,826개 - 사후 5,598개
조사기간	2018년 9월~12월

2) 조사내용

- 본조사의 설문 내용은 크게 창업교육 전후의 기업가적 역량과 태도, 의도, 창업환경/인식으로 구분하여 조사함.
 - 창업 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역량향상은 6개 문항, 태도는 10개 문항, 의지는 5개 문항, 창업환경/인식은 8개 문항으로 구분하여 분석을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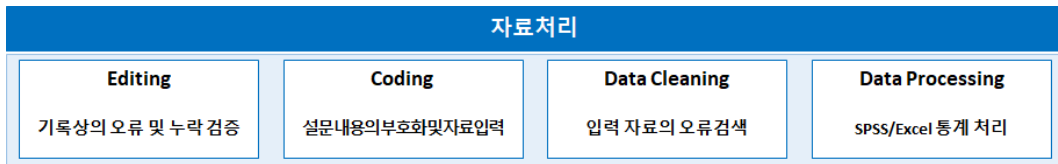
[표 I-5] 측정 내용 개요

구분		측정 내용	문항
학교/과목특성		학교권역, 과목유형, 학교명, 과목명	A1 - A4
수강생특성		성별, 학년, 전공, 수강동기, 수강빈도	B1 - B5
창업활동/의향		창업관련활동, 향후 창업의사, 창업동기, 창업분야	B6 - B9
창업교육 효과	기업가적 역량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C1 - C6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	
	기업가적 태도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D1 - D10
		나의 주변에는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창업도 훌륭한 진로(혹은 경력)의 하나라고 본다.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기업가적 의도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E1 - E5
		우리 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	
	창업환경 /인식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F1 - F8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는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	
		현재의 창업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중국에 비해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F1 - F8	
귀하의 부모님은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의 자녀가 창업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만약 귀하의 부모님이 창업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공동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3) 자료처리 및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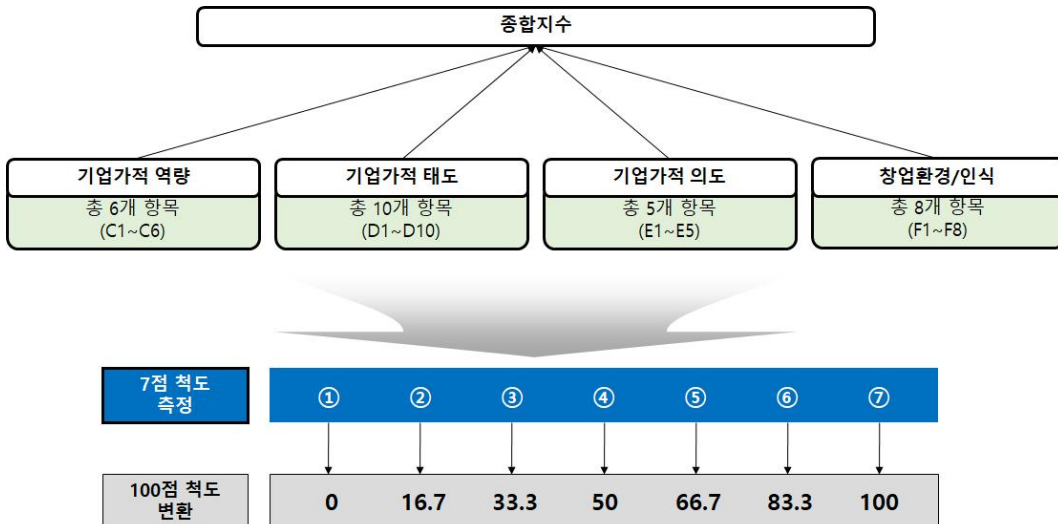
- 수집된 데이터는 통계적 유의성 검증 작업을 거쳐 분석됨.
 - 최종 확인과 검증을 거친 자료에 대해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교차분석, 요인분석, 평균값, 분산분석 등의 통계분석을 실시함.

[그림 I-1] 자료처리 방법



- 7점 리커트 척도로 조사된 창업교육 효과는 변환되어 연구에 활용됨.
 - 각 항목은 7점의 리커트 척도로 조사되었으며, 조사 이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점수화함.
 - 강좌 효과성 산출을 위해 4개 차원(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별 해당 항목의 평균 점수를 산출하고, 4개 차원 점수를 종합하여 전체 종합 지수를 산출함.
 - 효과성 검증의 경우 동일 항목 혹은 동일 요인 간 사후의 값을 사전의 값으로 뺀 수치를 활용함.

[그림 I-2] 분석 요인 및 분석 방법



3

응답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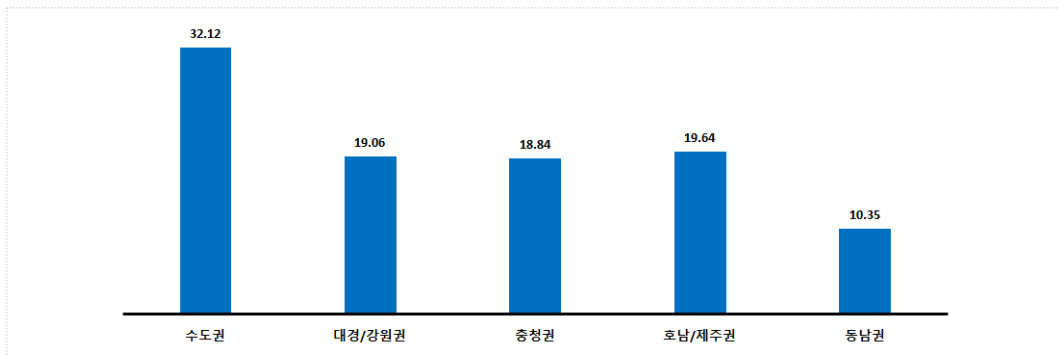
1) 통합 응답현황

① 학교별 응답 현황

- 창업강좌 수강 이전과 이후에 응답한 응답자는 13,424개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의 응답 비중이 32.12%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대학 중 동남보건대학교의 비중이 9.51%로 가장 높았으며, 대경/강원권은 경운대학교 (3.36%), 충청권은 건양대학교(5.92%), 호남/제주권은 전주대학교(5.94%), 동남권은 대동대학교 (5.32%)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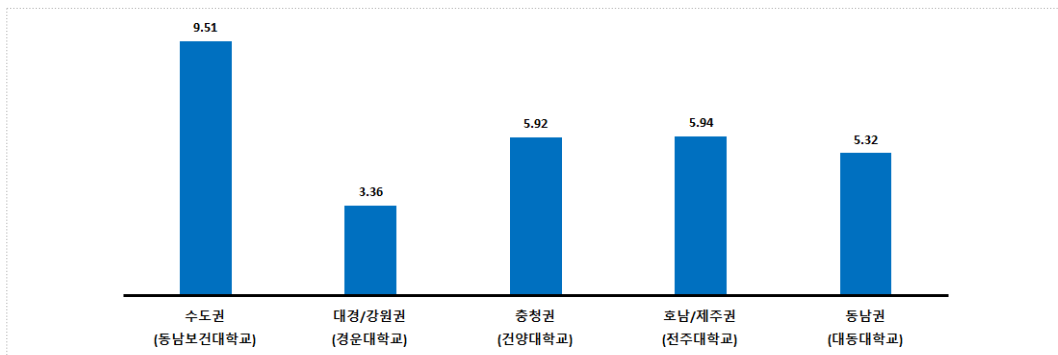
[그림 I-3] 통합-학교별 현황

n: 13,424, 단위: %



[그림 I-4] 통합-학교별 현황(권역 내 높은 비중 대학 기준)

n: 13,424, 단위: %



[표 I-6] 통합 - 학교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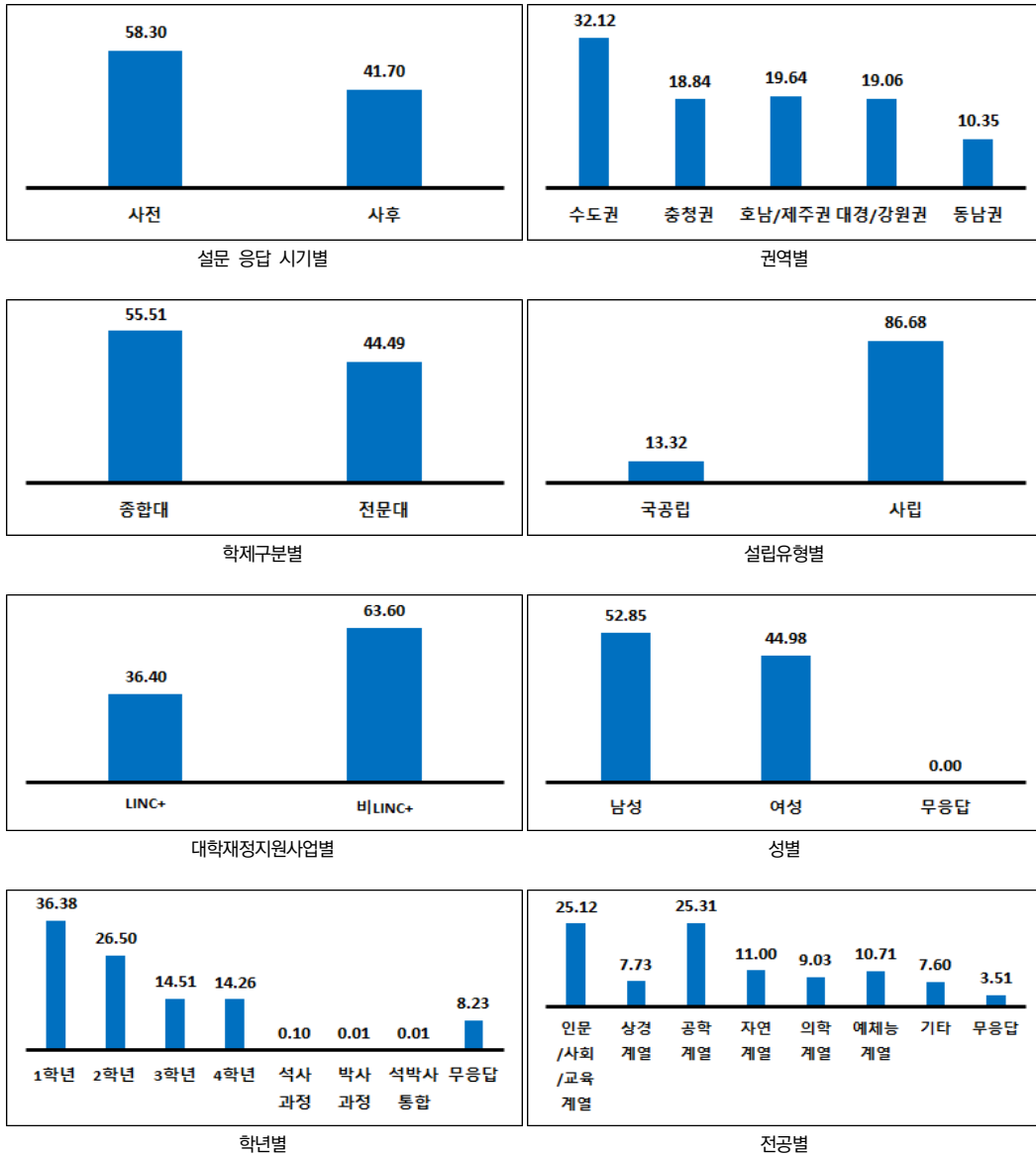
권역	학교명	사례(개)	비율(%)	권역	학교명	사례(개)	비율(%)	
수도권 (4,312) 32.12%	KC대학교	120	0.89	충청권 (2,529) 18.84%	건양대학교	795	5.92	
	강남대학교	265	1.97		극동대학교	51	0.38	
	대림대학교	174	1.30		서원대학교	102	0.76	
	동남보건대학교	1276	9.51		우석대학교	448	3.34	
	동원대학교	595	4.43		충북대학교	281	2.09	
	서울예술대학교	235	1.75		한국교통대학교	30	0.22	
	수원과학대학교	240	1.79		한서대학교	387	2.88	
	여주대학교	125	0.93		해전대학교	435	3.24	
	오산대학교	467	3.48		광주보건대학교	347	2.58	
	인천재능대학교	295	2.20		광주여자대학교	155	1.15	
대경/강원권 (2,558) 19.06%	중양대학교	86	0.64	호남/제주권 (2,636) 19.64%	군산대학교	64	0.48	
	한국외국어대학교	434	3.23		순천대학교	532	3.96	
	강릉원주대학교	190	1.42		전주대학교	797	5.94	
	경상대학교	437	3.26		전주비전대학교	544	4.05	
	경운대학교	451	3.36		제주대학교	149	1.11	
	경일대학교	444	3.31		한일장신대학교	48	0.36	
	계명대학교	123	0.92		동남권 (1,389) 10.35%	김천대학교	186	1.39
	대구가톨릭대학교	246	1.83			대동대학교	714	5.32
	대구과학대학교	169	1.26			동의대학교	233	1.74
	대구보건대학교	156	1.16			영남대학교	58	0.43
성덕대학교	106	0.79	인제대학교	93		0.69		
위덕대학교	142	1.06	창원대학교	105		0.78		
한림성심대학교	94	0.70	총합계	13,424		100.00		

2) 응답자 특성별 현황

- 전체 13,424개의 데이터 중 권역별에서는 수도권이 32.12%, 학제구분별에서는 종합대가 55.51%, 설립유형별에서는 사립대가 86.68%, 대학지정지원사업별에서는 비LINC+가 63.60%의 비중으로 높은 응답률을 보임.

[그림 1-5] 통합-응답자별 현황

n: 13,424개, 단위: %



[표 I-7] 통합-응답자별 현황

구분	내용	사례(개)	비율(%)
설문 응답 시기별	사전	7,826	58.30
	사후	5,598	41.70
	사전+사후(MATCHING)	3,282	24.45%(전체기준)
권역별	수도권	4,312	32.12
	충청권	2,529	18.84
	호남/제주권	2,636	19.64
	대경/강원권	2,558	19.06
	동남권	1,389	10.35
학제구분별	종합대	7,452	55.51
	전문대	5,972	44.49
설립유형별	국공립	1,788	13.32
	사립	11,636	86.68
대학재정지원사업별	LINC+	4,886	36.40
	비LINC+	8,538	63.60
성별	남성	7,095	52.85
	여성	6,038	44.98
	무응답	291	0.00
학년별	1학년	4,883	36.38
	2학년	3,558	26.50
	3학년	1,948	14.51
	4학년	1,914	14.26
	석사과정	13	0.10
	박사과정	2	0.01
	석박사통합	1	0.01
	무응답	1,105	8.23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372	25.12
	상경계열	1,038	7.73
	공학계열	3,397	25.31
	자연계열	1,476	11.00
	의학계열	1,212	9.03
	예체능계열	1,438	10.71
	기타	1,020	7.60
	무응답	471	3.51
전체		13,424	100.00

○ 창업강좌 수강 이전과 수강 이후 모두 응답해 매칭 데이터가 추출된 사례는 13,424개 중 3,282개로 약 24.45%의 매칭률을 보임.

2) 사전 및 사후 매칭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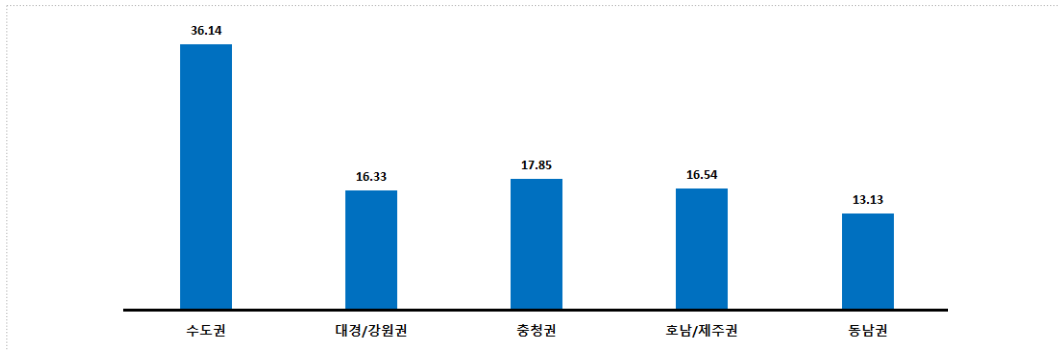
① 학교별 응답 현황

○ 전체 데이터 중 48.90%에 해당하는 6,564개(3,282명의 사전-사후)의 데이터가 사전-사후 매칭되었으며, 수도권 응답 비중이 36.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대학 중 동남보건대학교의 비중이 9.69%로 가장 높았으며, 대경/강원권은 경운대학교(3.72%), 충청권은 건양대학교(6.34%), 호남/제주권은 전주대학교(4.91%), 동남권은 대동대학교(7.43%)의 응답 비중이 높게 나타났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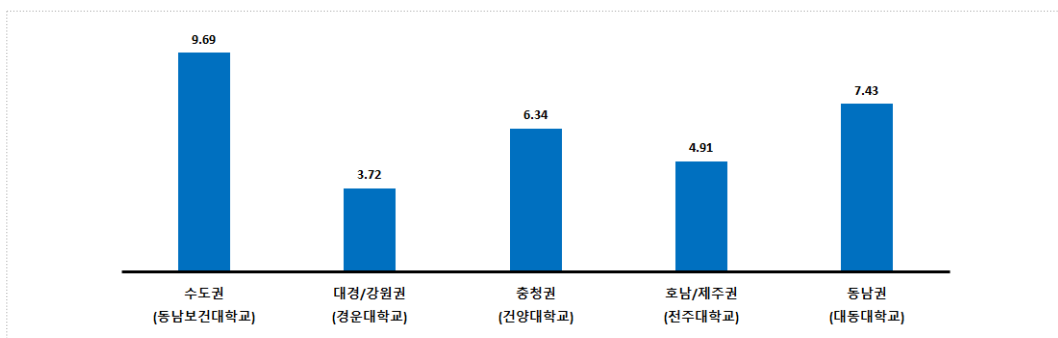
[그림 I-6] 사전 및 사후 매칭-학교별 현황(권역 기준)

n: 3,282명, 단위: %



[그림 I-7] 통합-학교별 현황(권역 내 높은 비중 대학 기준)

n: 3,282명, 단위: %



[표 I-8] 사전 및 사후 매칭 - 학교별 응답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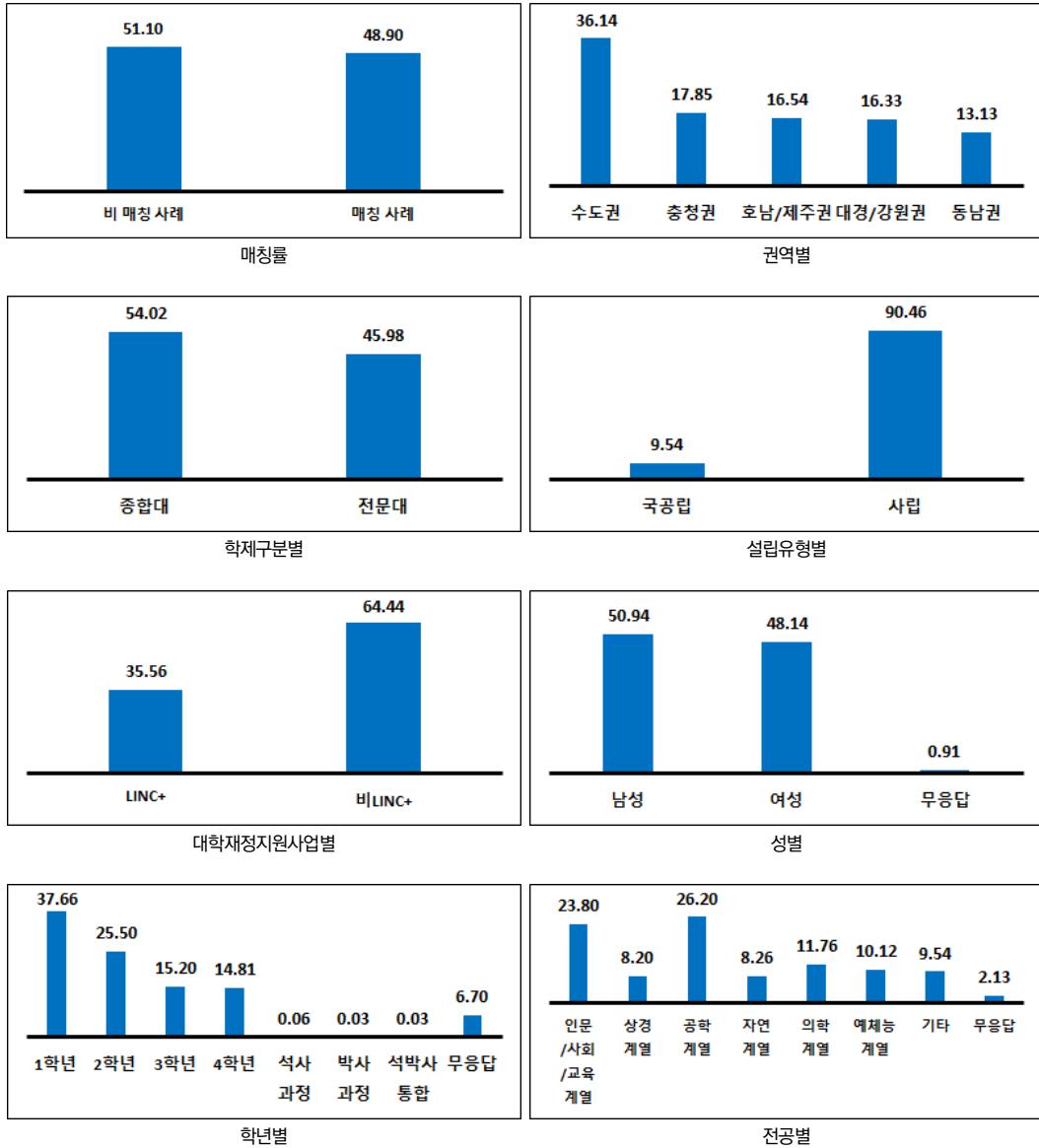
권역	학교명	사례(개)	비율(%)	권역	학교명	사례(개)	비율(%)	
수도권 (1,186) 36.14%	KC대학교	39	1.19	충청권 (586) 17.85%	건양대학교	208	6.34	
	강남대학교	67	2.04		극동대학교	14	0.43	
	대림대학교	74	2.25		서원대학교	25	0.76	
	동남보건대학교	318	9.69		우석대학교	117	3.56	
	동원대학교	66	2.01		충북대학교	7	0.21	
	서울예술대학교	70	2.13		한국교통대학교	14	0.43	
	수원과학대학교	97	2.96		한서대학교	150	4.57	
	여주대학교	48	1.46		대전대학교	51	1.55	
	오산대학교	73	2.22		광주보건대학교	116	3.53	
	인천재능대학교	76	2.32		광주여자대학교	20	0.61	
대경/강원권 (536) 16.33%	중양대학교	38	1.16	호남/제주권 (543) 16.54%	순천대학교	86	2.62	
	한국외국어대학교	220	6.70		전주대학교	161	4.91	
	강릉원주대학교	19	0.58		전주비전대학교	129	3.93	
	경상대학교	108	3.29		제주대학교	31	0.94	
	경운대학교	122	3.72		동남권 (431) 13.13%	김천대학교	28	0.85
	경일대학교	120	3.66			대동대학교	244	7.43
	계명대학교	13	0.40			동의대학교	74	2.25
	대구과학대학교	55	1.68			영남대학교	29	0.88
	대구보건대학교	50	1.52			인제대학교	8	0.24
	성덕대학교	21	0.64			창원대학교	48	1.46
위덕대학교	7	0.21	전체		3,282	100.00%		
한림성심대학교	21	0.64						

2] 사전 및 사후 매칭 응답 현황

- 창업강좌 수강 이전과 이후 모두 응답한 응답자는 3,282명(사전-사후 총 6,564개 데이터)으로 나타나 전체 데이터 13,424개 중 48.90%의 매칭률을 보임.
- 사전 데이터 7,826개 중 매칭 데이터는 3,282개로 41.94%의 매칭률을 보였으며, 사후 데이터 5,598개 중 매칭 데이터는 3,282개로 58.63%의 매칭률을 보임.

[그림 1-8] 사전 및 사후 매칭-응답자별 현황

n: 3,282명 기준, 단위: %



[표 I-9] 사전 및 사후 매칭 - 응답자별 현황

구분	내용	사례(개)	비율(%)
권역별	수도권	1,186	36.14
	충청권	586	17.85
	호남/제주권	543	16.54
	대경/강원권	536	16.33
	동남권	431	13.13
학제구분별	종합대	1,773	54.02
	전문대	1,509	45.98
설립유형별	국공립	313	9.54
	사립	2,969	90.46
대학재정지원사업별	LINC+	1,167	35.56
	비LINC+	2,115	64.44
성별	남성	1,672	50.94
	여성	1,580	48.14
	무응답	30	0.91
학년별	1학년	1,236	37.66
	2학년	837	25.50
	3학년	499	15.20
	4학년	486	14.81
	석사과정	2	0.06
	박사과정	1	0.03
	석박사통합	1	0.03
	무응답	220	6.70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781	23.80
	상경계열	269	8.20
	공학계열	860	26.20
	자연계열	271	8.26
	의학계열	386	11.76
	예체능계열	332	10.12
	기타	313	9.54
	무응답	70	2.13
전체		3,282	1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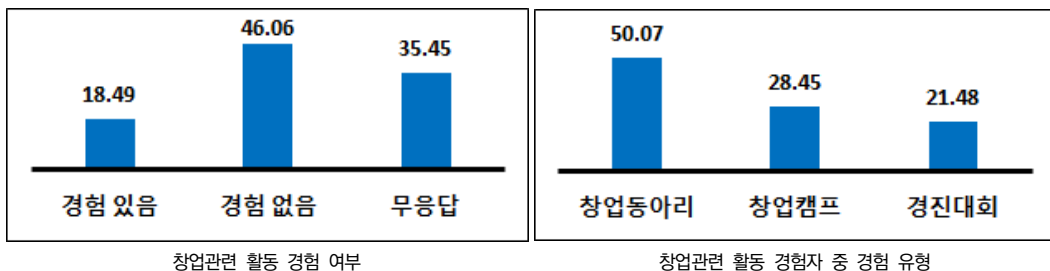
| 제2장 | 강좌 수강행태

1) 창업관련활동 경험 여부

- 학교 특성별 창업관련활동 경험 여부를 기재한 응답자들을 분석한 결과 기타를 제외한 창업동아리에 대한 경험 여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창업동아리의 경우 8.18%가 경험했다고 응답했으며, 뒤를 이어 창업캠프가 4.65%, 경진대회가 3.51%로 나타남.
 - 창업관련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8.49%인 2,193명을 기준으로 창업관련활동 유형별 분석을 실시한 결과, 경험이 있는 학생 중 50.07%가 창업동아리 활동을 해본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 전체 데이터-창업관련활동 경험 관련 행태

n: 13,424개, 단위: %



[표 II-1] 전체 데이터 - 창업관련활동 경험 관련 행태

n: 13,424개, 단위: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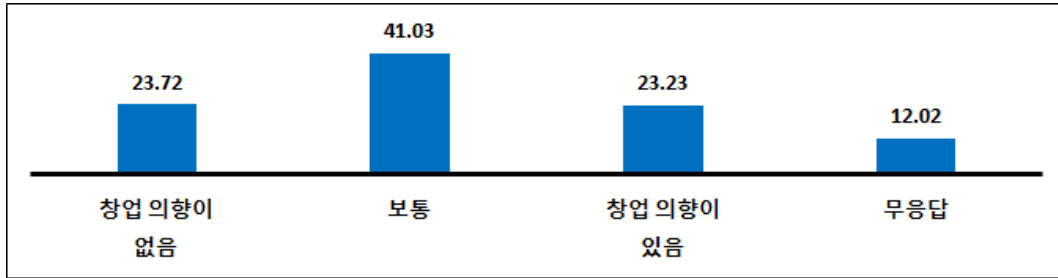
구분	내용	창업동아리	창업캠프	경진대회	경험 없음	기타	무응답
전체		8.18	4.65	3.51	46.06	2.15	35.45
권역별	수도권	8.28	4.08	3.29	46.82	0.88	36.64
	충청권	8.74	4.51	2.81	49.23	0.91	33.81
	호남/제주권	5.99	4.36	4.44	42.79	2.09	40.33
	대경/강원권	8.91	6.33	3.67	45.23	6.06	29.79
	동남권	9.65	4.10	3.38	45.64	1.30	35.93
학제 구분별	종합대	8.06	4.95	3.50	44.85	2.43	36.21
	전문대	8.32	4.27	3.52	47.57	1.81	34.51
설립 유형별	국공립	7.44	3.30	2.40	43.18	1.01	42.67
	사립	8.29	4.86	3.68	46.50	2.33	34.34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8.58	4.75	3.15	47.26	1.11	35.16
	비LINC+	7.95	4.59	3.71	45.37	2.75	35.62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9.09	2.50	3.70	69.13	2.60	12.99
	창업선도대	8.55	6.04	2.32	32.99	0.28	49.81
	LINC+ & 창업선도대	6.58	1.32	1.50	46.99	0.94	42.67
	일반대	8.14	4.87	3.71	45.18	2.36	35.75

2) 창업 의사

- 학교 특성별 향후 창업할 의사 분석 결과 보통이라고 응답한 경우 41.03%로 가장 높았으며, 뒤를 이어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학생이 23.72%, 있다고 응답한 학생이 23.23% 순으로 나타남.
 - 권역별로 살펴보면 수도권 및 충청권 내 대학에 다니는 학생들이 비교적 창업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 학제별로 살펴보면 전문대보다 종합대가, 설립 유형별의 경우 국공립보다 사립의 학생들이 비교적 창업에 대한 의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2] 전체 데이터 - 창업 관련 의사

n: 13,424개 기준, 단위: %



[표 II-2] 전체 데이터 - 창업 관련 의사

n: 13,424개 기준,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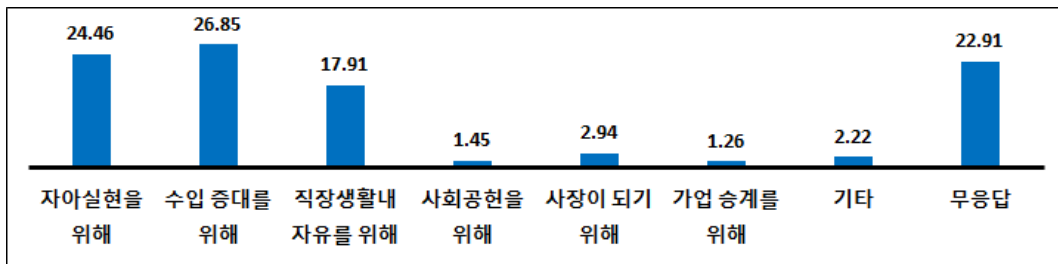
구분	내용	전혀 없다	없다	보통이다	있다	매우 있다	무응답
전체		9.79	13.93	41.03	17.45	5.79	12.02
권역별	수도권	11.60	16.88	39.94	15.07	5.19	11.32
	충청권	10.16	11.74	37.80	21.39	7.12	11.78
	호남/제주권	7.06	12.37	45.14	17.00	5.08	13.35
	대경/강원권	8.29	12.78	43.86	18.10	5.47	11.49
	동남권	11.45	13.82	37.29	17.28	7.13	13.03
학제 구분별	종합대	8.15	12.20	42.90	19.24	5.84	11.67
	전문대	11.84	16.09	38.70	15.20	5.73	12.44
설립 유형별	국공립	10.40	14.43	42.79	16.22	4.14	12.02
	사립	9.69	13.85	40.76	17.63	6.04	12.0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8.76	12.42	42.65	18.07	5.28	12.81
	비LINC+	10.38	14.79	40.10	17.09	6.08	11.56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9.59	12.59	34.87	18.58	4.20	20.18
	창업선도대	7.62	10.50	48.70	17.38	6.51	9.29
	LINC+ & 창업선도대	8.08	13.72	46.80	13.91	2.44	15.04
	일반대	10.11	14.41	40.55	17.52	6.03	11.38

3) 창업 동기

- 학교 특성별 창업 동기 분석 결과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라고 응답한 사람이 3,604명으로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뒤를 이어 자아실현을 위해가 3,283명으로 높게 나타남.
- 권역별의 경우 동남권의 경우 자아실현을 위한 목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나, 나머지 지역이 더 많은 수입을 얻기 위해 창업을 하고자 한다는 응답률이 높은 편으로 나타남.

[그림 II-3] 전체 데이터-창업 동기

n: 13,424개 기준, 단위: %



[표 II-3] 전체 데이터-창업 동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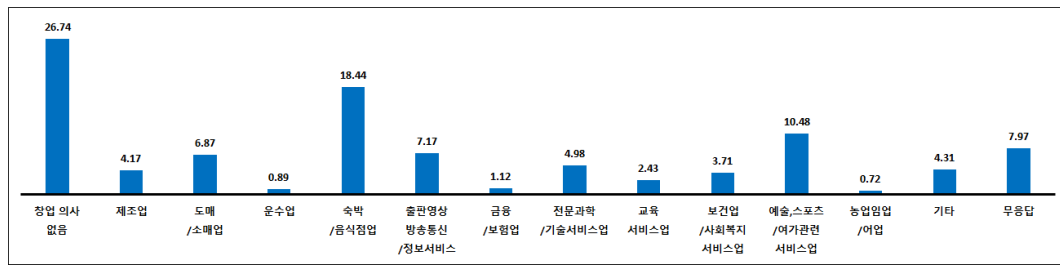
n: 13,424개 기준, 단위: %

구분	내용	자아실현을 위해	더 많은 수입을 위해	직장생활내 자유를 위해	사회에 공헌하기 위해	사장이 되기 위해	가업 승계를 위해	기타	무응답
전체		24.46	26.85	17.91	1.45	2.94	1.26	2.22	22.91
권역별	수도권	24.30	29.29	18.02	1.16	2.99	1.53	2.18	20.52
	충청권	22.70	25.70	17.32	1.86	2.37	1.03	2.41	26.61
	호남/제주권	24.47	24.28	20.37	1.93	2.92	1.18	1.71	23.14
	대경/강원권	25.02	27.29	16.54	1.21	3.21	1.33	2.66	22.75
	동남권	27.07	25.41	16.49	1.15	3.38	0.86	2.16	23.47
학제 구분별	종합대	25.24	24.84	18.83	1.68	2.23	1.17	1.99	24.03
	전문대	23.48	29.35	16.76	1.17	3.83	1.37	2.51	21.52
설립 유형별	국공립	23.21	22.87	19.07	1.62	1.90	1.23	1.45	28.64
	사립	24.65	27.46	17.73	1.43	3.10	1.26	2.34	22.04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24.15	24.03	17.77	1.78	2.27	1.04	1.84	27.12
	비LINC+	24.63	28.46	17.99	1.26	3.33	1.38	2.44	20.51
재정지원 + 창업선도대 여부별	LINC+	20.48	20.18	11.99	0.70	1.00	1.70	1.50	42.46
	창업선도대	26.49	25.56	21.10	1.58	3.16	1.30	1.95	18.87
	LINC+ & 창업선도대	25.38	21.80	20.68	1.32	1.69	0.75	1.69	26.69
	일반대	24.58	27.84	18.00	1.52	3.16	1.24	2.34	21.32

4) 관심 있는 창업 분야

- 학교 특성별 관심 있는 창업 분야 분석 결과 창업 의사가 있다고 기재한 응답자 중 숙박 및 음식점업에 관심을 둔 응답자가 2,476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뒤를 이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에 관심을 둔 응답자가 1,407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에 관심을 둔 응답자가 962명으로 나타남.
 - 창업의사가 없다고 기재한 응답자는 총 3,589명으로 비교적 관심 있는 창업 분야의 비중이 더 높다고 볼 수 있음.

[그림 II-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관심 있는 창업 분야)-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



[표 II-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관심 있는 창업 분야)-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

구분	내용	창업 의사 없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출판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
전체		26.74	4.17	6.87	0.89	18.44	7.17	1.12
권역별	수도권	32.40	3.39	6.22	0.79	13.98	8.86	1.00
	충청권	22.26	3.80	6.25	1.15	25.86	6.80	1.38
	호남/제주권	22.69	5.01	8.04	0.76	18.17	5.99	1.25
	대경/강원권	23.92	5.08	7.31	1.06	18.49	6.96	0.74
	동남권	30.17	4.03	6.98	0.72	19.22	5.18	1.51
학제 구분별	종합대	22.28	5.03	8.28	0.79	18.18	8.55	1.56
	전문대	32.30	3.10	5.11	1.02	18.77	5.44	0.59
설립 유형별	국공립	27.24	4.25	6.77	0.78	15.60	7.49	1.29
	사립	26.66	4.16	6.88	0.91	18.88	7.12	1.10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23.29	5.10	7.29	0.78	17.58	8.19	1.49
	비LINC+	28.71	3.64	6.63	0.96	18.94	6.58	0.91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4.98	5.00	5.79	0.50	17.08	10.49	0.70
	창업선도대	22.40	6.41	7.81	0.84	16.82	7.99	1.77
	LINC+ & 창업선도대	26.50	3.76	5.26	1.13	16.73	8.46	0.75
	일반대	27.34	3.89	6.95	0.92	18.82	6.71	1.12

[표 II-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관심 있는 창업 분야) -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2)

n: 3,282명 기준, 단위: %

구분	내용	금융 및 보험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기타
전체		4.98	2.43	3.71	10.48	0.72	4.31	7.97
권역별	수도권	3.36	2.64	4.29	9.35	0.14	4.94	8.65
	충청권	5.42	1.82	2.57	11.19	0.59	3.72	7.20
	호남/제주권	5.58	2.47	4.02	10.55	1.29	4.25	9.94
	대경/강원권	6.45	3.40	2.85	12.08	1.52	4.30	5.82
	동남권	5.33	1.01	4.97	9.65	0.22	3.53	7.49
학제 구분별	종합대	6.35	2.20	2.44	12.25	1.11	4.23	6.75
	전문대	3.27	2.71	5.29	8.27	0.23	4.40	9.49
설립 유형별	국공립	9.17	2.13	1.68	8.11	3.30	3.41	8.78
	사립	4.33	2.48	4.02	10.85	0.33	4.44	7.85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6.37	1.92	2.58	12.38	1.06	4.22	7.76
	비LINC+	4.18	2.72	4.36	9.39	0.53	4.36	8.09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6.29	0.60	3.00	12.89	1.50	4.10	7.09
	창업선도대	5.02	1.58	2.04	12.64	0.74	4.74	9.20
	LINC+ & 창업선도대	9.21	2.26	1.13	7.52	4.70	3.20	9.40
	일반대	4.64	2.69	4.07	10.19	0.45	4.34	7.86

| 제3장 | 창업 교육 효과분석

1

신뢰도 및 집단 검증 분석 결과

1) 신뢰도 분석

- 본 조사는 신뢰성 분석을 통해 측정 지표에 대한 일관성을 확인하였음.
- 분석 결과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의 전체 데이터들을 분석한 결과 0.8이상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측정 지표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전을 분리해 분석한 결과 전체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0.7이상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측정 지표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 사후를 분리해 분석한 결과 전체 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0.8이상 수준의 신뢰도를 보이고 있어 측정 지표에 대한 내적 일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음.

[표 III-1] 창업 교육 효과 요인의 신뢰도 분석

요인	측정 지표(문항)	Cronbach's Alpha		
		전체	사전	사후
기업가적 역량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880	.842	.906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업가적 태도	나의 주변에는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	.847	.766	.885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창업도 훌륭한 진로(혹은 경력)의 하나라고 본다.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우리 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주변의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업가적 의도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932	.919	.945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나는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나는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			
창업환경 /인식	현재의 창업환경이 어떠한다고 생각하십니까?	.838	.778	.867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중국에 비해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귀하의 부모님은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 귀하의 자녀가 창업을 한다면 어떤 것 같으십니까?			
	만약 귀하의 부모님이 창업을 하신다면 어떤 것 같으십니까?			
	공동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T-검증

□ 종합 데이터의 경우 독립 표본 T검정, 사전-사후 매칭 데이터의 경우 대응 표본 T검정을 통해 집단 간 차이가 존재하는가를 확인함.

- 종합 데이터의 독립 표본 T검정 결과, 종합지수를 포함한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 부문에서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T값의 경우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사전과 사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I-2] 전체 - 창업 교육 효과 요인의 사전/사후 동일집단 평균 비교

n: 3,282명 기준, 단위: %

요인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사전) 종합지수	51.19	.740	-12.23	.000
(사후) 종합지수	54.12	.914		
(사전) 기업가적 역량	56.30	.916	-11.82	.000
(사후) 기업가적 역량	58.67	1.093		
(사전) 기업가적 태도	56.83	.722	-8.20	.000
(사후) 기업가적 태도	58.28	.968		
(사전) 기업가적 의도	40.09	1.347	-7.96	.000
(사후) 기업가적 의도	46.18	1.426		
(사전) 창업환경/인식	51.60	.817	-6.23	.000
(사후) 창업환경/인식	53.36	.978		

- 사전-사후 매칭 데이터의 대응 표본 T검정 결과, 종합지수를 포함한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부문에서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모두 유의하게 나타남.
- 전체적으로 T값의 경우 ± 1.96 보다 크고, 유의확률은 0.000으로 사전과 사후의 평균은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표 III-3] 전체 - 창업 교육 효과 요인의 사전/사후 대응집단 평균 비교

n: 3,282명 기준, 단위: 점

요인	평균	표준편차	T값	P값
(사전) 종합지수	50.61	12.12	-10.73	0.000
(사후) 종합지수	53.28	14.52		
(사전) 기업가적 역량	56.14	14.81	-7.81	0.000
(사후) 기업가적 역량	58.66	17.87		
(사전) 기업가적 태도	56.84	11.82	-5.26	0.000
(사후) 기업가적 태도	58.33	15.06		
(사전) 기업가적 의도	38.17	22.15	-12.70	0.000
(사후) 기업가적 의도	43.50	23.81		
(사전) 창업환경/인식	51.27	13.47	-4.62	0.000
(사후) 창업환경/인식	52.61	15.46		

2 창업교육 효과성 분석결과(동일집단)

1) 종합/차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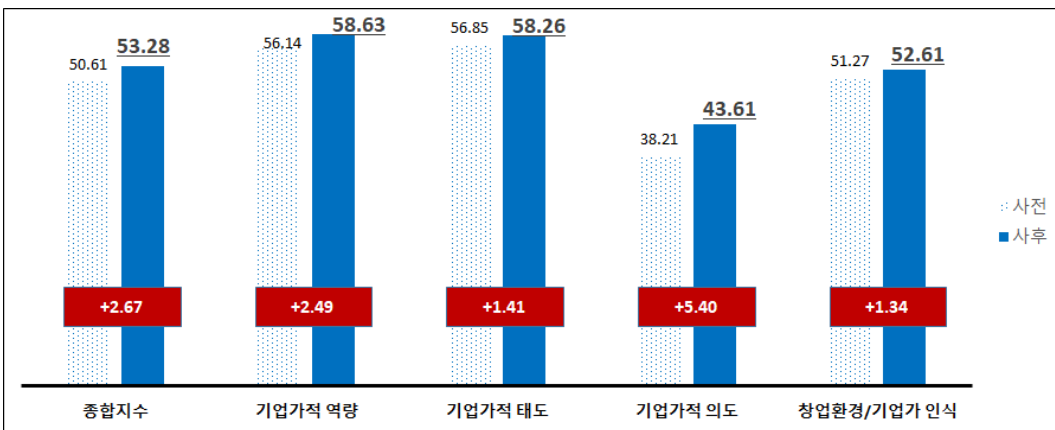
1) 종합 분석

① 개요

- 2018년도 창업 강좌 수강 이전 종합만족도는 50.61이며, 수강 이후 종합만족도는 53.28로 약 2.6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수업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78.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창업인식이 69.82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남.
- 차원별 효과 역시 창업 강좌 수강 이전보다 수강 이후의 지수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적 역량은 창업 강좌 수강 이전보다 약 2.4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적 태도는 창업 강좌 수강 이전보다 약 1.4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기업가적 의도는 창업 강좌 수강 이전보다 약 5.40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 창업환경/기업가 인식은 창업 강좌 수강 이전보다 약 1.34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 요인별 종합/차원 효과 분석

n: 3,282명 기준, 단위: 점



② 학교 특성별 평가/효과

- 종합 지수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학제별,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사전과 권역별, 설립 유형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6.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3.1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3.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역량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학제구분별 사전 집단과 권역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2.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8.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8.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태도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학제구분별, 대학재정지원 사업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2.3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9.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9.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의도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학제구분별, 설립유형별 사후 집단 및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47.8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4.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3.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환경/의지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설립유형별 사전 사후 및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유형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4.7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3.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2.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종합 차원) -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종합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0.61	53.28	56.14	58.63	56.85	58.26	38.21	43.61	51.27	52.61
권역별	수도권	49.94	51.34	56.04	56.65	55.88	56.05	37.73	41.92	50.39	50.76
	충청권	51.73	54.32	56.81	59.52	58.13	59.21	39.11	44.07	52.81	54.52
	호남/제주권	50.85	56.85	55.63	62.36	56.98	62.35	38.29	47.84	52.41	54.78
	대경/강원권	50.07	53.08	55.51	58.34	56.77	58.16	37.48	43.25	50.36	52.47
	동남권	51.18	53.00	56.93	58.53	57.55	58.07	39.03	42.84	51.17	52.58
평균비교 (ANOVA)		2.663 **	14.272 ***	1.028	10.043 ***	3.992 ***	16.853 ***	0.662	5.942 ***	4.688 ***	9.155 ***
학제 구분별	종합대	51.55	53.44	57.01	58.87	58.42	59.00	38.53	42.88	52.30	53.00
	전문대	49.56	53.10	55.12	58.36	55.08	57.39	37.85	44.47	50.12	52.16
평균비교 (t-test)		4.635 ***	0.668	3.648 ***	0.812	8.062 ***	3.001 ***	0.861	1.899 *	4.568 ***	1.544
설립 유형별	국공립	50.35	51.45	55.30	57.23	57.85	57.93	36.64	38.94	51.71	51.68
	사립	50.64	53.47	56.23	58.78	56.74	58.29	38.38	44.10	51.23	52.71
평균비교 (t-test)		0.448	2.319 ***	1.058	1.456	1.560	0.398	1.310	3.625 ***	0.599	1.108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51.26	53.63	56.55	58.95	58.02	59.03	37.93	43.19	52.42	53.31
	비LINC+	50.24	53.09	55.91	58.46	56.18	57.83	38.37	43.85	50.62	52.23
평균비교 (t-test)		2.287 ***	1.006	1.180	0.753	4.248 ***	2.150 ***	0.553	0.758	3.623 ***	1.911 *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51.45	53.53	57.20	59.51	58.46	58.76	37.86	42.87	52.27	52.93
	창업선도대	50.13	51.81	54.36	56.51	57.74	58.76	35.92	38.48	52.37	53.40
	LINC+ & 창업선도대	50.72	53.91	54.70	57.34	56.77	59.81	38.11	44.10	52.85	54.38
	일반대	50.25	53.19	56.03	58.60	56.06	57.76	38.56	44.25	50.49	52.14
평균비교 (ANOVA)		2.013	0.796	3.182 ***	1.909	8.480 ***	2.092 *	5.411 ***	3.071 ***	1.909	2.174 **

P-Value(유의수준): *** p<0.01 / ** p<0.05 / * p<0.1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약 2.67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6.0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약 3.5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약 2.8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이 약 2.49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6.7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약 3.2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약 2.5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태도가 약 1.41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5.3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약 2.3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약 1.6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의도가 약 5.4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9.5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약 6.6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약 5.4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환경/인식이 약 1.34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2.3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약 2.0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약 1.6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종합 차원) -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종합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
	전체	2.67	2.49	1.41	5.4	1.34
권역별	수도권	1.40	0.61	0.17	4.19	0.37
	충청권	2.59	2.71	1.08	4.96	1.71
	호남/제주권	5.99	6.73	5.37	9.54	2.37
	대경/강원권	3.01	2.84	1.39	5.77	2.10
	동남권	1.82	1.60	0.52	3.81	1.41
학제 구분별	종합대	1.89	1.86	0.57	4.35	0.70
	전문대	3.54	3.23	2.32	6.62	2.03
설립 유형별	국공립	1.11	1.93	0.08	2.30	-0.03
	사립	2.83	2.55	1.55	5.72	1.48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2.37	2.40	1.01	5.26	0.89
	비LINC+	2.85	2.54	1.65	5.48	1.60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08	2.31	0.29	5.00	0.67
	창업선도대	1.68	2.16	1.02	2.56	1.03
	LINC+ & 창업선도대	3.19	2.64	3.04	5.99	1.53
	일반대	2.94	2.57	1.70	5.69	1.65

③ 응답자 특성별 평가/효과

○ 종합 지수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유형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제한 응답자 중 석박사 통합 응답자가 사후 기준 72.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제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5.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역량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후 집단 및 학년별 사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유형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 통합 응답자가 사후 기준 8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61.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태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학년별, 전공별, 수강동기별 사전 및 사후 전체 집단 모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 통합 응답자가 사후 기준 81.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61.3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의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학년별, 전공별, 수강동기별 사전 및 사후 전체 집단 모두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 응답자가 사후 기준 66.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예체능계열이 사후 기준 47.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환경/의지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의 사전, 전공별 및 수강동기의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 통합 응답자가 사후 기준 72.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자연계열이 사후 기준 53.4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6]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종합 차원) -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종합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0.61	53.28	56.14	58.63	56.85	58.26	38.21	43.61	51.27	52.61
성별	남성	52.19	55.71	57.81	60.90	58.05	60.22	41.52	48.19	51.43	53.50
	여성	48.99	50.72	54.40	56.19	55.64	56.24	34.79	38.77	51.12	51.69
	무응답	49.26	52.73	54.91	61.02	54.61	55.06	36.67	43.68	50.86	51.15
평균비교 (ANOVA)		28.256 ***	48.622 ***	21.970 ***	28.959 ***	17.215 ***	28.803 ***	37.273 ***	65.375 ***	0.226	5.644 ***
학년별	1학년	49.64	52.75	55.29	58.43	55.76	57.57	36.26	42.56	51.29	52.32
	2학년	51.14	53.34	56.09	58.54	57.19	57.86	39.69	44.27	51.52	52.73
	3학년	51.44	54.46	56.23	59.37	57.98	59.74	40.03	45.44	51.44	53.31
	4학년	50.65	52.89	57.54	58.54	57.86	59.23	37.49	41.78	49.97	52.01
	석사과정	43.58	49.46	43.06	55.55	50.00	60.01	33.34	41.67	47.92	40.63
	박사과정	62.84	65.62	97.22	83.32	66.68	66.67	49.98	66.66	37.49	45.83
	석박사통합	64.72	72.81	80.55	83.33	71.67	81.65	40.00	53.34	66.66	72.90
무응답	52.08	54.15	57.67	58.48	56.95	57.91	41.07	46.81	52.70	53.55	
평균비교 (ANOVA)		2.547 ***	1.233	3.272 ***	0.703	3.125 ***	1.801 *	2.974 ***	1.974 **	1.366	0.877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51.14	52.61	56.70	57.72	57.43	57.75	38.93	41.86	51.28	53.22
	상경계열	52.54	55.13	58.20	61.59	60.18	61.38	39.84	44.23	52.44	53.30
	공학계열	49.90	54.26	55.57	60.28	56.11	59.47	36.94	44.78	50.95	52.47
	자연계열	51.30	54.20	54.82	58.65	56.86	58.85	41.63	46.01	51.90	53.44
	의학계열	47.73	49.29	56.15	54.85	55.18	54.88	30.86	38.20	48.73	49.24
	예체능계열	52.51	54.78	56.57	59.53	58.11	58.49	42.35	47.09	53.14	53.80
	기타	50.78	53.47	55.27	58.10	55.70	57.26	40.35	45.54	51.79	52.96
	무응답	50.68	52.36	56.04	56.17	56.22	56.84	39.20	42.31	51.81	53.22
평균비교 (ANOVA)		5.976 ***	6.294 ***	1.593	5.252 ***	5.677 ***	5.642 ***	9.930 ***	5.512 ***	3.387 ***	3.323 ***
수강동기	창업관심	58.72	60.67	62.36	64.93	63.00	64.08	53.01	56.13	56.53	57.49
	학점이수	47.83	50.44	53.87	56.15	54.81	55.88	33.00	38.94	49.54	50.76
	주위추천	49.45	53.79	55.79	58.56	57.12	59.05	34.54	43.80	50.81	53.96
	기타	48.15	52.08	53.30	57.29	52.42	58.59	38.36	41.88	48.51	50.81
	무응답	52.87	54.25	58.90	63.06	57.97	59.82	42.46	42.84	52.03	51.29
평균비교 (ANOVA)		131.466 ***	76.947 ***	52.121 ***	37.493 ***	77.213 ***	44.053 ***	132.346 ***	81.613 ***	40.296 ***	28.827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약 2.96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석박사통합의 평균이 약 8.0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평균이 약 2.5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의 평균이 약 3.53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이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석사과정의 평균이 약 12.4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평균이 약 4.7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태도의 평균이 약 1.26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태도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석사과정의 평균이 약 10.0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평균이 약 3.3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의도의 평균이 약 5.99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의도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석사과정의 평균이 약 10.0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공학계열의 평균이 약 3.3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환경/인식의 평균이 약 0.99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환경/인식이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박사과정의 평균이 약 8.3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연계열의 평균이 약 1.5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7]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종합 차원) -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종합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
	전체	2.96	3.53	1.26	5.99	0.99
성별	남성	3.52	3.09	2.17	6.67	2.07
	여성	1.73	1.79	0.60	3.98	0.58
	무응답	3.47	6.11	0.45	7.01	0.29
학년별	1학년	3.11	3.14	1.82	6.30	1.03
	2학년	2.19	2.45	0.67	4.58	1.21
	3학년	3.02	3.14	1.76	5.41	1.87
	4학년	2.24	1.00	1.37	4.30	2.04
	석사과정	5.88	12.49	10.01	8.33	-7.29
	박사과정	2.78	-13.90	-0.01	16.68	8.34
	석박사통합	8.09	2.78	9.98	13.34	6.24
	무응답	2.08	0.81	0.97	5.73	0.85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1.47	1.02	0.31	2.93	1.95
	상경계열	2.59	3.39	1.20	4.40	0.86
	공학계열	4.37	4.72	3.36	7.84	1.52
	자연계열	2.90	3.83	1.99	4.38	1.54
	의학계열	1.56	-1.30	-0.29	7.35	0.51
	예체능계열	2.27	2.96	0.38	4.74	0.66
	기타	2.69	2.83	1.56	5.19	1.17
	무응답	1.68	0.13	0.62	3.10	1.41
수강동기	창업관심	1.95	2.57	1.08	3.13	0.97
	학점이수	2.61	2.28	1.07	5.94	1.22
	주위추천	4.34	2.76	1.94	9.25	3.16
	기타	3.94	4.00	6.17	3.53	2.30
	무응답	1.38	4.17	1.85	0.38	-0.74

④ 창업동기 및 관심분야별 평가/효과

- 종합지수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 및 창업관심분야의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공헌을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1.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57.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역량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의 사전 집단, 창업관심분야의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공헌을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6.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2.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태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 및 창업관심분야의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4.1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2.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기업가적 의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의 사전 집단, 창업관심분야의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공헌을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54.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51.8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환경/인식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의 사전 집단, 창업관심분야의 사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공헌을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59.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수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58.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8]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종합 차원) -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종합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0.61	53.28	56.14	58.63	56.85	58.26	38.21	43.61	51.27	52.61
창업 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53.48	55.23	58.90	59.92	59.31	59.67	42.57	47.17	53.20	54.14
	수입 증대 위해	49.51	52.64	55.17	58.50	56.01	57.48	36.67	42.74	50.31	51.86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50.37	52.83	55.36	57.81	57.00	58.55	37.51	42.28	51.70	52.64
	사회공헌 위해	61.05	61.16	67.87	66.72	64.34	63.98	53.06	54.02	58.73	59.91
	사장이 되기 위해	51.18	56.28	56.34	60.09	55.52	60.38	42.54	48.52	50.31	55.95
	기업승계 위해	54.12	58.81	56.34	66.55	62.05	64.13	44.70	50.40	54.07	54.15
	기타	44.42	49.15	51.35	54.10	49.85	54.42	28.73	38.81	47.09	49.61
	무응답	45.02	48.18	51.74	55.35	52.12	54.10	28.60	35.23	47.32	48.00
평균비교 (ANOVA)		11.035 ***	3.936 ***	4.214 ***	1.574	3.876 ***	3.860 ***	7.208 ***	4.038 ***	14.849 ***	3.955 ***
창업 관심분야	창업의사없음	42.83	47.93	50.73	54.94	50.94	54.68	23.90	33.41	45.81	48.62
	제조업	56.54	57.03	60.74	62.57	61.70	60.08	49.97	51.89	53.94	53.76
	도매/소매업	55.16	56.30	57.74	59.76	60.06	59.61	48.56	50.09	54.10	55.74
	운수업	54.06	56.51	57.14	57.80	58.15	60.32	44.21	49.36	55.70	58.56
	숙박/음식점업	52.63	54.81	56.93	59.20	58.60	59.11	42.10	47.57	53.00	53.40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54.43	56.31	60.27	61.53	60.86	62.01	42.06	46.78	54.69	54.88
	금융/보험업	53.35	53.30	58.62	59.26	60.26	57.99	42.38	45.13	53.16	50.80
	전문과학/기술서비스 업	54.34	55.93	59.57	62.46	59.52	61.11	44.66	46.50	53.43	53.72
	교육서비스업	54.07	56.00	59.86	61.20	59.64	60.53	44.86	47.05	52.06	55.23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53.83	54.02	59.13	59.29	58.89	59.40	42.09	44.08	55.21	53.24
	예술스프츠 /여가관련서비스업	54.25	55.59	58.78	59.53	59.52	59.31	44.95	48.39	53.65	54.95
	농업임업/어업	50.23	53.54	55.35	56.79	58.70	58.33	37.31	44.08	49.36	54.97
	기타	50.53	54.33	55.29	59.36	55.56	58.34	40.67	45.92	50.86	53.77
	무응답	49.07	51.58	53.94	57.54	54.51	56.03	37.09	41.88	49.96	51.04
평균비교 (ANOVA)		12.874 ***	5.084 ***	9.003 ***	3.357 ***	6.809 ***	2.558 ***	10.090 ***	3.173 ***	11.507 ***	5.774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약 2.67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5.1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5.0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역량이 약 2.49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10.2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4.2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태도가 약 1.41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4.8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3.7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기업가적 의도가 약 5.40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로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10.0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9.5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환경/인식이 약 1.34점 높아져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종합지수가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5.6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임업/어업에 관심이 있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5.6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Ⅲ-9]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종합 차원) -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종합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의도	창업환경/인식
	전체	2.67	2.49	1.41	5.40	1.34
창업계획동기	자아실현 위해	1.75	1.03	0.36	4.60	0.94
	수입 증대 위해	3.13	3.33	1.48	6.08	1.56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2.47	2.46	1.55	4.77	0.95
	사회공헌 위해	0.11	-1.14	-0.36	0.96	1.18
	사장이 되기 위해	5.10	3.75	4.85	5.98	5.64
	기업승계 위해	4.69	10.22	2.09	5.70	0.09
	기타	4.73	2.76	4.57	10.07	2.52
	무응답	3.16	3.61	1.98	6.63	0.67
창업관심분야	창업의사없음	5.09	4.20	3.74	9.51	2.81
	제조업	0.50	1.83	-1.62	1.92	-0.18
	도매/소매업	1.14	2.03	-0.45	1.53	1.64
	운수업	2.45	0.66	2.17	5.15	2.86
	숙박/음식점업	2.18	2.27	0.51	5.47	0.41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1.88	1.26	1.15	4.72	0.19
	금융/보험업	-0.06	0.64	-2.27	2.75	-2.3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8	2.90	1.60	1.84	0.30
	교육서비스업	1.93	1.35	0.89	2.18	3.17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0.19	0.17	0.50	1.99	-1.97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1.34	0.75	-0.21	3.44	1.30
	농업임업/어업	3.31	1.44	-0.37	6.76	5.61
	기타	3.80	4.07	2.77	5.25	2.91
	무응답	2.51	3.60	1.52	4.79	1.07

2) 차원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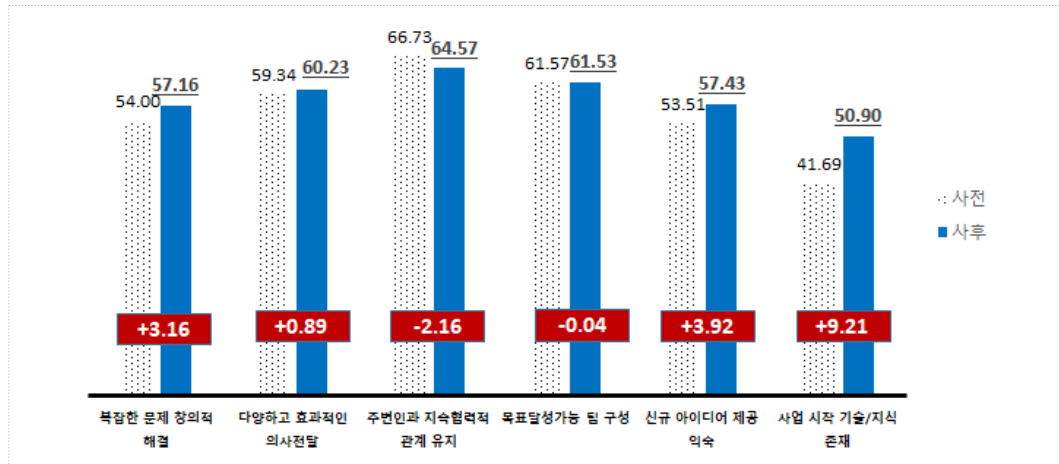
① [기업가적 역량]차원 효과

① 개요

- 2018년도 창업 강좌 수강 이전 보다 대체적으로 기업가적 역량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정도를 제외한 전체 항목이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높은 평균값을 보여 효과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정도는 사전 66.73점이었으나, 사후 64.57점으로 하락함

[그림 III-2] 기업가적 역량 평가/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② 학교 특성별 평가/효과

-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분석 결과 사전은 54.00점, 사후는 57.16점으로 나타나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9.8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7.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8.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정도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사전은 59.34점, 사후는 60.23점으로 나타나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1.1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60.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60.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사전은 66.73점, 사후는 64.57점으로 나타나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

- 주권이 사후 기준 68.8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66.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66.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좋은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사전은 61.57점, 사후는 61.53점으로 나타나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목표를 달성 가능하게 하는 좋은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는 효과성이 미미하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4.7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62.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66.1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아이디어 제공이 익숙한 정도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사전은 53.51점, 사후는 57.43점으로 나타나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아이디어 제공이 익숙한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0.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7.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7.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 시작과 관련된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정도의 학교 특성별 분석 결과 사전은 41.69점, 사후는 50.90점으로 나타나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아이디어 제공이 익숙한 정도가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6.1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2.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1.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0]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목표달성가능 좋은 팀 구성		신규 아이디어 제공 약속		사업 시작 기술/자식 존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4.00	57.16	59.34	60.23	66.73	64.57	61.57	61.53	53.51	57.43	41.69	50.90
권역별	수도권	54.69	55.42	59.11	58.55	65.77	61.26	60.44	59.51	54.04	56.34	42.20	48.89
	충청권	54.57	58.92	60.18	61.17	68.01	65.75	63.36	61.94	53.76	58.06	41.00	51.28
	호남/제주권	52.43	59.82	58.08	63.66	66.85	68.85	61.33	64.76	52.16	60.99	42.91	56.14
	대경/강원권	53.89	57.03	59.58	59.61	66.26	64.92	61.00	61.63	52.52	56.47	39.75	50.40
	동남권	53.44	56.38	60.10	60.02	68.06	66.20	63.27	62.34	54.65	56.30	42.07	49.92
평균비교 (ANOVA)		1.549	5.698 ***	1.160	6.120 ***	1.950 *	13.276 ***	3.147 ***	5.748 ***	1.463	5.008 ***	1.748	9.470 ***
학제 구분별	종합대	55.40	57.91	60.83	60.76	68.40	66.01	62.80	62.16	54.23	57.04	40.39	49.33
	전문대	52.36	56.29	57.59	59.60	64.77	62.87	60.13	60.79	52.67	57.90	43.20	52.74
평균비교 (t-test)		4.602 ***	2.272 ***	5.003 ***	1.593	5.359 ***	4.110 ***	3.918 ***	1.799 *	2.183 ***	1.122	3.623 ***	4.217 ***
설립 유형별	국공립	54.00	56.71	58.10	58.52	66.83	64.27	61.98	60.87	52.18	54.36	38.71	48.67
	사립	54.00	57.21	59.47	60.41	66.72	64.60	61.53	61.61	53.65	57.76	42.00	51.13
평균비교 (t-test)		0.003	0.410	1.235	1.532	0.095	0.232	0.389	0.571	1.211	2.411 ***	2.485 ***	1.784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54.54	58.01	60.42	60.67	68.35	66.11	62.45	62.20	53.52	57.17	40.03	49.54
	비LINC+	53.70	56.69	58.74	59.99	65.83	63.71	61.09	61.17	53.51	57.58	42.60	51.65
평균비교 (t-test)		1.183	1.748 *	2.482 ***	0.893	3.566 ***	3.008 ***	1.907 *	1.295	0.024	0.513	3.096 ***	2.485 ***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55.44	59.06	60.81	60.98	68.88	66.28	63.70	62.88	54.17	57.60	40.16	50.21
	창업선도대	51.80	55.19	57.10	57.43	65.20	64.75	61.04	60.48	51.35	53.04	39.64	48.20
	LINC+ & 창업선도대	51.94	54.98	59.30	59.75	66.83	65.61	58.86	60.24	51.67	55.93	39.65	47.62
	일반대	53.85	56.81	58.86	60.18	65.88	63.64	61.09	61.22	53.67	57.92	42.82	51.91
평균비교 (ANOVA)		3.535 ***	4.293 ***	2.950 ***	1.333	5.133 ***	3.205 ***	5.765 ***	1.699	1.707	2.808 ***	4.321 ***	4.158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의 평균이 약 3.16점 높아져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7.4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 평균이 약 3.9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평균이 약 3.4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결정의 평균이 약 2.17점 높아져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체 지역이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5.5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설립 유형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사립대의 평균이 약 0.9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평균이 약 1.2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평균이 약 0.89점 높아져 향상된 효과가 존재한다고 볼 수 있음.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이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약 2.0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대는 2.39점 하락하고, 전문대는 평균이 약 1.90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재정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비LINC+ 평균이 약 1.2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11]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목표달성가능 좋은 팀 구성	신규 아이디어 제공 약속	사업 시작 기술/지식 존재
전체		3.16	2.17	0.89	6.50	-2.16	-2.99
권역별	수도권	0.73	-0.56	-4.51	-0.93	2.30	6.69
	충청권	4.35	0.99	-2.25	-1.43	4.30	10.29
	호남/제주권	7.40	5.58	2.00	3.43	8.83	13.23
	대경/강원권	3.14	0.03	-1.34	0.63	3.95	10.65
	동남권	2.94	-0.07	-1.86	-0.93	1.65	7.85
학제 구분별	종합대	2.51	-0.06	-2.39	-0.64	2.81	8.94
	전문대	3.93	2.02	-1.90	0.67	5.23	9.54
설립 유형별	국공립	2.71	0.42	-2.56	-1.12	2.18	9.96
	사립	3.21	0.94	-2.12	0.08	4.11	9.1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3.47	0.24	-2.25	-0.25	3.65	9.51
	비LINC+	2.99	1.25	-2.12	0.08	4.07	9.05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3.62	0.17	-2.60	-0.83	3.43	10.05
	창업선도대	3.38	0.34	-0.45	-0.56	1.69	8.56
	LINC+ & 창업선도대	3.04	0.44	-1.22	1.38	4.26	7.97
	일반대	2.96	1.32	-2.24	0.13	4.25	9.09

③ 응답자 특성별 평가/효과

-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학년별 구분의 경우 사후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의 평균값은 사전보다 사후가 낮게 나왔으나, 사후 기준 83.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61.4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학년별 구분의 경우 사후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의 평균값은 사전보다 사후가 낮게 나왔으나, 사후 기준 83.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65.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학년별 구분의 경우 사후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박사통합의 평균값은 사전과 사후가 모두 동일하게 100점으로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낮게 나타났으나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67.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목표 달성이 가능한 좋은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수강동기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학년별 구분의 경우 사후가, 전공별 구분의 경우 사전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전과 사후의 평균값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의 평균이 사후 기준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과 사후의 평균값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64.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아이디어 제공이 익숙한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학년별 구분의 경우 사후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의 평균이 사후 기준 1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예체능계열이 사후 기준 60.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수강동기의 경우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나 학년별 구분의 사전 및 사후 전체와 전공별 구분의 사전의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의 평균이 사후 기준 6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기타계열이 열이 사후 기준 53.4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2]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목표달성가능 좋은 팀 구성		신규 아이디어 제공 익숙		사업 시작 기술/지식 존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4.00	57.16	59.34	60.23	66.73	64.57	61.57	61.53	53.51	57.43	41.69	50.90
성별	남성	56.94	60.14	60.24	61.92	66.97	65.95	63.13	63.61	55.88	60.12	43.70	53.70
	여성	50.89	53.96	58.37	58.40	66.52	63.03	59.98	59.25	51.04	54.59	39.59	47.91
	무응답	54.45	59.77	59.46	62.07	64.45	68.39	58.89	66.09	52.22	57.48	40.00	52.30
평균비교 (ANOVA)		34.893 ***	32.234 ***	23.978 ***	26.394 ***	17.193 ***	13.731 ***	36.502 ***	22.224 ***	40.612 ***	34.703 ***	27.252 ***	26.914 ***
학년별	1학년	52.62	56.60	58.30	59.66	66.60	64.61	61.28	61.61	52.50	57.24	40.41	50.91
	2학년	53.91	57.29	58.57	60.21	65.93	64.09	61.36	61.13	53.87	57.75	42.88	50.74
	3학년	54.75	58.05	59.35	61.73	66.33	65.60	60.92	61.86	54.19	57.35	41.88	51.67
	4학년	55.86	57.58	62.79	60.32	68.69	65.57	62.27	61.51	53.81	57.37	41.82	48.93
	석사과정	58.35	58.35	33.35	50.00	50.00	66.65	41.65	66.65	41.65	41.65	33.35	50.00
	박사과정	100.00	83.30	100.00	83.30	100.00	83.30	100.00	83.30	100.00	100.00	83.30	66.70
	석박사통합	83.30	83.30	66.70	66.70	100.00	100.00	100.00	100.00	83.30	100.00	50.00	50.00
	무응답	55.91	56.67	60.46	59.85	66.89	61.27	63.79	61.65	55.41	57.43	43.41	54.02
평균비교 (ANOVA)		3.210 ***	0.785	4.521 ***	0.773	2.005 *	1.562	2.014 *	0.662	1.979 *	1.269	1.678	1.208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54.48	55.71	60.06	60.37	67.95	64.70	61.89	60.83	54.33	56.06	41.46	48.68
	상경계열	56.69	61.46	63.14	65.30	68.71	67.54	63.51	64.87	54.79	59.42	42.38	50.93
	공학계열	54.58	59.08	58.26	61.00	65.79	66.61	60.74	63.91	52.89	58.83	41.11	52.31
	자연계열	52.52	57.63	57.87	59.53	64.02	64.44	59.91	61.38	52.47	56.58	42.07	52.40
	의학계열	52.38	52.85	60.89	56.71	68.53	60.58	62.70	57.08	51.55	53.71	40.85	48.19
	예체능계열	54.27	58.18	58.89	60.49	65.56	64.45	61.40	61.35	56.88	60.54	42.42	52.16
	기타	52.56	56.25	57.35	58.76	65.60	61.91	61.54	60.15	51.81	58.02	42.76	53.47
	무응답	50.97	54.52	57.98	57.14	68.12	61.43	62.08	59.66	53.63	54.53	43.48	50.00
평균비교 (ANOVA)		2.109 **	6.233 ***	3.390 ***	4.574 ***	2.729 ***	4.525 ***	1.096	5.072 ***	2.660 ***	4.095 ***	0.436	3.089 ***
수강 동기	창업관심	60.64	64.00	64.72	66.48	71.03	69.26	68.45	67.34	61.07	64.80	48.19	57.77
	학점이수	51.56	54.57	57.56	57.90	65.48	62.74	59.04	59.16	50.60	54.57	38.98	47.99
	주위추천	53.92	56.58	58.38	59.31	67.92	65.49	61.89	61.82	52.35	56.03	40.30	52.11
	기타	51.17	55.86	54.95	58.21	59.37	62.11	57.42	60.16	52.99	56.43	43.88	51.04
	무응답	56.31	60.36	61.49	64.41	64.86	67.12	64.87	67.34	58.11	64.19	47.74	54.95
평균비교 (ANOVA)		34.983 ***	32.234 ***	23.978 ***	26.394 ***	17.193 ***	13.731 ***	36.502 ***	22.224 ***	40.612 ***	34.703 ***	27.252 ***	26.914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학년이 3.9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경계열이 4.7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이 16.6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2.7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이 16.6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0.8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목표 달성이 가능한 좋은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박사통합 집단이 25.0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3.1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신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데 익숙한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 집단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5.9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기술 및 지식을 보유한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 집단이 16.6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11.1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13]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목표달성가능 좋은 팀 구성	신규 아이디어 제공 약속	사업 시작 기술/지식 존재
	전체	3.16	0.89	-2.16	-0.04	3.92	9.21
성별	남성	3.21	1.68	-1.02	0.49	4.24	10.00
	여성	3.07	0.03	-3.49	-0.73	3.56	8.32
	무응답	5.33	2.62	3.94	7.20	5.25	12.30
학년별	1학년	3.97	1.36	-1.99	0.33	4.74	10.50
	2학년	3.38	1.64	-1.84	-0.23	3.88	7.85
	3학년	3.30	2.37	-0.74	0.94	3.16	9.79
	4학년	1.72	-2.47	-3.13	-0.75	3.56	7.11
	석사과정	0.00	16.65	16.65	25.00	0.00	16.65
	박사과정	-16.70	-16.70	-16.70	-16.70	0.00	-16.60
	석박사통합	0.00	0.00	0.00	0.00	16.70	0.00
	무응답	0.76	-0.61	-5.63	-2.14	2.02	10.60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1.23	0.31	-3.25	-1.06	1.72	7.21
	상경계열	4.77	2.17	-1.17	1.36	4.63	8.55
	공학계열	4.50	2.74	0.81	3.17	5.94	11.19
	자연계열	5.10	1.66	0.42	1.48	4.11	10.33
	의학계열	0.47	-4.17	-7.95	-5.61	2.16	7.34
	예체능계열	3.92	1.61	-1.11	-0.05	3.67	9.74
	기타	3.70	1.41	-3.69	-1.39	6.20	10.72
수강동기	무응답	3.56	-0.84	-6.69	-2.42	0.90	6.52
	창업관심	3.36	1.76	-1.77	-1.11	3.73	9.57
	학점이수	3.01	0.34	-2.74	0.12	3.97	9.01
	주위추천	2.66	0.94	-2.43	-0.08	3.68	11.82
	기타	4.69	3.26	2.74	2.74	3.44	7.16
	무응답	4.06	2.92	2.25	2.47	6.08	7.21

④ 창업동기 및 관심분야별 평가/효과

○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공헌을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6.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2.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계획 동기의 경우 사전 집단만, 창업관심 분야의 경우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4.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3.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정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79.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71.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목표달성가능한 좋은 팀을 구성할 수 있는 정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73.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6.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아이디어 제공이 익숙한 정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공헌을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0.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53.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사업 시작이 가능한 기술 및 지식이 존재하는 정도의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과 사후 집단 간 차이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공헌을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60.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사후 기준 58.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목표달성가능 좋은 팀 구성		신규 아이디어 제공 익숙		사업 시작 기술/지식 존재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4.00	57.16	59.34	60.23	66.73	64.57	61.57	61.53	53.51	57.43	41.69	50.90
창업 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57.60	59.00	61.01	61.58	67.89	65.12	64.15	62.29	58.14	59.40	44.57	52.16
	수입 증대 위해	52.57	56.69	58.82	59.98	66.67	64.53	61.02	61.71	51.18	57.05	40.72	51.11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52.86	56.23	58.85	59.70	67.23	64.66	61.30	60.94	52.42	56.16	39.50	49.21
	사회공헌 위해	66.67	66.33	68.71	63.95	76.53	70.74	73.47	71.09	68.05	67.69	53.40	60.54
	사장이 되기 위해	54.23	57.21	61.07	60.82	66.67	65.54	59.45	61.57	53.11	59.20	43.53	56.22
	기업승계 위해	52.67	60.66	57.34	64.67	66.67	79.33	59.34	73.99	53.34	63.33	48.67	57.34
	기타	49.74	52.05	54.69	56.16	59.64	57.18	54.69	55.39	51.04	55.13	38.28	48.72
	무응답	49.29	54.64	55.83	57.75	61.72	61.50	56.60	58.69	48.10	53.23	38.93	46.30
평균비교 (ANOVA)		11.035 ***	3.936 ***	4.214 ***	1.574	3.876 ***	3.860 ***	7.208 ***	4.038 ***	14.849 ***	3.955 ***	7.250 ***	4.035 ***
창업 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48.17	53.43	54.40	56.76	62.61	61.46	56.05	58.27	47.85	53.31	35.30	46.39
	제조업	60.06	62.43	61.78	60.71	69.44	66.13	66.14	64.02	59.53	63.10	47.49	58.99
	도매/소매업	56.51	58.72	60.88	61.58	68.06	65.82	62.81	62.19	52.93	57.10	45.21	53.16
	운수업	54.76	54.75	57.94	59.52	66.67	62.70	63.50	61.90	57.14	56.35	42.85	51.59
	숙박/음식점업	53.18	56.92	60.79	61.36	68.92	65.06	62.75	62.06	53.03	57.83	42.89	52.0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59.85	60.45	64.07	62.92	70.71	66.61	65.52	64.73	58.91	62.32	42.57	52.23
	금융/보험업	56.42	56.41	62.83	60.26	70.94	65.39	60.69	62.39	55.55	58.12	45.30	53.00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7.75	61.90	62.62	62.61	67.21	68.47	65.59	66.40	59.55	62.61	44.68	52.79
	교육서비스업	58.53	59.28	62.50	63.63	71.59	67.61	64.56	62.50	57.20	61.18	44.88	53.0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57.00	57.51	62.25	61.63	70.47	65.95	65.12	62.24	54.66	56.38	45.06	52.06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6.34	58.47	60.97	61.68	68.21	65.59	64.95	62.20	57.48	58.08	44.68	51.16
	농업임업/어업	58.03	51.85	58.03	56.18	62.96	64.20	64.20	63.58	51.84	52.47	37.03	52.47
	기타	53.61	58.74	56.41	61.31	64.11	64.57	59.91	60.96	54.43	58.86	43.19	51.75
무응답	53.11	55.87	57.82	58.10	61.58	62.94	57.72	60.15	50.95	56.42	42.56	51.77	
평균비교 (ANOVA)		12.874 ***	5.084 ***	9.003 ***	3.357 ***	6.809 ***	2.558 ***	10.090 ***	3.173 ***	11.507 ***	5.774 ***	9.038 ***	4.628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7.9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5.2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7.3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4.9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12.6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전체 항목들이 사전보다 낮은 값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2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목표달성이 가능한 좋은팀을 구성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14.6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전체 항목들이 사전보다 낮은 값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2.2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신규 아이디어 제공이 익숙한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9.9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전체 항목들이 사전보다 낮은 값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5.4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사업 시작이 가능한 기술 및 지식이 존재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업승계를 위해 창업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한 집단이 약 12.6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해당 항목을 제외한 전체 항목들이 사전보다 낮은 값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제조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1.5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1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복잡한 문제 창의적 해결	다양하고 효과적인 의사전달	주변인과 지속협력적 관계 유지	목표달성가능 좋은 팀 구성	신규 아이디어 제공 약속	사업 시작 기술/지식 존재
	전체	3.16	0.89	-2.16	-0.04	3.92	9.21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1.40	0.57	-2.77	-1.87	1.27	7.59
	수입 증대 위해	4.12	1.16	-2.14	0.69	5.87	10.39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3.37	0.85	-2.58	-0.35	3.74	9.72
	사회공헌 위해	-0.33	-4.76	-5.79	-2.38	-0.36	7.14
	사장이 되기 위해	2.98	-0.25	-1.13	2.11	6.09	12.69
	기업승계 위해	7.99	7.33	12.66	14.65	9.99	8.67
	기타	2.31	1.47	-2.46	0.70	4.08	10.44
	무응답	5.34	1.91	-0.22	2.09	5.13	7.37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5.26	2.36	-1.15	2.22	5.46	11.09
	제조업	2.37	-1.06	-3.31	-2.12	3.57	11.50
	도매/소매업	2.21	0.69	-2.24	-0.62	4.16	7.95
	운수업	-0.01	1.59	-3.97	-1.59	-0.79	8.74
	숙박/음식점업	3.74	0.57	-3.86	-0.70	4.81	9.1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0.60	-1.15	-4.11	-0.79	3.41	9.66
	금융/보험업	-0.01	-2.57	-5.55	1.71	2.57	7.70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4.15	0.00	1.26	0.81	3.06	8.11
	교육서비스업	0.75	1.13	-3.98	-2.06	3.98	8.14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0.51	-0.62	-4.53	-2.88	1.73	7.00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2.12	0.71	-2.62	-2.75	0.60	6.48
	농업임업/어업	-6.17	-1.85	1.24	-0.62	0.63	15.44
	기타	5.13	4.90	0.46	1.05	4.43	8.55
	무응답	2.76	0.28	1.36	2.43	5.48	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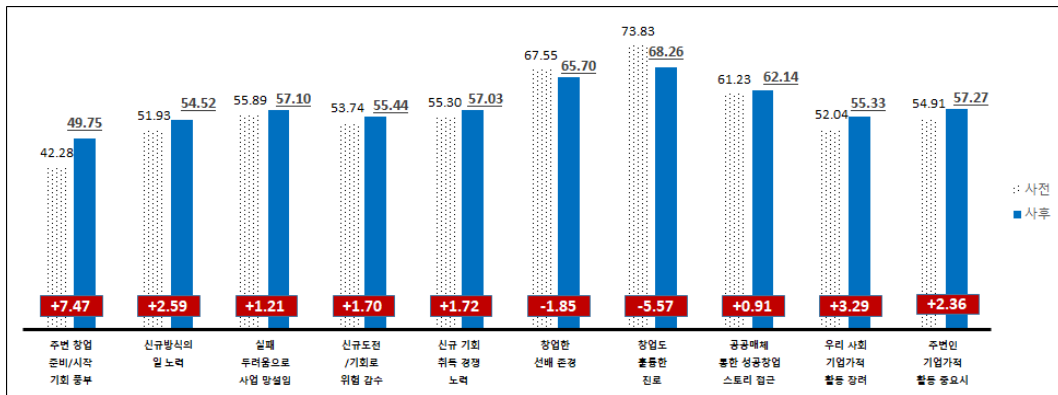
2 [기업가적 태도]차원 효과

① 개요

- 2018년도 창업 강좌 수강 이전 보다 대체적으로 기업가적 태도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 창업한 선배를 존경하는 정도와 창업도 훌륭한 진로라고 생각하는 정도를 제외한 전체 항목이 창업 강좌 수강 이후 높은 평균값을 보여 효과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창업한 선배를 존경하는 정도는 사전 67.55점이었으나, 사후 65.70점으로 하락함
 - 창업도 훌륭한 진로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사전 73.83점이었으나, 사후 68.26점으로 하락함

[그림 III-3] 기업가적 태도 평가/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② 학교 특성별 평가/효과

- 주변의 창업 준비 및 시작 기회가 풍부한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전, 학제 구분별 사전, 설립 유형별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3.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9.9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49.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방식의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전 및 사후, 학제구분별 사전,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사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7.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4.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4.6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을 망설이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후, 학제 구분별 사전, 설립 유형별 사후, 대학재정지 지원사업별 사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0.8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7.5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7.3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도전 및 기회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후, 학제 구분별 사전, 설립유형별 사후,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사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0.9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7.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7.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6]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주변 창업 준비 / 시작 기회 풍부		신규방식의 일 노력		실패 두려움으로 사업 망설임		신규도전/기회로 위험 감수		신규 기회 취득 경쟁 노력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2.28	49.75	51.93	54.52	55.89	57.10	53.74	55.44	55.30	57.03
권역별	수도권	42.39	48.26	51.10	52.89	55.27	55.40	53.12	54.06	54.24	54.60
	충청권	43.10	51.76	54.05	55.41	55.72	56.11	54.97	55.65	58.24	57.77
	호남/제주권	41.12	53.80	50.90	57.77	54.78	60.88	52.52	58.52	54.42	60.90
	대경/강원권	42.17	48.29	51.42	54.21	57.06	57.80	54.78	54.67	55.00	57.83
	동남권	42.48	47.86	53.14	54.12	57.64	57.48	53.89	56.02	55.55	56.88
평균비교 (ANOVA)		0.540	8.030 ***	2.957 **	5.398 ***	1.406	5.584 ***	1.751	4.748 ***	4.523 ***	9.672 ***
학제 구분별	종합대	42.98	49.57	52.91	54.47	56.99	57.55	55.14	55.02	56.88	57.18
	전문대	41.49	49.96	50.84	54.58	54.64	56.57	52.16	55.93	53.53	56.84
평균비교 (t-test)		1.818 *	0.482	2.941 ***	0.148	2.825 ***	1.204	4.306 ***	1.271	4.914	0.476
설립 유형별	국공립	40.17	47.67	50.71	53.57	57.95	59.36	53.70	53.09	55.07	56.71
	사립	42.51	49.97	52.06	54.62	55.67	56.86	53.74	55.68	55.33	57.06
평균비교 (t-test)		1.685 *	1.689 *	1.131	0.837	1.611	1.702 *	0.039	2.126 **	0.224	0.288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2.38	49.74	53.00	54.66	56.84	57.30	55.04	54.86	56.90	57.31
	비LINC+	42.22	49.75	51.32	54.44	55.34	56.99	52.99	55.76	54.40	56.87
평균비교 (t-test)		0.184	0.017	2.277 **	0.283	1.678 *	0.364	2.793 ***	1.207	3.521 ***	0.595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42.06	50.17	53.84	54.69	56.66	56.36	55.82	55.08	58.18	57.24
	창업선도대	41.84	48.75	49.89	53.17	56.69	59.87	52.72	51.92	54.80	56.69
	LINC+ & 창업선도대	43.31	48.50	50.62	54.57	57.36	59.95	52.81	54.22	53.21	57.50
	일반대	42.25	49.83	51.44	54.54	55.24	56.77	53.02	56.05	54.37	56.88
평균비교 (ANOVA)		0.244	0.507	3.948 ***	0.223	1.218	2.626 **	4.433 ***	2.497 *	9.062 ***	0.134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한 선배를 존경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설립 유형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9.0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67.9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67.6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도 훌륭한 진로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학제 구분별, 설립 유형별,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지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전체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71.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71.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70.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매체를 통한 성공창업 스토리에 접근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전과 설립유형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6.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6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64.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우리 사회가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전 및 사후 집단과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1.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5.3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2.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변의 사람들이 기업가적 활동을 중요시 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제 구분별 사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62.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7.5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LINC+ 지원 대학이 사후 기준 57.6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17]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창업한 선배 존경		창업도 훌륭한 진로		공공매체 통한 성공창업스토리 접근		우리 사회 기업가적 활동 장려		주변인 기업가적 활동 중요시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67.55	65.70	73.83	68.26	61.23	62.14	52.04	55.33	54.91	57.27
권역별	수도권	66.13	63.86	71.54	65.23	60.99	59.22	50.14	51.98	53.93	54.97
	충청권	68.10	65.77	75.57	69.90	62.11	63.93	53.46	56.94	55.91	58.68
	호남/제주권	69.84	69.09	75.06	71.73	60.95	66.33	54.52	61.53	55.78	62.80
	대경/강원권	67.24	66.57	75.20	69.19	60.35	61.84	50.85	55.05	54.68	56.17
	동남권	68.02	65.35	74.13	68.92	62.10	62.90	53.42	54.99	55.27	56.16
평균비교 (ANOVA)		3.064 **	5.335 ***	5.433 ***	9.204 ***	0.700	11.405 ***	6.222 ***	20.101 ***	1.588	15.013
학제 구분별	종합대	70.27	67.99	77.73	71.15	63.85	64.03	52.42	55.36	55.48	57.56
	전문대	64.50	63.00	69.45	64.87	58.28	59.92	51.62	55.28	54.27	56.93
평균비교 (t-test)		7.817 ***	6.417 ***	11.382 ***	7.808 ***	7.381 ***	5.369 ***	1.127	0.106	1.877 *	0.877
설립 유형별	국공립	72.11	66.18	78.16	70.72	63.95	62.38	52.12	53.79	54.78	55.87
	사립	67.07	65.65	73.37	68.00	60.94	62.11	52.03	55.49	54.92	57.42
평균비교 (t-test)		4.077 ***	0.344	4.128 ***	1.770 *	2.337 ***	0.179	0.069	1.335	0.132	1.258
대학재정 지원사업 별	LINC+	69.03	67.62	76.87	70.97	62.66	64.03	52.75	56.15	55.31	57.60
	비LINC+	66.72	64.64	72.10	66.77	60.41	61.10	51.64	54.87	54.69	57.09
평균비교 (t-test)		2.988 ***	3.638 ***	6.333 ***	4.937 ***	2.854 ***	3.654 ***	1.483	1.637	0.922	0.674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69.08	66.70	77.07	70.74	63.81	63.92	52.79	55.41	55.40	57.21
	창업선도대	71.88	65.99	77.66	70.98	64.16	63.72	53.29	57.94	54.42	58.62
	LINC+ & 창업선도대	68.86	70.22	76.29	71.61	59.37	64.33	52.64	58.25	55.05	58.70
	일반대	66.31	64.54	71.66	66.45	60.12	60.90	51.51	54.64	54.71	56.97
평균비교 (ANOVA)		6.207 ***	6.446 ***	16.940 ***	10.087 ***	7.511 ***	5.234 ***	1.112	3.317 **	0.319	0.827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주변에서의 창업 준비 및 시작 기회가 풍부한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12.6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8.4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가 7.5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신규방식의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6.8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3.7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3.1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을 망설이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6.1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1.9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1.6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신규 도전 및 기회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6.4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3.3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2.4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18]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주변 창업 준비 / 시작 기회 공부	신규방식의 일 노력	실패 두려움으로 사업 망설임	신규도전/기회로 위험 감수	신규 기회 취득 경쟁 노력
전체		7.47	2.59	1.21	1.70	1.72
권역별	수도권	5.88	1.79	0.14	0.94	0.35
	충청권	8.65	1.36	0.39	0.68	-0.46
	호남/제주권	12.68	6.87	6.10	6.00	6.48
	대경/강원권	6.12	2.79	0.74	-0.11	2.83
	동남권	5.38	0.98	-0.16	2.14	1.32
학제 구분별	종합대	6.59	1.56	0.55	-0.12	0.30
	전문대	8.46	3.74	1.93	3.76	3.31
설립 유형별	국공립	7.50	2.86	1.41	-0.60	1.64
	사립	7.46	2.56	1.19	1.94	1.7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7.36	1.66	0.46	-0.19	0.41
	비LINC+	7.53	3.12	1.64	2.76	2.47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8.12	0.85	-0.29	-0.74	-0.94
	창업선도대	6.91	3.29	3.17	-0.80	1.89
	LINC+ & 창업선도대	5.19	3.96	2.59	1.41	4.29
	일반대	7.57	3.10	1.53	3.03	2.52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한 선배를 존경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은 2.26점, 충청권은 2.33점, 호남/제주권은 0.75점, 대경/강원권은 0.66점, 동남권 2.6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대는 2.28점, 전문대는 1.50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는 1.41점, 비LINC+는 2.0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도 훌륭한 진도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은 6.31점, 충청권은 5.68점, 호남/제주권은 3.33점, 대경/강원권은 6.01점, 동남권 5.21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대는 6.58점, 전문대는 4.58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는 5.91점, 비LINC+는 5.33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공공매체를 통한 성공창업스토리에 접근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5.3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1.6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가 1.36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우리 사회 기업가적 활동 장려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7.0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3.6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가 3.39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주변인 기업가적 활동을 중요시 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7.0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2.6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2.4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19]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창업한 선배 존경	창업도 훌륭한 진로	공공매체 통한 성공창업스토리 접근	우리 사회 기업가적 활동 장려	주변인 기업가적 활동 중요시
	전체	-1.85	-5.57	0.91	3.29	2.36
권역별	수도권	-2.27	-6.31	-1.77	1.84	1.04
	충청권	-2.33	-5.68	1.83	3.48	2.77
	호남/제주권	-0.75	-3.33	5.38	7.01	7.03
	대경/강원권	-0.66	-6.01	1.48	4.20	1.48
	동남권	-2.68	-5.21	0.80	1.57	0.88
학제 구분별	종합대	-2.28	-6.58	0.18	2.95	2.08
	전문대	-1.50	-4.58	1.64	3.67	2.66
설립 유형별	국공립	-5.93	-7.43	-1.57	1.67	1.09
	사립	-1.42	-5.36	1.17	3.45	2.49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1.41	-5.91	1.36	3.39	2.29
	비LINC+	-2.08	-5.33	0.69	3.24	2.40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38	-6.33	0.11	2.62	1.82
	창업선도대	-5.89	-6.69	-0.44	4.65	4.19
	LINC+ & 창업선도대	1.36	-4.69	4.96	5.61	3.64
	일반대	-1.78	-5.21	0.78	3.14	2.27

③ 응답자 특성별 평가/효과

- 주변의 창업 준비 및 시작 기회가 풍부한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제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제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2.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방식의 일을 시도하는 노력을 보유한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제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제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6.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을 망설이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과 학년별, 수강동기의 사전, 전공별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4학년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9.54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9.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새로운 도전 및 기회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의 사전 및 사후, 전공별 사후,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8.8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새로운 기회를 취득하기 위한 경쟁을 노력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자연계열이 사후 기준 58.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0]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주변 창업 준비 / 시작 기회 공부		신규방식의 일 노력		실패 두려움으로 사업 망설임		신규도전/기회로 위험 감수		신규 기회 취득 경쟁 노력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2.28	49.75	51.93	54.52	55.89	57.10	53.74	55.44	55.30	57.03
성별	남성	44.39	52.75	54.62	57.65	54.06	57.39	55.94	58.40	57.88	59.76
	여성	40.16	46.62	49.16	51.25	57.94	56.90	51.39	52.37	52.65	54.18
	무응답	38.33	47.70	50.00	52.30	48.33	51.16	56.11	51.72	53.34	54.60
평균비교 (ANOVA)		13.804 ***	30.057 ***	30.240 ***	38.852 ***	12.279 ***	1.140	21.730 ***	36.640 ***	29.574 ***	31.373 ***
학년별	1학년	41.56	49.56	51.05	54.05	54.44	56.36	53.03	55.55	54.41	56.55
	2학년	42.58	49.54	51.99	54.34	56.42	56.36	54.20	55.38	56.46	57.16
	3학년	43.92	50.84	53.13	55.89	57.13	57.41	53.82	55.72	55.95	57.76
	4학년	41.85	49.17	51.70	53.85	58.42	59.54	54.30	55.20	54.64	57.06
	석사과정	41.65	66.70	50.00	50.00	41.65	58.35	41.65	41.65	41.65	58.35
	박사과정	83.30	33.30	83.30	66.70	50.00	50.00	66.70	66.70	66.70	66.70
	석박사통합	50.00	83.30	83.30	83.30	50.00	33.30	66.70	83.30	66.70	83.30
	무응답	42.25	50.15	54.29	56.04	53.96	58.03	54.58	54.82	55.97	57.27
평균비교 (ANOVA)		1.027	0.789	1.731 *	0.969	1.988 *	1.291	0.637	0.503	1.224	0.474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43.31	48.77	52.47	53.37	56.15	56.50	54.01	54.22	55.97	56.14
	상경계열	46.42	52.91	53.24	56.81	58.43	59.95	54.27	58.86	57.99	58.37
	공학계열	40.51	50.43	51.58	55.98	56.43	58.89	52.97	56.73	54.77	58.49
	자연계열	43.17	49.43	52.64	54.82	53.76	56.96	54.89	56.58	56.08	58.65
	의학계열	38.82	47.06	49.05	51.34	56.40	55.75	52.39	52.72	53.02	53.07
	예체능계열	45.20	51.73	54.39	56.08	54.80	54.23	56.53	55.33	56.94	58.23
	기타	41.99	50.00	51.18	53.79	54.41	55.63	52.85	54.98	53.83	56.62
	무응답	41.54	45.59	51.01	52.94	54.23	58.83	52.24	52.94	53.73	55.64
평균비교 (ANOVA)		4.150 ***	2.541 **	2.250 **	3.061 ***	1.138	2.523 **	1.708	3.277 ***	2.389 **	3.622 ***
수강동기	창업관심	49.24	56.62	61.57	62.61	52.28	56.38	60.32	62.76	64.49	64.53
	학점이수	39.82	46.98	48.56	51.21	57.19	57.31	51.42	52.41	52.00	53.68
	주위추천	40.25	49.92	50.75	54.80	58.34	57.00	54.02	56.05	54.67	58.46
	기타	43.12	51.90	49.60	55.69	51.45	58.41	50.93	56.10	52.52	58.81
	무응답	44.29	49.78	55.25	58.11	57.08	56.98	55.25	58.92	60.27	63.29
평균비교 (ANOVA)		24.039 ***	26.826 ***	63.789 ***	45.361 ***	7.640 ***	0.329	29.974 ***	39.323 ***	63.637 ***	45.886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주변의 창업 준비 및 시작 기회가 풍부한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2.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방식의 일을 하도록 노력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4학년의 집단의 평균값은 사전보다 사후가 낮게 나왔으나,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6.8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도전 및 기회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전 및 사후, 전공별 사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2.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기회를 취득하기 위해 경쟁을 노력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계열이 사후 기준 58.6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1]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평가(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창업한 선배 존경		창업도 훌륭한 진로		공공매체 통한 성공창업스토리 접근		우리 사회 기업가적 활동 장려		주변인 기업가적 활동 중요시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67.55	65.70	73.83	68.26	61.23	62.14	52.04	55.33	54.91	57.27
성별	남성	69.25	67.63	75.15	69.96	61.74	63.32	52.15	56.44	55.67	58.87
	여성	65.75	63.74	72.57	66.59	60.73	60.96	52.05	54.22	54.05	55.51
	무응답	68.88	60.92	67.22	60.92	59.44	58.62	46.11	51.72	58.34	60.92
평균비교 (ANOVA)		11.120 ***	12.921 ***	7.544 ***	10.071 ***	0.995	5.067 ***	1.326	4.861 ***	3.628 **	11.233 ***
학년별	1학년	65.63	64.16	71.91	66.65	59.83	60.83	51.26	54.59	54.43	57.39
	2학년	67.26	64.58	73.87	67.29	61.42	61.46	53.26	55.69	54.96	56.78
	3학년	69.34	68.45	76.25	72.28	63.15	64.68	52.40	56.52	54.83	57.82
	4학년	70.43	69.35	76.65	71.15	63.49	63.80	52.17	55.42	55.50	57.59
	석사과정	58.30	75.00	50.00	58.35	58.35	66.65	58.35	58.35	58.35	66.65
	박사과정	66.70	66.70	66.70	83.30	66.70	83.30	50.00	66.70	66.70	83.30
	석박사통합	100.00	100.00	100.00	100.00	83.30	100.00	50.00	66.70	66.70	83.30
	무응답	69.23	63.99	73.13	65.29	59.11	62.31	50.71	55.05	56.23	56.19
평균비교 (ANOVA)		3.815 ***	4.636 ***	4.256 ***	5.200 ***	2.502 **	2.682 ***	0.879	0.564	0.479	0.741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68.26	65.59	73.86	68.11	62.62	62.58	52.74	54.95	55.14	57.13
	상경계열	74.59	71.25	78.72	72.01	68.43	67.29	53.34	56.63	57.25	59.61
	공학계열	66.78	67.27	73.71	69.91	59.28	62.23	50.73	56.31	54.61	58.36
	자연계열	68.36	66.48	74.06	70.86	60.57	63.47	51.82	54.72	53.38	56.32
	의학계열	65.11	60.02	71.29	62.65	60.35	58.51	50.52	52.72	54.72	54.97
	예체능계열	68.01	65.59	75.95	69.32	60.73	61.67	53.94	55.91	54.75	56.78
	기타	64.68	63.45	70.55	64.80	60.68	60.61	52.81	55.98	54.05	56.91
	무응답	65.43	65.19	75.51	66.91	56.48	60.30	52.99	53.43	59.46	56.62
평균비교 (ANOVA)		6.054 ***	7.106 ***	4.423 ***	6.553 ***	6.143 ***	4.152 ***	1.596	1.460	1.591	1.671
수강동기	창업관심	75.12	72.20	81.09	74.93	68.26	68.30	57.59	59.72	60.12	62.67
	학점이수	65.04	63.16	71.98	65.78	58.94	59.62	50.27	53.54	53.15	55.06
	주위추천	69.33	65.80	74.75	69.34	60.75	63.05	52.60	57.15	55.70	58.88
	기타	60.45	65.44	60.45	65.31	57.20	62.60	47.62	54.34	50.93	57.45
	무응답	67.81	67.34	71.69	68.26	61.64	63.47	50.91	54.74	55.48	56.76
평균비교 (ANOVA)		37.124 ***	23.938 ***	41.842 ***	23.524 ***	27.960 ***	23.170 ***	20.168 ***	12.708 ***	22.041 ***	20.250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주변의 창업 준비 및 시작 기회가 풍부한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박사통합이 33.3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9.9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신규방식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1학년이 3.0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4.4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실패 두려움으로 사업을 망설이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계열이 3.2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신규 도전 및 기회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박사통합 집단이 16.6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경계열이 4.5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신규 기회 취득을 위해 경쟁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 집단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3.7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22]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주변 창업 준비 /사작 기회 풍부	신규방식의 일 노력	실패 두려움으로 사업 망설임	신규도전/기회로 위험 감수	신규 기회 취득 경쟁 노력
	전체	7.47	2.59	1.21	1.70	1.72
성별	남성	8.36	3.03	3.33	2.46	1.87
	여성	6.46	2.09	-1.04	0.98	1.53
	무응답	9.37	2.30	2.83	-4.39	1.26
학년별	1학년	8.00	3.00	1.92	2.53	2.14
	2학년	6.96	2.36	-0.06	1.18	0.70
	3학년	6.92	2.76	0.28	1.90	1.81
	4학년	7.32	2.16	1.12	0.90	2.42
	석사과정	25.05	0.00	16.70	0.00	16.70
	박사과정	-50.00	-16.60	0.00	0.00	0.00
	석박사통합	33.30	0.00	-16.70	16.60	16.60
	무응답	7.90	1.75	4.07	0.24	1.29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5.46	0.90	0.35	0.21	0.17
	상경계열	6.49	3.58	1.52	4.59	0.37
	공학계열	9.92	4.40	2.46	3.76	3.72
	자연계열	6.26	2.19	3.20	1.69	2.57
	의학계열	8.25	2.29	-0.65	0.33	0.04
	예체능계열	6.53	1.69	-0.57	-1.20	1.29
	기타	8.01	2.61	1.22	2.13	2.79
	무응답	4.04	1.93	4.59	0.69	1.90
수강동기	창업관심	7.38	1.04	4.10	2.45	0.03
	학점이수	7.16	2.65	0.11	0.99	1.68
	주위추천	9.67	4.05	-1.34	2.03	3.79
	기타	8.78	6.09	6.96	5.17	6.29
	무응답	5.48	2.86	-0.10	3.67	3.02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한 선배를 존경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 집단이 유일하게 효과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학년 집단의 경우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 집단이 유일하게 효과성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전공 집단의 경우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창업도 훌륭한 진로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이 16.6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학계열 집단이 8.63점 하락하여 가장 낮은 값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공공매체를 통한 성공 창업 스토리에 접근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 집단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2.9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 강좌 수강 이후 우리 사회가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 집단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5.5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주변인들이 기업가적 활동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과 석박사 통합 집단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3.7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23]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 효과(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창업한 선배 존경	창업도 훌륭한 진로	공공매체 통한 성공창업스토리 접근	우리 사회 기업가적 활동 정려	주변인 기업가적 활동 중요시
	전체	-1.85	-5.57	0.91	3.29	2.36
성별	남성	-1.62	-5.18	1.57	4.29	3.20
	여성	-2.01	-5.98	0.23	2.17	1.46
	무응답	-7.96	-6.30	-0.81	5.61	2.59
학년별	1학년	-1.48	-5.26	0.99	3.33	2.96
	2학년	-2.69	-6.58	0.03	2.43	1.82
	3학년	-0.90	-3.98	1.53	4.12	2.99
	4학년	-1.07	-5.50	0.32	3.25	2.09
	석사과정	16.70	8.35	8.30	0.00	8.30
	박사과정	0.00	16.60	16.60	16.70	16.60
	석박사통합	0.00	0.00	16.70	16.70	16.60
	무응답	-5.23	-7.84	3.19	4.34	-0.04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2.67	-5.75	-0.04	2.21	2.00
	상경계열	-3.34	-6.71	-1.15	3.30	2.36
	공학계열	0.49	-3.80	2.95	5.58	3.75
	자연계열	-1.88	-3.20	2.91	2.90	2.93
	의학계열	-5.09	-8.63	-1.84	2.20	0.25
	예체능계열	-2.42	-6.63	0.94	1.97	2.03
	기타	-1.22	-5.75	-0.07	3.18	2.87
	무응답	-0.23	-8.60	3.82	0.44	-2.84
수강동기	창업관심	-2.92	-6.16	0.04	2.14	2.54
	학점이수	-1.88	-6.20	0.68	3.27	1.91
	주위추천	-3.53	-5.41	2.30	4.56	3.18
	기타	4.99	4.86	5.40	6.72	6.53
	무응답	-0.47	-3.43	1.83	3.82	1.28

④ 창업동기 및 관심분야별 평가/효과

○ 주변의 창업 준비 및 시작 기회가 풍부한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2.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도매/소매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3.7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방식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3.2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3.5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을 망설이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2.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농업임업/어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1.12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새로운 도전 및 기회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1.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농업임업/어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1.12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기회를 취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노력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7.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2.7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주변 창업 준비 / 시작 기회 공부		신규방식의 일 노력		실패 두려움으로 사업 망설임		신규도전/기회로 위험 감수		신규 기회 취득 경쟁 노력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2.28	49.75	51.93	54.52	55.89	57.10	53.74	55.44	55.30	57.03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45.12	51.35	56.02	56.95	53.82	55.54	57.83	58.05	58.85	59.47
	수입 증대 위해	41.51	49.25	50.87	53.51	57.74	57.27	51.71	54.60	54.00	56.03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41.27	48.84	50.18	53.98	57.30	58.84	52.88	54.78	53.98	56.34
	사회공헌 위해	52.08	56.47	62.06	63.26	45.49	57.48	63.89	61.57	70.83	67.01
	사장이 되기 위해	41.05	54.54	52.24	57.89	52.24	57.27	54.35	57.52	55.10	59.02
	가업승계 위해	58.33	62.00	50.76	62.67	58.34	62.00	53.04	57.33	56.81	62.67
	기타	35.19	47.66	45.24	49.74	55.29	59.90	46.56	50.00	48.67	52.34
	무응답	37.88	44.82	47.04	49.05	55.62	55.60	49.76	50.77	50.89	52.48
평균비교 (ANOVA)		6.916 ***	3.904 ***	10.913 ***	5.491 ***	4.780 ***	1.743	12.311 ***	4.573 ***	12.789 ***	5.772 ***
창업 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34.53	45.94	43.77	49.98	57.95	57.17	46.72	51.27	48.30	53.04
	제조업	50.28	51.06	61.87	58.67	56.87	56.40	58.05	57.39	62.71	59.20
	도매/소매업	48.93	53.70	55.59	57.41	54.56	53.71	55.75	55.33	58.13	58.03
	운수업	41.22	52.38	57.03	63.50	47.37	60.31	58.77	55.56	60.18	62.70
	숙박/음식점업	43.58	51.33	52.98	55.67	56.63	58.29	55.31	57.29	55.77	58.3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44.26	52.18	57.43	57.15	53.12	57.85	59.49	60.89	60.30	61.15
	금융/보험업	48.58	44.87	60.48	52.56	58.56	58.55	55.88	55.98	62.39	55.9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6.35	52.29	55.90	57.88	55.52	59.03	55.43	58.89	61.02	60.44
	교육서비스업	48.23	53.98	57.66	57.58	50.59	56.06	58.63	54.92	56.48	58.90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43.79	50.41	55.08	54.25	52.69	56.42	55.18	55.49	56.94	57.45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45.99	50.65	55.51	55.89	54.80	56.08	58.27	56.39	59.79	57.79
	농업임업/어업	42.31	46.30	53.21	51.23	60.89	61.12	54.49	52.47	57.05	53.70
	기타	41.31	50.82	51.79	55.52	55.48	56.22	54.53	56.23	53.70	58.80
	무응답	42.18	46.23	48.48	53.09	56.88	57.03	51.16	53.74	52.97	54.50
평균비교 (ANOVA)		13.560 ***	3.832 ***	21.404 ***	5.746 ***	1.976 **	0.869	15.200 ***	5.747 ***	17.215 ***	4.959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한 선배를 존경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73.33 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72.79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도 훌륭한 진로라고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78.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74.97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 창업스토리에 접근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의 사후를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4.6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0.5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공공매체를 통해 우리 사회가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 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2.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농림임업/어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4.2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주변의 사람들이 기업가적 활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4.6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금융/보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3.24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평가(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창업한 선배 존경		창업도 훌륭한 진로		공공매체 통한 성공창업스토리 접근		우리 사회 기업가적 활동 장려		주변인 기업가적 활동 중요시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67.55	65.70	73.83	68.26	61.23	62.14	52.04	55.33	54.91	57.27
창업 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70.38	67.78	75.94	69.95	64.48	63.55	54.13	56.40	56.48	57.60
	수입 증대 위해	66.13	64.26	72.78	67.19	59.65	60.94	51.61	54.77	54.09	56.94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69.96	66.89	76.64	69.92	61.64	63.40	51.13	54.75	55.20	57.66
	사회공헌 위해	75.35	69.73	81.25	73.12	68.06	64.29	60.07	62.24	64.24	64.63
	사장이 되기 위해	64.68	65.92	70.02	69.42	58.52	63.03	51.38	58.52	55.89	60.52
	기업승계 위해	80.29	73.33	81.06	78.67	71.22	64.67	53.79	59.33	56.82	58.67
	기타	59.26	59.11	64.25	58.07	51.06	59.79	45.50	53.38	47.88	54.43
	무응답	58.10	60.99	65.41	62.23	56.97	58.07	49.58	52.83	51.43	54.06
평균비교 (ANOVA)		8.982 ***	3.898 ***	8.127 ***	4.960 ***	8.693 ***	1.701	4.263 ***	2.170 **	5.036 ***	1.872 *
창업 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59.93	60.81	65.40	63.54	54.58	58.11	48.50	53.07	49.84	53.84
	제조업	72.97	67.33	78.43	70.40	66.53	63.46	53.08	58.13	56.44	58.53
	도매/소매업	72.41	66.97	78.05	69.91	65.35	64.20	54.35	58.02	57.51	58.80
	운수업	69.30	61.11	68.42	68.25	54.38	63.49	60.53	57.14	64.92	58.73
	숙박/음식점업	71.14	66.55	78.12	68.88	63.52	63.04	52.62	54.38	56.36	57.31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74.59	72.79	83.02	74.97	65.79	65.52	53.13	56.12	57.43	61.52
	금융/보험업	70.48	65.81	72.37	65.81	64.71	60.67	53.33	56.40	55.72	63.2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70.60	70.97	76.77	72.71	65.45	64.01	51.98	56.32	56.09	58.52
	교육서비스업	66.67	70.64	77.85	72.91	66.67	65.72	54.96	57.28	58.63	57.09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70.81	66.77	75.47	70.29	63.67	65.32	56.11	57.61	59.17	59.58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70.27	66.80	77.42	70.15	62.44	64.45	54.19	56.53	56.54	58.27
	농업임업/어업	72.43	64.82	78.01	64.20	66.03	62.97	48.07	64.20	55.77	62.35
	기타	64.17	65.97	70.12	67.61	59.05	60.64	52.26	54.70	53.22	56.69
	무응답	61.91	61.49	66.96	63.46	59.49	59.18	51.53	54.68	56.09	56.74
평균비교 (ANOVA)		17.263 ***	7.329 ***	22.794 ***	6.489 ***	11.674 ***	4.239 ***	3.938 ***	2.194 **	8.619 ***	3.864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주변에서 창업을 준비하거나 시작하는 기회가 풍부한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13.5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1.4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신규 방식의 일을 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업승계를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11.9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6.2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였으나 대부분의 항목들은 오히려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사업을 망설이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공헌을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11.9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수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2.9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신규 도전 및 기회로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업 승계를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4.3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4.5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신규 기회를 취득하기 위해 경쟁하는 노력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5.8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5.1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26]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종합/차원 효과(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주변 창업 준비 /사작 기회 풍부	신규방식의 일 노력	실패 두려움으로 사업 망설임	신규도전/기회로 위험 감수	신규 기회 취득 경쟁 노력
	전체	7.47	2.59	1.21	1.70	1.72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6.23	0.93	1.71	0.23	0.62
	수입 증대 위해	7.74	2.64	-0.47	2.89	2.03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7.57	3.80	1.54	1.91	2.37
	사회공헌 위해	4.38	1.20	11.99	-2.32	-3.82
	사장이 되기 위해	13.50	5.65	5.03	3.17	3.92
	기업승계 위해	3.67	11.91	3.66	4.30	5.86
	기타	12.46	4.51	4.60	3.43	3.67
	무응답	6.93	2.01	-0.02	1.01	1.59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11.41	6.21	-0.78	4.55	4.73
	제조업	0.78	-3.20	-0.46	-0.66	-3.51
	도매/소매업	4.77	1.82	-0.86	-0.42	-0.10
	운수업	11.16	6.47	12.94	-3.22	2.51
	숙박/음식점업	7.74	2.69	1.66	1.98	2.58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7.92	-0.28	4.73	1.40	0.85
	금융/보험업	-3.71	-7.91	-0.01	0.10	-6.40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5.94	1.98	3.50	3.45	-0.57
	교육서비스업	5.75	-0.08	5.47	-3.71	2.42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6.63	-0.83	3.73	0.31	0.52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4.67	0.38	1.28	-1.88	-2.00
	농업임업/어업	3.98	-1.98	0.23	-2.03	-3.34
	기타	9.51	3.73	0.74	1.70	5.11
	무응답	4.05	4.60	0.15	2.59	1.53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한 선배를 존경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1.2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3.9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도 훌륭한 진로라고 생각한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들에 대해 평균값이 평균 5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항목들에 대해 평균값이 평균 6점 이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강좌 수강 이후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창업 스토리에 접근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8.73점 상승해 높은 효과성을 보였으나, 사회공헌을 위해, 자아실현을 위해, 가업승계를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수업이라고 응답한 집단이 9.11점으로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우리 사회가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한다고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7.1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임업/어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6.1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주변인들이 기업가적 활동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한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6.5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금융/보험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7.5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27]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종합/차원 효과(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창업한 선배 존경	창업도 훌륭한 진로	공공매체 통한 성공창업스토리 접근	우리 사회 기업가적 활동 장려	주변인 기업가적 활동 중요시
	전체	-1.85	-5.57	0.91	3.29	2.36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2.60	-6.00	-0.93	2.27	1.12
	수입 증대 위해	-1.87	-5.60	1.29	3.16	2.85
	직장생활 독립성 자유 위해	-3.08	-6.72	1.76	3.62	2.47
	사회공헌 위해	-5.62	-8.13	-3.77	2.17	0.39
	사장이 되기 위해	1.24	-0.60	4.51	7.14	4.63
	기업승계 위해	-6.96	-2.39	-6.55	5.54	1.85
	기타	-0.15	-6.17	8.73	7.88	6.55
	무응답	2.90	-3.18	1.10	3.25	2.64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0.88	-1.86	3.52	4.57	4.00
	제조업	-5.64	-8.03	-3.07	5.05	2.09
	도매/소매업	-5.44	-8.14	-1.15	3.67	1.29
	운수업	-8.19	-0.17	9.11	-3.39	-6.19
	숙박/음식점업	-4.59	-9.24	-0.48	1.75	0.9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1.81	-8.05	-0.28	3.00	4.09
	금융/보험업	-4.67	-6.56	-4.04	3.07	7.52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0.38	-4.07	-1.44	4.34	2.43
	교육서비스업	3.98	-4.93	-0.95	2.32	-1.54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4.04	-5.18	1.65	1.49	0.41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3.48	-7.27	2.01	2.34	1.73
	농업임업/어업	-7.61	-13.81	-3.06	16.12	6.59
	기타	1.80	-2.52	1.59	2.44	3.47
	무응답	-0.42	-3.49	-0.31	3.15	0.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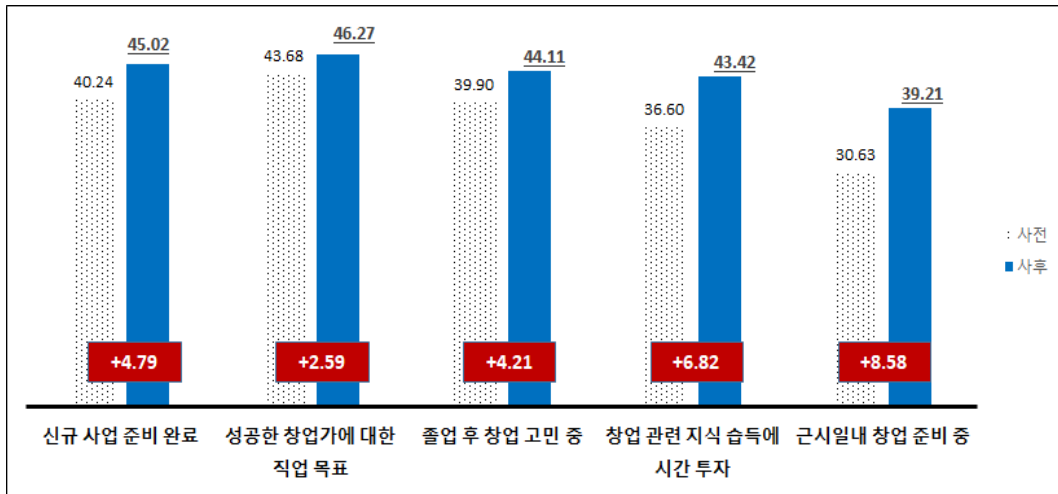
③ [기업가적 의도]차원 효과

① 개요

- 2018년도 창업강좌 수강 이전 보다 대체적으로 기업가적 의도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 졸업 후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도와 창업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를 제외한 전체 항목이 창업강좌 수강 이후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여 효과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졸업 후 창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정도는 사전 66.73점이었으나, 사후 64.57점으로 하락함
 - 창업도 훌륭한 진로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사전 61.57점이었으나, 사후 61.53점으로 하락함

[그림 III-4] 기업가적 의도의 평가/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② 학교 특성별 차원 평가 및 효과

-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설립유형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이 사후 기준 41.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5.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5.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가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설립유형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0.9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6.6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6.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졸업 후 창업을 고민중인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설립유형별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48.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4.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3.6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설립유형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이 사후 기준 41.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5.7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5.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근시일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학제 구분별, 설립 유형별,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이 사후 기준 44.3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1.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0.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8]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학교 특성별 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신규 사업 준비 완료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		졸업 후 창업 고민 중		창업 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 투자		근시일내 창업 준비 중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0.24	45.02	43.68	46.27	39.90	44.11	36.60	43.42	30.63	39.21
권역별	수도권	40.00	43.75	42.62	44.32	39.44	42.49	36.28	41.51	30.30	37.48
	충청권	41.59	46.11	45.21	46.31	41.21	44.68	36.98	44.19	30.52	39.01
	호남/제주권	40.49	47.29	44.05	50.97	40.59	48.51	36.26	48.01	30.04	44.37
	대경/강원권	38.99	45.24	43.28	45.84	38.32	43.11	36.59	43.22	30.24	38.80
	동남권	40.23	43.96	44.38	46.25	40.39	43.50	37.33	42.13	32.83	38.32
평균비교 (ANOVA)		0.887	2.502**	1.015	5.750***	1.014	4.902***	0.203	6.232***	0.974	6.098***
학제 구분별	종합대	40.16	44.43	44.37	45.98	41.10	44.01	37.26	42.88	29.74	37.06
	전문대	40.31	45.72	42.91	46.61	38.55	44.22	35.85	44.05	31.63	41.74
평균비교 (t-test)		0.178	1.517	1.516	0.680	2.687***	0.222	1.631	1.285	2.120**	4.854***
설립 유형별	국공립	38.94	39.99	43.52	41.80	39.00	40.21	34.75	39.07	26.96	33.61
	사립	40.37	45.55	43.70	46.74	40.00	44.51	36.79	43.88	31.02	39.80
평균비교 (t-test)		1.002	3.707***	0.112	3.077***	0.619	2.655***	1.388	3.098***	2.679***	3.77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39.87	45.02	43.82	46.10	40.15	44.33	36.33	42.94	29.43	37.51
	비LINC+	40.44	45.03	43.60	46.37	39.76	43.98	36.74	43.68	31.31	40.15
평균비교 (t-test)		0.650	0.004	0.219	0.274	0.404	0.346	0.457	0.778	2.055**	2.633***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40.51	45.26	43.86	45.60	39.66	43.84	36.12	42.61	29.16	36.96
	창업선도대	37.53	39.00	42.06	41.39	38.89	38.89	34.01	39.23	27.10	33.90
	LINC+ & 창업선도대	38.05	44.34	43.71	47.50	41.58	45.72	36.94	43.89	30.19	39.06
	일반대	40.67	45.48	43.72	46.74	39.82	44.37	36.96	44.02	31.64	40.62
평균비교 (ANOVA)		1.732	3.377**	0.190	2.228*	0.491	2.259*	0.810	1.935	2.971**	5.490***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6.8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5.4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가 5.1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를 가지고 있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6.9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3.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2.7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졸업 후 창업을 고민중인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7.9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5.6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4.2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11.7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8.2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6.9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근시일내 창업을 준비 중인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14.3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10.1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8.84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29]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학교 특성별 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신규 사업 준비 완료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	졸업 후 창업 고민 중	창업 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 투자	근시일내 창업 준비 중
	전체	4.79	2.59	4.21	6.82	8.58
권역별	수도권	3.75	1.70	3.05	5.24	7.17
	충청권	4.52	1.10	3.47	7.21	8.48
	호남/제주권	6.81	6.92	7.92	11.75	14.33
	대경/강원권	6.25	2.56	4.78	6.63	8.56
	동남권	3.73	1.87	3.11	4.81	5.49
학제 구분별	종합대	4.27	1.61	2.91	5.62	7.32
	전문대	5.40	3.70	5.67	8.21	10.10
설립 유형별	국공립	1.04	-1.71	1.21	4.32	6.64
	사립	5.18	3.04	4.52	7.08	8.78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5.15	2.27	4.18	6.61	8.08
	비LINC+	4.58	2.76	4.23	6.94	8.84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4.76	1.74	4.18	6.49	7.80
	창업선도대	1.47	-0.68	0.00	5.22	6.80
	LINC+ & 창업선도대	6.29	3.79	4.14	6.95	8.87
	일반대	4.81	3.02	4.54	7.06	8.98

③ 응답자 특성별 차원 평가 및 효과

-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예체능계열이 사후 기준 48.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적 목표를 가진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자연계열이 사후 기준 48.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신규 사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6.7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예체능계열이 사후 기준 47.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학년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0.0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자연계열이 사후 기준 47.2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근시일내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 학년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0.0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기타 계열이 사후 기준 43.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30]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응답자 특성별 차원 평가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신규 사업 준비 완료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		졸업 후 창업 고민 중		창업 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 투자		근시일내 창업 준비 중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4.00	57.16	59.34	60.23	66.73	64.57	61.57	61.53	53.51	57.43
성별	남성	43.03	48.82	48.07	51.41	43.84	48.93	39.55	48.17	33.09	43.56
	여성	37.44	40.99	39.11	40.87	35.79	38.94	33.50	38.41	28.09	34.62
	무응답	33.89	45.98	42.78	44.26	40.00	47.12	37.22	42.53	29.45	38.51
평균비교 (ANOVA)		23.261 ***	43.205 ***	44.490 ***	64.927 ***	36.468 ***	56.678 ***	24.492 ***	58.977 ***	15.630 ***	43.743 ***
학년별	1학년	39.29	43.97	41.53	45.09	37.29	42.84	34.45	42.33	28.73	38.56
	2학년	41.71	46.06	45.11	47.02	41.00	44.75	38.14	43.59	32.45	39.89
	3학년	40.21	46.26	45.90	48.04	43.68	46.40	38.41	46.10	31.95	40.37
	4학년	39.48	43.72	43.30	45.07	39.41	42.56	35.78	41.34	29.41	36.13
	석사과정	41.65	41.65	33.35	41.70	33.35	41.65	33.35	41.65	25.00	41.70
	박사과정	50.00	83.30	83.30	83.30	50.00	66.70	33.30	50.00	33.30	50.00
	석박사통합	50.00	66.70	33.30	50.00	33.30	50.00	66.70	50.00	16.70	50.00
	무응답	41.55	46.85	46.20	48.54	43.03	46.85	40.39	47.39	34.19	44.39
평균비교 (ANOVA)		0.934	1.590	2.541 **	1.390	3.719 ***	1.601	3.223 ***	2.263 **	2.610 **	2.323 **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40.68	43.73	43.97	44.55	40.31	42.40	38.05	41.79	31.61	36.82
	상경계열	39.96	45.79	46.59	47.34	42.76	45.11	39.69	44.47	30.19	38.35
	공학계열	39.53	46.08	42.74	47.81	39.00	45.64	34.44	44.27	29.04	40.04
	자연계열	42.73	45.53	47.75	48.74	43.67	47.11	40.16	47.23	33.84	41.45
	의학계열	34.71	40.59	34.37	39.73	30.36	37.75	30.31	37.74	24.53	35.11
	예체능계열	43.81	48.73	48.35	50.36	44.79	47.15	39.96	46.59	34.78	42.61
	기타	42.15	46.42	46.40	47.76	42.58	45.09	37.74	45.09	32.85	43.33
	무응답	41.04	42.40	44.28	43.38	40.30	45.35	36.81	41.67	33.58	38.73
평균비교 (ANOVA)		4.954 ***	3.832 ***	10.000 ***	5.935 ***	10.552 ***	5.070 ***	7.380 ***	5.062 ***	6.288 ***	4.220 ***
수강동기	창업관심	51.61	55.14	61.63	60.69	57.37	58.33	51.05	55.46	43.40	51.06
	학점이수	36.17	41.12	37.62	41.13	33.97	38.87	31.22	38.77	26.00	34.78
	주위추천	38.44	46.94	38.11	45.13	35.68	42.85	33.84	44.15	26.64	39.73
	기타	39.68	44.04	42.33	41.74	37.30	42.98	38.62	42.82	33.86	38.07
	무응답	43.38	42.34	47.49	47.08	43.37	43.92	43.14	43.92	34.93	36.94
평균비교 (ANOVA)		63.071 ***	51.207 ***	127.882 ***	84.811 ***	122.643 ***	80.655 ***	103.533 ***	63.455 ***	73.398 ***	53.434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완료된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이 33.3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6.5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적 목표가 있는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이 8.3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학계열이 5.3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졸업 후 창업을 고민 중인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학계열이 7.4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졸업 후 근시일내 창업 준비 중인 정도에 대한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박사통합 집단이 33.3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11.0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31]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응답자 특성별 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신규 사업 준비 완료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	졸업 후 창업 고민 중	창업 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 투자	근시일내 창업 준비 중
	전체	3.16	0.89	-2.16	-0.04	3.92
성별	남성	5.79	3.34	5.09	8.62	10.47
	여성	3.55	1.76	3.15	4.92	6.53
	무응답	12.09	1.47	7.12	5.30	9.06
학년별	1학년	4.68	3.56	5.55	7.88	9.83
	2학년	4.35	1.91	3.75	5.44	7.44
	3학년	6.06	2.14	2.71	7.69	8.43
	4학년	4.24	1.76	3.15	5.56	6.72
	석사과정	0.00	8.35	8.30	8.30	16.70
	박사과정	33.30	0.00	16.70	16.70	16.70
	석박사통합	16.70	16.70	16.70	-16.70	33.30
	무응답	5.30	2.34	3.83	7.00	10.21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3.05	0.58	2.10	3.74	5.21
	상경제열	5.83	0.75	2.34	4.78	8.16
	공학계열	6.55	5.07	6.64	9.83	11.00
	자연계열	2.80	0.99	3.44	7.07	7.61
	의학계열	5.87	5.36	7.40	7.43	10.58
	예체능계열	4.92	2.01	2.36	6.63	7.83
	기타	4.27	1.36	2.51	7.34	10.47
	무응답	1.36	-0.90	5.05	4.86	5.15
수강동기	창업관심	3.53	-0.93	0.96	4.40	7.66
	학점이수	4.95	3.51	4.90	7.54	8.78
	주위추천	8.49	7.02	7.17	10.31	13.09
	기타	4.36	-0.59	5.68	4.20	4.21
	무응답	-1.03	-0.41	0.55	0.78	2.01

④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평가 및 효과

○ 신규 사업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2.0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도매/소매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2.24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가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가업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7.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제조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5.34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졸업 후 창업을 고민중인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4.4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3.96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3.4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48.4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근시일내 창업을 준비중에 있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0.3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제조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48.9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32]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창업동기/관심별 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신규 사업 준비 완료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		졸업 후 창업 고민 중		창업 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 투자		근시일내 창업 준비 중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0.24	45.02	43.68	46.27	39.90	44.11	36.60	43.42	30.63	39.21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44.41	47.88	48.90	49.89	44.05	48.21	41.30	47.59	34.19	42.30
	수입 증대 위해	39.17	44.28	42.28	45.44	38.34	42.69	34.30	42.47	29.25	38.77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39.03	44.13	43.14	45.22	40.39	43.02	35.62	41.82	29.33	37.13
	사회공헌 위해	56.94	55.44	55.21	56.47	55.56	54.43	52.78	53.40	44.79	50.34
	사장이 되기 위해	43.16	48.24	50.00	50.63	44.36	48.87	39.43	47.75	35.95	47.12
	기업승계 위해	47.73	52.01	50.76	57.34	49.24	54.00	43.18	47.33	32.58	41.33
	기타	31.75	39.58	31.22	40.11	28.05	38.81	29.63	39.85	23.02	35.68
	무응답	30.89	38.18	30.66	37.00	28.04	35.23	29.23	34.34	24.17	31.39
평균비교(ANOVA)		11.057***	4.932***	10.523***	5.748***	9.426***	6.587***	12.099***	6.344***	8.188***	5.775***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27.63	36.39	25.55	34.41	22.82	32.38	23.66	33.70	19.82	30.13
	제조업	50.70	50.27	57.42	55.34	52.94	53.20	47.62	51.73	41.18	48.93
	도매/소매업	47.52	52.24	55.36	53.86	52.23	51.00	47.36	47.92	40.35	45.45
	운수업	45.62	48.41	56.14	52.38	50.00	53.96	35.09	48.41	34.22	43.64
	숙박/음식점업	43.66	48.48	50.97	50.52	45.37	48.94	37.91	46.98	32.57	42.92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44.44	48.12	48.75	51.40	45.38	48.12	40.89	46.79	30.84	39.39
	금융/보험업	40.47	46.16	50.96	50.43	42.86	47.01	41.90	43.59	35.72	38.4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5.51	46.87	51.87	49.73	46.72	46.41	44.38	46.50	34.83	43.01
	교육서비스업	46.47	48.11	49.61	51.33	46.03	47.54	44.70	47.16	37.46	41.10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44.62	44.41	46.58	46.17	42.96	45.86	42.03	44.20	34.27	39.76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46.11	49.13	51.16	51.17	47.86	49.52	42.40	48.43	37.22	43.54
	농업임업/어업	40.38	44.45	46.80	45.07	38.47	44.44	33.98	46.30	26.93	40.13
	기타	43.93	46.95	45.80	49.42	43.34	45.66	40.00	46.83	30.12	40.73
	무응답	38.85	43.35	41.33	44.29	38.41	42.04	35.14	40.83	31.81	38.86
평균비교 (ANOVA)		33.138***	14.051***	56.549***	21.728***	50.622***	20.431***	35.173***	15.296***	22.928***	12.362***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신규 사업의 준비가 완료된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7.8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8.7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적 목표가 있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8.8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8.8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졸업 후 창업에 대해 고민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10.7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9.5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과 관련된 지식 습득에 시간을 투자하는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10.2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수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3.3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근시일내 창업하기 위해 준비한 정도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의 이유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12.6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임업/어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3.1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33]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창업동기/관심별 차원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신규 사업 준비 완료	성공한 창업가에 대한 직업 목표	졸업 후 창업 고민 중	창업 관련 지식 습득에 시간 투자	근시일내 창업 준비 중
	전체	4.79	2.59	4.21	6.82	8.58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3.47	0.99	4.16	6.30	8.11
	수입 증대 위해	5.11	3.16	4.34	8.17	9.52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5.10	2.09	2.63	6.20	7.80
	사회공헌 위해	-1.50	1.26	-1.13	0.62	5.55
	사장이 되기 위해	5.08	0.63	4.51	8.31	11.17
	기업승계 위해	4.28	6.58	4.76	4.15	8.75
	기타	7.83	8.89	10.76	10.22	12.66
	무응답	7.29	6.34	7.19	5.11	7.22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8.76	8.86	9.56	10.04	10.30
	제조업	-0.43	-2.08	0.26	4.12	7.76
	도매/소매업	4.72	-1.50	-1.23	0.56	5.10
	운수업	2.80	-3.76	3.96	13.32	9.43
	숙박/음식점업	4.82	-0.45	3.57	9.06	10.35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3.68	2.65	2.74	5.90	8.56
	금융/보험업	5.69	-0.53	4.16	1.69	2.7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37	-2.14	-0.31	2.12	8.17
	교육서비스업	1.64	1.72	1.51	2.45	3.65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0.21	-0.41	2.90	2.17	5.49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3.02	0.01	1.66	6.02	6.32
	농업임업/어업	4.06	-1.73	5.98	12.32	13.19
	기타	3.02	3.61	2.32	6.83	10.61
	무응답	4.50	2.96	3.64	5.68	7.05

④ [창업환경/기업가인식]차원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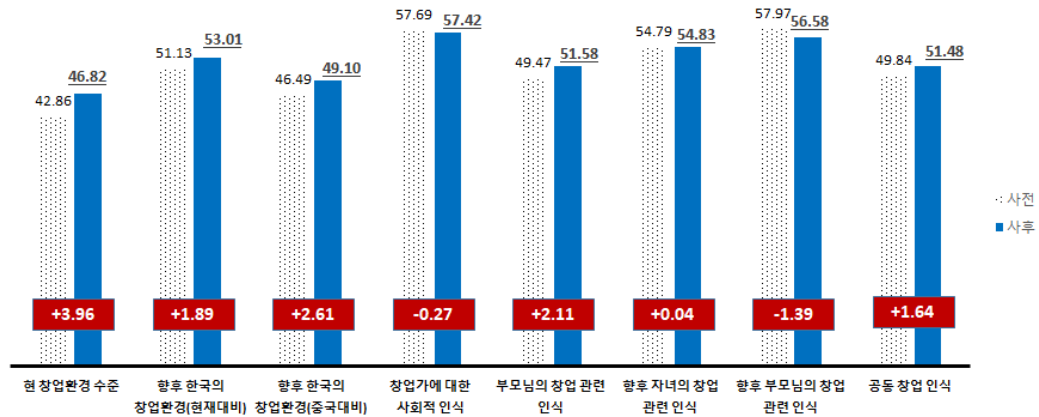
① 개요

- 2018년도 창업강좌 수강 이전 보다 대체적으로 창업환경/기업가인식에 대한 평균값이 높게 나타남.
-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와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이 긍정적인 정도를 제외한 전체 항목이 창업강좌 수강 이후 비교적 높은 평균값을 보여 효과성이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좋다고 생각하는 정도 사전 57.69점이었으나, 사후에 57.42점으로 다소 하락함.
-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이 긍정적인 정도는 사전 57.97점이었으나, 사후 56.58점으로 하락함.

[그림 III-5] 창업환경/의지의 평가/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점



② 학교 특성별 차원 평가 및 효과

- 현 창업환경 수준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전 및 사후, 설립유형별과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0.1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47.3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6.9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설립유형별 사전 및 사후와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5.7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3.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설립유형별, 대학재정지원 사업별, 재정지원+창업선도 여부별 사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2.31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0.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LINC+ 대학이 사후 기준 49.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설립 유형별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이 사후 기준 60.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8.7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9.0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3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 - 학교 특성별 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현 창업환경 수준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중국대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2.86	46.82	51.13	53.01	46.49	49.10	57.69	57.42
권역별	수도권	42.11	44.97	50.30	50.50	45.71	46.73	56.46	55.72
	충청권	44.09	48.16	52.33	54.67	46.90	50.72	59.50	60.15
	호남/제주권	44.20	50.19	52.43	55.70	48.66	52.31	60.15	58.61
	대경/강원권	41.60	45.90	49.46	53.47	45.71	49.50	57.31	57.87
	동남권	43.02	47.08	52.02	53.77	46.24	48.95	55.83	56.35
평균비교 (ANOVA)		2.250 *	7.180 ***	2.794 **	8.314 ***	2.251 *	7.995 ***	5.594 ***	5.781 ***
학제 구분별	종합대	42.77	46.40	52.38	53.95	45.49	47.98	59.30	58.75
	전문대	42.97	47.32	49.72	51.91	47.62	50.42	55.89	55.85
평균비교 (t-test)		0.295	1.300	3.829 ***	2.918 ***	2.997 ***	3.371 ***	4.991 ***	4.170 ***
설립 유형별	국공립	41.58	44.91	51.86	54.17	45.19	45.67	60.80	58.55
	사립	43.00	47.02	51.05	52.89	46.63	49.46	57.36	57.30
평균비교 (t-test)		1.227	1.749 *	0.685	1.020	1.195	3.047 ***	2.811 ***	1.049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3.51	46.91	52.22	53.79	46.67	49.54	59.13	59.03
	비LINC+	42.49	46.78	50.50	52.58	46.40	48.86	56.87	56.53
평균비교 (t-test)		1.443	0.182	2.339 **	1.620	0.364	0.889	3.130 ***	3.430 ***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43.40	46.02	51.51	53.47	45.96	48.58	59.39	59.02
	창업선도대	42.40	48.41	54.54	56.58	45.35	47.84	60.62	58.39
	LINC+ & 창업선도대	43.83	49.44	54.30	54.72	48.71	52.28	58.39	59.06
	일반대	42.50	46.65	50.19	52.28	46.48	48.94	56.58	56.39
평균비교 (ANOVA)		0.731	2.493 *	5.605 ***	3.294 **	1.560	2.734 **	5.503 ***	4.383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설립유형별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3.5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문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2.8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1.8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설립유형별 사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충청권이 사후 기준 57.0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6.2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6.1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설립유형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9.5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8.1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8.7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동 창업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권역별 사후, 학제 구분별 및 대학재정지원사업별 사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지역 모두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호남/제주권이 사후 기준 53.9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학제 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종합대의 평균이 사후 기준 52.00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비슷한 수준이나 비LINC+ 대학이 사후 기준 51.6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3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학교 특성별 자원 평가(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공동 창업 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9.47	51.58	54.79	54.83	57.97	56.58	49.84	51.48
권역별	수도권	49.18	50.72	53.55	52.52	55.68	54.27	50.14	50.58
	충청권	52.01	53.57	57.14	57.05	60.59	59.50	49.89	52.39
	호남/제주권	48.79	52.81	55.77	56.61	59.40	58.02	49.88	53.95
	대경/강원권	48.80	50.50	53.32	55.28	58.19	57.01	48.52	50.16
	동남권	48.44	51.09	55.41	55.44	58.24	56.64	50.62	51.28
평균비교 (ANOVA)		2.365*	2.392**	3.306**	5.756***	5.188***	6.115***	0.525	2.466**
학제 구분별	종합대	48.77	50.49	57.36	56.24	60.67	58.15	51.75	52.00
	전문대	50.26	52.87	51.91	53.18	54.95	54.73	47.71	50.87
평균비교 (t-test)		1.875*	3.075***	6.847***	3.970***	7.069***	4.352***	4.634***	1.360
설립 유형별	국공립	45.99	47.66	56.75	55.52	61.33	56.22	50.82	50.65
	사립	49.84	51.99	54.58	54.76	57.61	56.61	49.74	51.57
평균비교 (t-test)		2.819***	3.085***	1.588	0.574	2.684***	0.287	0.726	0.641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49.64	51.20	56.67	56.16	60.63	58.74	50.86	51.11
	비LINC+	49.37	51.80	53.73	54.10	56.45	55.38	49.27	51.69
평균비교 (t-test)		0.314	0.742	3.509***	2.517**	4.945***	3.960***	1.710*	0.638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50.08	51.25	56.78	55.88	60.55	58.45	50.49	50.80
	창업선도대	45.40	49.66	58.22	56.46	62.33	56.69	51.37	53.18
	LINC+ & 창업선도대	48.37	51.06	56.35	56.94	60.87	59.55	51.91	52.00
	일반대	49.68	51.96	53.38	53.92	56.00	55.29	49.11	51.58
평균비교 (ANOVA)		2.083	0.681	6.272***	2.940**	11.653***	5.816***	1.632	0.535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현 창업 환경 수준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5.9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4.3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4.2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현재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경/강원권이 약 4.0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2.1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2.0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중국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청권이 약 3.8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2.8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가 2.8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충청권이 약 0.6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대는 0.55점, 전문대는 0.0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가 0.10점, 비LINC+ 0.34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표 III-36]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 학교 특성별 차원 효과(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현 창업환경 수준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중국대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체	3.96	1.89	2.61	-0.27
권역별	수도권	2.86	0.19	1.02	-0.74
	충청권	4.06	2.34	3.82	0.66
	호남/제주권	5.99	3.27	3.65	-1.53
	대경/강원권	4.29	4.01	3.79	0.57
	동남권	4.05	1.75	2.71	0.52
학제 구분별	종합대	3.63	1.57	2.49	-0.55
	전문대	4.35	2.18	2.81	-0.04
설립 유형별	국공립	3.33	2.31	0.48	-2.25
	사립	4.03	1.84	2.83	-0.06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3.40	1.57	2.87	-0.10
	비LINC+	4.28	2.08	2.46	-0.34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2.62	1.96	2.62	-0.37
	창업선도대	6.01	2.04	2.50	-2.23
	LINC+ & 창업선도대	5.62	0.43	3.57	0.67
	일반대	4.15	2.09	2.46	-0.19

- 창업강좌 수강 이후 부모님이 창업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4.0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2.6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2.4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향후 자녀의 창업과 관련된 인식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다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대경/강원이 약 1.9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였으나, 수도권은 1.03점, 충청권은 0.0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1.2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0.38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향후 부모님이 창업에 대해 인식하는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수도권이 1.42점, 충청권이 1.08점, 호남/제주권이 1.37점, 대경/강원권이 1.19점, 동남권이 1.59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종합대가 2.51점, 전문대가 0.22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LINC+가 1.90점, 비LINC+가 1.07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강좌 수강 이후 공동 창업 인식 정도에 대한 학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권역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호남/제주권이 약 4.0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학제구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문대가 3.1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비LINC+가 2.4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37]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 - 학교 특성별 차원 효과(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공동 창업 인식
	전체	2.11	0.04	-1.39	1.64
권역별	수도권	1.54	-1.03	-1.42	0.44
	충청권	1.56	-0.09	-1.08	2.50
	호남/제주권	4.02	0.84	-1.37	4.07
	대경/강원권	1.70	1.96	-1.19	1.64
	동남권	2.64	0.03	-1.59	0.66
학제 구분별	종합대	1.73	-1.12	-2.51	0.26
	전문대	2.61	1.27	-0.22	3.16
설립 유형별	국공립	1.68	-1.23	-5.11	-0.17
	사립	2.16	0.18	-1.00	1.83
대학재정 지원사업별	LINC+	1.56	-0.51	-1.90	0.25
	비LINC+	2.42	0.38	-1.07	2.42
재정지원 + 창업선도 여부별	LINC+	1.17	-0.90	-2.10	0.31
	창업선도대	4.25	-1.76	-5.64	1.81
	LINC+ & 창업선도대	2.68	0.60	-1.31	0.09
	일반대	2.28	0.55	-0.71	2.47

③ 응답자 특성별 차원 평가 및 효과

- 현 창업환경 수준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6.7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기타 계열이 사후 기준 48.0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 수준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의 사전과 학년별의 사후,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기타 계열이 사후 기준 53.9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 수준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100.0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기타 계열이 사후 기준 50.5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 계열이 사후 기준 59.7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38]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응답자 특성별 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현 창업환경 수준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중국대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2.28	49.75	51.93	54.52	55.89	57.10	53.74	55.44
성별	남성	42.76	47.23	49.63	53.09	45.30	48.88	57.78	58.02
	여성	43.06	46.50	52.73	53.04	47.71	49.35	57.53	56.74
	무응답	38.33	41.38	49.45	47.12	47.78	48.27	61.12	59.78
평균비교 (ANOVA)		0.931	1.597	9.955 ***	1.261	5.734 ***	0.229	0.538	1.892
학년별	1학년	43.31	46.71	51.82	52.45	47.87	50.15	57.44	56.72
	2학년	42.78	46.54	50.25	52.51	46.90	49.04	57.67	57.42
	3학년	42.08	47.31	51.18	54.10	45.58	48.14	58.08	58.40
	4학년	41.37	46.00	50.73	53.48	43.20	47.14	57.62	58.37
	석사과정	58.35	33.30	58.35	16.65	66.65	66.65	50.00	58.35
	박사과정	33.30	50.00	16.70	33.30	0.00	16.70	50.00	33.30
	석박사통합	50.00	66.70	83.30	83.30	83.30	100.00	83.30	83.30
	무응답	45.43	49.31	51.17	54.84	46.12	49.77	58.49	56.94
평균비교 (ANOVA)		1.396	0.926	1.340	2.121 **	4.347 ***	2.652 **	0.427	1.015
전공별	인문/사회/ 교육계열	43.02	47.26	51.94	54.34	46.72	49.81	57.69	57.75
	상경계열	43.17	46.72	51.78	53.91	43.37	46.21	58.88	59.79
	공학계열	42.66	46.57	50.40	52.78	46.45	49.18	57.00	57.24
	자연계열	41.98	46.29	50.69	53.59	45.86	47.10	58.71	59.06
	의학계열	41.28	45.55	50.40	50.48	47.14	48.35	56.95	52.86
	예체능계열	45.41	47.40	52.13	52.55	47.73	49.90	57.95	58.00
	기타	43.12	48.02	50.81	52.51	46.99	50.53	58.52	57.88
	무응답	41.79	46.56	51.50	53.92	46.52	53.18	57.22	61.03
평균비교 (ANOVA)		1.340	0.515	0.614	1.560	1.153	1.946 *	0.567	4.149 ***
수강동기	창업관심	46.29	50.32	54.66	57.90	46.50	50.53	61.24	60.74
	학점이수	41.34	45.37	50.01	51.32	46.41	48.29	56.75	56.22
	주위추천	44.22	48.11	50.67	53.54	46.56	50.32	56.95	58.10
	기타	44.57	46.34	49.74	50.27	48.41	50.41	51.72	54.88
	무응답	43.61	47.29	49.77	51.13	45.20	50.91	60.28	57.66
평균비교 (ANOVA)		9.775 ***	8.891 ***	8.013 ***	16.348 ***	0.371	2.155 *	10.975 ***	7.985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의 사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2학년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2.61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예체능 계열이 사후 기준 54.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과 학년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 계열이 사후 기준 57.25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성별과 학년별, 전공별, 수강동기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83.30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수강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수강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창업에 관심이 있어 강좌를 수강한 응답자가 사후 기준 64.7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공동 창업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학년별 사전 및 사후 집단을 제외한 전체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학년을 기재한 응답자 중 2학년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1.91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전공을 기재한 응답자 중 상경 계열이 사후 기준 53.2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39]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응답자 특성별 차원 평가(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공동 창업 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55.30	57.03	67.55	65.70	73.83	68.26	61.23	62.14
성별	남성	48.51	51.71	56.99	56.97	59.24	58.45	51.21	53.61
	여성	50.42	51.44	52.45	52.59	56.75	54.64	48.42	49.21
	무응답	52.23	52.31	56.67	54.02	52.30	54.02	49.45	52.30
평균비교 (ANOVA)		3.087 **	0.078	16.131 ***	16.061 ***	5.523 ***	11.646 ***	5.038 ***	13.741 ***
학년별	1학년	50.55	52.31	53.06	53.58	56.39	54.90	49.86	51.68
	2학년	51.36	52.61	55.34	54.64	57.76	57.12	50.08	51.91
	3학년	46.67	50.61	57.36	57.19	61.22	59.21	49.27	51.48
	4학년	44.72	48.24	54.89	55.68	58.17	56.75	49.46	50.41
	석사과정	25.00	33.35	50.00	33.35	33.35	33.35	41.65	50.00
	박사과정	33.30	50.00	33.30	50.00	83.30	83.30	50.00	50.00
	석박사통합	50.00	50.00	66.70	83.30	66.70	83.30	50.00	33.30
	무응답	52.88	53.45	56.59	55.38	60.00	57.53	51.01	51.23
평균비교 (ANOVA)		6.370 ***	2.578 **	2.347 **	2.023 **	2.977 ***	2.750 ***	0.163	0.275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49.10	51.60	55.28	55.75	57.71	57.30	49.08	51.90
	상경계열	48.29	49.19	59.19	57.25	61.27	60.07	53.62	53.28
	공학계열	47.50	51.08	54.18	54.56	57.80	56.41	51.57	51.92
	자연계열	52.44	53.09	56.39	56.25	59.97	59.12	49.19	52.96
	의학계열	47.19	49.61	48.49	49.22	51.65	50.56	46.63	47.15
	예체능계열	52.02	54.28	57.38	56.88	61.56	58.59	50.93	52.80
	기타	53.66	52.99	55.43	54.70	58.44	55.72	47.42	51.33
	무응답	52.24	53.18	55.47	55.39	59.71	55.15	50.01	47.30
평균비교 (ANOVA)		4.585 ***	2.051 **	6.665 ***	4.850 ***	6.471 ***	5.933 ***	2.986 ***	2.692 ***
수강동기	창업관심	54.64	55.84	65.71	63.27	67.68	64.73	55.50	56.64
	학점이수	47.81	49.98	51.28	51.78	54.90	53.46	47.91	49.58
	주위추천	48.65	52.44	52.68	55.74	57.07	59.28	49.67	54.17
	기타	46.82	50.81	49.47	51.76	51.59	53.12	45.77	48.92
	무응답	49.77	50.00	56.17	52.51	57.99	54.50	53.43	46.17
평균비교 (ANOVA)		13.302 ***	10.283 ***	62.932 ***	41.558 ***	47.453 ***	38.531 ***	14.354 ***	14.452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현 창업환경 수준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 및 석박사통합 집단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학계열이 4.2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현재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이 16.6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자연계열이 2.8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중국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해 인지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과 석박사통합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 계열이 3.5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이 8.3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상경계열이 0.9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40]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응답자 특성별 차원 효과(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현 창업환경 수준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중국대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체	7.47	2.59	1.21	1.70
성별	남성	4.47	3.46	3.58	0.24
	여성	3.44	0.31	1.64	-0.80
	무응답	3.04	-2.33	0.50	-1.34
학년별	1학년	3.40	0.62	2.28	-0.71
	2학년	3.75	2.27	2.14	-0.25
	3학년	5.23	2.92	2.56	0.33
	4학년	4.63	2.75	3.95	0.74
	석사과정	-25.05	-41.70	0.00	8.35
	박사과정	16.70	16.60	16.70	-16.70
	석박사통합	16.70	0.00	16.70	0.00
	무응답	3.88	3.67	3.65	-1.55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4.24	2.41	3.09	0.06
	상경계열	3.55	2.13	2.83	0.91
	공학계열	3.91	2.38	2.73	0.24
	자연계열	4.31	2.89	1.24	0.34
	의학계열	4.27	0.08	1.21	-4.09
	예체능계열	1.99	0.42	2.17	0.05
	기타	4.91	1.71	3.55	-0.65
	무응답	4.77	2.42	6.66	3.81
수강동기	창업관심	4.03	3.24	4.03	-0.49
	학점이수	4.03	1.31	1.87	-0.52
	주위추천	3.89	2.87	3.75	1.14
	기타	1.77	0.54	2.00	3.16
	무응답	3.69	1.36	5.71	-2.62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학계열이 3.5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향후 자녀의 창업과 관련된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박사과정이 16.7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의학계열이 0.7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

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박사통합 집단이 16.60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체 전공 모두 하락한 값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공동 창업과 관련된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종합/차원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학년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석사과정이 8.3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전공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계열이 3.9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표 III-41]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응답자 특성별 차원 효과(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공동 창업 인식
	전체	1.72	-1.85	-5.57	0.91
성별	남성	3.21	-0.02	-0.79	2.40
	여성	1.01	0.14	-2.11	0.79
	무응답	0.08	-2.64	1.72	2.85
학년별	1학년	1.76	0.52	-1.49	1.82
	2학년	1.25	-0.69	-0.64	1.83
	3학년	3.94	-0.17	-2.01	2.21
	4학년	3.52	0.79	-1.42	0.96
	석사과정	8.35	-16.65	0.00	8.35
	박사과정	16.70	16.70	0.00	0.00
	석박사통합	0.00	16.60	16.60	-16.70
	무응답	0.57	-1.21	-2.47	0.22
전공별	인문/사회/교육계열	2.50	0.47	-0.42	2.82
	상경계열	0.91	-1.94	-1.19	-0.34
	공학계열	3.57	0.38	-1.39	0.35
	자연계열	0.65	-0.14	-0.85	3.77
	의학계열	2.42	0.73	-1.09	0.52
	예체능계열	2.27	-0.50	-2.97	1.88
	기타	-0.67	-0.73	-2.73	3.91
	무응답	0.95	-0.08	-4.56	-2.70
수강동기	창업관심	1.20	-2.43	-2.94	1.13
	학점이수	2.16	0.50	-1.43	1.67
	주위추천	3.78	3.06	2.21	4.50
	기타	3.99	2.29	1.53	3.15
	무응답	0.22	-3.65	-3.49	-7.25

④ 창업동기/관심분야별 차원 평가 및 효과

- 현 창업환경 수준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6.1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2.39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현재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장이 되기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5.77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7.94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중국 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4.42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8.7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2.59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5.07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42]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 - 창업동기/관심별 차원 평가(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현 창업환경 수준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중국대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2.86	46.82	51.13	53.01	46.49	49.10	57.69	57.42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44.60	47.55	53.56	54.15	46.49	49.36	58.21	58.32
	수입 증대 위해	42.24	46.58	49.97	52.13	45.87	48.62	57.30	56.72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41.85	46.26	50.98	53.70	46.80	49.49	59.45	58.59
	사회공헌 위해	48.27	56.12	56.60	56.12	54.16	54.42	64.59	62.59
	사장이 되기 위해	43.66	50.00	49.38	55.77	46.14	53.13	57.22	59.65
	기업승계 위해	46.20	44.00	46.20	50.00	44.69	54.00	59.09	57.99
	기타	39.15	46.87	48.95	51.83	46.82	47.40	50.26	53.38
	무응답	41.43	43.97	48.63	49.41	46.83	46.11	53.39	52.83
평균비교 (ANOVA)		2.896 ***	2.587 **	3.912 ***	1.549	1.373	1.718	3.523 ***	1.959 *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40.13	45.05	47.87	50.44	45.96	48.59	53.94	54.50
	제조업	45.10	47.87	53.08	54.67	46.36	47.18	59.24	57.87
	도매/소매업	44.96	51.39	51.74	55.17	45.05	48.83	59.74	58.80
	운수업	47.36	52.39	44.74	57.94	54.38	58.73	60.54	65.07
	숙박/음식점업	41.99	46.16	50.48	52.45	46.45	48.21	59.49	58.19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43.57	46.73	54.06	55.76	48.00	50.12	60.11	58.43
	금융/보험업	41.90	46.58	56.20	50.43	49.05	40.17	60.01	57.26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42.32	43.83	51.98	55.71	44.10	49.63	61.24	60.13
	교육서비스업	44.70	50.76	53.73	55.49	46.47	53.60	57.26	60.80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47.31	46.48	55.21	51.76	49.16	50.32	62.11	58.80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45.31	47.74	54.16	54.09	46.69	51.22	59.21	59.71
	농업임업/어업	36.54	48.76	47.44	57.40	50.00	51.24	53.84	56.79
	기타	44.41	50.12	50.48	54.46	44.52	48.47	55.60	57.51
	무응답	43.43	47.08	50.67	51.88	47.90	47.10	53.45	53.65
평균비교 (ANOVA)		3.639 ***	2.708 ***	4.576 ***	2.766 ***	1.177	1.999 **	5.282 ***	2.916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승계를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0.54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7.9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장이 되기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2.5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기타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9.93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65.33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운수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64.17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 공동 창업 인식 정도의 응답자 특성별 분석 결과 창업계획 동기와 창업관심 분야의 사전 및 사후 집단 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계획 동기를 기재한 응답자 중 사회 공헌을 위해 창업을 계획하는 집단의 평균이 사후 기준 59.18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의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값이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창업관심 분야를 기재한 응답자 중 농업임업어업 관련서비스업에 관심이 있는 집단의 평균값은 사후 기준 59.26점으로 전체 학년 중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43]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 - 창업동기/관심별 차원 평가(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공동 창업 인식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사전	사후
전체		49.47	51.58	54.79	54.83	57.97	56.58	49.84	51.48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50.60	52.61	58.74	57.81	61.01	58.95	52.47	54.36
	수입 증대 위해	48.38	51.14	52.68	53.27	56.78	55.33	49.42	51.06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50.00	51.49	55.51	55.16	59.20	56.44	49.78	49.96
	사회공헌 위해	56.25	60.54	68.41	62.58	63.19	67.69	58.34	59.18
	사장이 되기 위해	51.87	56.26	53.98	57.90	55.10	60.15	45.15	54.76
	기업승계 위해	65.15	52.66	53.80	55.33	68.17	65.33	49.24	52.08
	기타	44.18	46.88	48.15	51.04	54.77	51.04	44.44	48.44
	무응답	46.01	47.35	47.38	48.06	49.64	50.65	45.18	45.59
평균비교 (ANOVA)		4.036 ***	3.059 ***	9.744 ***	4.999 ***	4.538 ***	5.707 ***	3.833 ***	3.967 ***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43.47	47.43	43.89	47.37	48.00	48.85	43.22	46.72
	제조업	48.74	50.67	60.08	57.20	62.71	58.13	56.31	56.19
	도매/소매업	53.88	54.55	60.97	59.11	63.78	62.66	52.64	55.25
	운수업	50.88	57.93	60.53	61.90	67.54	64.17	59.64	51.59
	숙박/음식점업	52.28	53.40	58.50	57.08	63.74	59.69	51.21	51.99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50.13	53.15	62.28	59.46	64.85	60.97	54.68	54.43
	금융/보험업	55.24	53.84	58.10	55.56	57.15	55.98	47.62	46.58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50.10	50.93	59.18	57.00	61.80	58.47	56.65	54.15
	교육서비스업	52.95	53.98	56.47	57.58	58.83	58.34	46.08	51.32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54.38	53.10	59.01	55.38	59.42	58.18	54.97	51.97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50.90	53.83	59.16	59.12	61.40	59.75	52.23	54.09
	농업임업/어업	49.99	53.20	53.85	56.17	58.97	56.17	44.23	59.26
	기타	51.67	52.58	55.12	56.93	56.79	57.51	48.34	52.58
	무응답	50.48	50.84	52.79	52.43	53.45	55.05	48.56	50.19
평균비교 (ANOVA)		7.742 ***	3.945 ***	26.448 ***	12.412 ***	22.659 ***	12.754 ***	9.748 ***	5.017 ***

P-Value(유의수준): *** p<0.001 / ** p<0.01 / * p<0.05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현 창업환경 수준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회공헌을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7.86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임업/어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2.2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6.39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수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3.2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중국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가업 승계를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9.3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교육서비스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7.1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타 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2.4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였으나 수입 증대를 위해,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사회공헌을 위해, 가업 승계를 위해 등의 항목은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수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4.53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였으나, 다수의 항목들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효과성이 미미한 것으로 보임.

[표 Ⅲ-4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 - 창업동기/관심별 차원 효과(1)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현 창업환경 수준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현재대비)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중국대비)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전체	3.96	1.89	2.61	-0.27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2.95	0.59	2.87	0.10
	수입 증대 위해	4.34	2.16	2.74	-0.58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4.41	2.72	2.69	-0.86
	사회공헌 위해	7.86	-0.48	0.26	-2.00
	사장이 되기 위해	6.34	6.39	6.99	2.43
	가업승계 위해	-2.19	3.79	9.31	-1.10
	기타	7.72	2.88	0.57	3.12
	무응답	2.54	0.79	-0.72	-0.56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4.93	2.57	2.62	0.56
	제조업	2.77	1.59	0.82	-1.37
	도매/소매업	6.43	3.43	3.79	-0.94
	운수업	5.02	13.21	4.35	4.53
	숙박/음식점업	4.17	1.97	1.76	-1.30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	3.16	1.70	2.12	-1.69
	금융/보험업	4.68	-5.77	-8.89	-2.74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1.50	3.73	5.53	-1.11
	교육서비스업	6.06	1.76	7.13	3.54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0.83	-3.45	1.15	-3.31
	예술스포츠/여가관련서비스업	2.43	-0.07	4.53	0.51
	농업임업/어업	12.22	9.97	1.24	2.95
	기타	5.71	3.98	3.95	1.92
	무응답	3.65	1.22	-0.81	0.20

○ 창업강좌 수강 이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다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4.40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가업 승계를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의 경우 12.49점 하락한 값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운수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7.0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의 경우 1.27점, 출판영상방송통신/정보서비스의 경우 3.02점 하락한 값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3.9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수입 증대를 위해,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사회공헌을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은 하락한 값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3.47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다수의 항목들의 경우 하락한 값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5.05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다수의 항목들의 경우 하락한 값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창업의사가 없다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0.84점, 기타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0.72점 상승하고, 나머지 항목들의 경우 하락한 값을 보임.

- 창업강좌 수강 이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에 대한 창업동기/관심분야별 효과성을 검증한 결과 대체적으로 사전보다 사후의 평균값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창업계획 동기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사장이 되기 위해라고 응답한 집단이 약 9.61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임.
 - 창업관심 분야별 비교 분석을 실시한 결과 농업임업/어업이라고 응답한 사람의 평균이 약 15.02점 상승하여 가장 높은 효과성을 보인데 반면 다수의 항목들의 경우 하락한 값을 보임.

[표 Ⅲ-4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기업가인식) - 창업동기/관심별 차원 효과(2)

n: 3,282명 기준, 단위: 점

구분	내용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자녀의 창업 관련 인식	향후 부모님의 창업 관련 인식	공동 창업 인식
	전체	2.11	0.04	-1.39	1.64
창업계획 동기	자아실현 위해	2.02	-0.93	-2.06	1.89
	수입 증대 위해	2.76	0.59	-1.45	1.64
	직장생활의 자유를 위해	1.49	-0.35	-2.75	0.18
	사회공헌 위해	4.29	-5.82	4.49	0.84
	사장이 되기 위해	4.40	3.92	5.05	9.61
	기업승계 위해	-12.49	1.53	-2.84	2.84
	기타	2.70	2.90	-3.72	4.00
	무응답	1.34	0.67	1.00	0.41
창업관심 분야	창업의사없음	3.95	3.47	0.84	3.50
	제조업	1.93	-2.88	-4.58	-0.12
	도매/소매업	0.68	-1.87	-1.12	2.61
	운수업	7.05	1.37	-3.37	-8.06
	숙박/음식점업	1.11	-1.42	-4.05	0.77
	출판영상방송통신 /정보서비스	3.02	-2.83	-3.88	-0.25
	금융/보험업	-1.39	-2.54	-1.17	-1.04
	전문과학/ 기술서비스업	0.83	-2.18	-3.33	-2.50
	교육서비스업	1.03	1.10	-0.49	5.24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1.27	-3.63	-1.24	-3.00
	예술스포츠 /여가관련서비스업	2.93	-0.04	-1.65	1.86
	농업임업/어업	3.21	2.32	-2.80	15.02
	기타	0.92	1.81	0.72	4.25
	무응답	0.36	-0.36	1.61	1.62

3 항목별 효과성 분석결과(동일집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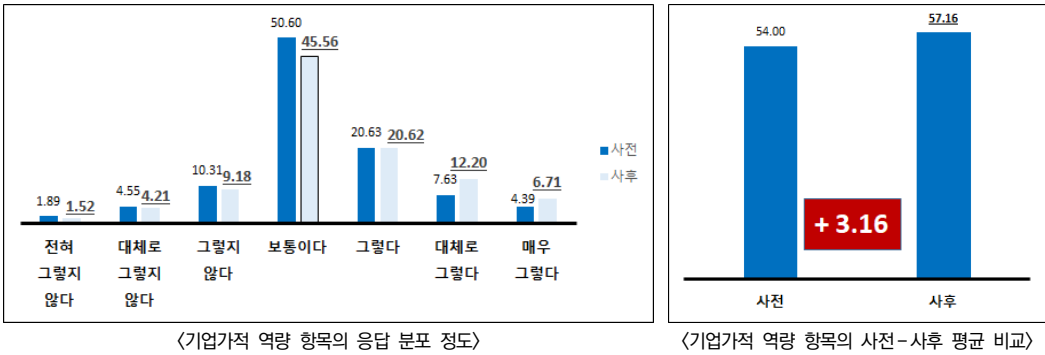
1) 기업가적 역량

①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역량 중 복잡한 문제에 대한 창의적 해결 능력은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3.16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6]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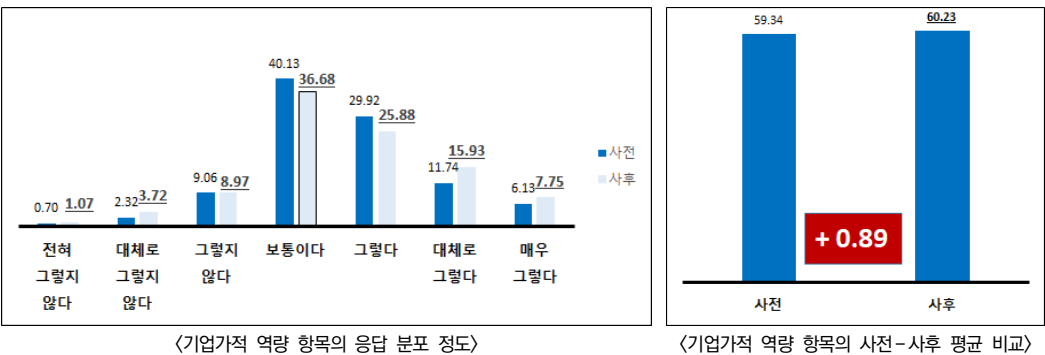


②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역량 중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내재한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0.8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7]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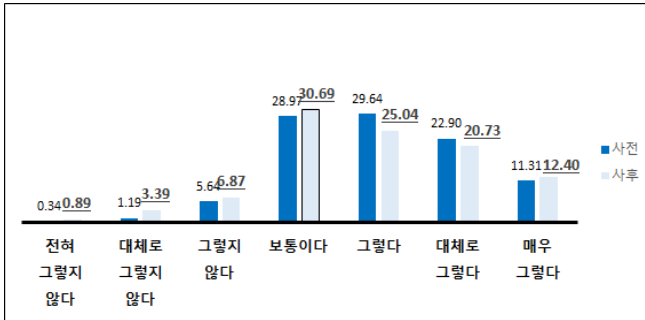


③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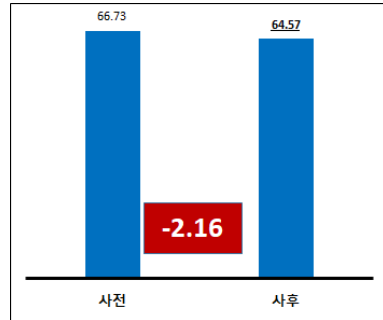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역량 중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2.16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8]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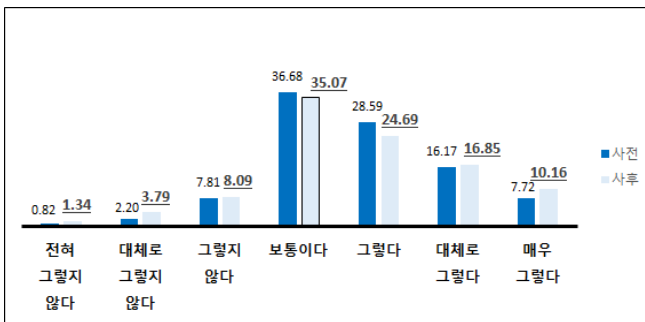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④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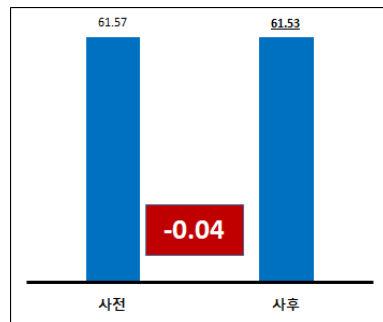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역량 중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0.04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9]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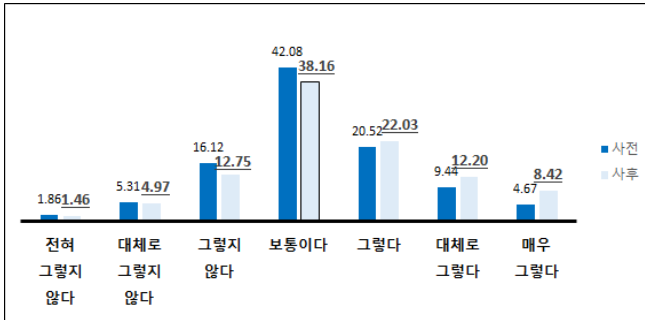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⑤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이 익숙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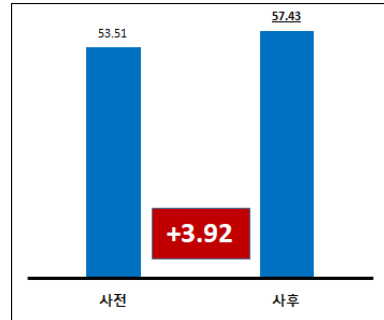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역량 중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을 내재한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3.9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 10]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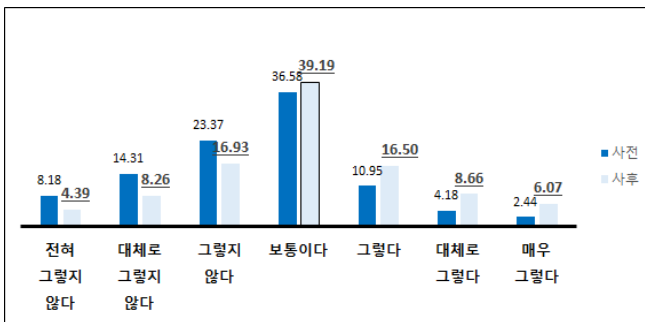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⑥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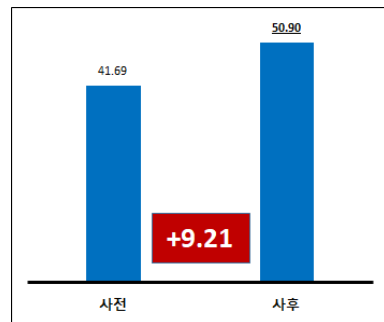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역량 중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보유한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9.2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 11]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역량)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기업가적 역량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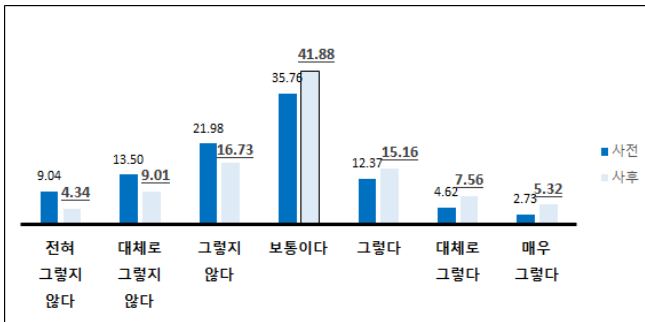
2) 기업가적 태도

① 나의 주변에는 창업 준비 및 시작이 가능한 풍부한 기회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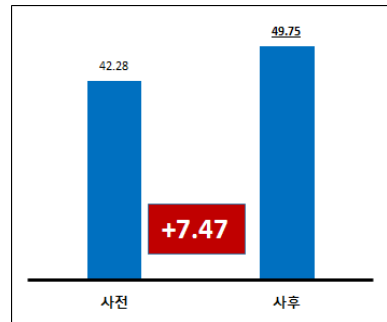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창업 준비 및 시작에 대한 기회를 주위에서 인지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7.47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2]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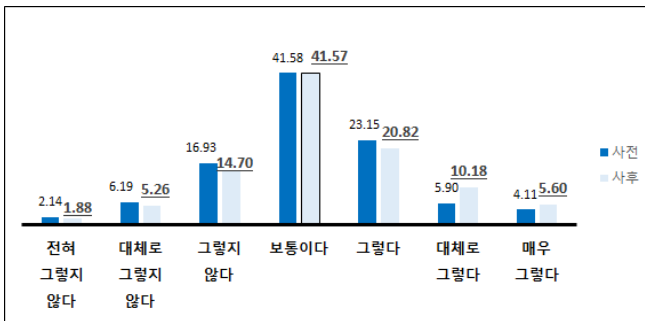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②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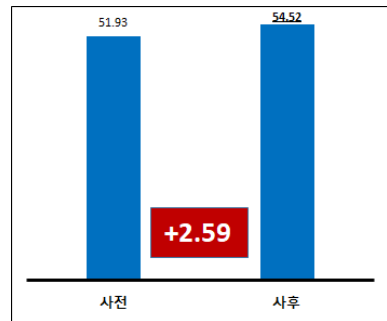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2.5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3]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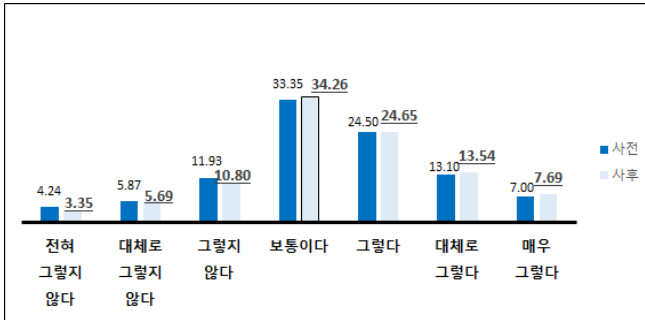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③ 실패의 두려움이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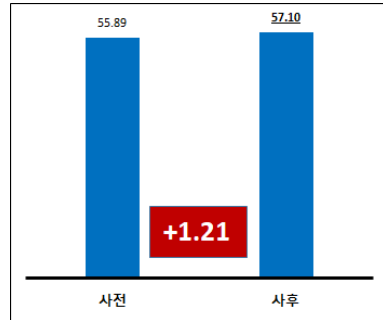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실패의 두려움으로 인한 사업의 망설임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1.2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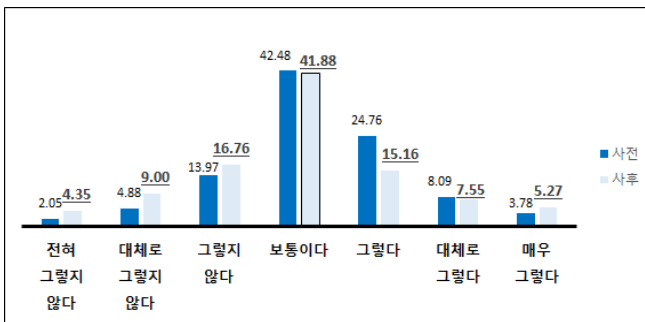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④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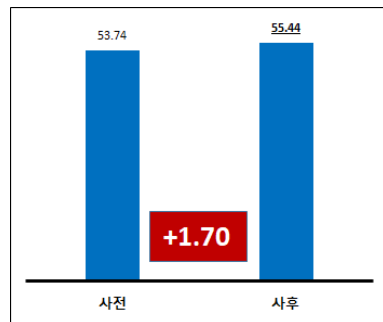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1.70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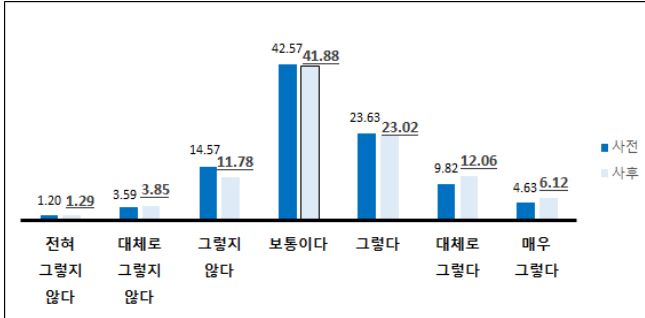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⑤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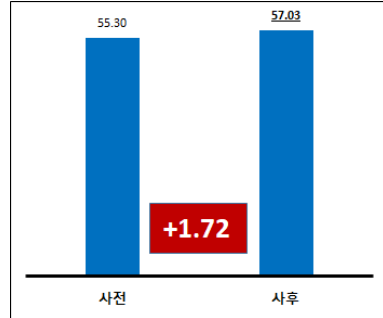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1.7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6]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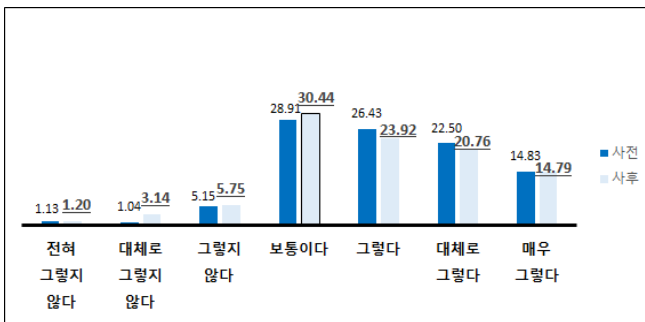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⑥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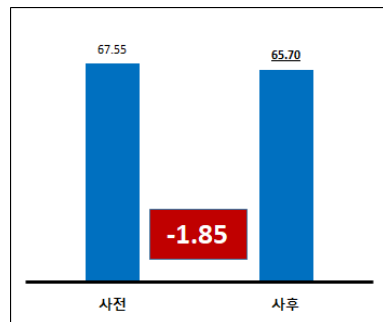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1.85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7]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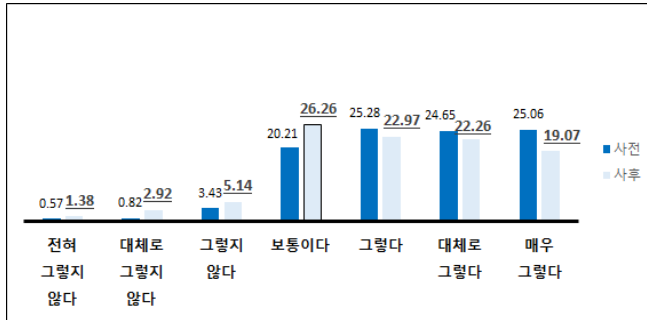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⑦ 창업도 훌륭한 진로 혹은 경력 중 하나라고 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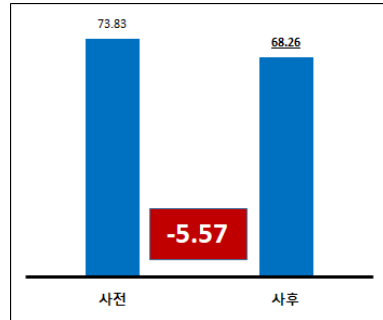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창업이 훌륭한 진로 혹은 경력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5.57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8]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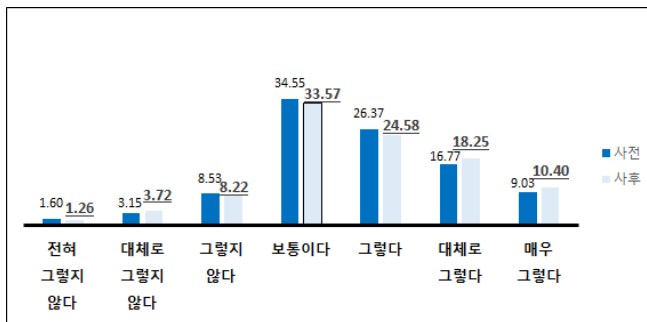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⑧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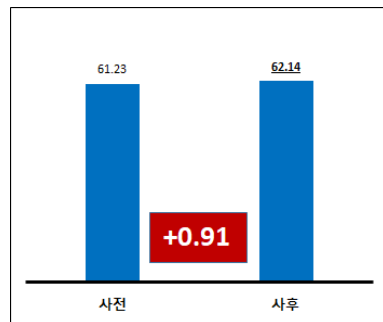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스토리를 접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0.9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9]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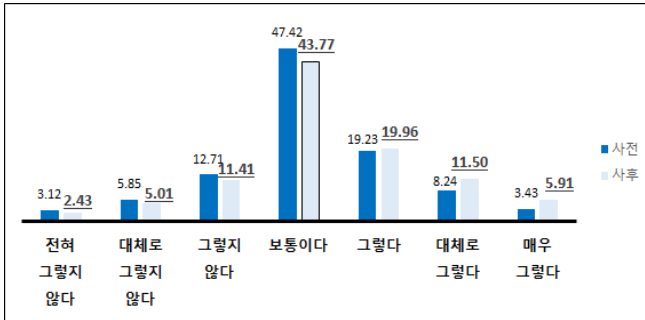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⑨ 우리 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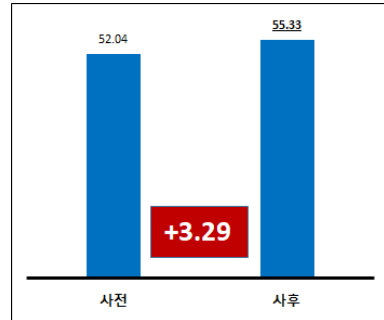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우리 사회가 창업 등의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3.2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0]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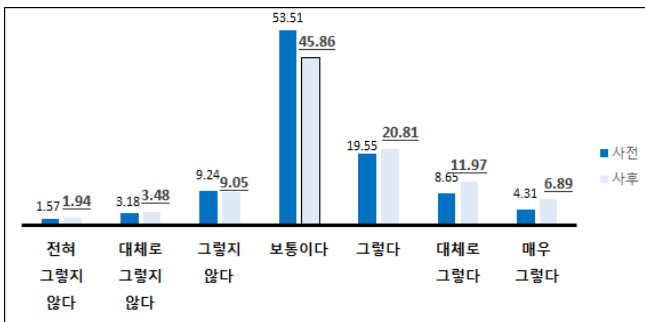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⑩ 주변의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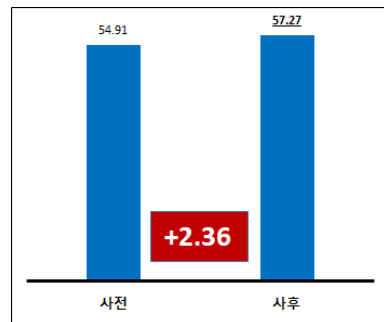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태도 중 주변의 사람들이 기업가적 활동에 대해 생각하는 중요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2.36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1]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태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기업가적 태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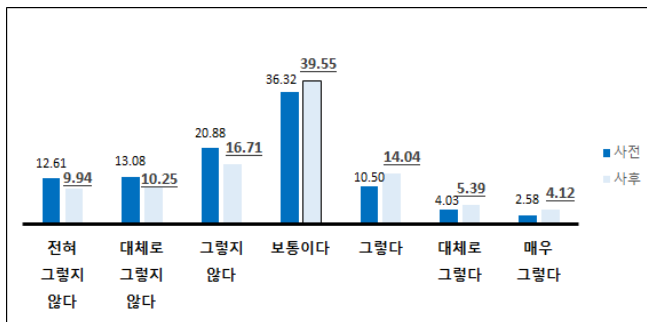
3) 기업가적 의도

①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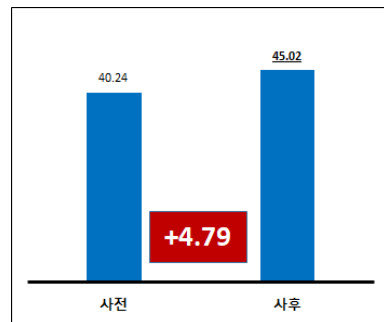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의도 중 새로운 사업을 준비가 되어 있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4.7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2]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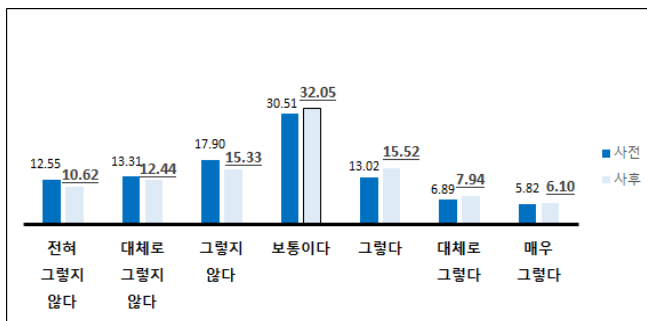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②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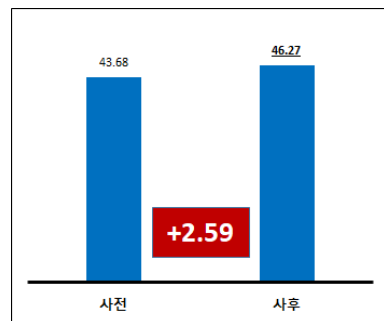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의도 중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2.5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3]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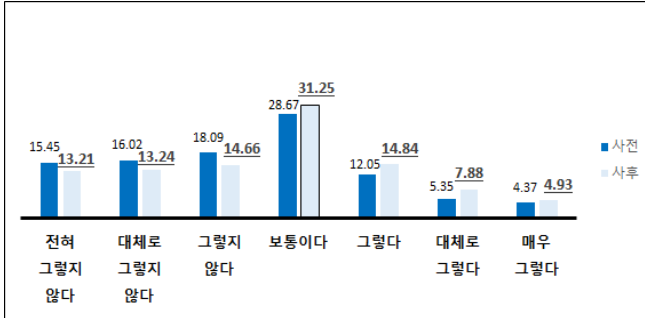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③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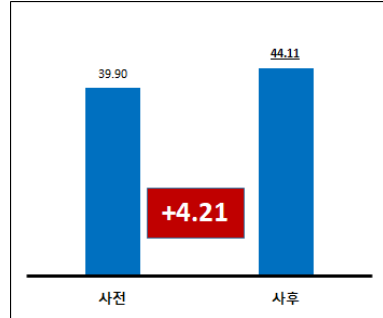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의도 중 졸업 후 창업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4.2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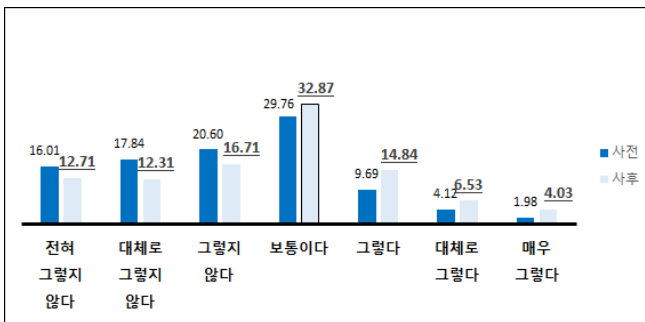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④ 나는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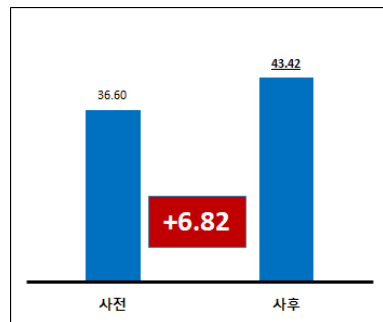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의도 중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6.82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5]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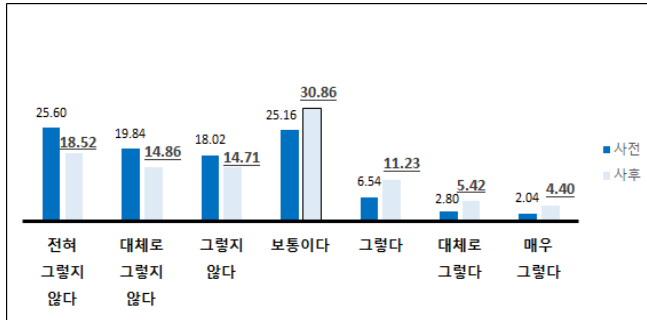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⑤ 나는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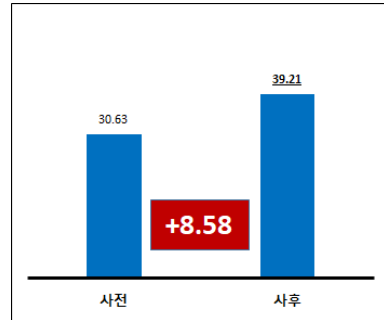
- 창업교육의 기업가적 의도 중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8.58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6]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기업가적 의도)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기업가적 의도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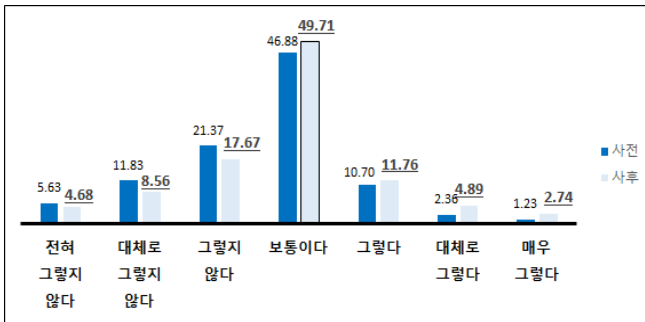
4) 창업환경/기업가인식

① 현재의 창업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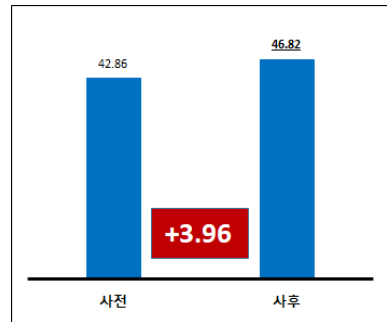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창업환경에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3.96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7]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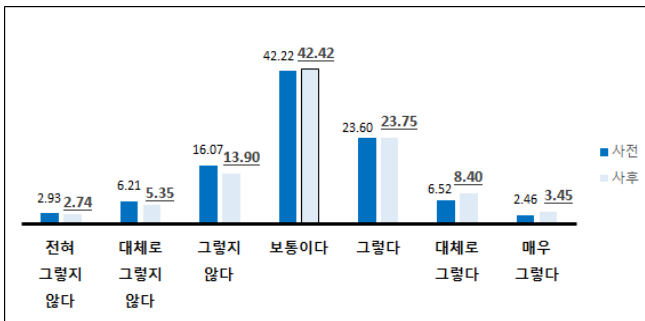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②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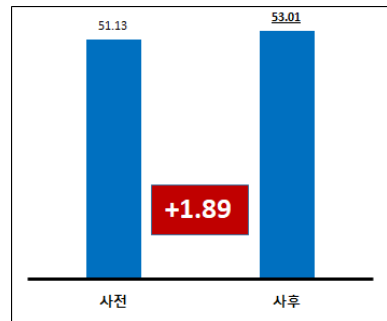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한국의 창업환경이 현재에 비해 긍정적으로 변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1.89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8]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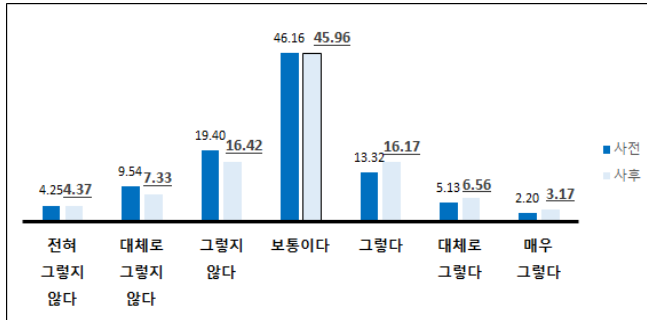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③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중국에 비해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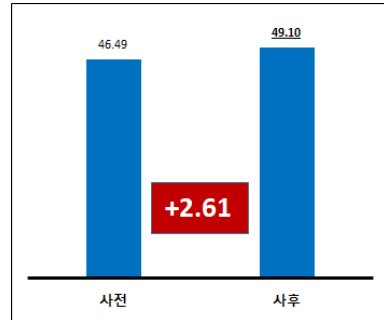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한국의 창업환경이 중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2.6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9]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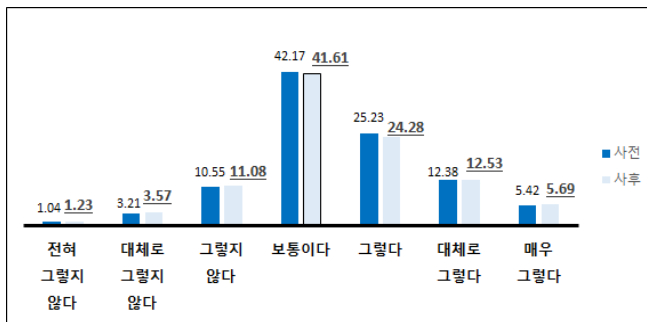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④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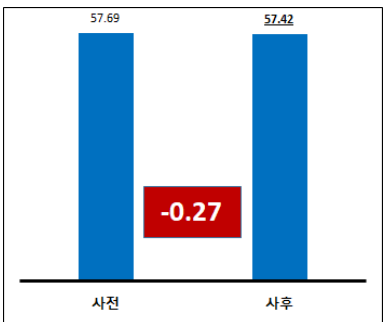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0.27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0]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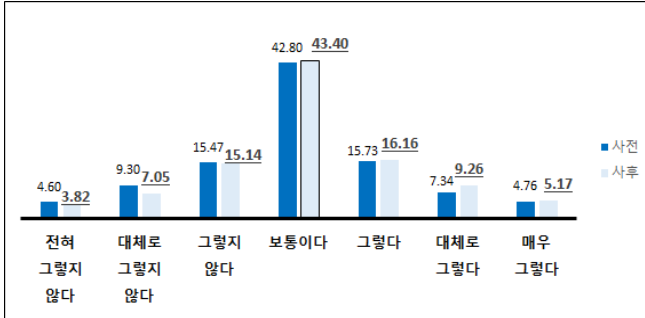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⑤ 귀하의 부모님은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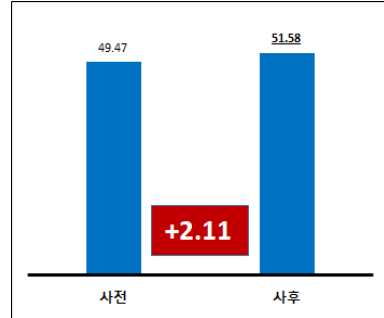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부모님의 창업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2.11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1]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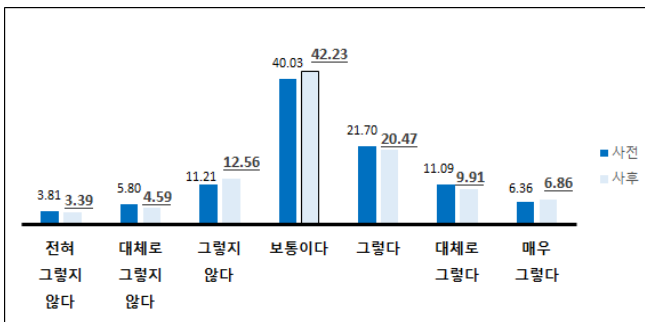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⑥ 만약 귀하의 자녀가 창업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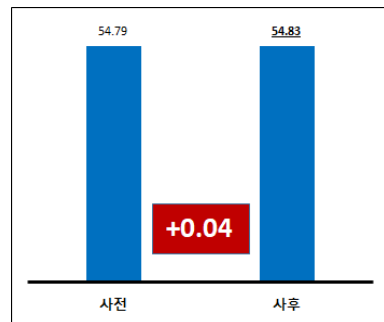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향후 자녀가 창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0.04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2]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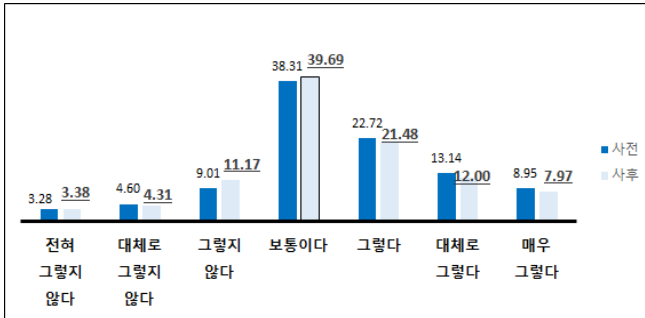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⑦ 만약 귀하의 부모님이 창업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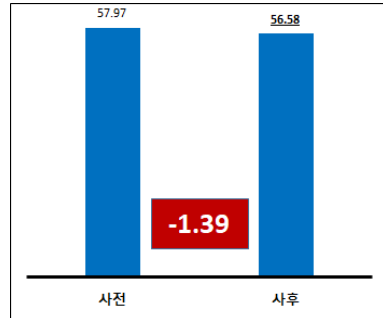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향후 부모님이 창업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생각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1.39점 낮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3]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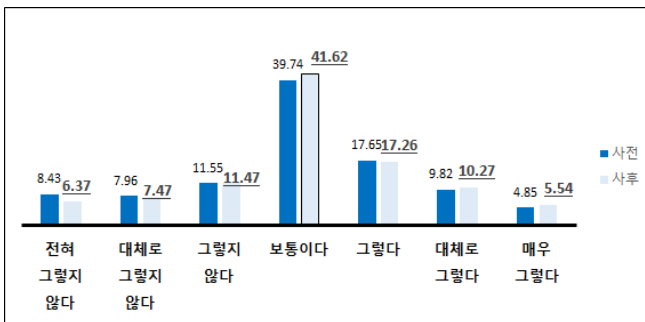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⑧ 공동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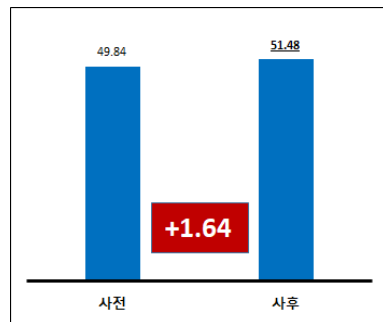
- 창업환경/기업가인식 중 공동창업에 대해 생각하는 정도는 강좌 수강 전보다 강좌 후 1.64점 높아진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4] 사전 및 사후 동일집단(창업환경/의지) - 항목별 효과

n: 3,282명 기준, 단위: %, 점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응답 분포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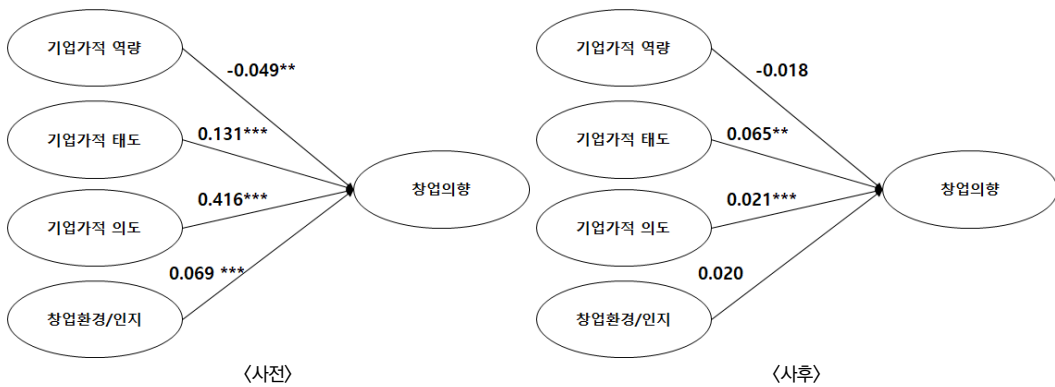
<창업환경/의지 항목의 사전-사후 평균 비교>

4 창업강좌 영향력

- 창업강좌 영향력은 사전 및 사후의 효과성 조사 설문문항으로 분석하였으며, 기업가적 역량, 기업가적 태도, 기업가적 인식, 창업환경/인지 항목을 기반으로 창업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실시함.
- 사전의 경우 25.8%의 설명력을 보이며 기업가적 역량, 태도, 의도 및 창업환경/기업가인식이 높아질 수록 창업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기업가적 역량의 경우 부(-)의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제시됨.
- 사후의 경우 13.5%의 설명력을 보이며 기업가적 태도 및 기업가적 의도요인이 창업의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35] 창업강좌 영향력 분석결과 - 사전/사후

n: 3,282명 기준



[표 III-46] 창업강좌 영향력 분석결과 - 통합

n: 3,282명 기준

모형		비표준화 계수		표준화 계수	t	유의확률
		B	표준오차	베타		
사전	(상수)	12.058	2.081		5.793	.000
	기업가적 역량	-.082	.033	-.049	-2.442	.015
	기업가적 태도	.275	.045	.131	6.118	.000
	기업가적 의도	.463	.021	.416	22.146	.000
	창업환경/의지	.127	.033	.069	3.826	.000
사후	(상수)	26.559	1.762		15.071	.000
	기업가적 역량	-.025	.032	-.018	-.780	.436
	기업가적 태도	.105	.041	.065	2.535	.011
	기업가적 의도	.337	.021	.326	15.711	.000
	창업환경/의지	.032	.034	.020	.936	.350

부록_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은 대학 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창업강좌에 대한 효과성을 조사하는 설문입니다. 아래의 질문에 대하여 평소에 생각하고 느끼는 점을 솔직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응답한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는 일절 사용되지 않습니다.

2018. 9(1회), 2018. 12(2회)

문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02-2156-2296 / education@koef.or.kr)

「통계응답자의 의무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비밀의 보호)

- ① 통계의 작성과정에서 알려진 사항으로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보호되어야 한다.
- ②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의 비밀에 속하는 자료는 통계작성 외에 목적으로는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A1. 학교명		A2. 학번	
A3. 과목명		A4. 과목유형	교양강좌 전공강좌
A5. 연락처		A6. 이메일	

B1. 성 별	남성	여성	B2. 학년	학년 석사과정 ⑥ 박사과정 ⑦ 석박통합과정
B3. 전공 (1개만 선택)	인문 사회 교육계열	상경계열	공학계열	자연계열 의학계열 예체능계열 기타
B4. 수강 동기 (복수 선택 가능)	창업 관심 주위 추천	학점 이수 기타	B5. 창업강좌 수강경험	회 회 회 회 이상 없음 이번학기에 수강한 창업강좌 제외
B6. 창업관련 활동 경험 여부	창업동아리 기타	창업캠프	경진대회	B7. 향후 창업할 의사 전혀 없다 있다
B8.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주된 동기				
자아실현 자신의 소질 계발과 이상 실현을 위해 더 많은 수입 소득을 위해 직장생활에서 더 많은 독립성과 자유를 가지기 위해 사회에 공헌 기여 하기 위해 시장이 되기 위해 ⑥ 기업승계를 위해 ⑦ 기타				
B9. 관심 있는 창업 분야				
창업할 의사 없음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도매 소매 부품 판매 및 중개업 운수업 숙박 및 음식점업 숙박업 음식점 주점업 ⑥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 방송 통신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정보서비스업 ⑦ 금융 및 보험업 ⑧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연구개발 전문서비스 과학 및 서비스업 ⑨ 교육 서비스업 ⑩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농업 임업 및 어업 기타				

C.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역량 향상 여부

문 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나는 복잡한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는 능력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나는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주위 사람들과 지속적이고 협력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아이디어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는 방법에 익숙하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나는 사업을 시작할 기술과 지식을 가지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D.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태도 함양 여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나의 주변에는 창업 준비 및 시작에 풍부한 기회가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나는 항상 새로운 방식으로 일하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새로운 사업을 망설이게 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새로운 도전이나 기회에 따른 위험을 감수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남들보다 새로운 기회를 먼저 찾아내고자 노력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나는 창업한 선배들을 존경하고 높게 평가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창업도 훌륭한 진로(혹은 경력)의 하나라고 본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나는 공공매체를 통해 성공적인 창업 스토리를 종종 접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⑨ 우리사회는 창업 등 기업가적 활동을 장려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⑩ 주변의 사람들은 기업가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 창업교육을 통한 기업가적 의도 생성 여부

문항	전혀 그렇지 않다	↔		보통이다	↔		매우 그렇다
① 나는 새로운 사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나의 직업적 목표는 성공한 창업가가 되는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나는 졸업 후 창업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나는 창업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데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나는 가까운 시일 내 창업을 할 생각이 있고 준비하고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F. 창업환경 및 기업가에 대한 인식

문항	매우 나쁘다	↔		보통이다	↔		매우 좋다
① 현재의 창업환경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② 향후 한국의 창업환경이 현재에 비해 어떻게 변할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③ 우리나라 창업환경이 중국에 비해 어떠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④ 귀하가 생각하는 창업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⑤ 귀하의 부모님은 창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⑥ 만약 귀하의 자녀가 창업을 한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⑦ 만약 귀하의 부모님이 창업을 하신다면 어떨 것 같으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공동창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